

##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30年과 對中國 投資 10년의 特徵\*

The Directly Foreign Investment for 30 Years Versus  
Investment in China of Korea

金 桂 來\*\*

### 目 次

I. 序 論	III. 對中國直接投資 10년의 立晷
II. 韓國企業 海外直接投資 30년의 立晷	1. 韓國企業의 對中直接投資 立晷
1. 乘種別 立晷의 特徵	2. 對中直接投資의 特徵
2. 地域別 立晷의 特徵	IV. 對中直接投資의 課題
3. 海外直接投資의 類型과 形態別 特徵	1. 對中直接投資上의 課題
4. 經營成果	2. 企業經營上의 課題
	V. 要約 및 結論

### I. 序 論

세계경제는 상품의 수출입 뿐만 아니라 海外에서의 생산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활동으로 국가간 국경개념이 사라지는 글로벌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해외시장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 예로는 1996년 중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5년전 1991년에 비해 2배가 늘어난 3,490억달러에 달하며 같은 기간 중 세계 경제 및 무역 성장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1968년 인도네시아에 (주)南方개발이고 森林개발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 해 1억달러 수준에 머물던 해외직접투자가 1996년에는 40억달러를 넘고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던 해인 1997년 32.5억달러로 하락했으나, 외화사정이 다소 회복되던 1998년에는 37.8억달러로 다시 상승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 지역, 업종,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한

\* 본 논문은 1999년 7월 21~27일 中國 長春에서 개최된 第6回 韓·中經營史學 國際學術 심포지움에서 發表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忠北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형태를 띠고 있다.

1970년대 초기에는 임업, 제조업, 무역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추진되었으며 당시는 자본유출의 우려로 정부가 가급적 해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86년 이후부터는 국제수지의 흑자로 인한 원貨 가치 상승, 주요 국가로부터 통상압력 등에 대처하고 국내기업들의 임금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였다.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1994년 2월 투자간소화, 투자제한업종 축소,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1995년 10월에는 투자제한업종 대폭 축소, 투자허가절차 간소화 확대, 자기자금 조달비율 설정 등 해외투자 자유화 확대와 전실화 방안이 마련되었고, 1996년 6월 모든 업종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하였으며, 1997년 5월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해외투자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자기자금 조달비율을 폐지하여 기업들의 자유로운 해외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韓國기업의 해외투자전략이 생산비 절감에서, 신시장 개척, 기술습득 등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한다는 목표로 전환되면서 종래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1994년 이후는 대기업들이 그들의 주력산업인 자본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시켰다.

이같은 기업들의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단기적 측면에서는 해외투자는 자본의 유출입을 부인할 수 없고 주력사업의 해외이전은 국내산업의 空洞化를 초래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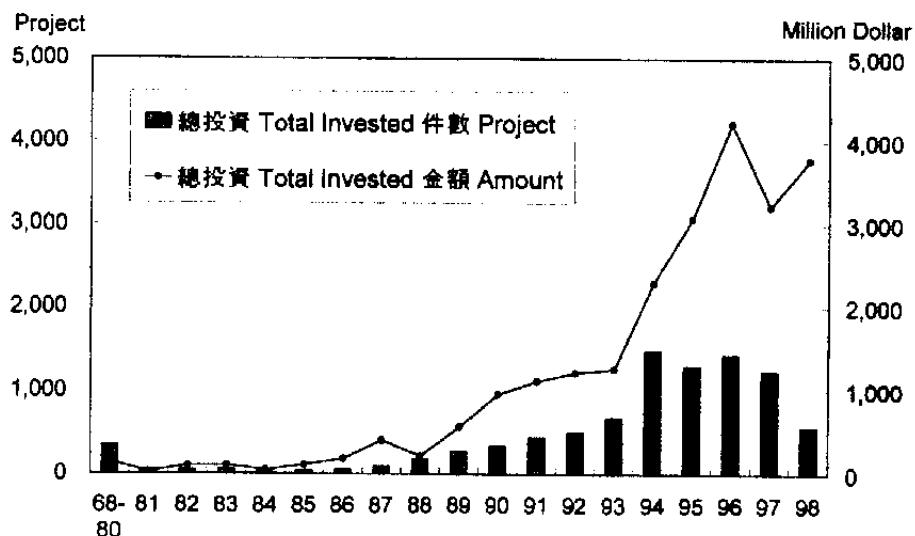
따라서 기업 발전 차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외직접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1992년 8월 한·중 국교수립 이후 한국기업의 對中國 해외직접투자가 두드러졌고 미국 다음으로 제2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난 30여년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문헌 및 제2차 자료의 시계열분석으로 그 특징과 성과를 논구하고 그 중 특히 제2의 투자대상국인 中國에의 지난 10년간의 海外直接投資의 分析을 통하여 對中直接投資의 특징과 과제를 찾아보고 아울러 한국 해외직접투자 속의 대중투자가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상과 같은 究明으로 한국경제가 하루 빨리 IMF 관리체제하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가 되고자 한다.

## II. 韓國企業 海外直接投資 30年의 흐름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에 의한 흐름을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1~93년 중에는 신장세가 현저히 둔화되어 실행기준으로

연간 12억달러 내외에 머물렀다. 1994년부터 다시 확대되어 1996년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말 현재 해외직접투자 실행잔액은 203.1억달러인데 이것은 한국의 전체 대외자산의 약 16%에 해당한다.



出處：全國銀行聯合會，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1998, 1999年度

〈圖 1〉 年度別 海外直接投資 積累(殘額基準)

〈表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積累

(單位 : 億弗, %)

	1986~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總投資	4.7 (74.1)	11.2 (16.3)	12.2 (9.2)	12.6 (3.6)	23.0 (82.1)	30.7 (33.4)	41.3 (34.8)	32.5 (-21.3)	37.8 (16.3)
總許可	7.5 (53.1)	15.1 (-6.2)	12.1 (-20.2)	18.8 (55.5)	35.8 (90.9)	49.1 (37.2)	60.8 (23.7)	79.0 (29.9)	84.1 (6.4)
投資 殘額	23.0	33.3	44.3	54.4	74.7	102.2	137.1	167.9	203.1
GDP 對比(%)	-	1.1	1.4	1.6	1.9	2.1	2.6	3.5	6.3
對外資產對比(%)	6.4	8.7	10.0	10.4	11.1	11.7	13.2	13.9	15.6

주 : ( ) 내는 전기대비 증가율,

1986~90은 기간 중 연평균 기준, 단 투자 및 허가잔액은 기말기준.

出處：韓國銀行，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各年度。

全國銀行聯合會，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1998, 1999年度。

### 1. 業種別 흐름의 特徵

한국기업의 투자업종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임업(기타에 포함)부문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들어 광업부문의 투자비중이 급속히 상승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제조업 및 무역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98년말 현재 순투자기준에 의한 금액기준으로 제조업 52.2%, 무역업 23.2%, 광업 5.6%의 3개 업종이 전체 투자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투자 급증은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생산성 저하, 노사분규의 격화 등과 대외적으로는 원화절상,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세계경제의 불록화 등에 대응한 기업들의 자구책과 정부의 대폭적인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에 기인한 것이다.

〈表 2〉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計(純投資)

(單位 : 百萬弗, %)

業種	1968~80	1981~89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殘額
鑄業	1.5 (1.1)	405.9 (16.7)	39.4 (4.8)	54.5 (5.4)	25.5 (0.9)	205.1 (5.7)	198.5 (6.7)	74.0 (2.1)	1,180.2 (5.8)
製造業	24.2 (19.0)	1,012.2 (41.6)	460.1 (56.6)	487.8 (48.0)	1,865.5 (67.3)	1,727.7 (48.3)	1,265.3 (42.4)	1,583.5 (45.0)	10,599.8 (52.2)
貿易業	27.6 (21.7)	162.4 (6.7)	228.3 (28.1)	379.8 (37.4)	232.2 (8.4)	836.9 (23.4)	429.0 (14.4)	1,470.9 (41.8)	4,719.3 (23.2)
其 他	73.8 (58.1)	851.2 (35.0)	84.9 (10.4)	93.9 (9.2)	645.0 (23.4)	810.0 (22.6)	1,088.8 (36.5)	392.8 (11.2)	3,814.0 (18.8)
計	127.1 (100.0)	2,431.7 (100.0)	812.7 (100.0)	1,016.0 (100.0)	2,759.3 (100.0)	3,579.7 (100.0)	2,981.6 (100.0)	3,521.1 (100.0)	20,313.3 (100.0)

注 : ( ) 내는 구성비

出處 : 韓國銀行,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各年度

全國銀行聯合會,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1998, 1999年度

한편 1973년 미원(주)의 인도네시아 조미료 합작투자를 표시로 한 한국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1988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8년말 현재 순투자기준으로 5,597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1988년 이후 제조업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취해졌고 국내의 인건비 상승, 원화절상 등으로 국내기업들이 전략적 대안으로 해외진출을 선택한 데 기인한다. 제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잔액 현황을 보면,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업종의 투자잔액 비중이 1990년말 26.4%에서 1998년말에는 50.0%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중 섬유 및 의복, 1차금속, 석유

및 화학 업종은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 이는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투자형태가 사양산업 위주에서 일부 주력산업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lt;表 3&gt;

製造業種別 海外直接投資 残額 構成比 호름

(單位 : 百萬弗, %)

業 種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纖維·衣服	150.3 (14.2)	379.3 (13.8)	730.1 (12.1)	949.9 (12.2)	1,075 (12.3)	1,158.4 (10.9)
靴·皮	49.6 (4.7)	128.7 (4.7)	271.9 (4.5)	321.9 (4.1)	345.1 (4.0)	356.4 (3.4)
石油·化學	129.1 (12.2)	313.2 (11.4)	531.9 (8.8)	655.5 (8.5)	729.8 (8.4)	886.6 (8.4)
1次金屬	247.8 (23.3)	410.1 (14.9)	546.0 (9.1)	703.0 (9.1)	913.5 (10.5)	967.9 (9.1)
組立金屬 ·機械裝備	279.9 (26.4)	826.2 (30.1)	2,660.3 (44.2)	3,449.2 (44.8)	3,892.7 (44.6)	5296.7 (50.0)
其 他	204.7 (19.3)	691.2 (25.1)	1,273.0 (21.2)	1,623.5 (21.0)	1763.4 (20.2)	1932.2 (18.2)
計	1,061.4 (100.0)	2,748.7 (100.0)	6,013.2 (100.0)	7,698.0 (100.0)	8,719.5 (100.0)	10,598.2 (100.0)

注 : 기타에는 음식료품, 목재, 가구, 종이, 인쇄, 비금속 등의 업종을 포함.

出處 : 韓國銀行,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各年度.

全國銀行聯合會,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1998, 1999年度.

## 2. 地域別 호름의 特徵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순투자잔액기준에 의해 지역별로 보면 1970년대에는 對동남아투자가 임업 및 광업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80년대에는 시장확보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철강, 전기·전자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對북미 투자가 급속히 늘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과 유럽에 대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북미지역이 28.4%, 동남아지역이 43.7%를 차지하였다.

&lt;表 4&gt;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残額 構成比 흐름

(單位 : 百萬弗, %)

지 역	1968~80	1981~89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동 남 아 · 중 국	40.0 (31.5)	396.7 (26.7)	714.9 (30.6) 22.1	2,190.5 (69.3) 474.6	4,573.7 (44.7) 1,886.3	6,040.1 (44.0) 2662.6	7,435.6 (45.1) 3281.4	8,885.3 (43.7) 3895.8
중 동	21.1 (16.6)	128.5 (8.6)	56.1 (2.4)	89.1 (1.6)	102.7 (1.0)	125.4 (0.9)	195.4 (1.2)	201.1 (1.0)
구 주	4.9 (3.9)	56.7 (3.8)	151.8 (6.5)	566.6 (10.2)	1,544.4 (15.1)	2,090.3 (15.2)	2,481.6 (15.1)	3,510.8 (17.3)
북 미 · 미국	31.0 (24.4)	683.3 (46.0)	1,150.4 (47.3)	2,192.3 (39.3)	3,152.1 (30.8)	4,318.1 (31.4)	4,755.9 (28.9)	5,759.4 (28.4)
중 남 미	4.4 (3.5)	85.6 (5.8)	121.1 (5.2)	217.6 (3.9)	336.5 (3.3)	554.5 (4.0)	820.1 (5.0)	1,006.4 (5.0)
아프리카	24.0 (18.9)	21.0 (1.4)	45.2 (6.0)	117.4 (3.7)	265.9 (2.6)	273.8 (1.9)	361.3 (2.2)	443.9 (2.2)
대 양 주	1.6 (1.2)	115.2 (7.7)	141.3 (6.0)	204.4 (3.7)	249.3 (2.4)	312.1 (2.2)	387.0 (2.4)	506.3 (2.5)
계	127.0 (100.0)	1,487.0 (100.0)	2,335.7 (100.0)	5,578.0 (100.0)	10,224.7 (100.0)	13,714.4 (100.0)	16,436.9 (100.0)	20,313.3 (100.0)

注 : ( ) 내는 구성비.

出處 : 韓國銀行,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各年度

全國銀行聯合會,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1998, 1999年度

<表 5>에서 보듯이 한국 기업들이 중기적(4~5년)으로 유망하게 꿈고 있는 투자대상국으로는 중국이 전체의 23.7%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 11.7%, 인도 5.7%, 인도네시아 5.3%, 미국 3.7% 등으로 나타났다. 10대 투자 유망지역 중에는 아시아 국가가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비아시아권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멕시코가 선정되었다. 특히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NAFTA 발표 이후 멕시코시장의 확대와 멕시코를 통한 미국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러시아의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3. 海外直接投資의 類型과 形態別 特徵

#### 1) 海外直接投資類型 : 輸出指向型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보완적인가 또는 대체적인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여러 기관

〈表 5〉

韓國과 日本 企業의 投資 邊好地域

順 位	韓 國	日 本
1位	中國	중 국
2位	베트남	베트남
3位	인 도	태 국
4位	인도네시아	미 국
5位	美 國	인도네시아
6位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7位	러시아	인 도
8位	필리핀	멕시코
9位	멕시코	싱가포르
10位	방글라데시	대만, 필리핀

出處 : 韓國輸出入銀行, 海外直接投資 設問調査 結果, 1997.

東洋經濟新聞社, 海外投資と 日本經濟, 1996.

OECD, *Recent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7.

에서 추정한 바 있으며 추정 결과의 대부분은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유발효과가 크며,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및 비금속광물에서 수출증대가 뚜렷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또한 1995년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실적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전체 수출에 대한 彙力度를 실증연구한 결과<sup>2)</sup>도 0.019로 추정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들의 추정결과는 對개도국 투자의 수출탄력도가 0.373으로 높은 반면 對선진국 투자의 탄력도는 -0.054로 負의 관계이나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추정(1997)<sup>3)</sup>에서도 對개도국 및 對선진국 輸出物量函數의 해외직접투자 추정계수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및 부(-)의 값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요약해 보면 해외직접투자는 對개도국 투자에서 輸出誘發效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지산업의 미발달로 해외생산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의 본국 조달비중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對선진국 투자는 주로 현지시장판

1)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4-16, 1994. 12.

2) 김원태 등, 해외투자의 요인, 영향 및 정책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996. 9.

3)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5월호

매, 무역장벽회피 등을 위한 것이어서 현지생산이 국내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이 해외에 이전됨으로써 국내 생산 및 고용이 감소된다 는 產業空洞化의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직까지 한국 해외직접 투자가 국내의 산업공동화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한국의 해외생산 비율<sup>4)</sup>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 2) 企業規模 : 大企業의 投資 擴大

최근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두드러진 특징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1993년 73.7%에서 1998에는 91.6%로 상승하였으며 건당 투자규모도 1993년 160만달러에서 1998년에는 685만달러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기지 이전형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대형 장치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表 6〉 企業規模別 海外直接投資 比重  
(單位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大企業	83.3 (42.5)	81.7 (34.3)	79.3 (25.8)	73.7 (19.6)	75.7 (17.1)	78.2 (20.2)	80.7 (16.7)	80.0 (16.5)	91.6 (18.7)
中小企業	16.5 (54.6)	17.9 (63.7)	20.6 (73.6)	26.1 (79.5)	23.5 (77.7)	19.9 (71.1)	17.2 (58.2)	16.5 (60.0)	7.0 (53.7)
個人 · 個人事業者	0.5 (2.9)	0.9 (2.0)	0.3 (0.6)	0.3 (0.9)	1.3 (5.2)	4.5 (8.7)	6.3 (25.1)	3.5 (23.6)	1.4 (27.6)

注 : 총투자기준, ( )내는 건수기준

出處 : 韓國銀行,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各年度

全國銀行聯合會,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1998, 1999年度

## 3) 海外直接投資 形態 : 單獨投資型

자본참여 형태면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100% 단독투자 형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비율 50%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들이 경영권 확보한 투자잔액의 비중

4) 한국의 해외생산비율은 1.5%(1990년)로 미국의 25.2%(1995년), 독일 21.3%(1993년), 그리고 일본의 10.0%(1994)에 비해 현저히 낮음.

5) 재정경제원, 경제백서, 1997.

은 80%를 상회한다.

한편,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형태로는 단독투자가 선호되고 있으나 진출업종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진출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 진출을 통한 기술습득 및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M&A에 의한 해외기업매수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199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해외기업매수 붐은 기업간 경쟁을 글로벌화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M&A형 직접투자는 신규설립 투자에 비하여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유통망, 상품의 인지도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외국의 적자기업을 인수한 경우 경영정상화를 초기에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과 인수프레미엄을 지불함에 따른 국내 모기업의 부실화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전자의 맥스터 인수, 삼성전자의 AST 인수, LG전자의 제니스 전 모두 득실을 따지면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7〉 **投資比率別 海外直接投資 残額 比重** (單位 : %)

投資比率	1968~80	1981~89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0%未満	8.9	2.3	3.3	2.3	3.7	3.4	5.5	2.7
20~49%	21.6	14.0	9.1	9.5	9.9	10.1	13.5	8.6
50%	14.4	12.1	12.6	8.7	6.8	5.8	4.1	6.4
51~99%	17.3	10.4	15.3	18.4	24.2	25.7	32.3	20.9
100%	37.8	61.3	59.7	61.0	55.5	55.0	44.6	61.4

出處 : 韓國銀行,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各年度

全國銀行聯合會, 海外直接投資 統計年報, 1998, 1999年度

#### 4) 投資動機 : 低資金과 市場開拓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현지시장개척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

〈表 8〉 **海外直接投資 動期 變化** (單位 : %)

	1987	1994
現地의 低資金 活用	25.0	24.1
輸入規制 回避	25.0	8.7
現地市場 開拓	12.5	34.5
原資材 調達	—	8.7
先進技術 經營技法 習得	6.3	5.2
部品, 半製品 等 輸出誘發 效果	—	13.6
其 他	31.2	5.2

出處 : 상공부,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투자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분석, 1988.

통상산업부, 제1회 해외투자기업 실태조사보고 결과분석, 1995.

되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은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되며 기술, 경영, 브랜드 등 경쟁우위 요소를 보유하지 못하면서 해외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表 9〉 主要國 海外直接投資 比較(1995年 基準)  
(單位 : 億弗, %)

구 分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싱가포르	대 만
투자잔액	102	7,266	3,190	3,059	69	208
GNP 대비	2.3	10.0	28.5	6.0	10.0	8.5
총고정자본형성대비	1.8	7.7	22.7	1.5	9.2	6.3

注 : 싱가포르 및 대만은 1994년 기준.

出處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6.

IMF, IFS 각년호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이유는 대략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고비용구조의 해소, ② 산업주기상 더 이상 국내생산이 불가능해 진 경우, ③ 통상마찰 회피와 과세장벽 돌파, ④ 신시장 거점 확보 등이다. 한국기업들의 경우 우선 고비용 구조의 해소가 시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 고물류비 등 소위 4고로 불리우는 국내경영환경이 기업을 밖으로 몰아내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자가의 경우를 보면, 현대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을 건립키 위해 확보한 땅값은 평당 16달러이다. 이는 경기도 이천 반도체 공장부지 땅값에 비해 40분의 1수준이라고 한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사상 최대규모로 꼽히는 LG전자와 영국 웨일즈 전자단지 땅값은 불과 평당 5달러이다. 이에 비해 광주의 외국인 전용공단 땅값은 분양의 경우 평당 28만6천원이다<sup>6)</sup>.

#### 4. 經營成果

##### 1) 收益性과 成長性

한국 해외투자기업의 經營成果를 살펴보자. 해외투자기업의 收益性 추정은 한국산업연구원의 조사<sup>7)</sup> 결과 한국 해외투자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純利益率은 1995년 전산업 평균으로 0.3%에 그쳐 그다지 높지 않은 경영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부문 역시 평균 수익률이 0.5%로 국내기업들의 평균 수익률 2.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보다 해외직접투자 역사가 길고 해외투자활동이 활발한 일본의 경우 해외기업의

6) 매일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

7) 한국산업연구원, 1995년도 한국 해외투자기업의 경영실태조사, 1996.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994년 전산업 평균 0.4%, 제조업만은 0.7%임을 감안할 때 한국 해외투자사업의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의 역사가 일천하고 그 결과 해외기업의 영업 및 생산활동이 아직 正常軌道에 이르지 못하여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이 국내사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수익률만 가지고 해외투자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수익률 조사는 현지기업이 보고한 財務諸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수익 공개를 꺼리는 기업들의 불성실한 보고, 그리고 移轉價格 조정을 통한 僞裝赤字의 가능성 등으로 수익률이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lt;表 10&gt;

現地企業 業種別 賣出額 純利益率

(單位 : %)

	韓 國 (1995年)	日 本		
		1980	1990	1994
農林漁業	1.7(-0.4)	-2.1	-4.2	-0.4
鑄 葶	8.3(-4.5)	5.8	8.6	15.5
製 造 葶	0.5(2.8)	4.2	0.7	2.1
建 設 葶	3.9(0.6)	...	0.5	-7.7
都 小 賣	0.2(0.4)	0.5	0.3	0.2
全 體	0.3	1.2	0.4	0.9

注 : ( ) 안은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임.

出處 : 산업연구원, 실물경제, 제110호, 1997.

그러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영성과를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참조하여 보기로 한다<sup>8)</sup>.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련기업들이 자가 진단한 綜合評價는 수익성 2.69, 성장성 2.73을 기록하여 해외투자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영성과가 보통(3.00)보다 약간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2) 國際化(現地化)

국제화의 내용으로는 인적자원의 국제화, 원자재의 국제화, 시장의 국제화, 금융의 국제화, 기업문화의 국제화, 이익의 국제화, R&D의 국제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사업의 분야별 성과분석 설문조사, 1997,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요소는 수익성의 경우 투자액대비 當期純利益率, 성장성은 1990년대 이후 賣出額增加率로 하고 이 두 가지 항목에 관해 ①불충분, ②약간 불충분,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만족으로 분류하여 조사 항목별로 평점을 매기는 방법으로 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現地企業의 資金調達, 현지에서의 原·副資材 調達, 그리고 現地人 雇傭 등에 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해외투자 기업의 국제화(현지화) 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 ① 資金調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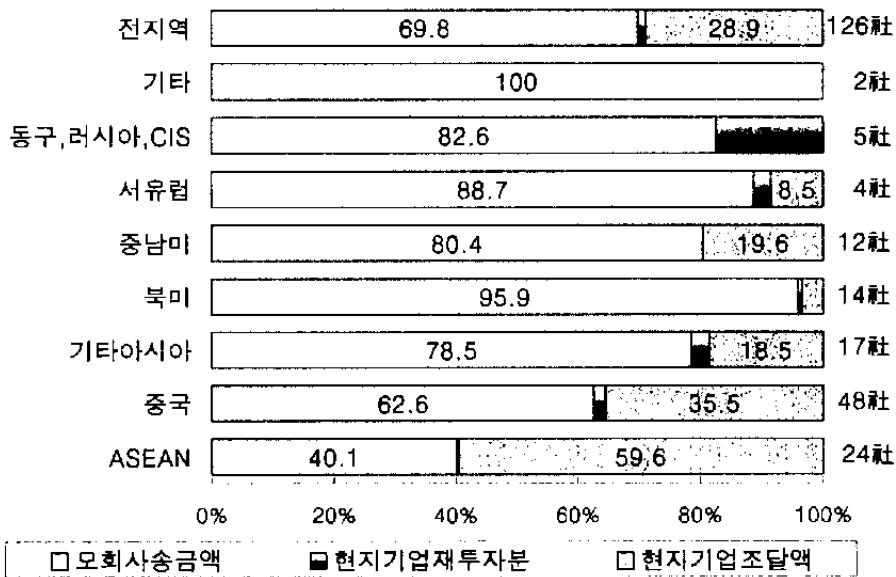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투자재원은 모회사 送金, 현지기업의 再投資, 현지기업의 조달<sup>9)</sup>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현지기업의 자금조달 내역을 <圖 2>에서 살펴보면 본사 송금이 69.8%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현지기업의 조달이 28.9%, 그리고 현지기업의 재투자는 1.4%로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기업의 모기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바, 일본의 경우는 1994년 기준으

<表 11> 海外直接投資 資金調達 内譜  
(單位 : %)

	本社送金分	現地再投資分	現地調達分
韓 國(1996年)	69.8	1.4	28.9
日 本(1994年)	41.1	34.8	24.1

出處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7. 1.

일본수출입은행, 1995년도 해외직접투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1996. 1.



出處 : 韓國輸出入銀行, 輸銀調查月報, 1997. 10.

<圖 2> 地域別 資金調達 内譜

9) 현지차입금이나 사채발행에 의한 조달을 의미함.

로 本社 送金分법이 41.1%, 現地 再投資分이 34.8%, 그리고 現地調達分이 24.1%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지기업의 재투자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 지역별로 재원조달 구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모회사 송금 비중이 40%로 낮은 반면, 북미의 경우 95.9%로 모회사 송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유럽의 경우도 모회사 송금이 8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진국에서의 金融의 現地化 정도가 개도국에 비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이 발달되고 금리조건도 유리한 선진국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이 오히려 낮은 것은 아직까지 한국 현지기업의 對外信認度가 현지 금융을 이용할 만큼 높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 ② 原·副資材 調達

한국 해외현지기업은 生產設備 및 原資材 調達에 있어 현지 의존도가 낮다. 1996년 해외투자사업 전체적으로 현지 조달비중은 27.0%,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25.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본의 경우 현지조달 비율이 1994년 59.4%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 서유럽 등 先進圈에서는 현지조달 비율이 높은 반면 중남미, 아세안지역, 동구, 구소지역 등 개도국권에서는 현지조달 비율이 낮다. 이는 개도국지역에 대한 투자의 상당부분이 원·부자재를 본국 또는 제3국에서 수입하고 현지에서 조립·기공한 후 제품을 수출하는 貨加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表 12〉

現地企業의 原·副資材 調達 比重

(單位 : %)

	現地調達	本社調達	第3國 輸入
製造業全體	25.3	64.0	10.7
輕工業	23.4	68.2	8.4
纖維衣服	24.3	68.7	7.0
雜製品	8.3	60.0	31.7
重化學工業	27.2	59.7	13.2
化學	32.6	59.2	8.2
1次金屬	36.2	52.6	11.2
組立金屬	22.7	63.3	14.0
機械裝備	37.0	49.5	13.4
大企業	33.4	47.3	19.2
中小企業	25.2	65.6	9.2

出處 : 韓國貿易協會, 1997年度 輸出產業實態調查, 1997. 6.

제조업 중에서는 중화학공업 업종(27.2%)이 경공업(23.4%)에 비해 현지 원자재 조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차금속과 기계·장비부문의 경우 현지조달 비중이 35%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경공업의 경우 국내에서의 遊休 生產設備 移轉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지조달 비중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현지 원자재 조달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선진권 그리고 중화학공업 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 ③ 人事의 國際化

現地企業의 從業員 構成을 보면 한국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의 비중은 1995년 기준으로 2.3%를 차지하였다. 현지기업에 파견되는 인원은 해외직접투자 초기에는 많고 점차 해외현지기업의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데다 현지인으로 교체되면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는 해외 파견자의 비중이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의 경우도 대부분의 산업과 지역에서 본국인력 비중이 한국보다 낮아(〈表13〉 참조), 한국의 人事의 現地化은 역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表 13〉

現地企業의 人力派遣比重

	韓 國 (1995年)	日 本	
		1980	1990
全體 (產業別)	2.3	2.1	2.3
礦業	13.0	1.1	1.7
製造業	1.9	1.0	1.4
建設業	11.7	...	7.5
貿易業	8.8	10.3	6.8
(地域別)			
東南亞	2.5	1.0	1.5
中國	2.2		
美國	4.9	6.3	3.3
歐洲	6.2	5.8	3.3
中南美	1.6	1.4	1.6

出處：대한상공회의소·산업연구원,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의 영업활동분석과 대응방향, 1997. 9.

본국에서 파견된 인력의 비중을 產業別로 보면 제조업이 1.9%로 낮은 반면 非제조업은 대체로 10%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地域別로는 아시아지역과 중남미지역에서는 본국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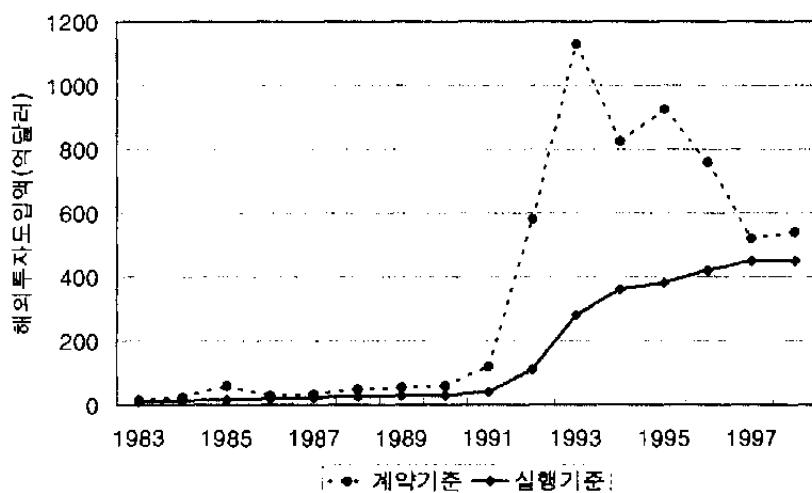
인력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미국, 서유럽, 중동 등의 지역은 5% 내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勞動集約的 產業의 경우 본국 직원의 현지파견 필요성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 III. 對中國直接投資 10년의 흐름

한국의 對中國 직접투자는 韓國기업들이 1978년 중국의 개방화정책에 따른 세계상 우대 등 투자환경개선으로 1988년 주식회사 진용이 廈門지역에 300만달러(US)를 투자한 것이 효시이며, 1992년 8월 韓中 국교정상화 이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1998년말 현재 잔존기준으로 38.95억달러로서 이는 미국에 이어 제2의 투자대상국이며, 반대로 중국으로서도 한국은 홍콩, 대만, 미국, 일본, EU에 이어 6번째 투자국이다.

對中國直接投資 流入 흐름을 보면 중국에 유입되는 直接投資는 선행지표인 신고기준으로 볼 때 1993년을 피크로 하강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순투자기준으로 보면 1992~95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996년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중국 전체 直接投資의 유입은 계약기준 521.32억달러(US), 실행기준 455.82억달러(US)로서 전년대비 2.21% 및 0.67% 증가하였다<sup>10)</sup>.



出處：MOFTEC,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1998.

〈圖 3〉 海外直接投資 流入 趨勢

10) 出處：日中投資促進機構, 北京事務所, 1999

1998년 경우는 미국, 캐나다(화교계 투자 증가), 유럽, 호주 등이 적극 진출한 반면 한국, 일본 기업들의 퇴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1. 韓國企業의 對中直接投資 趨向

한국의 對中國直接投資 통계는 1988년부터 집계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直接投資는 1992년 국교수립정상화 이후이며 그해 처음 1억달러 수준을 넘었다.

1991년 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은 ASEAN에 대한 투자가 현지사회간접자본 미비, 임금상승 등 투자여건의 악화로 감소한 반면 광대한 잠재적인 시장과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현지교포 노동력 활용의 용이함 등 중국의 투자환경이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表 14〉 韓國의 對中投資 推移 (單位 : 百萬弗)

구 분	對中투자			중국전체투자유입		
	투자건수	액 수		항목건수	액 수	
		신고기준	투자기준		계약기준	도착기준
1988	2	3	-	5,949	5,297	3,194
1989	12	9	6	5,779	5,600	3,392
1990	36	52	42	7,273	6,596	3,487
1991	111	81	42	12,978	11,977	4,366
1992	171	221.8	141.0	48,764	58,124	11,007
1993	376	622.0	262.0	83,764	111,436	27,515
1994	834	724.3	621.8	47,549	82,680	33,767
1995	731	1,072.5	808.6	37,011	91,282	37,521
1996	710	1,414.0	788.9	24,556	73,276	41,726
1997	599	792.0	607.5	21,001	51,004	45,257
1998	221	802.9	601.6	19,846	52,132	45,582
Total	3,803	5,794.5	3,921.4	314,470	549,404	256,814

出處 : 중국은 中國 對外經濟貿易年鑑, 한국은 1988~91년 재경부, 1992~93년 한국은행, 1994~1998년 및 Total은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름.

한국의 對中 투자의 피크는 1995~96년으로서 각각 8.08억달러, 7.89억달러에 달했다. 1997년 11월 한국 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갔지만 1997년에 이미 對中直接投資는 전체 直接投資의 비중 중 9.73%에 머물러 1996년 25.5% 비중에 비교하면 대단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모두 경제위기를 느끼며 투자를 축소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對中直接投資의 特徵

### 1) 地域별 特徵

對中投資 動機는 ① 地理的인 근접성, ② 在中조선인 밀집여부, ③ 在韓中國人的 연고, ④ 對북한 접촉의 지리적 이점 등 다양하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서<sup>11)</sup> 廣東省은 홍콩, 福建省은 대만, 上海지역은 미국·일본, 그리고 山東省은 한국 등으로 선정한 것도 한국기업들이 山東省을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의 對中國直接投資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진출 전체기업, 5대기업, 30대기업, 30대이외 기업 등 4가지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sup>12)</sup> 山東省지역의 한국기업 直接投資의 집중투자도는 절대적이라 한다. 그 깊은 한·중 항로개설(인천-위해)과 在韓中國인의 연고가 깊은 곳이 山東省이라는 점이다.

〈表 15〉 투자업체의 상위 5대 지역집중도

전체	5대 기업	30대 기업	30대 이외 기업
산동 28.55%	산동 23.71%	산동 20.88%	산동 33.61%
요녕 12.58%	천진 15.32%	상해 15.54%	요녕 14.86%
청진 11.53%	상해 13.85%	간조 14.78%	천진 11.04%
강소 11.29%	북경 1.36%	천진 12.31%	강소 9.01%
상해 8.46%	강소 9.18%	북경 10.95%	길림 6.65%
합계 72.41%	73.42%	75.17%	74.46%

出處 : 정영록, 이장규, 한국의 對中國 직접투자 평가와 시사점, 국제통상학회, 1999. 5.

둘째, 소규모업체 기업은 遼寧省과 吉林省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일수록 山東, 遼寧, 吉林의 비중이 높다. 이는 정보력, 인력, 자금력이 열세하기 때문이다.

넷째, 대기업일수록 5대 투자지역 집중도가 낮다.

지역별 특징은 발해만과 東北3省(吉林, 遼寧, 黑龍江)에 대한 투자가 對中國投資의 72.4%를 차지하고 투자집중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 2) 산업별 特徵

산업별 특징은 1998년 잔존투자기준으로 보면 총 38.95억달러 중 제조업이 31.65달러로

11) 정영록·이장규, 한국의 對中國 직접투자 평가와 시사점, 국제통상학회, 1999. 5., p. 116 참조.

12) 윗 논문 동일.

81.3%이며 기타가 5.13억달러로서,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對中直接投資는 첫째, 부동산 투자비중이 27.5%로 높다<sup>13)</sup>. 둘째, 기업규모에 따라 直接投資업종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5대기업은 기계, 장비 등 장치산업에 투자한 반면, 중소기업은 조립·금속, 섬유·의복, 신발, 가방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일수록 상위 5대 업종의 집중도가 높다.

대기업은 내수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OEM방식의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Buyer를 근거로 제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 수출제품 수명주기를 연장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表 16〉

5대 투자산업

	전체	5대 기업	30대 기업	중소기업
1위	부동산(27.8)	조립금속(35.8)	조립금속(28.3)	조립금속(18.4)
2위	조립금속(16.7)	기계·장비(14.2)	기계·장비(11.7)	섬유·의복(17.8)
3위	섬유·의복(8.6)	기타서비스(12.2)	기타서비스(9.8)	기타제조업(12.9)
4위	석유화학원료(6.4)	음식·숙박업(7.1)	1차금속(8.8)	석유·화학(9.9)
5위	기타제조업(6.3)	비금속(6.9)	부동산(6.6)	신발·가죽(7.8)
집중도	65.8	76.2	65.2	66.8

出處：상동

### 3) 소유별 특징

중국진출 기업은 지분율 50% 이상이 84.82%이며, 75% 이상만도 64.19%로 소유 지분에 높은 집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경쟁독점 의사를 반영하고 한편으로는 진출시장에 대한 정보나 이해도가 나지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산동지역이나 동북 3성지역의 진출을 선호하기도 한다.

〈表 17〉

중국투자업체의 지분분포

지분율(%)	전체	5대 기업	30대 기업	중소기업
0~25	2.37%	2.81%	2.47%	2.32%
26~50	12.81%	15.76%	14.00%	12.06%
51~75	20.63%	23.54%	26.44%	16.75%
76~100	64.19%	57.88%	57.09%	68.86%

出處：상동

#### 4) 규모별 특징

규모별로 보면 對中直接投資의 경우 중소기업은 250만달러 이하 규모의 투자가 전체 94.4%로 영세하고, 반면에 30대 기업의 直接投資 규모는 250만달러 미만이 43.9%이고 5,000만달러 이상도 대규모 투자 건수도 상당히 있다.

〈表 18〉

對中투자업체의 규모분포

(單位 : 百萬弗)

투자규모	전체	5대 기업	30대 기업	중소기업
- 2.5	91.7%	32.9%	43.9%	94.4%
2.5~5.0	4.2%	15.5%	17.3%	3.5%
5.0~10.0	2.5%	23.9%	18.1%	1.6%
10.0~15.0	0.5%	7.1%	6.3%	0.2%
15.0~25.0	0.5%	6.5%	5.2%	0.2%
25.0~50.0	0.4%	11.0%	6.6%	0.1%
50.0~100.0	0.2%	3.2%	2.6%	0.0%

出處 : 상동

#### 5) 對中國投資成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영성과를 자기진단한 경영성과분석을 보면<sup>14)</sup> 경영성과지수 보통을 3.0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수익성에서 2.768이었고 성장성에서는 3.540이었다. 90년대 최대투자국인 중국에의 直接投資가 이익면에는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 했지만 잠재성을 인정,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直接投資와 中國經濟發展의 貢獻

한국의 對中直接投資는 구조조정 가속화, 대외무역 수지흑자 기여, 총고정자산 참여,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表 19〉에서 보는 바에 같이 對中國 수출의 경우 한국 直接投資와 관련된 상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對中國 수출의 상위 10개 품목은 한국 전체 對中 수출의 81.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97개 품목 중 10개 품목이 80% 이상의 교역을 하고 있다. 소수의 제품이 對中시장을 독점공략하는 높은 집중도를 나타낸다.

반면 對中수입의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의 집중도가 對中수출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75.3%를 기록하고 있다. 즉 수입은 수출에 비해 다양한 제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수입품중 가장 큼 비중은 HS85 분류인 전기기계 및 장치류로 나타나며, 이는 1차적으로 중국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사업의 분야별 성과분석 설문조사, 1997.

〈表 19〉 對中주력수출 및 수입상품 전체비중 기준 상위 10개 품목

순위	수 출 품		수 입 품	
	품 목 명	비중	품 목 명	비중
1	HS 39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17.2	HS 85 전기기계 및 장치류	22.3
2	HS 85 전기기계 및 장치류	14.1	HS 27 무기연료, 석유 및 종류물	17.3
3	HS 72 철 및 강	8.2	HS 72 철 및 강	6.2
4	HS 84 원자력반응기, 보일러	7.0	HS 10 곡물	5.8
5	HS 27 무기연료, 석유 및 종류물	6.9	HS 62 기타의복류	5.3
6	HS 54 인조방직섬유	6.6	HS 55 인조섬유	5.2
7	HS 29 유기화학물	5.7	HS 86 기차 및 전차의 기관차 등	4.7
8	HS 55 인조섬유	5.2	HS 61 닉트, 크로세 뜨개 의복류	3.3
9	HS 48 종이, 판지, 종이 및 판지제품	5.2	HS 84 원자력 반응기, 보일러	2.6
10	HS 41 천연파혁류	4.9	HS 29 유기화학물	2.6
집중도	81.0%		75.3%	

出處：상동

내의 수출산업을 중심으로한 내수시장이 상당한 이점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對中 진출기업의 buyback도 있음을 반영한다.

중국의 경우 直接投資 유입은 연간 국내 총고정자산 형성의 15%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中直接投資는 1998년 4.0%, 1997년 4.7%였던 점에 비추어 중국의 총고정자산 형성의 0.0~0.7%에 이르고 있다<sup>15)</sup>.

고용창출의 경우는 한국기업의 對中直接投資에 의해 약 3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누계 투자규모의 비중이 1.52%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밝힌 외국인투자업체 총고용인원 1,750만명의 1.52%로 추정하면 약 30만이 산정된다.

또한 한국의 對中直接投資 기업체가 원·부자재 조달 중 중국 현지로부터 조달비중이 이미 25%를 넘고 있다. 즉, 한국으로부터 68.1%, 제3국으로부터 6.4%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므로 유발수요를 창출하고 있다<sup>16)</sup>.

#### IV. 對中直接投資의 課題

##### 1. 對中直接投資上의 課題

15) 정영록·이장규, 앞의 논문, p. 125.

16) 윗 논문.

對中國直接投資는 집중·편중현상으로 인해 투자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편중되어 최근 임금, 지가상승, 투자우대조치 축소로 투자환경 변화에 취약해지는 약점이 있다. 또한 투자지역이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과당경쟁으로 경영비용의 상승과 높은 단독투자 선호, 내수시장 개척 등 중기적인 면에 경영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국내산업 공동화와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합관계이다. 특히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브메랑 효과와 국내산업의 공동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쟁국 기업이 앞다투어 중국에 진출하므로 중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어 수출시장에서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 2. 企業經營上의 課題

해외투자사업의 실패요인과 관련하여 중국 투자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 및 지역연구가들이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실패원인을 ① 操業始作 前段階에서 이미 문제발생 원인이 잠재 : 60%, ② 조업과정 중 영업여건 변동으로 문제발생 : 30%, ③ 한국 본사의 부도 등 기타 외생적 요인의 영향 : 10%로 파악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sup>17)</sup>. 조업과정 중 영업환경의 변화나 모기업의 부도 등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외생적 요소임을 감안할 때 投資設計 立案段階에서의 오류는 투자사업 전체를 실패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차이의 인식부족도 對中直接投資의 실패요인의 하나라고 중국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sup>18)</sup>.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은 현지 투자여건 및 해당 투자사업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등에 관한 세밀한 타당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최고경영자의 主觀的 判斷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top drive형이 강한 한국 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투자결정 이후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투자 실행 이후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여 경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투자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投資地域의 선정인 바 한국 기업들은 종종 'bandwagon' 식, 즉 同種業界의 경쟁기업들의 행동을 모방하여 투자지역을 선정함으로써 투자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投資誘致國 및 파트너기업과의 협상과정에서 투자조건의 불리함을 감수하게 되며 또는 正常操業후에도 한국 기업간의 過當競爭을 야기하게 된다.

17) 안경환,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상 문제점과 금융기관의 대응—의사결정상 오류와 사고의 틀 전환문제, 한국수출입은행, 1997. 9.

18) 長春稅務大學 教授 許桂娟, 韓國企業의 對中國投資分析, 1999. 7. 21에서의 주장.

投資規模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투자기업들은 사전에 적정한 예비비를 포함하여 정확한 투자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資金調達方案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제 투자기업들은 정상화까지 가는데 자주 발생하는 투자금액의 추가 요인을 고려치 않고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무리한 자금조달로 재무상태의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투자파트너를 선정할 때 외형이나 파트너의 정치·사회적 배경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파트너의 事業能力을 간과한다든지 또는 계약협상 및 관련서류 점검을 소홀히 하여 투자관련 내용을 상당부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에 임함으로써 정상조업 후 사소한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에 많은 기간과 경비를 소요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sup>19)</sup> 중국의 경우는 투자애로 요인 중 현지의 規制(17.7%)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어 해외 파견인력의 부족(13.6%), 현지의 稅制(12.9%)가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관련법규가 수시로 변경되고 법적용이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애매한 규정이 많은 등 법제면에서 문제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동기이면서 동시에 사업경영시 현지의 노동력과 관련된 문제가 커다란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상의 애로사항을 요약하면 정책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외국투자기업을 관할하는 창구의 분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의 미실시, 중국 지방정부의 각종 준조세 징수, 합작파트너와 분규처리시 공정성 결여를 지적할 수 있고, 기업 관련 애로사항은 노사관리 어려움과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거래요구 등이 있다.

## V. 要約 및 結論

1968년부터 시작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시대적 특징은, ① 업종별로는 1970년대 초까지는 林業, 1980년대는 광업,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제조업 및 무역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②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북미, 그리고 다시 아시아 특히 중국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輸出指向型으로, ③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전기·전자), 섬유·의복 등 소수의 제조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④ 지역별로 보면 중국, 동남아, 북미에 치중해 있다.

對中직접투자는 1988년 시작되어 1992년 韓中國교 정상화 이후 급속히 상승하여 1995년 및 1996년에 피크를 이루었다. 이는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상승커브와 일치하고 있으며 중국

19)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 실태 조사』, 1996년.

은 짧은 기간 안에 미국에 이어 제2의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對中직접투자의 특징은 ① 지역별로는 빨해만과 東北3省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山東省에 집중되어 있다. ② 업종별 특징은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중 조립금속, 섬유·의복·신발·가방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중소기업이 협력히 많고, 기계장비 및 장치산업에는 대기업의 투자가 많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對中직접투자에서도 역시 지역별, 업종별 편중이 심하다는 공통점과 소유문제도 공히 독점적(단독투자) 소유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되고 있다. 對中직접투자의 특이점은 成果면에서 수익성은 그다지 올리지 못하나 미래의 잠재성을 인정하여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과 업종의 편중은 한국기업간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 다변화를 위한 투자 환경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급적 기술경영, 브랜드 등 비가격 경쟁부문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30년의 특징은 그대로 對中직접투자 10년의 특징에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對中직접투자 문제를 철저히 해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강호상,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시장 진입전략,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8. 3.
- 김원태 등, “해외투자의 요인, 영향 및 정책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996. 9.
-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4-16, 1994. 12.
- 산업연구원, 실물경제, 제110호, 1997.
- 안경환,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상 문제점과 금융기관의 대응”, 한국수출입은행, 1997. 9.
- 전국은행연합회,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1997. 1998년도
- 정영록·이장규, 한국의 對中國 직접투자 평가와 시사점, 국제통상학회, 1999. 5.
- 재정경제원, 경제백서, 1997. 10.
- 하병기,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의 영업활동 분석과 대응방향”, 대한상공회의소·산업연구원, 1997. 9.

- 한국무역협회, 1997년도 수출산업 실태조사, 1997. 6.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실적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보고서, 1997.
- 한국은행,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1997. 3.
- \_\_\_\_\_,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통계월보, 1997. 5.
- \_\_\_\_\_,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각년도.
- 東洋經濟新聞社, 海外投資と日本經濟, 1996.
- 日本輸出入銀行, 1995년도 해외직접투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 1996. 1.
- OECD, *Recent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7.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s Outward Direct Investment*, 1996. 9.
- MOFTEC,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經濟科學出版社, 1998.
-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 中國經濟展望, 中國計劃出版社, 1999.
- 王志樂, 韓國企業在中國的投資, 中國經濟出版社, 1996.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vestment in China over the Last Three Decades And One Decade

Young-Lae, Kim\*

### Abstract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ch has been started from 1968 can be characterized as following. First, by industry, the investment has been focused on forestry till early 70's, mining in 80's, and manufacturing and trade industry from late 80's. Second, by region, the ratio of the investment in Asian region, especially in China, is getting higher, which turns back from the investment in North-American region. Third, by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it is character-

ized by export-oriented investment.

The investment in China has been started in 1988, rapidly risen aft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peaked in 1995 and 1996. This trend coincides with the general trend of Korean foreign investment. Especially, China becomes the second highest country following America in the investment volume within the short period of time.

The investment in China can be characterized that with regard to region it concentrates on the Gulf of Pohai and North-Eastern Three Provinces, especially Shantung Province, and the investment in manufacturing industry prevails against all the other industries. In the case of small-and-medium-sized firms, labo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fabricated metal, fiber, textile, shoe-making, and bag-making industry have been focused. In the case of large firms, machinery and equipment industries have been focused.

The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vestment in China have common characteristics in that both of them concentrate on the certain regions or areas, and mainly proceed in the exclusive ownership rather than joint ventures. Meanwhile, Korean companies have been investing in China considering future market potentials rather than making profits at the moment.

Leaning toward the certain areas and industries resulted in over-competition among Korean companies. They should try to find counterplan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utilizing low-waged labors in certain areas. Accordingly, Korean companies should strengthen the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and try to reduce the risks regarding the investment. Further, they should try to secure predominant position in non-price competition by enhancing technological management and brand name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companies is represen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ment in China. Therefore, Korean companies should thoroughly solve the problems caused from the investment in China, and this is the key to solve the general problems of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Key Words :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in China

## 分斷國家의 經濟力 比較와 經濟統合方案 —南·北韓을 中心으로—

Comparison of Economic Growth Measur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金 聖 壽\*

### 目 次

I. 序 論	V. 分斷國家 經濟力 成長要因 分析
II. 經濟力의 理論的 庫據	VI. 分斷國家 經濟統合構築 方案
III. 斷國家의 經濟의 本質	VI. 結 論
IV. 斷國家 經濟力比較 分析	參考文獻

### I. 序 論

本研究는 分斷國家로 고통받고 있는 韓半島의 지난 50年間의 南北韓 經濟力 展開過程에서 示顯된 經濟發展 成果의 比較와 分斷國家의 經濟力 成長의 要因을 提示하고 分斷國家의 經濟統合 方案을 마련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論文을 이곳 中國 長春大學에서 發表하는 理由는 여기에서 提示한 分斷國家 經濟統合方案이 中國學者들과 北韓學者들, 北韓關係 關心學者들이 南北韓의 實際狀況을 바르게 認識하여, 우리 7千萬 分斷民族이 하나로 되어 幸福을 누릴 수 있는 南北統一이 早速히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心情에서이다<sup>1)</sup>.

21世紀는 우리 南北韓 民族이 다 함께 戰爭이 없는 平和 속에 幸福과 繁榮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사랑하는 子孫들이 이 땅에서 永遠토록 福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統一의 方案을 찾아야 하며, 統一後의 南北韓住民의 經濟的 萎縮도豫測하여 그 對應策도 마련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45年 8.15解放과 더불어 南과 北은 日帝殖民地에서 獨立을 하고 55年間各各 다른 理念과 體制를 가진 2個의 經濟圈으로 分離됨으로써 分斷國家의 설움에서 莫大한 民族의 力量의 非生產的 消耗를 堪耐하여 왔다. 특히 北韓은 社會主義國家로서 中國

\* 廉熙大學 教授。

1) 金聖壽, 南北韓 經濟力 比較와 協力方案, 韓國經濟發展, 學文社, 1996. 10. p. 573.

과 舊蘇聯과 함께 社會主義體制에 基本을 둔 채 “社會主義建設”을 基本으로 하고 있으나 經濟的으로 더욱 어려운 停滯性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現狀이 持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우리는 分斷國家 南北韓이 統一되어 하나의 經濟圈으로 묶어질 경우, 보다 더 높은 次元의 經濟로 飛躍하고 發展할 수 있다는 潛在力과 可能性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本 論文은 分斷狀況에 놓여 있는 南北韓의 經濟力의 展開過程과 그 比較를 實際로 하여, 그 要因을 紋明하고, 段階的 統合方案을 시나리오로 마련하여 統一後의 經濟的 葛藤을 解消하는 對應策을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本 研究는 分斷國家 經濟의 本質的 紋明을 目的으로 다음과 같이 提示할 수 있다.

첫째, 分斷國家經濟의 實狀把握과 南北經濟의 位相糾明. 둘째, 經濟力 成果 및 經濟的 力量의 隔差 紋明. 셋째, 分斷國家 經濟交流 및 協力可能性 紋明과 段階別 南北經濟 統合構想의 模索. 넷째, 分斷國家의 理想的 經濟體制 紋明과 優越性 提示. 다섯째, 經濟力 展開過程 55年間의 理念과 體制의 다른 葛藤 속에 非生產的 消耗와 停滯性 原因. 여섯째, 21世紀 前半期 分斷國家의 統一經濟共同體 形成 등에 研究目的을 두었다.

本 論文은 社會科學의 調査方法論에 의한 探索的研究方法과 技術的研究方法을 選擇하였으며, 既存의 統計 및 資料, 文獻, 그리고 한국 統一部, 統計廳 等과 經濟力 成果指標의 產出部署인 韓國, 美國, 日本 各經濟部處와 經濟關聯機關의 資料協助와 檢證을 거치는 方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本 論文의 內容은 모두 7個의 部門으로 構成하였으며, 첫째, 研究目的, 方法, 內容 등을 담은 序論部門. 둘째, 經濟力의 理論的 準據. 셋째, 分斷國家 經濟의 本質. 넷째, 分斷國家 經濟力 比較分析. 다섯째, 分斷國家 經濟力 成長要因分析. 여섯째, 分斷國家 經濟統合의 構築方案. 일곱째, 要約 및 結論과 統一後의 經濟的 葛藤에 대해서도 言及하는 順序로 北韓經濟의 危機 등과 같은 冷戰體制 以後의 變化들이 韓半島에서 統一이 멀지 않음을 示唆하고 있다. 果然 韓半島에 統一은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이러한 質問은 수없이 提起되어 오고 있으나 그 答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기에 假定된 시나리오를 設定해 놓고 그에 對한 對備策을 講究하려는 努力を 하게 된다. 本 論文도 바로 그러한 目的의 一環으로 研究되었으며 韓·中 國際的, 學術的 目的으로 이루어졌다.

## II. 經濟力의 理論的 準據

經濟力의 理論的 準據는 經濟發展論, 經濟開發論, 經濟成長理論 등에 基礎하고 있다. 특히 한 나라의 經濟力은 經濟成長과 產業發展의 成果, 經濟指標의 成果들을 測定하는 要素가 되

2) 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 1995, pp. 5~6.

는 것이다. 經濟學의 古典學派의 雄大한 動學(magnificent dynamics, W. Baumol)들, Smith, A, Ricardo, D, Marx, K 등과 新古典學派의 發展論, Schumpeter, J.A, Rostow, W.W 등과 經濟開發論의 代表的인 Nurkse, R, Hirschman, A.O, Singer, H.W 등 特히 Rosenstein-Rodan, P.N, Lewis, A.E와 經濟成長理論의 代表的 均衡的 成長條件을 다른 Harrod, R.F, Domar, E.D, Solow, R.M, Meade, J.E 등 經濟發展論者, 經濟開發論者, 經濟成長論者들은 經濟力を 經濟成果 指標로서 一國의 經濟的 힘(力)을 代表하는 主要한 要素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런데 最近에는 英國의 London Economist (1993), 美國의 MIT(1996), Harvard(1997), OECD(1997), IMF(1997), World Bank(1997) 등이 經濟成果의 主要 要因으로 經濟力を 卽, “經濟的能力으로 얻어진 經濟成果를 一國의 主要한 經濟的 代表值로 삼아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으며, 이를 妥當한 것으로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力의 範圍는 人口成長力, 勞動力, 國民生產力, 貿易總額, 農產物生產量, 畜產, 漁獲量, 工業生產量, 產業生產能力, 電力生產量, 原油消費量 등 大部門 經濟成長力으로 代表되는 經濟成果 指標 등의 測定值들로 示顯된다.

### III. 分斷國家 經濟의 本質

#### 1. 分斷國家 經濟力比較의 意義

分斷國家의 經濟力を 比較하는 것은 本質的으로 다음과 같은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첫째, 分斷國家 南北韓經濟의 輪廓을 正確하게 把握하고, 分斷經濟의 各各의 位相을 紛明할 수 있다.

둘째, 南北韓 經濟力의 比較를 通해 나타난 經濟的 成果 및 經濟力量의 隔差를 볼 수 있으며, 平和的 統一의 當爲性을 經濟的 側面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南北韓의 經濟交流 및 協力에 關한 可能性과 段階別로 解決할 수 있는 課題를 찾아 南北經濟 統合의 構想을 마련해 볼 수 있다.

넷째, 南北韓 經濟力 比較는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 南北 國民들의 理想的인 經濟體制가 社會主義인가, 資本主義인가를 紛明하는데도 意義가 있다.

다섯째, 分斷南北韓 經濟力의 差異는 經濟體制의 差異에서 비롯된 結果이기 때문에, 하나의 經濟體制를 選擇하여 統合하기 為한 座標設定의 必要性을 모색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여섯째, 統一 後의 經濟的 生活의 葛藤問題를 미리豫測해 보고 그에 對應하는 方案의 基礎資料를 마련하는 데도 意義가 있다.

以上과 같은 意味는 分斷國家의 어느 하나가 갑작스럽게 崩壞하여 한 나라 主導의 統一이 可能하게 되었을 때 分斷國間의 經濟統合을 어떻게 할 것이며, 統一 以後의 經濟的 蔴藤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問題는 대단히 重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本論文은 이런 重要性들을 모두勘案하여 問題의 提起를 하고 있다.

## 2. 分斷國家 經濟力 比較의 留意事項

分斷國家 經濟力의 比較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制約要因이나 留意하여야 할 事項들을 認知하고, 分析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考慮되었다.

첫째, 分斷國家의 經濟力を 比較하는데 있어 부딪치는 가장 커다란 制約은 北韓側 經濟資料의 貧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閉鎖體制를 維持해 오고 있는 北韓에서는 1965年부터 經濟統計를 거의 發表하지 않고 있으며, 過去에는 新年辭, 豫算, 決算報告書, 經濟計劃報告書 및 各種行事 등에서 發表되는 것 이 종종 있었으나 近來에는 그나마 찾아볼 수 없다. 일부 經濟統計를 時系化하기 위해서 發表되는 資料가 있으나 實績의 宣傳을 目的으로 하고 있어서 北韓經濟力を 분석하는데 커다란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둘째, 分斷國家에서는 經濟體制의 相異에서 惹起되는 解析上의 問題를 指摘할 수 있다.

특히 北韓의 經濟秩序를 理解하고 南北韓의 經濟力を 比較함에 있어서 民間活動이 거의 存在하지 않는 北韓의 經濟體制를 單純히 資本主義的 時刻만으로 分析한다면 큰 誤謬를 범하는結果가 될 것이다.

北韓은 私有財產 및 經濟的 自由가 制限되어 있어서 財產의 所有形態는 물론 生產, 供給, 流通體系, 消費패턴 등 經濟構造가 資本主義 國家들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理解하여 留念할 必要가 있다. 예를 들면 資本主義經濟에서는 國民總生產(GNP : Gross National Product), 國民總所得(GNI : Gross National Income)이라는 概念을 使用하고 있으나 北韓 등 一部 社會主義經濟에서는 이에 對應하는 概念으로 社會總生產(GSP : Gross Social Product)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 代表的인 例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셋째, 經濟力を 比較, 評價함에 있어서 分斷國 經濟體制의 本質의 差異를 理解하고 紛明해야 한다.

南韓은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의 原理, 北韓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原理 등으로 兩體制가

3) 社會總生產이란 一定期間(보통 1년) 동안 社會主義 經濟에서 創出된 財貨의 單純總生產高를 말한다. 여기에서 서비스부문은 非生產的이라고 하여 계산되지 않고 있으나, 最終財의 生產過程에서 나타나게 되는 中間生產物이 合算되고 있어서 實物生產의 價值가 二重으로 계산되고 있다(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 1991, pp. 9~10 參照).

本質的으로 差異가 있는 經濟的 바탕 위에 經濟力を 比較·評價함으로써 一端의 問題點도 考慮하였다.

따라서 分斷 以後 서로가 實現한 經濟開發의 效果만을 比較함으로서 南北韓 經濟를 動態的으로 把握하고자 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 3. 分斷國家의 經濟體制의 比較

分斷國 韓國은 資本主義 經濟體制, 北韓은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가지고 있어 經濟體制의 差異에서 兩分된다. 經濟體制란 高度의 分業과 特化를 基礎로 하고 이루어지는 部分的, 個別的 經濟活動의 全體로서 秩序와 組織化하는 一連의 制度 또는 經濟를 構成하고 있는 家計, 企業, 公共機關 等의 經濟活動을 規制하는 諸制度의 結合이라고 한다<sup>4)</sup>.

이러한 經濟體制는 南北韓의 經濟的 秩序와 調和, 그리고 特化와 組織, 技術 등을 使用하는 精神的 思考面에서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兩體制의 差異를 간단하게 敘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資本主義 經濟體制는 私有財產制度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生產手段인 衣, 食, 住 등은 個人이 所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私有財產制度를 否定하는 바탕 위에서 生產手段의 所有를 全的으로 國有化 내지 沒收하기 때문에 衣, 食, 住 등은 配給制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國家的으로 食量이 不足하고 社會主義 經濟政策이 失敗하면 國民이 餓주립에 시달리게 된다.

둘째, 資源의 配分 및 生活經濟에 있어서 韓國이 市場經濟를 基礎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北韓은 中央集權的인 計劃에 의한 劍一的인 經濟體制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南韓經濟는 勞動, 資本, 技術 등의 各 生產要素나 各種 生產物의 需給과 價格이 市場을 通하여 自律的으로 決定되는 自動調節機能을 갖고 있는데 비해 北韓經濟는 中央黨局에서 一方的으로 決定한 計劃에 따라 人爲的으로 管理運用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셋째, 南韓經濟는 個別經濟主體에 대하여 自由와 平等의 秩序 속에서 經濟活動이 價格機構를 通하여 自律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法과 秩序를 交擋시키는 放漫한 經濟行爲를 除外하고는 制度的으로 모든 經濟行爲에 대하여 經濟的 自由(Economic Freedom)를 保障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北韓經濟는 正權當局을 中心으로 움직여지는 統制經濟이며, 意思決定과 行爲가 中央黨局에 의해 全權的으로 이루어짐은 물론이거니와 制限的이나 一部 個人財

4) 金聖壽, 新經濟學原論, 學文社, 1992. p. 27.

產조차 自由로운 所有權의 行使나 經濟行爲가 困難한 狀態이다.

#### 4. 分斷國家의 經濟政策 比較

##### 1) 南韓의 經濟政策

南韓의 經濟政策은 다음 같이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要約할 수 있다. 첫째로는 南韓은 安定基調 위에서 適正成長政策의 追求라는 基本的 立場을 취하고 있었다. 1970年代 2次에 걸친 石油波動, 1980年代의 一時的인 社會不安과 凶作, 1987年 6.29民主化宣言과 勞使紛糾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1997年 10月부터 IMF體制에 突入하여 經濟的 危機를 당하고 있지만 1962年부터 1996년까지 年平均 7.6%의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었다.

둘째로는 輕工業政策를 始作으로 重化學工業政策을 強力히 그리고 꾸준히 推進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工業基盤을 牢固히 하여 技術開發政策으로 이어지도록 努力하였다. 이와 같은 重化學工業化政策은 工業構造의 改善 및 國際競爭力 強化에 寄與하여 왔다.

셋째로는 國際協力を 바탕으로 한 對外指向的 輸出主導政策은 1999年 現在의 國民의 政府 까지 持續하고 있어 世界 속의 韓國의 位相을 높이는데 決定的 契機가 되고 있으며, 世界 經濟環境에 적절히 適應하면서 南韓經濟의 發展을 成功的으로 主導하고 있다.

넷째로는 國民福祉의 增進과 經濟的 衡平을 提高시키는 經濟社會政策이 奏效하였다. 南韓은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發展에 힘입어 福祉政策의 推進基盤이 鞏固化되었으며, 所得의 再分配를 通한 經濟福祉政策을 持續시키고 있다. 특히 國民의 政府에서는 IMF으로 因한 量產된 失業者를 救濟하기 為해서 推進된 社會福祉政策의 實現은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의 真面目을 보여주는 經濟政策의 實驗으로서 成功할 것으로 본다.

##### 2) 北韓의 經濟政策

北韓의 經濟政策은 主體思想이라는 絶對的 統治理念에 의해 支配되는 社會로서 政治가 社會全般에 걸쳐 큰 影響力を 發揮하며 一般住民의 私生活에 깊이 連繫되어 있다. 특히 北韓 政權은 軍部 中心의 統治方式으로 體制를 維持하면서, 改革, 開放의 새로운 政策 轉換의 試圖보다는 北韓社會主義 理念을 貫徹하자고 督勵하고 있다. 北韓의 經濟政策 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自力更生 艱苦奮鬥”라는 口號아래 資本, 技術, 勞動力을 스스로 解決하고, 軍事力도 強化하면서 經濟建設도 한다는 國防並進政策을 推進해 왔다.

둘째로 自力更生의 推進結果는 資本不足과 技術의 落後, 國際的 孤立을 自招하여 經濟事情을 더욱 惡化시켰다고 國際經濟學者들은 評價한다. 生產手段, 生產財를 生產하는 重工業部門을 우선 發展시켜야 農業과 輕工業의 發展도 保障된다고 認識하여 重工業 優先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셋째로는 北韓은 經濟改革의 必要性을 認定하지만 改革, 開放이 本格的으로 이루어지면 外部 思潮의 餘波로 北韓體制 自體가 危機에 當面하지 않을까 하는 念慮 때문에 對外開放에 積極的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sup>5)</sup>.

넷째로는 北韓은 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 第5次 全員會議에서 4大 軍事路線을 採擇하였으며, 60年代 中盤期에 共產圈의 理念分爭과 中·蘇分爭이 激化됨에 따라 1966年 10月 黨代表者 會議에서 군사, 經濟의 並進路線을 公式化한 以來 오늘의 體制까지 北韓 經濟政策 運用의 基調로 삼아왔다. 이에 따른 過度한 軍事費 負擔은 北韓經濟의 發展에 상당한 障碍要因으로 作用하였다고 본다<sup>6)</sup>.

따라서 1998年末 現在, 北韓은 9年間 連續 마이너스 經濟成長을 해왔다. 그 原因은 蘇聯 및 東歐圈의 崩壞, 自然災害 등 여러 가지에 基因하지만, 보다 根本的인 原因은 北韓의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가 지닌 構造的 矛盾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sup>7)</sup>.

## IV. 分斷國家 經濟力 比較分析

### 1. 分斷國家 經濟開發計劃

#### 1) 南韓 經濟開發計劃

南韓은 1962年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부터 始作하여 1991年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이 끝날 때 까지 30년間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왔다<sup>8)</sup>.

南韓의 經濟開發計劃은 市場經濟의 原理를 通한 企業間 自由競爭의 原則를 土臺로 하였으며, 基幹產業과 그 밖의 重要部分에 對해서만 政府가 이에 直接 關與하거나 間接的으로 開發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나간 것이다. 政府는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하여 民間企業의 投資環境을 造成하고 不足한 投資財源은 外資導入을 通過 充當하도록 하였다.

南韓은 自由市場經濟의 確立에 主力하면서 國際協力의 擴大와 輸出伸張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輸入自由化的 輻도 늘려가는 開放化, 世界化體制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工業化 戰略에 따른 經濟計劃의 推進은 매우 成功的인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實際로 第1次 計劃期間은 年平均 7.8%, 第2次 計劃期間은 9.6%, 第3次 計劃期間은 9.8%, 第4次 計劃期間은 5.8%, 그리고 第5次 計劃期間은 8.7%, 第6次 計劃期間은 8.3%의 成長을

5) Chung, Joseph Sang 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 Structure and Development*,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74, pp. 8~9 參照.

6) 統一部, *오늘의 北韓*, 1998, pp. 4~5.

金聖壽, *韓國經濟의 理解*, 學文社, 1994, pp. 584~585 參照.

7) 統一部, 前揭書, p. 4.

8) 經濟企劃院,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1992, 全文 參照.

示顯하였다<sup>9)</sup>.

## 2) 北韓의 經濟開發計劃

北韓은 南北分斷의 直後부터 土地改革, 主要產業國有化, 地下資源, 山林, 水域國有化 등과 같은 社會主義體制로의 改革을 斷行하였다. 1958年 農業協同化, 手工業者, 商工業者의 協同化 등을 끝으로 生產關係의 社會主義化를 完了함으로써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1958年 이래 北韓은 中央集權的 計劃機構를 設置하고 個人의 自由意思에 基礎한 生產活動을 일체 否認하였으며, 自由市場이나 競爭價格을 否定하는 土臺 위에서 生產財의 割當制 消費財의 配給 등 모든 經濟活動을 中央으로부터의 命令에 따르는 指令經濟體制로 轉換시켰다.

北韓의 經濟開發 中長期計劃에서는 社會總生產 및 主要 產業別 生產의 增加, 投資, 消費 및 軍事費支出, 主要財貨의 生產目標 등이 提示된다. 그리고 이를 基礎로 하여 年次別 計劃이 具體的으로 樹立된다. 여기에는 企業所에 대한 모든 財貨의 年間生產目標와 生產指令이 함께 포함되며 아울러 資源의 用度別 配分도 提示된다.

北韓은 1947年부터 經濟計劃을 實施하였으나 北韓에서 社會主義적 經濟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本格的인 經濟計劃이 始作된 것은 1961年 第1次 7個年計劃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北韓은 6個年 計劃, 第2次 7個年計劃을 實施한 以來, 第3次 7個年 計劃, 第4次 7個年 計劃을 完了남았다. 그러나 1990年度부터 北韓經濟가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함에 따라 國民 總生產이 1990年 231億달러를 基準으로 1996年 214億달러, 1997年에는 177億달러로 減少하였다<sup>10)</sup>.

## 2. 南北韓 經濟發展 成果의 比較分析

南北韓 經濟發展成果 比較의 理論的 準據는 OECD, 美國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의 比較方法을 基準으로 하였다. 그리고 韓國銀行과 統一部의 資料를 土臺로 統計廳에서 提示한 南北韓 經濟發展 指標를 모델로 하였다.

이와 같은 理論的 準據에 의하여 南北韓 經濟發展 成果의 比較指標를 10가지로 設定하였다. (1) 人口, (2) 國民總生產(GNP), (3) 1人當 GNP, (4) 貿易總額, (5) 主要農產物生產量, (6) 漁獲量, (7) 鐵鑄工業生產能力, (8) 機械工業生產能力, (9) 原油導入量, (10) 電力發電量 등이다. 그리고 最初의 指標設定 年度를 1948年으로 하였으며, 現在基準을 1997年로 하여 50年間의 증가 經濟發展 成果를 比較하는 判別差異 分析方法을 採擇하였다.

9) 金聖壽, 前揭書, 1994, p. 585 參照。

10) 統計廳, 大韓民國 50년의 經濟社會像變化, 1998, p. 272.

### 1) 人 口

1948年 政府樹立 直後 南北韓 總人口가 29,526千名이었으나, 1975年 51,453千名, 1985年 60,801千名, 1995年 68,354千名, 1997年 69,846千名으로 늘어나 지난 49年間 2.4倍로 增加하였다. 한편 南韓의 人口는 北韓에 比해 1948年에는 2.1倍, 1975年에는 2.2倍, 그리고 1997年에는 1.9倍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南韓의 人口는 1948年에 20,027千名에서 1997年에는 45,991千名으로 2.3倍 增加하였으며, 北韓의 人口는 1948年에 9,499千名에서 1997年에는 23,855千名으로 2.5倍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1)。

〈表 1〉 南北韓 人口 比較 (單位: 千名)

年 度	南 韓	北 韓	南 北 韓	差異, 南/北(倍)
1948(A)	20,027	9,499	29,526	2.1
1955	21,526	9,113	30,639	2.4
1965	28,750	12,252	40,957	2.3
1975	35,281	16,172	51,453	2.2
1985	40,806	19,995	60,801	2.0
1995	45,093	23,261	68,354	1.9
1997(B)	45,991	23,855	69,846	1.9
B/A(倍)	2.3	2.5	2.4	

資料：統計廳, 統一部

### 2) 國民總生產(GNP)

國民總生產은 1953年에 南韓이 北韓보다 3.5倍가 많았으나 1965年에는 1.6倍로 南北韓間 格差가 多少 減少하였고, 다시 1975年에는 3.2倍, 1985年에는 6.0倍, 1995年에는 20.3倍, 그리고 1997年에는 24.7倍로 나타나서 南北韓 格差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판별할 수 있다.

〈表 2〉 國民總生產(GNP) 比較 (單位: 億달러)

年 度	南 韓	北 韓	差異, 南/北(倍)
1953(A)	14	4	3.5
1965	30	9	1.6
1975	209	65	3.2
1985	911	151	6.0
1990	2,518	231	10.9
1995	4,526	223	20.3
1997(B)	4,374	177	24.7
B/A(倍)	312.4	44.3	

註：北韓의 1990年 以後 數値는 SNA體系에 의한 韓國銀行 推計値임.

資料：統一部, 韓國銀行

南韓의 國民 總生產은 1953年에 14億달러에서 1965年 30億달러, 1975年 209億달러, 1985年 911億달러, 1995年 4,526億달러, 그리고 1997年에는 4,374億달러를 示顯하여 지난 44年間 312.4倍로 늘어난 것을 判別할 수 있다.

北韓의 國民 總生產은 1953年에 4億달러에서 1965年 19億달러, 1975年 65億달러, 그리고 1990年에는 223億달러, 1997年에는 177億달러로 오히려 減少하였는데, 이는 지난 1953年도에 비해 44.3倍 增加한 것으로 판별된다(表 2)。

### 3) 1人當 GNP

1人當 GNP는 南韓이 1953年에 67달러로 北韓의 58달러보다 若干 많았으나 거의 비슷한 水準이었다. 1965年에는 南韓이 105달러이었으나, 北韓은 162달러로서 北韓이 南韓보다 57달러가 높았다. 그러나 南韓은 그후 經濟發展計劃의 成功적인 達成으로 1975年에는 南韓은 594달러, 北韓은 415달러로서 南韓이 北韓보다, 179달러가 오히려 더 높았다.

물론 이 時期 以後에도 南北韓이 同時に 經濟開發計劃을 실시하였으나, 南韓은 北韓보다 1975年에는 1.4倍, 1985年에는 2.9倍, 1995年에는 10.5倍, 그리고 1997年에는 12.8倍 많은 것으로 시현되고 있어, 南北韓 格差가 繼續 擴大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

南韓의 1人當 GNP는 1953年 67달러, 1965年 105달러, 1975年 594달러, 1985年 2,242달러, 그리고 1995年에는 10,037달러로 增加하여, 1人當 萬弗時代에 突入하였으나, 1997年 10월부터 始作된 IMF經濟體制의 危機로 말미암아 1997年에는 1人當 GNP가 9,511달러로 減少하였다. 北韓의 1人當 GNP는 1953年에는 58달러에서 1965年에는 162달러, 1975年에는 415달러, 1985年에는 766달러, 그리고 1990年에는 1,064달러로 꾸준한 增加勢를 나타내었으나, 1990年 이후부터 減少하기 始作하여 1995年에는 957달러, 1997年에는 741달러로 나타나 지난 53年에 비해 12.8倍의 增加에 그쳤다.

〈表 3〉 1人當 GNP 比較 (單位 : 달러)

年 度	南 韓	北 韓	差異 南/北(倍)
1953(A)	67	58	1.2
1965	105	162	0.6
1975	594	415	1.4
1985	2,242	766	2.9
1990	5,883	1,064	5.5
1995	10,543	957	10.5
1997(B)	9,511	741	12.8
B/A(倍)	141.2	12.8	

註 : 北韓의 1990年 以後 數值는 SNA體系에 의한 韓國銀行 推計值임,

資料 : 統一部, 韓國銀行

#### 4) 貿易總額

##### (1) 貿易總額 과 輸出入 比較分析

南北韓間의 貿易總額을 比較해 보면, 政府樹立直後인 1948年에는 南韓의 貿易總額은 北韓의 59.0% 水準이었으나 1965年에는 南韓이 北韓보다 1.6倍 많았고, 이후 南韓의 貿易總額은 急速히 늘어나서 北韓에 比해 1975年 7.1倍, 1985年 19.9倍, 1995年에는 126.3倍, 그리고 1997年에는 129.4倍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南韓의 貿易總額은 1948年에는 2,3億달러에 不過하였으나, 1965年에는 6,4億달러, 1975年에는 123.5億달러, 1985年 614.2億달러, 1995年에는 2,601.8億달러, 그리고 1997年에는 2,807.8億달러를 記錄하여 政府樹立以後 지난 50年間 무려 1220.8倍가 增加한 것으로 示顯되었다.

北韓의 貿易總額은 1948年 3.9億달러에서 1985年에는 30.9億달러로 增加하는 趨勢였으나, 1990年 以後 舊蘇聯 및 東歐共產圈의 崩壞以後漸次 減少하여 1995年에는 20.6億달러를 記錄하였다. 그러나 1997年에는 조금 增加하여 21.7億달러로 나타났고 지난 48年度에 比해 5.6倍 增加하였다.

〈表 4-1〉 貿易總額 比較  
(單位: 億달러)

年 度	南 韓			北 韓			差異 南/北(倍)	
	貿易額	輸 出	輸 入	貿易額	輸 出	輸 入	貿易額差	輸出額差
1948	2.3	0.2	2.1	3.9	1.6	2.3	0.6	0.09
1965	6.4	1.8	4.6	3.9	1.9	2.0	1.6	0.9
1975	123.5	50.8	72.7	17.4	7.0	10.4	7.1	6.5
1985	614.2	302.8	311.4	30.9	13.1	17.8	19.9	23.1
1995	2,601.8	1,250.6	1,351.2	20.6	7.4	13.2	126.3	169.0
1997	2,807.8	1,361.6	1,446.2	21.7	9.0	12.7	129.4	151.3

資料: 統一部, 關稅廳, KOTRA 등의 基礎資料를 引用하여 筆者가 算出함.

##### (2) 貿易依存度 比較分析

統計廳의 “統計로 본 大韓民國 50年의 經濟社會像變化”(1998. 12) 資料를 보면 GNP對比 貿易總額의 比率인 貿易依存度는 1953年 南韓이 北韓보다 조금 높았고, 1965年에는 南北韓이 거의 비슷한 水準이었으나, 1965年 以後 그 格差가 벌어져 南韓이 北韓에 比해 貿易依存度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11) 統計廳, 韓國銀行, 統一部, 關稅廳 등 資料 提供.

南韓의 貿易依存度는 1953年 27.9% 水準에서 1975年 59.1%, 1985年 67.4%, 그리고 1997年에는 64.2%로 지난 44年 동안 36.3% 포인트가 增加하였다. 또한 1953年에는 貿易依存度 중 輸入依存度의 比重이 輸出依存度 보다 높았으나 漸次 輸出이 增加하면서 1997年度에는 輸出과 輸入依存度가 비슷한 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 貿易依存度 比較 (單位 : %)

年 度	南 韓			北 韓		
	貿易依存度	輸出依存度	輸入依存度	貿易依存度	輸出依存度	輸入依存度
1953	27.9	2.9	25.0	17.5	7.5	10.0
1965	21.3	6.0	15.3	20.5	10.0	10.5
1975	59.1	24.3	34.8	26.8	10.8	16.0
1985	67.4	33.2	34.2	20.5	8.7	11.8
1995	57.5	27.6	29.9	9.2	3.3	5.9
1997	64.2	31.1	33.1	12.3	5.1	7.2

資料：統計廳, 大韓民國 50年の 經濟社會像變化, 1998. 12, p. 287 參照.

北韓의 경우 1953年 17.5% 水準에서 1980年代 末까지는 20~30%의 水準을 維持하였으나, 1995年度에는 9.2%까지 減少하였다가 1997年에는 12.3%로 조금 增加하였다. 一般的으로 貿易依存度가 낮은 나라는 國內賦存資源이 豐富한 경우가 大部分인데, 北韓의 경우 貿易依存度가 낮은 理由는 그들의 主要 經濟運營의 基本原則인 自力更生의 原則과 對外支拂能力의 不足 등에 基因하고 있는 것으로 解析된다.

### 5) 主要農產物 生產量

解放 후 北韓이 財產의 國有化 또는 協同化를 機構的으로 推進한 것과는 對照的으로 南韓에서는 私有財產制에 立脚하여 相對的으로 온건한 財產權의 調整이 있었다. 예를 들면 北韓에서는 前日本人 所有의 企業이 國有化되었지만 南韓에서는 주로 賣却을 통해 民間所有로 轉換되었다. 보다 重要한 것은 農地改革이라고 할 수 있는데, 北韓은 無償沒收－無償分配의 原則에 따라 土地改革을 斷行한 反面, 南韓은 有償沒收－有償分配의 原則에 따랐다<sup>12)</sup>.

이러한 前提下에 主要 農產物인 穀과 薯蕷 등의 生產量을 考察하고자 한다.

穀 生產量은 南韓이 北韓에 比해 1965年에는 2.8倍 많았고, 1975年 2.7倍, 1985年 3.7倍, 그리고 1997年에는 3.6倍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反對로 薯蕷 生產量은 北韓이 南韓보다 1965年에는 38.2倍, 1975年에는 40.4倍 1985年에 15.7倍, 그리고 1997年에는 18.4倍 많

12) 박정동, 北韓地域의 農業構造 改革, 韓半島 統一時의 經濟統合戰略, 1998, p. 62 參照.

이 生產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5)。

(1) 南韓의 쌀 生產量은 1965年 3,501千噸에서 1975年에는 4,669千噸, 1985年에는 5,626千噸, 1997年에는 5,450千噸으로 지난 1965年에 비해 1.6倍 정도가 增加하였다. 한편 옥수수의 生產量은 1965年 40千噸에서 1997年 87千噸으로 2.2倍 정도 늘었지만, 주로 飼料用으로 使用하기 때문에 生產量 自體가 쌀 生產量에 比해 相對的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北韓의 쌀 生產量은 지난 32年間(65年~97年) 1.2倍의 增加에 그쳤고, 全體 生產量의 切半 程度를 차지하는 옥수수는 1995年 1,527千噸에서 1975年 2,183千噸으로 漸次 增加하였으나, 1995年에 1,851千噸, 1997年 1,599千噸으로 1975年 이후 漸次 生產量이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따라서 北韓은 現在 相當量의 食糧作物 生產量이 不足하여 굶주림의 狀態로 나타나고 있어 UN 등 世界食糧機構로부터 도움을 要請하고 있다.

〈表 5〉 主要 農產物 生產量 比較  
(單位: 톤)

年 度	南 韓		北 韓		差異 南/北(倍)	
	쌀	옥수수	쌀	옥수수	쌀	옥수수
1965(A)	3,501	40	1,258	1,527	2.78	0.03
1975	4,669	54	1,738	2,183	2.69	0.02
1985	5,626	132	1,519	2,072	3.70	0.06
1990	5,606	120	1,457	1,949	3.85	0.04
1995	4,695	75	1,211	1,851	3.88	0.04
1997(B)	5,450	87	1,508	1,599	3.63	0.05
B/A(배)	1.6	2.2	1.2	1.1		

資料：統一部, 農林部

## 6) 漁獲量

海洋水產部에서 調查한 統計資料에 의한 南北韓의 漁獲量을 比較하여 보면 1949年에는 南韓이, 1965年에는 北韓의 漁獲量이 조금 많았으나, 1970年대 이후부터는 南韓이 北韓의 漁獲量을 앞서고 있다. 1975年에는 1.6倍, 1985年에는 1.7倍, 1995年에는 3.2倍, 그리고 1997年에는 5.0倍 더 많은 것으로 調査되어, 南北韓間의 漁獲量 格差가 점점 擴大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6).

南韓의 漁獲量은 1949年 300千噸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5年에는 616千噸, 1975年 2,135千噸, 1985年 3,103千噸, 그리고 1997年에 3,244千噸으로 지난 48年間 10.8倍 增加한 것으로

13) 統計廳, 統計로 본 大韓民國 50年の 經濟社會像 變化, 1998, p. 275.

〈表 6〉 漁獲量 比較 (單位: 千噸)

년도	남한	북한	남북	差異 남/북(배)
1949(A)	300	273	573	1.1
1965	616	723	1,339	0.9
1975	2,135	1,304	3,439	1.6
1985	3,103	1,781	4,884	1.7
1995	3,348	1,052	4,400	3.2
1997(B)	3,244	650	3,894	5.0
B/A(倍)	10.8	2.4	6.8	

資料：海洋水產部、統一部 提供。

調査되었다。

### 7) 鐵鋼工業 生産能力

이곳에서는 南北韓 鐵鋼의 製銑能力과 製鋼能力을 比較함으로써 鐵鋼工業의 發展성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鐵鋼工業 중 製銑能力은 南韓이 北韓에 비해 1956年에는 13%, 1975年에는 35% 水準으로 낮았으나, 1997年에는 北韓보다 4.0倍 이상 높게 나타났다. 製鋼能力도 1956年에는 南韓이 北韓의 24% 水準이었으나 1985年 3.5倍, 1995年 6.5倍, 그리고 1997年에는 7.3倍 정도 南韓이 北韓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7-1, 7-2)。

北韓의 경우 製銑能力은 1956年 370千噸에서 1987年 5,413千噸으로 14.6倍 增加하였으나 1987年 以後부터는 더 이상 增加하지 않았다. 製鋼能力도 1956年 190千噸에서 1991年 5,980千噸으로 31.3倍 程度 늘어났으나, 1991年 以後부터는 별다른 增加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南韓의 경우 製銑能力은 1956年 48千噸에서 1997年에는 21,744千噸으로 지난 41年間 453천대의 增加를 보였다. 製鋼能力은 1956年 45千噸에서 1997年 43,354千噸으로 1956年에 비해 963倍가 增加한 것으로 示顯되었다.

〈表 7-1〉 鐵鋼工業의 製銑能力 比較 (單位: 천噸)

年 度	南韓	北韓	差異 南/北(倍)
1956(A)	48	370	0.24
1965	78	1,470	0.15
1975	1,100	3,181	1.08
1985	8,832	5,549	3.49
1995	21,956	5,413	6.47
1997(B)	21,774	5,413	7.25
B/A(倍)	453.6(倍)	14.6(倍)	

資料：韓國鐵鋼協會、產業資源部、統一部。

〈表 7-2〉 鐵鋼工業의 製鋼能力 比較 (單位: 千噸)

年 度	南 韓	北 韓	差異 南 / 北(倍)
1956(A)	45	190	0.24
1965	322	2,128	0.15
1975	2,852	2,645	1.08
1985	15,612	4,469	3.46
1995	38,679	5,980	6.47
1997(B)	43,354	5,980	7.25
B/A(倍)	963(倍)	31.5(倍)	

資料：韓國鐵鋼協會, 產業資源部, 統一部。

### 8) 機械工業의 生產能力

機械工業 生產能力은 自動車 生產能力과 造船能力을 產業資源部와 韓國造船工業協會 등의 資料를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機械工業 中 自動車 生產能力은 1962年에는 北韓이 南韓보다 높았으나 1960年 中盤부터 南韓이 앞서기 始作하여, 1975年에는 南韓이 北韓의 16.6倍, 1985年에는 34.8倍, 1995年에는 101.8倍, 그리고 1997年에는 125.5倍로 增加하였다.

造船能力도 南韓이 北韓에 比해 1975年에는 3.7倍, 1985年에는 12.2倍, 1995年에는 26.5倍, 그리고 1997年에는 36.2倍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南韓의 自動車 生產能力은 1962年 2.5千臺에서 1975年 166.2千臺, 1985年 644千臺, 그리고 1997年 4,143千臺로 지난 35年間 1,657.2倍로 增加하였다.

造船能力은 1965년의 14천G/T에서 1985년 2,620천G/T, 그리고 1997년에는 7,750G/T로 지난 65年에 比해 553.6倍로 成長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의 自動車 生產能力은 1962年 3.6千臺에서 1975年 10千臺, 1985年 18.5千臺, 그리고 1997年에는 33千臺로서 지난 35年間 9.2倍 增加하였다. 北韓의 造船能力은 1975年 110천G/T에서 1985년 214천G/T로 若干 增加하였으나, 1985年 이후 거의 增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8-1, 表 8-2).

### 9) 原油導入量

原油導入量을 살펴보면 1965年에는 南韓이 北韓보다 3.9倍 程度가 많은 水準이었으나, 1985年에 13.8倍, 1995年 77.5倍, 그리고 1997年에 235.5倍로 南北韓間의 格差가 最近에 들어서 급속히 擴大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南韓의 原油導入量은 增加하고 北韓의 導入量은 相對的으로 減少한 結果인 것으로 보인다.

14) 統計廳, 前揭書, p. 281 參照. 產業資源部, 資料 提供.

〈表 8-1〉

## 自動車 生産能力 比較

(單位 : 千臺)

年 度	南 韓	北 韓	差異 南/北(倍)
1962(A)	2.5	3.6	0.7
1965	4.5	4.4	1.0
1975	166.2	10.0	16.6
1985	644.0	18.5	34.8
1995	3,361.0	33.0	101.8
1997(B)	4,143.0	33.0	125.5
B/A(倍)	1,657.2(倍)	9.2(倍)	

資料 : 統一部, 產業資源部.

〈表 8-2〉

## 造船能力 比較

(單位 : 천G/T)

年 度	南 韓	北 韓	差異 南/北(倍)
1962	—	—	—
1965(A)	14	—	—
1975	410	110(A)	3.7
1985	2,620	214	12.2
1995	5,663	214	26.5
1997(B)	7,750	214(B)	36.2
B/A(倍)	553.6(倍)	1.95(倍)	

資料 : 韓國造船工業協會, 統一部.

南韓의 原油導入量은 1965年에 11,170千배럴이었으나 1985年 198,313千배럴, 1995年 624,945千배럴, 그리고 1997年에 873,415千배럴로 지난 1965年에 비해 78.2倍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9).

〈表 9〉

## 原油導入量 比較

(單位 : 千배럴)

年 度	南 韓	北 韓	差異 南/北(倍)
1965(A)	11,170	2,842	3.9
1978	166,532	7,697	21.6
1985	198,313	14,369	13.8
1988	261,079	23,456	11.1
1995	624,945	8,063	77.5
1997(B)	873,415	3,709	235.5
B/A(倍)	78.2	1.3	

資料 : 統一部, 產業資源部

이에 比해 北韓의 原油導入量은 1965年 2,842千배럴에서 1985年 14,369千배럴, 1988年에는 23,456千배럴로 增加하다가 1995年에는 8,063千배럴, 그리고 1997年에는 3,709千배럴로 減少하여 經濟의 어려움과 맞물려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5)</sup>.

### 10) 電力 發電量

南北韓間의 電力 發電量을 比較해 보면, 1965年에는 南韓이 北韓의 25% 水準이었으나 1975年 1.1倍, 1985年 2.3倍, 1995年 8.0倍, 그리고 1997年에 11.6倍로 北韓에 比해 南韓의 發電量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南韓의 總 發電量은 1965年 33億kwh에서 1997年에 2,245億kwh로 지난 32年間 68倍가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發電量의 構成比는 1965年에 水力이 總發電量의 21.2%, 火力이 75.8% 水準이었으나, 1997年에는 水力이 2.4%, 火力이 63.3%, 原子力이 34.3%로 나타나 原子力의 比重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10)。

北韓의 總發電量은 1965年에 132億kwh에서 1990年에 277億kwh로 增加하였으나 1990年 이후부터 減少하기 시작하여 1997年에는 193億kwh로 1990年 發電量의 69.7% 水準에 머물렀고, 지난 32年間 1.5倍 增加하였다. 發電量의 構成比를 보면 北韓은 水力資源이 豐富하여 대체로 水力의 比重이 火力보다 높은 편이고, 아직까지 商業用 原子力發電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6)</sup>.

&lt;表 10&gt;

電力 發電量 比較

(單位 : 億kwh, %)

年 度	南 韓				北 韓				差異 南/北(倍) A/E
	發電量(A)	水力	火力	原子力	發電量(B)	水力	火力	原子力	
1965(A)	33	21.2	75.8	—	132	54.5	45.5	—	0.3
1975	198	8.6	91.9	—	183	53.6	46.4	—	1.1
1985	580	6.4	64.8	29.0	251	49.0	51.0	—	2.3
1995	1,847	3.0	60.7	36.3	230	61.7	38.32	—	8.0
1997(B)	2,245	2.4	63.3	34.3	193	55.4	44.6	—	11.6
B/A(倍)	68.0				1.5				

資料 :統一部, 韓國電力公社, 1998. 12.

### 11) 南北韓 經濟力 差異分析 結果 総合

지금까지 지난 50年間의 分斷國家 經濟發展 過程의 比較分析을 통하여 南北韓의 經濟力を 살펴보았다. 이 分析을 通하여 南北韓의 經濟力 差異는 대단히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5) 統計廳, 前掲書, p. 281 參照. 產業資源部, 資料 提供.

16) 統計廳, 前掲書, p. 282 參照. 韓國電力公社, 資料 提供.

따라서 이곳에서는 1997年 12月末 現在基準으로 南北韓의 經濟力 差異를 다음과 같이 総合的으로 提示하고자 한다(表 11 參照).

〈表 11〉 南北韓 經濟力 差異分析 結果 総合(1997年 12월말 현재)

經濟力(單位)	單位	南 韓(A)	北 韓(B)	差異(B/A=倍)
1. 人口	千 名	45,991	23,855	1.9
2. 國民總生產	億달러	4,374	177	24.7
3. 1人當 GNP	달 러	9,511	741	12.8
4. 貿易總額	億달러	2,807.8	21.7	129.4
4-1. 輸出額	億달러	1361.6	9.0	151.3
4-2. 輸入額	億달러	1446.2	12.7	113.9
4-3. 貿易依存度	%	64.2	12.3	-
5. 主要農產物 * 穀/ 우수수	千M/T	5,450 / 87	1,503 / 1,599	3.63 / 0.05
6. 漁獲量	千M/T	3,244	650	5.0
7. 鐵鋼工業生產能力 * 鐵鋼製銑能力 * 製鋼能力	千M/T 千M/T	21,744 43,354	5,413 5,980	4.02 7.25
8. 機械工業生產能力 * 自動車生產 * 造船能力	千 대 천M/T	4,143 33.0	125.5 36.2	
9. 原油導入量	千㎘	873,415	3,709	235.5
10. 電力發電量 * 水 力 * 化 力 * 原子力	億kwh % % %	2,245 2.4 63.3 34.3	193 55.4 44.6 0	11.6 - - -

註 :南北韓 經濟力 差異分析結果 総合은 筆者가 作成함.

資料習조 : (1) 統一部 / (2) 統計廳 / (3) 產業資源部 / (4) 農林部 / (5) 海洋水產部

(6) 韓國銀行 / (7) 關稅廳 / (8) KOTRA / (9) 韓國鐵鋼協會

(10) 韓國造船工業協會 / (11) 韓國電力公社 등

\* 이 論文을 作成하기 為하여 重要한 南北韓 資料를 提供해 주고, 協助해 주신 關係官 여러분  
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 V. 分斷國家의 經濟力 成長要因分析

分斷國家의 經濟力 成長要因을 分析하는데 南北韓經濟論, 또는 韓國經濟論, 北韓經濟論 등  
에서 取扱하여 왔다.

北韓은 社會主義 經濟發展 體制를 理念으로 經濟發展을 해 왔으며, 韓國은 資本主義식 混合經濟 體制를 理念으로 經濟成長을 해 왔다. 이렇게 서로 다른 體制하이지만 韓民族으로서 같은 뜻줄을 갖는 同一한 言語圈에서 經濟發展의 差異가 發生하는 데 대해서 世界的으로 많은 學者들이 關心이 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이다.

특히 南北統一의 問題가 民族的 課業으로 登場하면서 양쪽의 同一線上에서 段階別 經濟統合問題가 重要한 이슈로 登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經濟發展의 要人分析은 가장 核心 課題로 提起되고 있어 많은 學者들이 研究分析을 하고 있는 部分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世界銀行(World Bank)의 分析, 國際通貨基金(IMF) 分析, 英國 런던 이코노미스트(The London Economist)誌 分析 등과 韓國의 韓國銀行 分析, KDI 分析, 서울大學校 宋丙洛 教授 分析, 그리고 하버드大學校 퍼킨스(Dwight H. Perkins) 教授와 메이슨(Edward Mason) 教授의 分析 등이 많이 引用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分析들을 綜合하여 筆者가 韓國經濟의 理解(理論과 實際, 1994. 10, 學文社 / 中國語 錄譯, 北京科學院, 深陽出版社, 1994)에서 提示한 8가지 要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敍述하고자 한다<sup>17)</sup>.

우리 나라는 北韓보다 첫째, 豐富한 勞動力과 低賃金 勤勞者를 經濟發展 過程에 잘 活用하였다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날 過剩人口와 過少層級의 特性 때문에 많은 優秀한 勞動力이 存在하여 經濟發展 過程에서 必要한 人材를 低賃金으로 採用할 수 있었다.

둘째,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產業開發에 必要한 資金을 成功的인 外資導入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北韓보다 成功할 수 있는 가장 큰 要因이 되었다.

셋째, 政府의 輸出드라이브政策으로 輸出을 成功的으로 達成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輸出의 成功的인 達成은 重要한 經濟力 成果의 要因이 되었으나 輸出至上主義의 成長戰略은 大企業 為主의 偏重된 輸出支援政策으로 政經癱瘓의 고리와 官治金融의 汚辱을 낳은 結果를 招來하기도 하였다.

넷째, 政府主導型 經濟政策의 先成長, 後分配와 輸出指向의 工業化戰略, 外資에 依存한 資本蓄積 戰略, 市場機構 代身에 政府가 介入, 干涉하는 總體的 調和의 混合主義 經濟政策이 奏效하였다.

다섯째, 企業家의 成長意志도 北韓보다 經濟成長을 앞지르는 結果를 가져왔다. 韓國經濟가

17) 金聖壽, 韓國經濟의 理解, -理論과 實際-, 學文社, 1994, 8. pp. 137~142 參照.

金聖壽, 世界化時代를 위한 韓國經濟의 發展, 學文社, 1996, 10. pp. 154~159 參照.

金聖壽著/權光男譯, 韓國經濟의 發展(中國語版), 北京科學院, 深陽出版社, 1994. 2. pp. 84~104.

北韓보다 높은 經濟成果를 올린 要因은 企業家의 創業精神과 成長意志를 담은 企業集中의 開發戰略이 成功했기 때문이다. 특히 企業家의 成長意志는 資本, 技術, 經營面에서 主導的 役割을 할 수 있었고, 經營者의 資質과 能力이 產業을 育成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는 北韓보다 國民들의 높은 教育熱로 優秀한 人材를 育成하여 經濟發展의 指導者로 養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理工學系列의 育成과 高等教育의 育成은 重化學工業에 寄與하게 되었고, 半導體, 컴퓨터, 鐵鋼, 機械, 自動車, 造船 등 尖端技術工業의 發展에 貢獻하는 技術專門人力養成을 效果的으로 이룩했기 때문이다.

일곱째, 國民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自發的인 意志와 精神이 奏效하였기 때문이다. 勤勉性과 부지런함은 世界에서 가장 부지런한 猶太人보다 더 부지런하다는 讀辭를 받았다<sup>18)</sup>.

南北韓의 國民이 모두 가난을 宿命처럼 여겼던 지난날, 우리 國民에게 經濟發展의 問題는 國民이 잘 살아보겠다는 意志와 精神 뿐이었다. 그러나 이 살아보겠다는 意志와 精神은 黃金萬能主義와 利己主義의 猥富根性으로 变해가는 意識構造가 排他되기도 하였다.

여덟째, 文化와 宗教的 影響도 經濟成長의 要因이 되었다. 韓國은 東아시아의 儒教文化圈國家로서 儒教文化를 바탕으로 한 單一民族의 稔持를 가지고 있으며, 일찍이 佛教文化의 流入과 西歐의 基督教文化의 調和 등이 國民을 團結시키는 求心點이 되었으며, 宗教를 통한 經濟開發 意志의 努力은 韓國經濟 成長의 要因이 되기도 하였다.

영국 런던 이코노미스트誌는 韓國이 北韓보다 經濟成長 要因이 앞선 것은 ① 國際水準의 高級人力 活用, ② 水準 높은 經濟의 管理와 運用, ③ 높은 文化水準, ④ 높은 教育熱, ⑤ 北으로부터의 南侵 威脅 등이라고 指摘하고 있다<sup>19)</sup>

서울大學校 宋丙洛 教授는 南北韓經濟의 成長發展 가운데 韓國이 앞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資本主義體制의 優越性에 있으나, 經濟發展 過程에서 ① 高級頭腦 誘致와 그 活用, ② 政府主導의 經濟管理와 運用, ③ 儒教文化 水準의 背景, ④ 國民들의 높은 教育熱, ⑤ 韓國 國民의 勤勉性과 新로운 韓國人の 精神, ⑥ 韓國 國民의 意識構造의 變化 등에서 찾고 있다<sup>20)</sup>.

미국 하버드大學校의 퍼킨스 교수와 메이슨 교수는 韓國經濟 發展의 要因 중에 韓國人の 特性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① 自己訓練에 대한 높은 價值賦與, ② 紀綱 있는 勤勞姿勢, ③ 높은 教育熱, ④ 變化에 대한 높은 適應力, ⑤ 家庭, 職場 및 組織體에 대한 充實性, ⑥ 調和와 秩序의 尊

18) 世界著名한 저널誌들은 "The Koreans are Coming"이라는 기사를 제목으로 쓰면서 韓國經濟成長 要因은 韓國 國民들의 勤勉性과 부지런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 英國 London Economist誌 分析 引用, 金聖壽, 前揭書, 1996. 10. p. 137.

20) 宋丙洛, 韓國經濟論, 博英社, 1984, 1996. p. 9.

重, ⑦ 成就와 發展에 대한 높은 價值賦與 등이다<sup>21)</sup>.

이와 같은 韓國經濟 成長의 成果는 많은 批評을 받아왔으나 대부분 認定하고 肯定的으로 評價되었다.

따라서 韓國은 北韓보다 첫째, 輸出入의 急增에 의한 外形的 擴大. 둘째, 國際市場을 舞臺로 한 大規模의 經濟性 및 競爭性. 셋째, 先進技術의 導入과 資本誘致. 넷째, 比較優位에 立脚한 分業促進과 產業再編成 및 生產施設 擴大에 의한 潛在的 失業吸收 이를 通한 就僱擴大. 다섯째, 이를 綜合한 經濟規模의 持續的 擴大 등을 肯定的인 成果로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 VI. 分斷國家 經濟統合構築 方案

자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南北韓 經濟發展의 成果는 매우 큰 格差를 보여주고 있으며, 南北韓 經濟成長의 要因도 體制의 높은 障壁 때문에 完全히 다른 要素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經濟力의 差異와 狀況, 構造, 그리고 環境, 서로 다른 戰略的 構圖, 異質的인 經濟體制 등을 綜合하여 하나로 녹이는 調和의 南北統合 方案은 무엇일까? 이것의 解決이 主題가 될 것이다.

獨逸 統一 9年을 바라보는 2000年代, 統獨再建 9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統一을 시나리오로서 脚色해 보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方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本 研究者는 南北韓 經濟統合의 7段階 構築方案을 提示해 본다.

**第1段階는 單純物資 交流와 水平分業的 貿易을 實施해야 한다.**

처음 段階에서는 南北韓이 互惠平等의 原則에 立腳해서 單純한 物資交流와 함께 水平 分業的 貿易을 頻繁히 해야 한다. 原資材는 原資材끼리, 工產品은 工產品끼리, 物物交換을 하는 水平分業的 交易이 必要하다. 이와 같은 基本的 物物交換式 交易이 먼저 成立해야 한다. 이 1段階는 可能하며 部分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第2段階는 比較優位論에 立腳한 垂直分業的 貿易이 實施되어야 한다.**

地下資源이 豐富한 北韓側은 石炭, 鐵鋼 등을 提供하고 技術力과 資本力이 앞선 南韓側은 電子, 自動車 등 工產品을 提供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經濟交流段階에서는 經濟論理에 따른 利害關係가 칠저히 지켜져야 한다. 서로가 무엇인가 봐주는 式의 論理가 適用된다면 어느 한쪽은 自尊心이 傷해 南北關係에 問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의 諸國間 貿易段階에서 經濟交流段階로 進入하기 위해서 貿易協定이 締結되어야 하며 換率, 關稅, 窓口問題에 대한 檢討가 雙方間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上揭書, pp. 229~230.

### 第3段階는 資本去來, 合作投資 및 技術協力이 實施되어야 한다.

經濟協力의 初期段階인 만큼 資本去來와 合資投資 및 技術協力에 대하여 雙方間에 損害가 없도록 優重하게 이룩되어야 한다. 이段階에서는 南韓의 資本과 技術은 北韓의 資源 및 勞動力에 對應하는 훌륭한 結合이 이룩될 수 있다. 특히 이에 앞서 投資의 安全性과 利益을 保障하기 위한 投資協定 등이 締結되어야 한다. 이段階는 현재 一部 可能성이 높다.

### 第4段階는 南北韓의 共同政策構想을 할 수 있다.

經濟計劃과 經濟政策을 세우고 推進하는 것은 南北韓當局者의 固有한 權限이다. 그러나 共同關心事에 關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政策을 세우는 것이 重複投資를 막고 政策의 效率性을 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段階에서는 두體制가 안고 있는 限界를 서서히 調整해야 한다. 富와 所得의 再分配를 위한 產業組織도 바꿀 수 있으며, 異質感도 어느 정도 解消한다는構想이다.

### 第5段階는 固定換率制 確立과 共同通貨政策을 마련해야 한다.

第4段階를 거치면서 經濟協力의段階를 지나면 經濟統合의段階로 모든 經濟與件이 變化된다. 經濟統合 雾圍氣가 무르익으면 換率을 固定하고 通貨金融政策도 共同으로 運行해야 한다.

### 第6段階는 經濟統合과 單一化幣를 마련해야 한다.

第5段階에서 經濟協力이나 經濟統合段階로 옮겨간다는 전재 아래 먼저 固定換率制를 確立하는 것이다. 즉, 南北이 같이 쓸 수 있는 單一化幣를 만들고 하나의 中央銀行을 設立해 經濟統合을 이룬다. 單一貨幣 마련은 經濟統合의 最後段階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南北韓 經濟價值의 統合으로 葛藤 없는 方案들이 이段階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 第7段階는 最終的으로 單一經濟圈이 形成되는 것이다.

이段階에 오면 南과 北의 區分이 無意味해진다. 南과 北의 은계체가 함께 生產하고 消費하는 經濟統一이 이루어진다. 經濟統一은 南과 북의 國民들 사이에 많은 葛藤을 生成시킬 것이다. 이經濟的葛藤을 治癒하는 方法도 이段階에서 提示되어야 한다.

經濟統一 後에 나타나는 社會經濟的葛藤을 解消시키는 方案은 지난 獨逸統一經濟再建 9年間의 過程을 教科書로 삼아야 한다.

以上과 같은 南北經濟統合 7段階 方案은 本研究者가 選擇한 最善의 方案이라고 생각해 왔다. 물론 無數한 構想이 나올 수 있으며 여기에서 構想한 方案은 그 가운데 하나에 不過할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 經濟力を 通해서 그리고 그要因分析을 導出하면서 우리는 서로 南과

北이 理解하는 統一된 韓國經濟理論을 構想해 보는 것은 우리 學者들에게는 매우 큰 뜻이 있으며, 이러한 方案들을 많이 研究하여 普及하는 일이 매우 必要하리라고 생각한다.

## VII. 結論

지금까지 分斷國家 經濟의 本質, 分斷國家 經濟發展 成果의 比較와 그 要因分析, 南北韓 經濟力 差異의 結果를 綜合하였으며, 이것을 基本으로 하여 南北韓 經濟統合을 段階別로 構築하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北韓의 經濟體制는 南韓의 資本主義 體制와는 反對되는 社會主義的 經濟體制로 財產의 私的所有를 否定하는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이다. 北韓은 自力更生 艱苦奮鬥라는 口號 아래 資本, 技術, 勞動力を 스스로 解決하고, 軍事力を 強化하면서, 經濟建設도 한다는 國防並進政策을 推進해 왔다. 이런 自力更生政策의 推進結果 資本不足과 技術의 落後, 國際的 孤立을 自招하여 經濟事情을 더욱 惡化시키고 있었다. 體制의 矛盾과 深刻한 經濟難으로 인해 浩주림과 犯罪 등 社會逸脫現像이 增加되어, 經濟 및 社會問題가 深刻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8年 12月末 現在, 北韓은 9年 連續 마이너스 經濟成長을 해왔다. 그 原因은 러시아 및 東歐共產圈의 崩壞, 自然災害 등 여러가지에 基因하지만, 보다 根本的인 原因은 北韓의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가 지닌 構造的 矛盾에서 비롯된 것이다.

南北韓 經濟力 差異分析 結果, 南韓은 北韓보다 國民 總生產額에서 24.7倍, 1人當 國民所得 12.8倍, 貿易總額 129.4倍, 輸出額 151.3倍, 機械工業 生產能力의 代表的인 自動車 生產能力 125.5倍, 朝鮮 生產能力 36.2倍, 電力發電量 11.6倍 등 經濟力 比較優位에서 競爭이 되지 않는 莫強한 優勢를 南韓이 지니고 있다.

北韓 經濟가 이와 같이 落後된 것은 主體思想이라는 絶對的 統治理念에 의해 支配된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지닌 歪曲된 構造的 矛盾에서 胚胎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北韓 住民들의 衣・食・住 生活은 個人的 幸福追究보다는 北韓式 社會主義 體制維持를 위한 集團主義的 原則에 의해 劃一的으로 規制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前提 아래 南北韓 經濟統合 7段階 構築方案을 提示하였다. 즉, 1段階는 單純物資交流와 水平分業的 貿易實施, 2段階는 比較優位에 立脚한 垂直分業的 貿易實施, 3段階는 資本去來와 合作投資 및 技術協力, 4段階는 南北韓 共同政策構想, 5段階는 固定換率制 確立과 共同金融通貨政策, 6段階는 經濟統合 單一化幣 마련, 그리고 7段階는 單一經濟圈 形成 등이며, 이와같은 段階別 構築方案만 實現된다면 經濟的 側面에서 統一을 쉽게 이룩할 수 있다.

經濟統合은 段階的 方式에 의하여 漸進的으로 市場經濟가 履行될 경우에, 北韓 住民들이

겪게 될 葛藤은 훨씬 缓和될 것이다므로, 統一 後의 後遺症 克服도 最小화될 것이다. 問題는 統一, 單一化에 따르는 問題, 國營企業의 民營化問題를 비롯한 國有財產의 私有化 問題, 價格改革, 新로운 租稅, 金融體制確立 問題, 產業構造의 再調整 問題, 그리고 社會福祉制度의 改編 問題 등을 指摘할 수 있다. 그러나 獨逸 統一의 事例로 보면, 住民의 經濟生活에 밀접히 關聯되는 財產權, 企業, 屬僱과 賃金, 그리고 價格, 住宅, 消費部門 등에서豫想되는 葛藤豫測과 對應策의 마련이 爭點으로 浮刻될 것이다. 獨逸은 統一 以前에 꾸준하면서도 多次元的인 經濟統合 交流를 進行하여 월음에도 불구하고 深刻한 社會的, 心理的 葛藤을 많이 겪었다. 하물며 北韓은 政治體制와 權力機構, 國防政策과 맞물려 있는 特殊한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長期間에 걸친 統合努力과 忍耐를 하지 않으면, 獨逸보다 더 많은 社會, 經濟的 葛藤을 겪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經濟의 私有化가 成功的으로 이룩되도록 體制轉換의 方案을 다각적으로 研究해야 한다. 그리고 獨逸統一 以後 지금까지 9年間의 經驗으로부터 有益한 智慧와 情報를 밀바탕으로 解答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0年부터 大統領傘下에 南北統一 後에 發生되는 葛藤의 問題를 처리하는 “統一後遺症克服委員會”를 構成하여, 統一部와 連繫하면서 統一 以後에 發生·豫測되는 葛藤의 問題를 各 分野別로 研究하고, 시나리오를 作成, 實驗해 보는 制度的 裝置가 實現되어야 한다.

## 參考文獻

1. 姜光植 外 13人, 統一後遺症 克服方案 研究－民族社會的 價值體系의 調和－, 研究論叢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2. 金有贊, 獨逸統一 3년의 評價, 租稅研究院, 1993.
3. 金秀坤 外 6人, 統一以後의 社會와 生活, 1996.
4. 金聖壽, 南北韓 經濟力 比較와 協力方案－韓國經濟의 發展, 學文社, 1996.
5. \_\_\_\_\_, 新經濟學原論, 學文社, 1992.
6. 金昌順 外 10人, 北韓經濟論, 社團法人 北韓研究所, 1977.
7. 朴正東, 北韓地域의 農業構造改革－韓半島 統一時의 經濟統合戰略－, 1998.
8. 宋丙洛, 韓國經濟論, 博英社, 1984.
9. 李英善·全洪澤, 韓半島 統一時의 經濟統合戰略, 韓國開發研究院, 1997.
10. 延夏青 外, 南北韓 經濟共同體形成을 為한 政策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93.
11. 李宇永, 統一以後 段階에서의 融化方案,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12. 朴 進, 統一에 對備한 社會保障政策의 方向 및 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95.

13. 申永燮, 南北韓 經濟統合의 先決課題, 1998.
14.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動向, 1996.
15. 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95.
16. 統一部, 오늘의 北韓, 1998.
17. 經濟企劃院,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1992.
18. 統計廳, 大韓民國 50년의 經濟社會像 變化, 1998.
19. 統一院, 獨逸統一 6年, 東獨再建 6年, 1996.
20. 韓國銀行, 主要體制 轉換國 民營化 現況 및 特徵, 1996.
21. 駐獨韓國大使館, 獨逸統一 7周年 報告書－現況과 課題－ 1997.
22. Kornai, Janos.,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 Norton & Company, 1990.
23. Chung, Joseph Song 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 Structure and Development* California :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24. Chun, Hong Tack & Dong Ho,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Economy and Directions for Its Future Reform*, KDI-Diw Joint Seminar, May 1994.
25. Lee, Chung H., *Korean Unification : Issues in Transition and Economic Union*, Kiel Working Papers No. 590, The Kiel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1990.
26. Foster Carter, Aida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27. Ross, Marc Howard, *The Culture of Conflict : Interpretations and Interes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93.
28. Pulzer, Peter, *Unified Germany : A Normal State?* German Politics. Vol. 3, No. 1, April 1994.
29. Sinn, Gerlinde and Hans Werner Sinn, *Jumpstart : The Economic Unification of Germany*,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92.
30. OECD, *Mass Privatization : An Initial Assessment*, Center for Cooperation with the Economies in Transition, 1995.

## Comparison of Economic Growth Measur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Sung-Soo, Kim\*

### Abstract

This thesis is aimed to derive the consequences following the achieve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comparative study, and further to present the measures by stage to lead the economic integration.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is a socialist economic system with the planned economy by centralization of power in which all properties are reverted to state and individual property is denied.

The situation of North Korea's economy is growing from bad to worse due to the shortage of capitals, backward technology, isolation of its own accord.

In addition, it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ppear to have been serious along with the increase of deviation status from North's society, hunger, offences and others due to the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and contradiction in its system.

North Korea was known to have made the minus growth in its economic development since 9 year ago, as of December 1998. Its negative growth was partly because there were various developments of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states in communist bloc as well as the results of natural disasters, but partly because such basic adverse factors were attributed mainly to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in planned economic system than anything else.

The analysis by comparison of the gap of economic powers between North

---

\*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and Management Relations, KyungHee university, Korea.

and South Korea indicates that South Korea maintains a superior position in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in fields such that GNP of South is a 24.7 times of as large as North, per capital income 12.8 times, trade volumes a 129.4 times, export a 151.3 times, the capacity of auto production a 125.5 times, shipbuilding capacity a 36.3 times, and power out a 11.6 times.

By contrast with South, it was analyzed that such a backward gap of North's economy was due mainly to have been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social economic system under the absolute sovereign doctrines of such thought would result in a distorted social structure in contradiction.

Accordingly, all the necessities of life in North have been fully and uniformly controlled by a principle based on the collectivism in order to maintain North's own social system than for the pursuit of individual happiness.

On the above situation and premises, the 7 measure by stages for bringing the economic integration can be presented as :

The 1st stage is to execute a simple exchange of goods and trade by horizontal division of labors ; the 2nd stage, the 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 the 3rd stage, capital transactions and joint investment including cooperation in technology ; the 4th stage, mapping out of joint policy for two Koreas ; the 5th stage, establishment of the fixed foreign exchange rate system and common including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 the 6th stage, the creation of unitary currency for economic integration ; and the final 7th stage, the formulation of the unitary economic bloc and etc.

It is expected that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can be easily achieved in view of economic points if the above measure by stages be adopted and realized.

In considering the case of the German unification, however, aimed such executions of stages in progress,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s and the required countermeasures, as to the conflicts from property rights, enterprise, employment and wages, price mechanism, dwelling houses, daily life as a consumer and countermeasures, will be raised.

Furthermore, we may not avoid the social and economic conflicts worse than those Germany experienced, unless we are patient with the consort efforts for a long time, since North has special socialist economic system that is closely linked

with each other between its defense policy mechanism and political & power system.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we shall study the possible measure of the system shift by North in every respects so as to enable it to adopt and realize successfully the privatization in North's economy.

For this end, we shall endeavor to find out the solutions based on instructive information and wisdom obtained from the German experience so far since its establishment of unification.

## 韓·中貿易史研究

###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China

金 新\*

#### 目 次

I. 序論	IV. 朝鮮社會의 對中國貿易
II. 三國社會의 對中國貿易	V. 結論
III. 高麗社會의 對中國貿易	參考文獻

#### I. 序論

한국과 중국은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수출입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의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행해지게 된 배경을 찾은 후에 무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즉 단순한 국경을 통한 시장의 교환이 점차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분석하여,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관찰하여 역사적 무역이 현대무역과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가를 연구하여야 되는 것이다<sup>1)</sup>.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수출입의 현상과 그 의의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역연구의 총합 및 체계화는 상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킨 시대의 특질이기도 하였다. 어쩌면 그것은 상인이 국가에 종속하여 그 정책 아래서 유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sup>2)</sup>.

같은 국가간의 수출입도 시대가 다르면 그 경제적 의의는 당연히 달라지며, 그 정치 경제적인 의의도 크게 변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시대가 같아도 그것은 정치 경제적인 배경이 다

\* 廣熙大學校 教授

- 1) 김 신, 「한국무역사」, 석정, 1984, pp. 26~287.
- 2) 김 신, 「무역사」, 석정, 1995, pp. 167~398.

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수출입의 정치 경제적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계기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과 변화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하는 것과도 크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이 시대를 초월하여 무엇이 변하지 않으며, 어떠한 점에서 변화해 가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향후 대중국 수출의 패턴을 예측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변화하는 의의와 그배경에 있는 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범위는 대중국 무역활동이 활발하였던 시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 II. 三國社會의 對 中國貿易

### 1. 三國의 對 中國貿易

한중관계가 문헌에 정착되는 것은 한민족의 초기 형성이 이루어지는 진한시대부터이며, 국  
가간의 공적외교 교섭은 삼국의 고대국가가 완성되어 남북조제국과 왕래함으로써 구체화된  
다고 할 수 있다<sup>3)</sup>.

고구려를 제외하면 삼국의 대중 통교 기록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대체로 4세기  
후반의 일이다. 당시의 삼국은 한군현의 세력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한 후 반세기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중국 및 일본과 통교하는 등 팽창을 거듭하여 바야흐로 삼국정립의 시기를 맞  
게 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정립시대에는 서로 수군을 가지고 쟁폐하는 한편 각기  
해로를 통하여 중국의 여러 나라와 통교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빈번히 견당선을 당에 파  
송하여 문물을 교환하였다.

삼국시대의 대외무역은 국가간의 물물교환형식, 즉 조공형식의 무역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삼국시대의 대외무역에는 또하나의 형태로서 밀무역이 있었다. 당시의 대외무역은 본래 국  
가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으므로 사무역은 밀무역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  
서 삼국시대에는 주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밀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sup>4)</sup>.

### 2. 統一新羅의 海上活動

#### 1) 統一新羅의 海上貿易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가 극동해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9세기 중엽까지 일본은

3) 자차통감, 37(권) 4(4부 총간본).

4) 김 신, 「한국무역사」, 석점, 1984, pp. 26~287.

소위 견당사란 조공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하였는데 그 조공부의 항해기술 지도는 신라인이 담당하고 있었다<sup>5)</sup>.

신라 말기에 이르러 정치적 통제의 이완으로 개인적 활동이 자유롭게 되고, 무역조건이 개선되어 신라인의 무역은 황해와 대한해협을 무대로 크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 9세기 중엽 신라인들은 벌써 새롭고 더욱 극적인 세계사의 한 국면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무렵 신라인들은 중국동부를 지나 중근동의 무역상인들과도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하반기의 사무역의 상황은 장보고의 청해진에서 구체화되고 결실을 보게 된다. 장보고가 시해되고 청해진이 폐멸되고 난 뒤에도 사무역은 성행하고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초까지 지속되었다.

## 2) 청해진이 소멸된 후의 사무역

장보고가 사망하고 청해진이 폐멸되었다고 해서 신라인의 해상활동의 기세가 꺽인 것은 아니었다<sup>6)</sup>.

장보고의 사망과 청해진의 폐멸은 우리 무역사에 있어서 실로 큰 사건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장구한 기간에 배양된 해상활동의 소지는 일시에 근절될 수는 없다. 당은 서기 907년에 멸망하는데 그 전해인 효공왕 10년(906 A.D)에 신라가 견사하고 그후 경명왕 7년(923 A.D)에 신라가 후당에 견사하기까지의 10여년간은 중파과의 해상교통, 무역이 두절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당말의 혼란기에는 기록의 누락이 많이 되었고 또 지방에 할거한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도래한 선박을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효공왕 7년에 견사한 이후 신라는 그 멸망 직전까지 빈번하게 중국에 견사하는 바, 견사와 민간상선에 의한 무역은 표리일체의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삼국시대에 성황을 이룬 해상교통과 사무역은 후삼국시대에 계승되었다.

## 3. 後三國時代의 貿易

### 1) 時代的 背景

나말의 후삼국시대는 그 기간이 짧거나와 삼국이 정립 상재하였던 혼란기였기에 해상무역은 없었던 것 같이 생각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세 나라가 모두 중국과의 해상교통과 무역에 있어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그 이유로서 첫째로 그 쟁패의 전력원으로서 貿易博利에 힘을 써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둘째, 신라는 그 말기에 있어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구축된 해운기초와 무역역량이 쉽사리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

5) 진단학회, 『한국사』, 고대편(서울 율유문화사, 1969), pp. 456~7.

6) Reischauer, *Ennis Diary*,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55, pp. 275~80.

에 거의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삼국시대의 무역은 무역사에 있어서 공전절후의 황금시대를 이룩한 통일신라무역의 연장이며 계승자였다고 하겠다.

신라 효공왕(901 A.D) 때 궁예가 왕을 칭하므로 신라, 후백제, 摩靈의 소위 나말삼국이 형성되었다고 하나 그것은 형식론이고 실제로는 서남해 裨將 頸壹이 完山州를 근거로 하여 반란, 武珍州를 점령하여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후백제를 건국한 신라 진성여왕 6년(892 A.D)에 이미 후삼국시대는 시작된 것이라 하겠으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19년(후당 清泰 3년, 936 A.D)까지의 약 45년간을 후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後三國時代의 新羅와 中國과의 交易

한반도의 경상도 지방에 봉쇄된 후삼국시대의 신라는 대중국 해상교통 무역의 거점으로써 유리한 반도 서안 지방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그래도 해상활동을 계속하여 중국에 도항하여 견사,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후삼국시대의 신라는 南支의 제국, 즉 吳, 越 등에도 견사 무역선을 파송하고 있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첫째, 후삼국시대 신라의 선박은 오, 월 등의 남지 제국까지 도항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 이들 남지제국의 선박들이 신라에 왕래하고 있었다는 것.

셋째, 그 쌍방의 선박에는 견사를 태운 관무역선도 있었고, 민간무역선도 있었다는 것이다.

## 3) 後百濟와 中國과의 交易

후백제는 해안의 주요지역이 泰封과 고려에 침佔되어 있었으나, 이에 불구하고 활발하게 중국과 교역하고 있었다. 다만 그 활동은 거의 중국 남쪽에 집중되었으며 중국북부의 해상진출은 큰 성황을 이루지 못하였다.

## 4) 泰封－高麗의 中國과의 交易

태봉－고려는 후삼국 중 황해 연안을 대부분을 점유하여 대륙과의 해상무역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며, 사실 가장 활발한 해상진출을 하였다.

## 4. 渤海의 對外貿易

7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중국의 동북(만주)지방 동반부에서 소련의 연해주와 한반도 동북부에 걸쳐 있었던 발해(699~926)의 건국시조는 大祚榮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을 끌여들여 세운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왕실과 지배층은 고구려계이고 피지배층은 말갈족으로 구성된 복합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전성시대의 영토는 대체로 동은 동해, 북은 송화강, 흑룡강에서 북방민족과 접하고, 서는 장춘, 심양, 압록강구로 그어지

는 선에서 거란 당과 경계를 접하고 있었으며 남은 함경남도 龍興江 부근까지였다.

발해가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는 극히 미묘하였다. 당의 압력을 배제하면서 건국한 발해는 처음 당과는 적대적이었다. 신라와도 대립적인 위치에 있어서 신라는 그 국경에 장성을 쌓는 일까지 있었다. 신라가 그 국경선을 대동강과 원산만으로 국한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발해의 압력에 하나의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신라와 당이 연합하여 발해를 협공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서 무왕은 영토를 확대하여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는 엄연한 독립왕국으로서 존재를 뚜렷이 하였다. 그리고 당과도 통하여 그 제도와 문화를 섭취하기에 이르렀다.

발해의 대중관계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경제적인 교역이었다. 조공의 형식을 빌어 행해진 당과의 교역에 있어서 수출품은 원료적인 것이 많았으나, 점차 공예품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당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고, 그 수입품의 대부분은 각종, 직물, 공예품 등 귀족이 필요로 하는 사침품이었다.

한편 남쪽 일본과도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교섭이 있었는데, 신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본과 자주 통교하였다.

### III. 高麗社會의 對中國貿易

#### 1. 時代的 背景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대륙의 정치 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가 건국할 때는 916년 遼(거란), 5대 10국을 통일한 宋이 일어났다. 이때 고려는 대외정책으로 親宋排遼를 표방한 북진정책을 세웠으므로 세 차례나 거란의 침입을 받았다. 962년 광종 때 송과 국교를 맺은 양국간의 관계를 보면 송은 북방에 위치한 金(女眞族) 나라를 의심한 나머지 정치적, 군사적 의도에서 제휴하려고 하였으나, 고려는 송과의 선진문화 수입에 주목적을 두고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다<sup>7)</sup>.

고려초기에는 군선, 무역선, 조운선 등 각종 선박이 크게 발달하였다. 태조 왕건이 구사한 100여 척의 군선 중에는 길이가 96척에 이르러 그 위에서 말을 달릴 수 있는 樓船이 있고, 또한 중국과의 교역은 활발히 전개되고 특히 문종대(1947~1083)를 전후한 시기에는 송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대형 무역선이 등장하였다.

고려는 원과 연합하여 1274년과 1281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원정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대형전선 300여척, 평속선 300척, 汲水小船 300척 등 도합 900척씩을 건조했다. 그때 중국

7) 小林良彰, 『經濟史入門』, pp. 384~386.

남방의 조선법에 따르면 공기가 길어지고 공비도 더 소요되므로 고려 고유의 방법에 따라 서둘러 건조했다. 그런데 려동연합군이 일본에 원정하여 태풍을 만났을 때 중국의 군선은 많이 깨졌는데도 고려의 군선은 튼튼하여 온전할 수 있었다<sup>8)</sup>.

## 2. 고려의 해상무역

고려의 전반기에 걸쳐 禮成港(禮成江 하류의 碧瀾渡)를 중심으로 한 海商, 특히 宋商의 활동은 실로 활발한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麗·宋 사이의 문물교류는 양국 사이의 외교적 형식을 통한 公的貿易(소위 國信物의 交換)보다도 이 사적인 민간교역이 크게 성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양국사절이 왕래한 회수와 宋商이 내항한 회수를 비교하여 보아도 넉넉히 추축 할 수 있는데 고려 光宗(제4대) 13년으로부터 仁宗(제17대), 懿宗(제18대) 시대에 걸쳐 고려의 사신이 송 나라에 건너간 것이 약 57회요,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온 것이 약 30회인데 비하여 宋商이 건너온 횟수는 현종(제8대) 3년으로부터 충렬왕(제25대) 4년까지 약 260여 년 동안(A.D 1012~1278)에 약 120회에 달하였으며, 내항한 송상의 총 인원도 최소 한도로 약 5,000명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으로도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때로는 大食國(아라비아) 상인과 倭商도 건너와 교역을 행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고려의 상인도 중국 또는 일본 등 해외에 진출하여 문물교류에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종 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려의 문물이 크게 갖추어지고 商船이 날로 늘어나 문물을 수입하려는 목적 아래에서 행하던 송 나라와의 공식적인 통교도 그다지 필요치 않게끔 되었던 것이다<sup>9)</sup>.

## 3. 高麗商人의 活動

### 1) 高麗商人의 貿易活動

고려 상인의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래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신라 말기에 비하여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이니 여기에는 또한 연유가 있는 것이다. 원래 고대 우리나라에 있어 외국 문화의 수요는 주로 조정을 중심으로 한 귀족 사회에 있었던 것이었으며 고려에 있어서도 그들의 수요는 國商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다리기 전에 宋商에 의하여 대개는 공급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관계야말로 麗商 활동이 소극화된 주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어쨌든 고려 상인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던 위에 관한 기록도 또한 적어서 그 전 모습을 추찰하기가 매우 어렵다<sup>10)</sup>.

8) 최호진, 『한국경제사』, 박영사, p. 503.

9) 高麗史, 列傳 券 17, 金方慶.

10) 『高麗史』, 世家, 券30.

그러나 동아 국제 무역의 무대에 있어 고려 상인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고려 상인의 외국무역은 陸海 양면으로 병행되었던 것이니 서북으로는 遼, 金과 互市를 행하고 서남 해로로는 송나라에, 동서 해로로는 일본으로 통하였던 것이다. 고려 상인의 대중국 해상무역은 이미 태조 때부터 행하였던 것이다. 태조 초년부터 後唐과의 국교가 열려 사절의 왕래와 國信物의 교환이 자주 행하여졌으며 일반 무역도 자못 활기를 띠었던 것인데 태조 17년 7월에 고려의 商船이 후당 登州(산동)에 교역을 행한 것과 동년 10월에 고려의 선박이 후당에 진너가 등주에서 무역을 행한 것으로도 개황을 추찰할 수 있는 것이다.

## 2) 高麗商人의 海上活動

宋代에 이르러서도 고려의 海船이 자주 明州, 登州에 표착하였다는 기사가 宋史에 보인다. 원래 명주와 등주는 고려와의 교통과 무역에 있어 중요한 항구로서 唐代로부터 고려의 상선이 자주 출입하던 곳이므로 그곳에 자주 표착하였다는 고려의 선박은 商船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송에서는 국가수입을 늘리려는 정책에서 동남연안의 주요항구에 市舶司를 두어 출입화물의 징세와 海舶에 대한 검찰이 엄하였던 관계로 양국 민간 사이에는 밀무역이 성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명주, 등주에 자주 표착하였다는 고려의 선박도 밀무역선으로서 표류를 위장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하고 추측된다. 그리고 南宋 말경에 이르러서도 四明(명주) 지방에서는 다른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15분의 1을 入口稅로 징수하였으나 고려 선박에 대해서는 19분의 1을 稅率로 하였는데 이는 당시 명주가 고려와의 교통과 무역에 있어 중심적인 항구였던 만큼 출입이 빈번하던 고려 선박에 대해서 특례 조례를 배포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고려 海商의 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德宗, 文宗 시대에 걸쳐 일본에서 자주 귀송시킨 고려의 표류인들 가운데에는 안광과 같은 해상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1)</sup>.

## 4. 宋商의 活動

### 1) 宋商活動의 經由

먼저 송나라 상인의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국 상인의 활동이 宋代에 이르러 활발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가) 송대에 이르러 중국의 상업 자본이 발전된 것, (나) 당나라 시대로부터 大食國人을 주로하여 波斯, 獅子國, 扶南, 眞麗(캄보자), 林邑(잠파) 등 廣州와 西南亞洲와의 교역이 매우 성하였던 것이다<sup>12)</sup>.

11) 『宋史』, 卷180, 食貨, 2. 錢幣, pp. 10a~b.

12) 김 신, 『한국무역사』, 석정, 1984, pp. 26~287.

## 2) 宋商의 貿易活動

이와 같은 송 태조의 정책은 역대로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었는데 宋太宗은 그의 응희년간에 내시 8안에게 勅書와 金排을 주어 海南諸蕃을 불러들이게 하였으며, 특히 南宋에 이르러서는 北中을 금나라에게 빼앗기고 江南 일대를 지키며 金과 대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더욱 국가수입의 증진을 무역정책에 의하여 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남송의 高宗, 紹興 29년에는 3市舶司의 수입이 2백만緡의 거액에 달하였는데, 이는 고종의 무역장려정책이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宋代에 있어 서남제국과의 실제적 무역상황을 살펴보면 宋史 互市舶法條에 “무릇 大食(아라비아), 古羅(印度 西南岸의 쿠란지방), 자바, 보르네오, 팔립방의 페네이島, 팔렘방의 諸蕃이 아울러 무역을 통하는 바 金銀, 緡錢, 鉛錫, 雜色排, 瓷器, 香藥, 서각, 상아, 산호, 호박, 빈철(서방에서 나는 매운 쇠), 皮, 수정, 蕃布(紅色 染料의 材料) 등 물건과 교역한다.” 하였다<sup>13)</sup>.

당시 서남 여러 나라 가운데 무역의 중심이 된 것은 大食國이며 자바, 팔레방도 명성이 높았다. 이 세 지방 상인을 위주로 한 서남 제국의 商船은 南中연안에 쇄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宋廷에서는 광주(광동성 番禺縣 중심)에 市舶司를 두어 화물 출입세(주로 입구稅)의 징수와 특수 화물의 전매, 그리고 貢物의 접수 등 사무를 맡게 하였던 것이다.

## 5. 麗·宋의 貿易活動

### 1) 民間貿易

麗·宋의 국교는 고려 광종 13년(宋 太祖 建隆 3년)에 비로소 열렸으니 민간무역은 고려 현종시대로부터 차차 성행케 되었다. 송 나라에는 태조, 태종시대에 국내사업이 완성되고 송 나라의 무역정책이 실현되기 시작하였으므로 眞宗 때(고려 현종 때에 해당함)에 이르러 宋商의 활동이 고려에서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고려에의 송상의 활동은 해를 따라 왕성의 도를 더하여 북송 말경으로부터 남송 초기에 걸쳐 매우 성황을 조성케 하였던 것이다. 송나라에서는 신종 때(고려 문종시대에 해당함)로부터 고려와 협조함이 동북의 강적인 遼(글안)을 견제코자 친례책을 썼던 것이다. 그 때 송나라에서는 고려에 宋商黃慎을 두 번이나 보내어 고려 정부의 의향을 떠본 뒤에 安撫 등을 사신으로 보냈으며 고려의 사절도 때로는 송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송나라로 건너갔다. 다시 휘종 때(고려 예종 때에 해당함)에는 고려에 대한 송의 친선 태도가 더욱 짙어져 고려 사신을 國信使로 올리고 예우에 있어서도 西夏 위에 두었으며 글안 사람과 같이 樞密院에서 다루게 하였다. 그리고 고려사신

13) 천관우, 『한국사대계』, 삼진사, 1973, p. 129.

을 접대하는 引伴押官도 接送館伴이라 이름을 고쳤다. 이러한 정치적 관계는 일면에 있어 상인의 활동을 더욱 왕성케 하였던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이다<sup>14)</sup>.

이와같은 남송의 친려정책과 상인의 정치적 역할은 麗·宋무역을 왕성하게 하였는데 轟宗 일대를 통하여(南宋高宗, 孝宗시대에 해당) 宋商이 건너온 총수가 1,670여명에 달하였던 것으로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 2) 宋商의 來港

고려 현종 3년으로부터 충렬왕 4년에 이르기까지(A.D 1012~1278) 약 260여년 동안에 고려에 내항한 송상의 총인원수가 최소한도로 약 5,000명으로 계산할 수가 있으며 그 회수도 120여회에 달하였던 것이니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송상이 내항하던 당시에 있어서는 7, 8월경의 서남 계절풍을 이용한 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남풍을 이용하여 내항하던 그들은 다음 북풍을 이용하여 회항하던 것이 상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북계절풍이 부는 10월 또는 11월에 역풍을 무릅쓰고 내항한 것도 적지 아니한데, 여기에는 또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고려에 있어 국가적 大祭典인 유명한 八關會 또는 口關會가 仲冬(즉 10월에 행함) 11월에 궁중에서 거행되는데 이 팔관회에 송상이 참여하고 공물을 바치는 것이 관례로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宋商의 10월 또는 11월 내항은 팔관회를 기회로 하여 일종의 貢物貿易이 행해졌던 것이니 이로 미루어보아 당시 고려에서 宋商에 대하여 특수한 대우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 3) 貿易의 方式

### (1) 朝貢貿易

조공무역은 원래 양국의 국교가 광종 13년에 열려 명종 때에 이르기까지 適金關係로 인하여 여송국교에 고비는 있었으나 약 200여년 동안 행해졌다. 공물을 통하여 행하던 무역의 질적방식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국사절이 왕래함에는 대개 상인을 통하여 먼저 補牒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려의 사절이 송에 건너갈 때에는 고려로부터 송의 등주 또는 명주의 수신에게 통했으며(宋神宗熙寧7년 이전에는 登州 그 이후에는 明州가 대개 양국 사절 왕래의 기점이 되었다), 등주 도는 명주의 수신은 補牒에 대한 宋廷의 回訓을 받아 麗史를 접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려 사신의 상륙 이후 회항에 이르기까지 館留, 治行(宋都에의 왕복)비용은 송의 부담으로서 자못 거액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沿路人民에게까지 다소 수고를 끼쳤던 것 같으며 이와 동일한 예로서 宋使가 도래한 때에도 먼저 등주 또는 명주로부터 報牒便 혹은 상선편으로 報牒이 고려 조정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14) 金庠基, 『麗·宋貿易小考』, 『진단학보』, pp. 7, 1137 참조.

이와 같이 양국 사절의 왕래에 있어서는 주로 양국간의 信物이 贈物의 형식으로 교환되었으며 때로는 信物와 贈答이 직접 實質의 형식을 갖추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는 일반 무역이 使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공물에 의한 무역의 발전 형식으로서 중국에 있어서는 근세 明清時代에도 入貢使行에 한하여 다른 물품의 휴대를 허용하여 國信物의 교환이 끝난 뒤에는 會同館에서 일반무역이 열렸었다. 이러한 예의 무역은 麗宋 양국 사이에도 행하여졌던 것이다.

### (2) 常民에 의한 貿易

상민에 의한 양국무역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가) 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합법적인 것과 (나) 민간의 밀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이 금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宋에 있어서는 자국 商船이 출항할 때에는 公携(官券)의 휴대가 절대조건이 되어 있으며 出船의 貨名과 目的地名의 報錄 및 무기 등 違禁物을 휴대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市舶司 혹은 所在州에서 公憑을 附給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無斷出船을 엄금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고려에 출입하던 宋商은 대개 公憑을 휴대하여 합법적 무역을 행하던 것으로 추찰되는 바이다.

### (3) 麗·宋間의 密貿易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송 사이에 밀무역이 성행했던 것도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양국의 지리상의 관계로서도 막기 어려운 일이다. 宋史 高麗傳에 의하면 五千緡 이상의 화물에 한하여 금인한 것으로 보면 五千緡 미만의 것은 불문에 부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양국간의 밀수 금지가 용이하지 않았는데 千緡 미만의 소규모의 것은 묻지 아니하였다.

공증없이 밀항하는 자에게는 중형을 과하였는데 그 당시 양국간에 밀무역이 성행하였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 6. 麗·宋의 貿易航路

### 1) 貿易航路

麗宋 양국의 교통무역은 황해를 통하여 행하였는데 당시의 路程를 살펴보면 고려의 예성항은 수도 개성의 해구이며 남방 이국과의 해상교통으로 빈번하였으며 특히 禮成港을 중심으로 중국 상인의 왕래가 번성하였던 것은 禮成江曲의 歌曲이 생긴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중국 등 남해안 일대에는 明州, 登州를 주로 하여 연안 각 항에 고려와의 교통이 열렸던 것이다.

송 神宗 7년(고려 文宗 28년) 이전에는 麗宋 교통에 登州가 요충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명주가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서 각 항 사이에는 대개 남북 양선항로의 간선이 있었는데 이 남북양선도 시대를 따라 소멸되었으며 북선항로는 산동 登州 방면으로부터 동북으로 거의 직선 코오스를 취하여 대동강 어구 속도로 龜津口 또는 예성항에 이른다. 이 북선은 상고시대부터 열려서 고려에 있어서도 문종 28년 경까지 양국 교통의 주요 항로가 되었다. 그리고 남선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종 28년 경부터 양국 사절의 왕래를 비롯하여 일반 해상교통이 북선보다도 남선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동기는 契丹勢力이 강성하여 북선항로가 위협을 받았던 것과 또 南中沿岸에 국제무역이 왕성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코오스는 明州로부터 동북으로 흑산도에 이르러 다시 동북행하여 古郡山, 馬島(海美西), 紫燕島 등의 반도 서안 근해의 도서를 거쳐 禮成港에 이르는 선이다.

이 남선은 위의 서남조선과 남중간의 항로로 짐작되는데 고대 중일 항로에 있어서도 이 선이 그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 2) 兩國의 航路와 季節風

다시 양국 항해의 소요일수와 계절풍과의 관계를 남선항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일찍이 이 코오스를 왕래한 송나라의 徐兢의 高麗圖經에 의하면 宋使 路尤通, 徐兢의 일행은 宣和 4년 高麗 醇宗 17년 5월 16일에 明州로부터 출항하여 동월 19일에 定海縣에 들렀다가 동월 24일에 소위 出海口라 하여 다시 定海縣으로부터 돌아왔다. 그리하여 6월 6일에 郡山島에 이르고 그의 終航點인 禮成港에는 동월 일에 도착되었다. 그러나 이 일정에 있어서는 定海縣에서 供佛祀神의 의식 등으로 三晝夜의 시일을 요하였으며 郡山島로부터 禮成港에 이르기까지 약 6주야가 걸렸으며, 이것은 도중 각처에서 환송의 儀禮가 있었으므로 郡山島와 禮成港의 航程 일수는 정확하게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定海縣으로부터 郡山島까지 약 13일이 걸렸던 것을 알 수 있으나 梅峯으로부터 바다를 횡단하여 郡山島에 이르기에는 약 9일이 걸렸던 것이다. 다시 그들의 回程에 있어서는 同年 7월 15일에 解纜하여 8월 27일에 定海縣에 도착하였으니 그 소요 일수는 약 42일로서(동년 7월 小) 그들의 內航時에 비하여 약 3배의 시일을 소비하였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季節風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布帆船을 사용하던 당시에 있어서는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것이 보통인데 대륙 특히 南中方面과 반도와의 항해에도 계절풍이 이용되었다. 이것은 使行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使行보다도 상인의 왕래가 더욱 그러했던 것으로 宋商의 입국이 가을에 많았던 것은 가을의 서남 계절풍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徐兢 일행의 來航은 夏期 남풍을 이용하였으므로 海峯으로부터 군산도까지 약 9일 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 〈對中國貿易年表〉

연대	시대	주요사항	한·중 무역사
BC	1000 805 400  선사 및 고조선 사회	청동기 문화의 전개 (고조선의 발전) 철기문화의 발전	산동반도에서 연안항로 개통
	53 206 356 372 384 612 660 668  삼국사화	고구려, 태조왕 즉위 백제(고이왕), 16관등과 공복제정 신라, 내물왕 즉위 불교, 고구려에 전래 백제, 불교 전래 고구려, 살수대첩 고구려, 안시성싸움 승리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삼국의 대중불교 기록 등장 금·은 세공품 수출 황금, 주옥 수입 백제와 불교문화, 장식품 교역 신라의 곡물과 직물 교역
AD	676 698 722 828  통일신라시대	신라, 삼국통일 발해의 건국 신라, 정전의 지급 장보고, 청해진 설치	사무역 활성화 수출은 말, 은, 우황, 인삼 등 수입은 의복, 은기 등 신라무역권 형성 해상세력 확보
	892 901 918 935  견훤, 후백제 건국 궁예, 후고구려 건국 왕건, 고려 건국 신라 멸망	견훤, 후백제 건국 궁예, 후고구려 건국 왕건, 고려 건국 신라 멸망	조사 무역선 파견
	996 1076 1145 1231 1234  고려사회	철전(건원증보)의 부조 관제개혁, 전시과 개정 삼국사기 편찬 몽고의 제1차 침입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 간행 고려대장경을 새김 여·원의 제1차 일본정벌 문익점, 원에서 목화씨 가져옴 고려멸망, 조선 건국	공적무역과 사적무역이 발달 고려상인의 활발한 활동  송상대항 무역장려책  수출은 금, 은, 동, 인삼 수입은 비단, 자기, 약재  관무역이 활발 민간무역의 가능성 확인

연대	시대	주요사항	한·중 무역사
AD	1402	호패법의 설치	공무역과 사무역의 융성
	1403	주사소 설치	경성, 경원의 무역소 설치 (소금, 철, 소, 말 교역)
	1423	고려사 편찬	
	1469	경국대전 완성	조공무역의 정착 국경무역 성행
	1592	조 선	임진왜란, 한산도대첩 벨테브레, 제주도 표착
	1628	사	병자호란
	1636	회	통과세로 관세, 전세, 수월세 무역억제책
	1653		
	1678		개성 상인의 본격적 활동 수출은 인삼, 괴물, 직물
	1708		수입은 모자, 침자, 물화 부연사행시행 (동지, 정조, 생절, 천추) 후시 팔포제
	1861		조청상인 무역 강점
	1884		

(筆者作成)

#### IV. 朝鮮社會의 對 中國貿易

##### 1. 對 여진 貿易

###### 1) 毛物貿易

고래로 여진 토산물 중 제일위를 차지한 것은 毛物인데 虎皮, 海豹, 皮, 青麗皮 등이다. 그 중 青麗皮는 고려 초기로부터 그들이 조선에 進貢한 중요한 물품이었다. 그러나 일찍이 국경 주민들은 牛馬와 鐵物을 가지고 여진인의 豺麗皮를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남방의 상인들은 北道에 운집하여 다투어 가며 보물을 수집한 것을 알 수 있다. 中宗 때의 일이지만 品好 豺皮 한 장은 馬一匹로 살 수 있었다고 하니, 豺皮의 가격이 얼마나 고가였든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에도 豺皮輸入은 많았던 것이다.

###### 2) 金銀 寶石貿易

金銀은 조선의 토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종 11年(明 宣德 4年) 明朝에 嵩貢하던 금은 면제의 勅許를 얻은 것은 다같이 아는 바이나, 국내(특히 함경도 각지)에서는 금은의 채굴을 장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錢物의 다소와 首從을 막론하고 皆誅라는 엄명이 내린 것은 일찍이 태조 3년 6월이었지만, 그러한 금령은 세종 30年까지는 평안도 방면에만 시행되고, 함경도 방면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산의 鐵은 삼한시대로부터 외국에 잘 알려져 있었다. 철의 산출이 있는 여진족이 일찍부터 고려의 철을 수입하였던 것은 丸龜金作氏도 지적한 바와 같거니와, 선초의 女真人도 상술한 바와 같이 鏡城, 麽原의 무역소 설치 전후에 조선의 철을 많이 수입하였다. 철은 무기, 농기구, 기타 일용기구를 제작하는 원료로써, 여진인이 가장 필요로 하였으나 무역소 설치 당시 그들에게 매도하는 철은 水鐵(무쇠 銑鐵 pigiron)에 한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세종 이후에는 여진인과의 철물교역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또 그러한 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기, 농기구 등 철물 혹은 鍮鐵食器 같은 것을 여진인에게 밀매하는 자도 많았다.

### 3) 編布貿易

고려 공민왕 때에 文益漸이 처음으로 목면 종자를 원나라로부터 조선에 전래하였는데 조선초에 있어 여진인의 진상물에 대한 回賜 또는 賞賜物中 그 대부분(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이 면포였다.

### 4) 종이 貿易

朝鮮紙는 고려 초기 때부터 유명했는데 일찍이 북방에 진출하였을 때 고려의 真物品 중에는 “細紙. 黑不定數目”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 2. 對明貿易

### 1) 朝貢貿易의 經濟的 意義

사대·조공관계는 이조성립의 역사적 전제와 조건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국내 반대 세력에 대한 과감한 쿠데타임과 동시에 向明政策을 실천하는 제일보였다.

이조의 전통적 외교정책은 事大交隣이란 4字로 표현되어 왔던 것이다. 사대는 以小事大의 뜻이며 교린은 隣國과 通好往來함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적, 역사적 의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事大는 반드시 조공을 포함하여 隣國에는 반드시 진상이 따르는 것이다. 만약 事大交隣이란 용어를 형식상 내면적인 정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 朝貢進上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문화경제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린관계에 있어

서는 일본과 여진이 규정에 따라 1년 내지 수년에 수차 서울에 와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진상에 대한 回賜, 즉 官貿易 이외의 왕래에 따라 서울에서 北平館 사무역과 東平館 사무역이 이루어져 그들의 복종으로 만족하고 그들은 이조의 문물수입으로 만족하였던 것이다.

### 3. 朝·明貿易關係

14세기 말에 건국한 조선은 15세기 말에 이르는 1세기 동안에 국가의 기틀이 잡혀서 국운이 500년 이상 계속되는 지반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내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 한편 초기의 국제 정세에 힘입은 바도 매우 컸다고 하겠다.

한반도와 직접 연결된 만주에는 어떤 큰 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또 중국의 자배자인 明은 과거 중국왕조에 비하여 폐쇄적 국가였다. 따라서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sup>15)</sup>.

朝·明 관계는 오히려 조선이 적극적이었다.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은 명과의 외교관계를 사대라 하여 친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려의 구귀족들과의 투쟁에서 태조 이성계가 내세웠던 親明정책이 건국 후에는 조선이란 새 왕조의 권위를 보장하는데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씨왕권이 약체였기 때문에 이는 더욱 필요하였다. 보잘 것 없는 가문 출신의 태조는 그를 섬기는데 탐탁치 않아 했던 舊貴族들의 질서 속에서 그를 뒷받침해 주는 국제적인 권위가 필요했다. 따라서 明은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太祖의 의도는 그의 즉위를 明에게 보고하고 즉위의 승인을 요청한데서, 또 국호의 선택을 명에 의뢰한 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립된 朝明關係는 이후 때로 분규가 없지도 않았지만 대체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나 조선에서는 1년에 세 번의 정기적인 사절을 파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수행원의 왕래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려는 데 있었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경제적, 문화적 이해가 보다 중시되었던 것이며 入明使節의 귀환 시에 이루어졌던 書冊貿易은 그 구체적 예증의 하나이다.

이렇게 하여 양국 간에는 물자가 교류되어 일종의 공적인 무역이 성립되어 갔다. 물론 이 무역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제 간의 무역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국제 간에 발생한 화물의 교역이란 점에서, 더구나 일방적인 힘의 강요 없이 문물의 교류가 행하여 졌다는 점으로 볼 때 무역이라 칭할 수 있으며 그 의의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15) 이상백, 『이조건국의 연구』, 삼영사, p. 3.

조선과 명과의 무역관계는 상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사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공무역이 유일한 길이며 이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공무역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 4. 對中國貿易의 形態

이조정부는 동아시아의 남북대립에 있어서 중간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남북민족간 투쟁의 여파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러한 사대교린과 조공진상은 일종의 국제통제무역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대행사는 단순한 전통적 정신의 발로가 아니고 이조 정부로서는 가장 중대한 현실적 정치행동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지배적 세력과 결맹한 이조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국내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조의 봉건적 지배층과 중국의 봉건적 지배세력의 결맹으로서 그 세력관계의 일방적인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상호보험이라기 보다 오히려 재보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sup>16)</sup>

그러므로 이조정부로서는 秦請使, 謝恩使, 聖節使, 春秋使, 冬至使를 파견하여 事大之意를 표명하는 하나의 재보험료를 상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외관계는 모두 조공관계에 집약되는 것이며 이 조공제도야말로 중국이 주변국가 와의 사이에 지녀온 전통적 대외관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정에서 전개된 대명무역은 자유무역이 아니고 형식에 얹매인 제한무역으로 상호간의 정치적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遣明使節이나 出來明使를 통해서 贈物形式으로 주고받는 進上下賜形式, 즉 贈與貿易形態였다. 비록 중세의 공통적인 교역방법에 수출입상품도 용도면과 그 효용면에서 볼 때 큰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무역, 즉 관허무역, 사무역, 潛貿易의 양상을 나타내고 이 밖에 기생적인 潛貿易도 있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 5. 朝貢制度의 特徵

이제 조공제도의 기본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①전형적(본질적) 조공관계, ②준조공관계, ③비조공관계 등이다.

대명관계는 대체적으로 ① 정치적관계, ② 의례적관계, ③ 경제적관계, ④ 군사적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크게 보면 모두 정치적 관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관계의 목적만을 분류해 본다면 對明使節파견이나 교역면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對明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태도 역시 사절중심의 교역이 중점적이었던 만큼 조공관계를 떠나서 무역의 성격이나 형태를 고찰할 수 없다.

16) 姜萬吉,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대출판부, 1973, p. 113.

## 6. 對中國貿易의 種類

양국 간의 교역은 使行의 왕래와 관련되어 행해졌으며 또 이와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국경 지방에서 행해졌던 교역이 있었다. 이양자는 공인된 무역으로서 사행에 의한 공인된 무역에는 공무역과 사무역이 있었고 또 공인된 무역기회를 이용하여 공인되지 않은 무역, 즉 밀무역도 있었다. 이들 여러 가지 형태의 무역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꽤 어려운 것이다. 즉 공용을 위한 사무역이 있고 밀무역이 성행하여 이를 금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를 공인함으로써 일종의 사무역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밀무역을 제외한 무역, 즉 공인된 관무역과 사무역은 시대에 따라서 조공관계에 의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며 이 점은 唐代나 宋代에 밀무역이 아닌 사무역이 반드시 조공관계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았던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즉, 대명교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무역이나 潛貿易은 인정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진상하사로 표시될 만큼 공식적이고 원칙적인 것만이 허용되었으므로 그 이외의 교역행위는 국가에서 지시가 없는 한 제약을 받았다.

## 7. 輸出入商品構造의 分析

### 1) 輸出品構造

수출상품에 대해서 보면 수출방법은 공식적인 조선사절들의 入明時와 出來明使의 귀환 시에 가지고 가는 이외에 사무역과 潛貿易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당시의 進上貨物로서 품목의 다양성을 짐작할 수 있다<sup>17)</sup>.

### 2) 編織業의 發達過程

이 때 수출품목의 대종품은 다름 아닌 직물이었다. 編織物은 고려 말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였으므로 공민왕 13년(1364)경 문익점에 의해 목화종자를 중국에서 전래한 이래 특히 이조 초기의 성공적인 토지정책과 면업 장려책에 힘입어 면직물은 팔목할만한 발전을 보여 우리나라 의류산업에 일대변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수출대종품으로 등장한 編織業의 발달과정을 보면 棉花始培地는 현 경남 산청군 丹城面 小月里 培養洞이었으며, 그곳에서 가까운 경상도에 먼저 보급되어 점차 전라, 충청도로 확대되어 갔다. 면포는 처음 공양왕 3년(1391)에 中部將 房士良이 주장한 것이다.

17) 천관우, 『한국사대계』, 삼진사, 1973, p. 129.

## 8. 文化輸入의 對明依存度

끝으로 서적수출은 대명무역과 달리 거의 없었고, 오히려 수입에 의존할 형편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문화면에서 대명의존도가 컸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인물, 즉 魏女와 火者를 비롯하여 우마와 稲種까지 수출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데 대명무역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9. 朝貢貿易으로 인한 國內生產 發達의 위축

이와 같은 조공무역으로 말미암아 국가재정의 고갈과 民戶賦役이 극심하였다라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이 歲幣는 중국 歷朝에 대한 儀禮的인 貢納形態로서明朝에 대하여 聖節, 冬至, 정조등 사은의 뜻으로 사절과 方物을 보내는 것이며, 그 方物은 공물에 포함되어 예년 공물로서 징수한 데 문제가 있었다. 이 관례는 그 대상이 清朝로 바뀌었을 뿐 존속되어졌다.

이러한 공물과 조세의 징수는 일반적으로 생산력의 저조와 부진상태를 초래케 하여 국내생산을 위축케 했을 뿐만 아니라 물품유통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시장확대와 상품생산의 적극적 의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본다면 첫째로 범정의 市場稅인 賣上稅, 入場稅 이외에 통과세로서 관세, 津稅 등이 있었다는 것, 둘째로 무역억제정책으로 정부는 국내생산품을 염가로 구입하여 수출함으로써 국내의 소생산업자를 수탈하는 한편 외국의 고급상품을 독점수입하였으며 또 각종 討索으로 전업적, 부업적 수공업의 기초를 위축케 하여 최저수준의 상품생산과 자연경제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했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공무역의 발달이 오히려 무역의 억압 이상으로 국내생산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한 일이다.

## 10. 輸入品 構造

수입품 구성을 볼 때 서적, 약재, 의서, 견직, 공예품, 자기 등 여러 품목이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입대종품은 귀족사회에서 수요가 많았던 고급 견직물이었다. 중국은 견직물 산업의 발달지로서 최고급의 견직물을 생산한 세계 제일의 비단의 생산국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견직물을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산 絹織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고급 면직물에 압도되어 귀족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렸기 때문에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sup>18)</sup>.

18) 申奭鏞『조선왕조개국당시의 대명관계』, (국사상의 제문제 제1집), p. 122.

다음으로 서적수입, 즉 각종 학술서, 천문관계서 등 문화, 기술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對明 무역전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무역면에서 큰 대가를 치렀더라도 문화면에서는 선진문화를 수입이란 전제로 각종 서적을 수입하였던 것은 우리 측의 이익이 확실히 컼다고 하겠다<sup>19)</sup>.

### 11. 朝鮮의 對明 書冊貿易

書冊貿易과 수입서적의 보급은 확실히 신흥 조선왕국의 문화 형성에 있어서, 특히 유교사회체제의 수립에 공헌했음을 반론의 여지가 없다.

서책무역의 공헌은 크게 넷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인쇄술의 발달, 對대명무역로의 확립, 민족문화의 계발, 그리고 儒教倫理의 보급들이 그것이다. 물론 조선의 文運興隆을 지탱한 것은 역대로 계속된 문화주의의 왕성한 聖念과 의용이었다. 또한 그 文運의 흥용을 위하여는 儒學을 비롯한 여라 분야의 학문이 장려 보급되어야 했으며 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책무역이 요청된 것이었다. 서책무역에 의해 수입된 貿書의 대개가 곧 인쇄 보급되었는데 그러한 인쇄사업은 자연히 인쇄술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조선왕조의 인쇄술은 고려의 전통을 많이 답습한 것이다. 건국 초에 官制를 정할 때 인쇄의 일을 맡아보던 고려의 書積院을 그 이름과 함께 그 제도를 그대로 따랐을 뿐 아니라 佛經板의 주조, 官板 및 私板의 개간, 금속활자의 改鑄 등도 고려로부터 전해온 기술을 그대로 발전시켜 온 것이다. 특히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에서는 유교의 광범한 보급을 위해 금속활자가 대량으로 주조되어 이것이 經書刊行에 널리 이용된 것이다.

세종이 중국 인쇄술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은 동 17년 성절사 南智로 하여금 광범한 서책무역을 행하도록 명하면서 내린 중국의 鑄字, 字體印出에 대한 탐문지시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따라서 明에서 수입된 貿書의 확산으로 인하여 인쇄술의 발달이 촉진되었음과 아울러 서책무역이 여의치 않았다는 사실도 역시 인쇄술의 발달을 자각한 것이다. 세종과 중종이 서책무역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게 되자, 遺逸書積의 국내수집에 보다 힘을 쏟았으며 나아가 자체의 인쇄보급에 노력하였고 이에는 자연 인쇄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다음 서책무역은 유일한 문화의 受容尊管인 대명무역로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조선과 명과의 무역은 상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사절을 통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사절에 의한 조공무역에서는 사신의 왕래에 의해서만 양국의 문제가 처리되었으며, 사신 이외의 외국인의 입국은 물론, 중국인의 출국도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의 학자, 승려, 상인들이 왕래하고 중국에서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라갈 수 있었던 唐代의 사례를 明代

19)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경제학전집, 제61권.

에는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明代에는 境界犯越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으며, 犯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전왕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며 명나라 사회의 폐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서책의 수입과 인쇄간행은 민족문화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조선왕조가 유교 국가, 유교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서책무역을 추진하였는데 조선사회는 15, 6 세기에는 고려적인 질서체제를 탈피하여 조선적인 질서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체제는 고려시대의 그것보다 한층 세련되고 자주적이며 민본적인 특성을 지녔다.

## 12. 赴燕使行과 貿易

### 1) 赴燕使行의 의의

과거 거의 인습적으로 한문화를 흡수, 섭취함으로서 후진성을 면치 못해오던 우리 문화에 전통적 한문화와 연관성이 없는 서구기독교와 소위 清歐文明이 어떻게 반영되었을 것인가는 우리나라 근세사상 흥미있는 문제의 하나라 하겠다. 明末 북경을 중심으로 華北一角에 조성된 清歐文明을 우리나라에 이끌어 들임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赴燕使行이었다.

부연사행은 부여된 본래적 목적인 정치적 의의 이외에 몇가지 종속적 의의를 초래하였다. 문화사적 면에서 그 의의를 개관하자면 그리스도교의 전승과 서구문물의 유입이라 하겠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따져 보자면 부연사행이 조공과 중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역 또는 관무역 관계와 그 기회에 편승하는 사무역 활동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 삼자는 우리 근세사에 새로운 국면을 형성케 하는 중요계기가 되었고 전통적 이조의 유교적 봉건체제에 균열을 일으켜 쇄국의 나라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순류에 들게 하는데 힘이 된 것이었다.

### 2) 使行의 私貿易的 機能

부연사행이 사대정책을 국시로 내세웠던 이씨조선에서明朝에 파송되던 事大使行이어서 반드시 國書를奉呈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공물 소위 방물을 현납하였던 것이다. 공물의 품목명과 수량은 大清會典과 通文館志에 詳記되어 있어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품목과 수량은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나 귀중물자를 대량으로 獻上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공에 대한 보상으로 回送賜物 소위 回賜品을 빌어오게 되니 이는 일종의 반대급부의 성격이다. 回賜品의 품목과 수량 또한 大清會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이 공적 상호 예물교환의 성질을 띤 물품교환이 있었음으로서 조공이란 일변도적인 것이 아니라 쌍무적인 국가관리의 무역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일찍이 金聖七氏가 “소위 조공은 중국이념에서 출발한 무역의 한 형태이며 쌍무적인 공무역활동”이라고 간파한 바 있었던 것이다.<sup>20)</sup>

이조시대의 외국과의 무역은 다른 어떠한 부문보다 더욱 엄중한 감시 하에 明清과는 北關의 會寧, 慶源開市, 鴨綠江의 中江開市에서 행하여졌고 일본과는 동래 방면의 倭館市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술한 赴燕使行은 경제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공무역적 성격과 사무역적 성격의 양면성을 찾을 수 있었는데, 사무역활동은 제도운영의 악폐로 조성되는 각종 後市 즉 會同館後市, 橋門後市, 團練使後市와 八包制의 문란에 기인하는 것이며,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케 하는 바, 이러한 사무역활동(그 실은 密貿易行爲임)에 관여하는 자들은 상하의 使行員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 방법을 가리지 않던 각지의 상인 특히 義州灣商들이었으며, 이들의 작패는 관계감독관의 부패로 더욱 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3. 後 市

“後市”란 국가공인의 무역의 기회인 “開市”에 대한 용어로서 개시에서의 교역이 국가감독 하에 행해지는 공인상행위인데 대해 後市는 불법적 상행위이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밀무역활동의 기회를 말한다. 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은 조선의 전통적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아 해외교역의 기회가 北關三市와 南方倭市로 국한되어 있어 교역량이 미미하고 또한 그 기한이 너무나도 짧아, 국내에서 소요되는 외국산 물자를 충분히 구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상업자본을 배경으로 한 서울을 위시한 개성과 평양, 安州, 의주 등지의 북방상인들과 대구, 동래 등지의 남방상인들의 불타는 경제의욕을 만족시킬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의욕적 商賈들은 국법을 어기면서 까지도 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갈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회원은 국내 상류층의 사치생활에 필요한 외국물자의 소요와 결부되어 드디어 행동화됨으로서 後市라는 새로운 불법적인 경제 行爲가 전개되는 것이다. 사무역은 비록 불법적 상행위이기는 하나 이조 경제사상 흥미있는 사실이었으며 커다란 영향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교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제도상의 모순(무역활동의 국가적 통제)과 자라나는 상업자본의 반발로서 규제와 자유의 상극적 두 요소는 정상적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비정상적 밀무역 행위인 後市를 발생케 한 것이었다. 後市가 성립되는 기회를 대별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즉,

첫째 정식 개시에 틈타는 것으로 中江後市가 그 예이다.

둘째 赴燕使行 往還에 틈타는 것으로 會同館後市, 冊文後市, 團練使後市 등이 그 예이다.

#### 1) 회동관 후시

이는 반공인된 사무역으로서 사행원과 그 수행 종인들이 使行員 유관이던 연경의 회동관에

20) 偕邊司謄錄, 172冊, 12년 1월 8일 조.

서 행하던 교역관계를 말한다. 원래 조선사신을 위한 중국이 마련한 객관은 玉河館이었는데 그 후 清露間에 교섭이 열리어 러시아 사신이 찾아들게 되자 이들이 玉河館에 귀숙하게 되었고 우리 사행원들은 會同館으로 옮겨 유숙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마저 중년에 불행하고 이곳이 화재에 휩쓸린 후에는 西館이라는 곳이 조선사신을 위한 객관으로 지정되었다 한다. 이렇게 객관이 전전함에 따라 교역의 장소도 또한 그에 따라 옮겨졌음은 물론이다.

## 2) 冊文 後市

冊文은 본래 청국측의 關所를 뜻하며 청 태조가 만주에서 흥기할 때 조선에 대한 방비의 필요에서 장책을 쌓고 거기에 六邊門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며 鳳凰門이라고도 불렸으며, 光緒 元年(고종 12년 1875 A.D)에 檻外가 개방될 때까지 국경관문의 하나였다. Dallet의 한국천주교회사(Histore de l, Eglise de Coree)에 의하면 “만주 鳳凰城縣의 일소읍으로서 동성, 당남 약 8리에 있는 고려문을 말한다. 거기서부터 압록강까지 폭 12리, 장 20리에 이르는 지역은 중립지대로서 무인지대였다.”

## 14. 私貿易活動의 影響

이상 각 항에서 부연사행과 관련된 각종의 사무역의 기회를 고찰하였다. 이조의 전통적 외교원칙의 당연한 결론으로서 개인에 의한 사무역 활동을 전통적으로 억제하여 商賈들은 거의 반공공연하게 사무역을 자행하였다. 이처럼 後市가 생성 발전되었고, 八包制가 본래의 제정 의도와는 달리 사무역활동으로 변질되어 각종 폐해를 자아내게 되는 것은 결국 隨行譯官, 단련사 등 하층사행원들이 물질적 동기에서 부패하게 되었으며, 貨殖에 방법을 가리지 않는 商賈들이 이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갔으며, 한편 일부 부연사행 正員의 추행과 감찰 또는 搜檢機關 관계자들의 부패가 이를 가일층 문란과 폐해를 격화시켰다고 볼 것이다<sup>21)</sup>.

이처럼 각종 요인으로 말미암아 불법적인 사무역행위가 융성함에 따라 어떠한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쳤었던 것이며,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무역활동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던 것인가. 사무역활동을 통해 도입되는 화물은 거의가 모두 불요불급의 奢侈唐物이었다. 이러한 화물의 유입은 사회각층에 사치, 음락의 폐풍을 자아내게 한 물질적 요소가 되었다. 한편 奢侈唐物의 대량유입을 위하여 그 대가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은 막대한 銀子와 인삼이었다. 대량으로 흘러나가는 銀子量은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 점차적인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케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부정의 타성화, 범질서의 이완도 만연되었으니, 즉 사행원의 각종 비행과 이와 결탁하는 국가기관의 부패가 몸에 배

21) 『通文館志』, 卷3, 開市條.

어 도덕관, 가치관의 표준이 흐려져 일상생활에 젖어들어 각종 불법과 비행이 빈발케 된 것이다. 관료기강의 문란은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상기할 때 부연사행과 결부되는 사무역행위의 잠재적 폐단의 영향이 심각한 인식을 깊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질없이 날뛰는 사무역 관계자들의 눈꼴사나운 모양은 중국인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sup>22)</sup>.

이상과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무역활동을 돌아볼 때 경제적 악순환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민생고를 격화시키는 배후가 되었음을 상기할 수 있는데, 사무역활동을 통한 銀子의 유출문제를 싸고도는 당국의 시책을 중심으로 사무역의 영향을 고찰해 보자.

사무역(사실은 밀무역임)을 통해 도입되는 물자는 사치품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수량도 1회에 무려 수백만 필로 운반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상행위가 燕商의 그것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유출되는 銀子의 양이 막대하였을 것을 연상할 때 事大之虛禮인 부연사행에 수반되는 폐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冊文後市, 團練使後市가 활발해질수록 銀子의 유출량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 英正兩代에 있어서는 1회 燕行의 公用銀이 8천량이었으며, 燕商에 편승하는 사무역을 통해 유출되는 銀子가 10만량이 되었다 하니 그 막대한 유출량에 경악할 따름이다.

## V. 結論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수출입의 출현과 변화형태에 대해 그 그 시대적 제 조건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대적 조건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입의 형태와 방법은 크게 변화해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인접성이다. 상품의 수송문제는 처음부터 무역과 크게 관계가 있으며, 오히려 무역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어서 양국 간의 상인들은 그 기술적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항상 위험에 직면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는 교통수단의 발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가 필요했다. 이와같은 문제는 상인이 아닌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양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역의 폐단이 결정되었다. 즉 무역활동과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22) 『太宗實錄』, 卷14, 同王 7年 8月 11日條.

된다.

둘째, 무역은 국가 간의 상품매매의 활동이며, 상품의 국제적 이전과 그 결제를 포함하는 행위인데, 이 문제가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을 결정짓는 큰요인이다. 국가 간의 무역결제에는 국가에 따라 다른 시스템이 있고 상품이동과는 다를 독립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의 결제 시스템에서는 은이 중요한 결제수단이었지만 시대별로 지속적인 것은 인삼, 비단, 서책 등 상품이었다.

셋째,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을 주도한 것은 관무역이었다. 특히 조공제도가 국가간의 공식적인 국제교역 관계를 성립시켜 주는 일종의 관무역제도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공관계는 외교활동의 주요한 매체였기도 하지만 조공의 또다른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국제무역상의 실효와 이익을 거두려는 공인된 관무역을 행하는 일이다.

넷째,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선인들이 어느 때부터 주선을 이용하기 시작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해로를 통하여 중국의 여러 나라와 통교하였다. 그 당시 범선을 운전하는 기술자는 그선박이 통과해야 할 해중의 군도와 연안의 항만의 지리를 잘 인식하고, 해류 및 풍향의 자연적 조건을 이용하여 전진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해의 신기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범선으로 계절풍과 해류를 잘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항로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다섯째, 국경무역의 활성화이다. 경원, 경성 등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자유로이 매입케 하여 변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양구의 수출입 물품은 금, 은, 보석, 비단, 저물, 서책, 인삼, 약초, 말, 종이 등 그 당시의 생필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역사가 깊고 수출입 물품이 다양하다. 따라서 최근 중국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무역액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사회적으로 교류가 빈번할수록 향후 양국 간의 수출입은 다양하고 물동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한층 높다고 사료된다고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金柄夏, 「朝鮮前期對日貿易研究」參照。
2. 金柄夏, 「韓國經濟思想史」, 一潮閣, 1981.
3. 김 신, 「한국무역사」, 석정, 1984.

5. 김 신, 『무역사』, 석정, 1995.
6. ———, 『무역학원론』, 1994, 법문사.
7. 자치통감, 37(권) 4(4부 총간본).
8. 진단학회, 『한국사』, 고대편(서울 을유문화사, 1969).
9. 삼국지, 魏書 三十 東夷傳, 第三十 倭人.
10. 천관우, 『한국사대계』, 삼진사, 1973.
11. 사기, 조선열전, 東夷高麗.
12. 入唐求法巡禮行記, 개성, 4년 6월 7일조.
13. 高麗史, 列傳 券17, 金方慶.
14. 李東潤, 『私學志』, 16輯, 1962.
15. 최호진, 『한국경제사』, 박영사.
16. 강만길,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대 출판부, 1973.
17. 태조실록, 권 2, 원년 12월, 병오조.
18. 통문관지, 권 3, 사대조.
19. 고려사, 권 137, 열전, 50.
20.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경제학전집, 제61권.
21. 이상백, 『이조건국의 연구』.
22. 광해군일기, 권33, 광해군 2년 9월, 辛丑條.
23. 중종실록, 권 18, 庚午條.
24. 朴元善, 『裸負商』, 韓國研究員, 1965.
25. 備邊司瞻錄, 172冊, 12년 1월 8일조.
26. 李鉉淙, 『韓國開港研究』, 일조각.
27.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90년사』, 1976.
28. 한우근,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일조각, 1970.
29. Max Weber, 『사회경제사』, 조기준 역, 재판본.
30. Reischauer, Ennis Diary,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55.

## 中國의 會計制度 發展史\*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 in China

李 建 惠\*\*

### 目 次

I. 중국전통회계제도의 발전	III. 중국의 회계제도의 발전
1. 중국회계의 기원	1. 경제적 회계제도의 발전
2. 중국식 장부의 기록용구의 변천	2. 중국관리회계의 발전
3. 중국고유부가의 특성	3. 중국회계감사의 발전
4. 중국식 장부의 개량과 서양식 장부조직	IV. 중국회계와 서구회계의 비교
5. 회계보고서의 발전	1. 중·미 회계의 비교
II. 중국회계제도의 사회주의적 특성과 서구체계와 의 관계	2. 중국회계의 역할과의 비교
1. 중국회계제도의 사회주의적 특성	3. 중국회계가설과의 비교
2. 중국의 회계법	4. 중국회계원칙과의 비교
3. 중국의 회계이론	V. 중국회계제도의 현황
4. 중국의 회계철학의 변화	VI. 결언
	참고문헌

### I. 中國傳統會計制度의 發展

#### 1. 中國會計의 起源

19세기 중반에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의 기간에 구미의 회계저작서를 번역하는 경우에 「簿記」와 「會計」를 구분하고 있으나, 오랜 고대로부터 중국의 관습에서는 「會計」만을 사용해 왔으며, 부기의 본래적 내용을 「회계」안에 포함하여 왔다. 따라서 「근대회계」가 갖는 의미는 「고대회계」의 의미와 비교하여, 그 내용상 지극히 확장되어 발전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회계」에 대한 명명의 기원은 대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본 논문은 1999년 7월 21~22일 中國 長春 稅務大學에서 개최된 第6回 韓·中 經營史學 國際學術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梨花女子大學校 經營大學 經營學部 教授, 韓國經營史學會 會長.

첫째, 「회계」의 명명 기원은 夏代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이러한 관점의 주요한 근거로는, 「史記·夏本紀」의 중의 하나의 논술에 기반하는 것이다. 즉 「自虞, 夏時, 貢賦備矣, 諸侯江南, 計功面崩, 命日會稽, 會計者, 會計也」라는 문장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역은, 「管子」·「黑子」·「呂氏春秋」·「淮南子」·「越絕書」·「吳越春秋」의 문헌에서도 유사한 기술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되는 부분도 있게 된다. 즉 ① 시대적 배경고찰로서禹·夏 시대에는 자유재산제도는 아직 성립되지 않고 있어, 생산·교환과 문화의 분야의 발전에는 아직 성립되지 않고 「會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문자생성 고찰로서 상대에 사용된 甲骨文에는 「會」·「計」의 문자는 없고, 당시의 사람들은 「회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③ 「史書」중의 회계에 관한 문자자체의 고찰로서, 「或言禹會諸侯江南……會稽者, 會計也.」라는 문장에서 司馬遷이 여기에서 사용한 「或言」이라는 말은, 일종의 언어를 정선하여 판단한 용어방법으로서 긍정하기 어려운 설로 보고 있다. ④ 「會計」개념성립의 역사과정의 고찰로서, 「회계」가 갖는 의미의 형성을 보면, 이것은 과학적 개념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이 개념은 일조일석 우연히 성립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會計」의 명명은 전국시대라는 것이다. 즉, 이 시대의 주요한 근거로서는 先秦시대의 두 가지 문헌으로서, 「周禮」와 「孟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 즉 ① 이러한 설은 일방적인 설명으로 본 것이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周禮」, 「六韜」와 「管子」의 세 가지 문헌에 대해서는 저작년대의 논쟁이 일고 있고, 이는 전국시대의 설이 있다는 것이다. ② 이 관점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이다. 즉 「孟子·万章」편에는 「孔子嘗爲委吏矣, 位曰, 會計當已而矣」의 문구는 공자의 설화이며, 공자는 춘추시대인으로 「회계」는 춘추시대에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으로서 절대로 전국시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셋째, 「회계」의 명명의 기원은 西周라는 것이다. 즉, 서주시대에는 노예제 경제발전의 최

&lt;표 1&gt;

先秦時代의 문헌의 저작시대 추정

명 칭 書, 編	회계에 대한 命名	저 작 시 대		
		1	2	3
「周禮·天官」	會計	西周	戰國	略
「六韜」卷三「龍韜」	會計	西周	戰國	—
「左傳·昭公二十五年」	計	春秋	—	—
「管子·四時」	會計	春秋	戰國	略
「孟子·萬章」	會計	戰國	—	—
「戰國策·齊策」	會計	戰國	—	—
「韓非子·外儲說左」	計	戰國	—	—
「商君書·禁使」	計(書)	戰國	—	—
「呂氏春秋·務本」	會計	戰國	—	—

성기로서, 농업, 수공업 및 상업도 상대에 비교하여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서주「관청회계」계산의 구체적 상황을 근거로 고찰하면, 「회계」를 계속하여 왔다. 당시의 기본적 의의는 일제의 계산이 행해지고 낸말의 종합계산도 하고, 매일의 기록을 통하여 월말에 누계하여 歲會(연말회계)가 이루어졌다. 청대의 학자 焦循은 「孟子正義」의 문헌에서 서주시대의 회계에 정확히 대응되는 「零星算之爲計, 總合算之爲會」라고 회계사상을 총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에 대한 개념의 인식수준은 그 시기의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높아지게 된다.

## 2. 中國式 帳簿의 記錄用具와 變遷

중국에 있어서의 당부의 변천은 구미 제국의 상황보다 복잡 다양하며 <표 2>와 같다.

&lt;표 2&gt;

中國의 帳簿名稱과 書寫用具의 變遷

시기	명칭	기록용구	비고
原始社會 末期	書契	獸骨·竹·木	
商代	冊·簡冊	竹片·木片	때로는 骨片使用
西周~春秋	籍·籍書	竹片·木片	要·要會의 特殊呼稱 있음
戰國~三國·兩晉	簿·簿書	竹簡·木牘	錢谷簿
南北朝~唐代	簿·帳·簿帳	紙·絹布(卷紙)	「帳」의 字起源
宋代	簿·帳·帳簿	裝丁帳簿(종이)	帳簿呼稱出現
明代	帳·賑·帳簿	裝丁帳簿(종이)	「賑」의 字起源
清代	帳·賑·帳簿·賑簿	裝丁帳簿(형검)	特定의 名稱이 있었음
中華民國	帳·帳簿·賑簿	西洋式帳簿(종이)	洋紙에 印刷頁의 帳簿

### 1) 「冊」과 「簡冊」의 사용단계

고서 발굴에 의하면 상대에는 「冊」의 명칭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판에 의한 「作冊」도 있었으며, 후에는 죽편에 쓴 「簡冊(冊)文」이 있었고, 이는 후에 「簡冊」으로 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단계의 주요문제는 회계장부에 현저한 전문명칭이 없이 혼합사용되었으며 종합명칭을 상용한 것이 된다.

### 2) 「簿」와 「籍」의 併用단계

전국시대 중기로부터 「籍書」가 「冊」 또는 「簡冊」의 명칭으로 갈음함으로서 장의 명칭에 전용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周禮」의 안에 「要」, 「要會」의 명칭이 있는데, 이는 會計籍書를 지적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또한 「簿」는 「簿書」라고도 하며 회계기록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재정회계부문은 「곡물부」·「금전부」·「금전출입부」·「곡물출입부」·「대물출입부」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籍은 통계적 성질의 기록표시를 하고 있다.

### 3) 「簿」와 「帳」의 병용단계

「帳」의 문자는 남북조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초기에는 군대의 야영 숙박설비를 지칭했으나, 후에 경제사실을 기록한 부책을 「帳」 또는 「帳簿」라고 하였으며, 고대의 황제 또는 고위 관리의 순찰시의 장식품 및 생활품을 말하는 「供帳」을 계산하는 것이었으며, 민간인의 상점에 대한 「帳廉」을 두고 계산하는 데에서 비롯되어 「帳」이 생겨났다. 특히 「帳」을 회계계산에 많이 쓴 시대로는 당대이며, 송대에 와서 統計簿冊에 속하는 것은 「戶帳」·「丁帳」·「甲帳」·「圖帳」·「地步帳」·「左右廂帳」 및 「囚帳」이 있었으며, 회계부책으로는 「租帳」·「課利帳」·「錢帳」·「糧帳」·「錢穀帳」·「庫帳」·「糧草帳」 및 각종의 출입장을 들 수 있다.

청대시대에 와서 「簿帳」의 표현은 없어지고, 「帳簿」라고 칭하게 되었다. 또한 명·청시대에는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帳」의 도입 대신에 「賬」을 창조하여 사용하였다. 중화민국시대에는 서양식 부기(帳簿)로 통일되어 중국회계발전사상 회계전용명칭의 규범화의 최초의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 4) 中國式 帳簿의 분류

중국고대의 장부설치는 그 분류의 발전상황을 그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單一流水帳의 設置時期

중국의 원시사회기로부터 商朝統治時期까지는 생산과 교환의 초보적 단계로서 당시에는 경제적 기록사항을 한 종류의 장부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즉, 유일한 기장법별로 경제사항의 발생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후세에 와서 「流水帳」으로 명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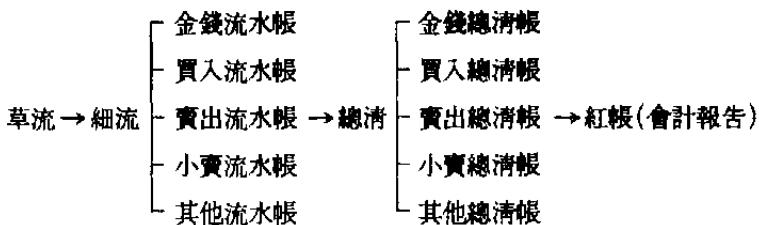
외국의 경우에는 「日記帳」 또는 「序詩帳」으로 칭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초류, 초비, 원류, 저장, 저장, 초장 및 화장으로 불리어졌다.

##### (2) 「3帳」의 設置時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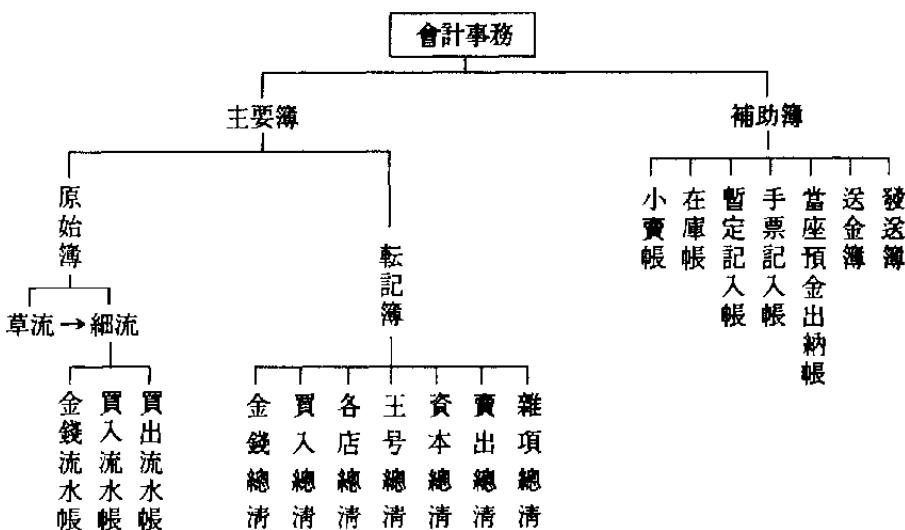
이 시기는 서주로부터 청대중기까지를 말한다. 즉 「3帳」은 「草類」·「細流」·「總清」의 3종의 장부를 지칭한다. 즉, 이는 중국식 회계장부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장부설치 형태로서 최종적인 장부조직 체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3장의 분류체계로 초기 단계로는 西周로부터 魏晉까지로 보고, 발전단계는 남북조로부터 송·원대까지를 볼 수 있으며, 그 완성단계는 명·청시기를 들 수 있다. 특히 중국회계발전상에 있어서 상공업의 발전이 회계의 진전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식 회계장부 조직체계를 보면 <도표 1>과, 또한 중국의 상업기업의 회계장부 조직의 기본적 체계는 다음 <도표 2>와 같다. 중국의 명·청 이후의 상업의 장부설치·정부 조직·형성의 상황은 중국이나 서구에서도 있는 主要와 補助의 발전추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도표 1〉 중국식 회계장부 조직체계



〈도표 2〉 상업기업의 장부조직 구성

### 3. 중국고유부기의 특성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광대한 지역을 가진 나라로서 거기에는 고래로 고유의 부기법이 있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제2차대전 이전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지역이 광대하고 혼다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유의 부기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성과 보편성이 있다.

그러나 원래 기업의 형태, 규모, 업종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지방의 상업관습에 따라서 약간의 지방적 특색이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영파·소홍계 상기업에 적용된 「영 소식기장법」과 관동·부전계의 「\*\*식기장법」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전자는 상해를 중심으로 하여 가장 진보된 부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기에는 관청부기와 같이 비영리단체의 부기도 있고,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그것이 발달되었으나, 여기에서 중국 고유의 부기라 할 때는 주로 상기업에 적용된 것으로서 고래로 중국에서 발달하여 세습되고 제2차 대전까지 사용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국부기의 본격적인 연구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자료에 의하여 서양부기와 관련해서 그의 특성을 밝히고, 그것이 불완전한 단식부기로 우리나라 사개치부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의 동양적인 공통성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전연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의 우리나라 사개치부법에 관한 연구에서 근본원리에 있어서 서양부기와 부합되는 복식부기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문물제도 중 다소간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았는데, 사개치부법은 동양적인 약간의 외형적 유사성을 제외하고는 전연 독자적인 것이고, 오히려 동양부기와 일치하는 점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본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개치부법 연구의 일환으로서 중국 고유의 부기의 특색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사개치부법이 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데 있는 것이다.

### 1) 중국부기의 부장 형식과 종류

중국에서의 상업장부은 외형적으로는 대략 일치한다. 즉, 우리나라 백지와 비슷한 중국지를 접어서 오른쪽에 묶은 장정장부로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간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 사개치부법의 장부와 비슷하다. 그 크기는 각 지방산의 중국지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으나 대략 일치한다. 수수는 50수 또는 100수인 모양이다. 가견에는 세로줄이 여러 개 있고 가로줄이 가운데 하나 있다.

중국의 상업관습으로서 계정에 분쟁이 생기면, 장부를 증거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장부는 반드시 장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산란, 탈락 또는 위조 방지를 위하여 각 면의 사이에 할인을 하는 수도 있었다.

장부에 기입할 때는 붓과 먹을 쓰고, 필요할 경우에는 붉은 먹을 사용할 수 있다. 문자는 한자를 쓰고, 수자는 한수자와 “소수”라고 하는 소주계문자를 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개치장부법에서 표산 또는 호산이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을 우리가 호산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전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중국 고유의 부기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장부가 있었느냐?

중화민국 12년에 주동백이 각성법원의 민상사관습조사회의 보고에 의하여 작성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산동성 우성현에서는 상업부기로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초류수(수시기입하는 것), 대류

수(초류수로부터 송사하여 일정 월총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 노진(진은 장과 같고, 대류수로부터 법래점별로 나눠서 기입하여 각 상점과의 청산에 편리하도록 한 것, 노진도 거래의 종류별로 나눠져서 내왕진, 이식진, 은천월총진, 기사진, 외진 등이 있다), 유기(유수진에 기입하지 않은 것을 잠시 기입하는 것), 그리고 연총(1년의 손익을 총기하는 것)이 있다.

호북성 파동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 (1) 유수부(매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하는 것)
- (2) 총청부(매일 기재한 유수부의 수입 지출의 각항을 총부에 분별하여 송사청서한 것)
- (3) 병존부(화물의 원가와 판매가격을 기재한 것)

호북성 선창현에서는 장부는 휴수와 총증의 두 가지로 나뉘지고, 유수를 근본적 증거로 하 고 총증을 방증으로 한다.

유본방조서의 “지나회계학연구”에서는 상해를 중심으로 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원시부로 서 각종의 유수부가 있고, 전기부로서 각종의 총청부가 있다. 그리고 다시 각종의 보조부가 있다고 한다.

신호대학 회계학연구실에서 편찬한 회계학사전의 중국고유부기의 해설에서 창소제부기의 전형적인 장부조직으로서 진화(매입장), 소화(매출장), 통수(현금출납장)와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을 각각 전기한 진화등청(매입처원장), 소화등청(매출처원장), 총등청(총계정원장), 개지등청(경비원장)과 같은 장부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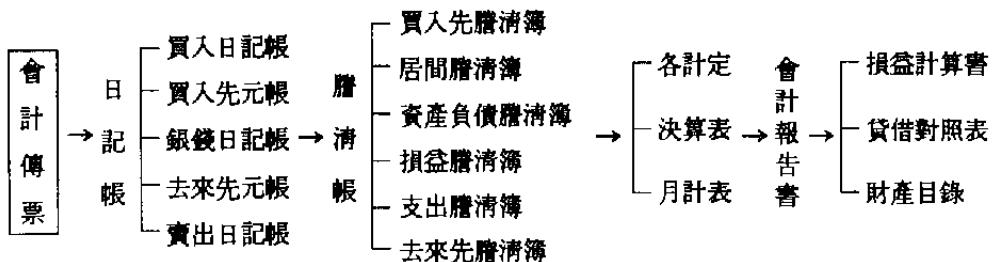
이상으로서 대체로 영소식기장법을 중심으로 한 장부조직은 원치부로서 각종의 유수부가 있고, 그것을 인명별 항목별로 기재한 전기부로서 각종의 총청부 또는 등청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주요부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 보조부가 있을 수 있다. 다음에 유수부와 총청부의 형식을 예시한다. 보조부는 유수부와 같은 형식의 것을 사용한다.

#### 4. 中國式 帳簿의 改良

##### 1) 中國式 帳簿의 改良

이 시기는 청조 말기로부터 중화민국까지를 말하며, 1905년 청조는 「戶部銀行」을 창설하고 1908년에 「大清銀行」으로 고쳤다. 신해혁명 이후에 대청은행은 정리하고, 1932년 2월에 별도로 「中國銀行」을 창설하여 회계제도 및 장부처리를 외국은행의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은행업무에 상용하는 「3帳」을 주체로 하는 개량식으로 13종의 장부를 두어 기장하였다.

1930년대에는 중국의 회계학자인 서영조는 청조말·중화민국초기의 은행회계의 초보적 개량으로 중국식 부기 운동을 제창하였으며, 그 주요 장부조직 체계는 다음 <도표 3>과 같다.



&lt;도표 3&gt; 개량 중국식 부기 조직체계

개량 중국식 부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량 중국식 부기의 장부조직의 기본은 日記帳과 賬清簿의 2개의 장부와 결산서와 월계표의 2개의 표가 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재산 목록의 작성은 중국식 회계의 「紅帳」에 대신하게 되었다.
- ② 日記帳과 賬清帳을 분할하는 수법은 경영업무와 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채택한 것으로 이것은 전통적인 것이다.
- ③ 개량 중국식 부기의 장부설정은 기업의 특성, 경영규모, 회계업무의 정도, 내부조직의 정도에 따라 어떤 종류의 장부조직을 채택 가능한 것이다.

## 2) 西洋式 帳簿組織의導入

1920년 말로부터 1940년에 걸쳐 중국의 저명한 회계학자인 潘序倫은 서양식 부기의 도입과의 대표로서 공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대륙식 장부조직은 소형의 공·상업기업과 관청 회계부대에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으며, 영미식 장부조직은 대·중형의 공·상업기업에서 이용되어 왔다.

## 5. 會計報告書의發展

중국식 회계보고서의 역사적 발전을 근거하면, 그 발전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문자서술식 회계보고서의 작성단계, 자료조합식 회계보고서의 작성단계 및 表式會計報告書의 작성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표 3> 참조).

### 1) 文字敍述式 會計報告書의 作成段階

일반의 공문서에 의한 보고와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서 비교적 장문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의 과정과 결과 및 필요한 경제사항의 보고를 기술한다. 夏·商時期의 회계보고서는 현시점에는

&lt;표 3&gt;

중국식 회계보고서의 발전

時期	時代	內容	官 府		民間	
			會計報告書 名称	會計報告書 種類	名 称	種 類
文字叙述式会計報告使用段階	夏·商	(考察中)	(考察中)	(考察中)	(考察中)	(考察中)
	西周·春秋	① 日成 ② 月要 ③ 歲會	旬報(日成) 月報(月要) 年報(歲會)	(同上)	(同上)	(同上)
	戰國	① 計 ② 上計(報告)	旬報, 月報 年報	(同上)	(同上)	
	秦·漢	上計簿	(旬報), (月報), 年報	(計簿)	年報	
	唐代	① 狀 ② 牒 ③ 文帳	① 種類: 日報·旬報·月報·季報·年報 ② 形式: 早·中·期 三柱式·晚期四柱式	① 狀 ② 文帳	四柱式 年報	
	宋代	① 狀 ② 帳狀 ③ 文帳 ④ 冊	① 日報·旬報·月報 ·季報 ② 四柱奏鎖冊(年報) ③ 四柱移文冊	① 冊 ③ 文帳	四柱式 年報	
	明에서 清末以前	① 四柱清冊 ② 四柱奏鎖冊 ③ 文冊	① 日報·旬報·月報 ·季報 ② 四柱報鎖冊 (奏鎖冊) ③ 四柱移文清冊	① 紅帳 ② 結冊	① 進繳結冊 ② 存該結冊	
	表式會計成報段告階書	清末에서 中華民國	① 四柱清冊 ② 表 ① 表 ② 書	① 同 上 ② 四柱表 ① 資產負債表 ② 損益表(計算書) ③ 財產目錄	① 紅帳 ② 結冊 ③ 表 ① 表 ② 書 ③ 紅帳	① 進繳結冊 ② 存該表 官序 同上

자료가 불비하지만, 西周시대부터는 가능하다.

### (1) 西周와 春秋時代

서주·춘추시대, 관청의 회계보서의 작성은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당시의 중점은 연보작성에 있었다. 주왕조규정의 「日成」·「月要」·「歲會」와 3년의 「會計」보고서는 이미 초보

저인 오늘날의 회계보고의 작용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日成」은 10일간의 발생사항을 문서로 한 것으로 旬報라고도 한다. 「月要」는 1개월의 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月報에 상당한다. 「歲會」는 1년의 사항을 문서로 한 것으로 年報에 해당된다.

## (2) 戰國時代

전국시대에 들어와, 당시의 「上計」보서의 작성은 중앙정부 재정회계 부문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행정구획으로부터 主管會計官吏의 책임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작성되었다.

### 2) 資料組合式 會計報告書의 作成段階

종이의 발달에 따라 중국의 문화·과학의 발전한 양호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회계관계에 있어서도 넓은 지면상에 회계보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중국식 회계보고서의 작성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시대에 관청부문은 재정수지 항목의 항목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상세한 적요 기록이 가능케 되었다.

#### (1) 唐代로부터 吳代 時期

중국 회계발전사상, 당조의 회계보고서 작성은 비교적 적정한 하나의 시대이며, 재물보관부문은 日報·旬報·年末에는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연보의 기본형식은 일보·계보의 기본은 동일하며, 年報를 명칭하여 「帳」으로 부르고, 보고서는 「造帳」으로 칭하게 되었다. 특히 당대후기 작성의 「四柱式」회계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선진의 특이한 것이다.

唐代 후기로부터 吳代 時期까지는 중국 민간 회계보고서의 작성에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당시의 민간 회계담당자의 작성의 「文帳」(「狀」)은 내용이 비교적 완비·정돈되었으며, 「四柱式」회계보고서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사원의 연보는 「四柱」의 형식으로 엄격히 배열되어 수입재원과 지출원인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四柱式」회계보고서는 후에 관청작성의 「四柱清冊」과 민간작성의 「四柱式」紅帳의 생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표 3〉 참조).

### 3) 表式 會計報告書의 作成段階

회계계산 항목과 작성형식은 규정에 따라서 일종의 특정한 표형식이 기재된 것으로, 일정기간내의 재정수지 상황을 계통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시기는 光緒 33년 3월에 謝霖·孟森 공자의 「銀行簿記學」의 출판되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도입되었다. 당시의 중국 관청과 민간 회계는 여전히 양식부기법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당시 서양식 회계보고서가 출현되었다. 예를 들면, 광서년간의 「四柱總表」·「光緒會計表」 및 宣統治時에 작성한 「 금고사주 표 」 등의 중국 특유한 表式 會計報告書를 작성하고 있다.

중화민국 시기에 대차복식부기의 도입에 따라서 「資產 負債表」(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와 「財產目錄」의 작성이 중국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중국식 회계보고서는 신식 회계보고서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회계보고서의 작성은 새로운 역사적 시대에 들어 서게 되었다.

#### 4) 會計報告書

중국의 회계보고서의 시스템은 1961년 11월에 공표된 「국영기업에 있어서의 회계계산 공작의 규정(초안)」에 의하여 통일되었다. 그 후에 몇 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오늘날의 보고체계를 이루었다. 거기에서 국영기업의 회계보고서는 반영된 경제내용의 相異에 의하여 세 종류로 구별된다.

- ①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보고서
- ② 제품원가를 반영하는 보고서
- ③ 이윤을 반영하는 보고서

그 중에서 ①, ③은 재무보고서, ②는 원가보고서라고 불리어진다. 국영기업에 있어서의 회계보고서의 종류, 형식, 작성방법, 보고기일, 보고대상처에 대해서는 중국의 재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의 주관기관(예를 들면, 제일공업부)이나 省, 市의 재정부문은 필요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를 증가시키고 있다.

다음에 공업기업에 있어서의 회계보고서의 예를 들기로 한다.

##### A. 자금상황의 반영

- ① 자금(대조)표
- ② 유동자금 이용효과표
- ③ 국가자금표
- ④ 전용 기금표

##### B. 원가의 반영

- ⑤ 원가 지표
- ⑥ 상품·제품 원가표
- ⑦ 주요제품 단위원가표

##### C. 이윤의 반영

- ⑧ 이윤표
- ⑨ 주요상품·제품 매출이익 명세표

&lt;도표 4&gt; 대차대조표

차 변	대 변
자 산	부 채 (타인자본)
	자 본 (자기자본)

자금평형표

운 용	원 천
현금 · 은행예금 이외의 유동자산	유동자산
현금 · 은행예금	은행차입금
은행예금	대수리기금
"	조업원복리기금
"	종업원장려기금
"	생산발전기금
미래의 고정자산	개신개조자금
고정자산	고정자금

여기에서 중국의 회계보고서 체계의 특성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회계보고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자금평형표

국영기업의 회계의 대상은 자금흐름이다. 회계는 국가예산에 의하여 교부되는 자금흐름을 반영 혹, 감독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회계보고서 중에서 자금평형표는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의 회계시스템은 자금평형표의 작성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금평형표는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다음의 다섯 가지 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와 상이하다.

첫째는, 자금원천의 구성내용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도표 4>에서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하는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는 출자자의 성질의 차이에 따라 자본을 분류하는데 대하여, 자금대조표는 용도의 차이에 따라 자본을 분류하는데 대하여, 자금평형표는 용도의 차이에 의하여 자금을 분류한다. 즉 「傳款專用」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목적의 상위를 들 수 있는데, 자금평형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보다 기업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급 관리기관은 자금평형표에 의하여 기업자금의 원천·운용의 합병성 및 이윤유보분의 배분의 합법성을 검토한다.

#### (2) 부속적 위치에 있는 利潤表

이윤표는 손익계산서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오랜동안 기업의 이윤을 모두 국가에 상납하고, 기업의 손실을 국가에 의하여 보전한다는 배경에서 이제까지 중국 회계는 손익계산서를 중시하지 않았다. 중국의 회계학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종래의 손익계산서는 두 기간의 자금평형표간의 단순한 연결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이윤표의 근본적 기능은 이익을 계산하는 것보다 업종의 평가이다. 따라서 손익 또는 비용의 계상도 업적평가의 척도가 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고정자산상각의

회계처리는 하나의 예이다. 고정자산의 처분은 국가정책에 따라 중국의 국영기업에 있어서 범주에는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서 직접 국가자금에 감액 또는 가산하게 된다.

특히 현행의 중국 회계제도는 재산의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감독의 색채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범인세제도, 변동가격제, 경쟁시장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행의 회계제도는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 II. 中國會計制度의 社會主義的 特性과 西歐會計와의 關係

### 1. 中國會計制度의 社會主義的 特性

1949년의 공산주의혁명과 중국의 형성 이후에, 중앙집권적 계획과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생겨났다. 이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국영기업(경영단위)은 국가에 귀속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고, 국가보조 교부금(state grants)은 흔히 설비대체와 확장을 위해 제공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정부통제의 국영기업의 경영자들은 의사결정 자율권이 결여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실적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지않게 되었다.

1979년에 중국은 최근의 일련의 경제적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생산과 경영방법의 실험과 평가를 포함하였다. 이 “시행착오”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비롯된 아이디어이며, 선정된 지역에서는 시도할 수가 없었다. 만일, 그 아이디어가 실패되면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실험이 시행되었다. 성공적인 실험은 새로운 국가정책과 규정을 제정하는데 기

〈표 4〉 중국의 국영기업

	국가 관리	자급자족	책임의 중대
의사결정기관	기능영역 없음	1. 생산계획 2. 유보이익부분 3. 전시장에서의 공업제품 구입 4. 종업원상여금 5. 가격협의 6. 내국구매자에 대한 판매 7. 개발기금	1. 시장지향생산계획 2. 유보이익 3. 전시장에서의 공업제품구입 4. 종업원상여금 5. 가격협의 6. 해외판매자에 대한 판매 7. 타기업과 공동생산 8. 타기업과 판매 및 구매 계획 9. 공장장의 선출
경영경제책임	없음	없음	많음
회계책임중심점	원가중심점	이익중심점	투자중심점

준이 되었다. 비록 모든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국가정책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선정된 것은 전국을 통하여 모든 기업에 의하여 집행되었고, 중국의 인민회의에 의하여 발의된 첫 실험은 실험적 국영기업이 이익을 유보후 더욱 자율권을 가지며 생산성에 아시아티브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율계획의 확대(Expansion of Autonomy Program)는 “부정과 불균형”的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제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1년 이내에 수천개의 주요기업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중국의 기업환경에 획기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 기업간의 경쟁은 장려되고 있으며, 공업제품 및 원료는 산업전시장에서 구입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은 국가가 세운 생산계획에 일치하는 한, 생산계획을 개발하고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본투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아직은 결여되어 있었고, 어떤 영업손실이 있으면 국가에 의하여 보전되고 있다. 중국은 역시 중대된 경제적 책임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는 별개의 기업이 독립적 기업실체로서 취급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역시 국가경제 계획을 시장지향 생산일정표를 발전하는 안내지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발전, 집단적인 복지, 노동자의 상여금, 소득세 자금, 생산설비 및 운전자본을 위하여 이익을 사내유보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며, 그들 기업들은 자기를 자신의 효율성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표 1〉은 중국의 국영기업이 사용하는 3개의 경영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경영체계 하에서 경영자의 경제적 책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계의 “책임중심점”의 적용형태와 같다. 회계적 기법은 새로운 경영체계의 수행에 있어서 통합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생산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하고 있다.

### 1) 중국에 있어서의 관리회계의 발전

1949년 혁명 전에는 중국에는 비교적 아주 적은 수의 대규모의 제조기업만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회계방법은 매우 단순하였으며 1920년에 소규모 복식부기방법을 서방으로부터 채택하였다.

#### (1) 원가중심점회계의 도입

중국의 독립은 더욱 많은 대규모 기업의 발전을 유발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서는, 정부는 국가경제를 마치 단일의 거대한 제조기업과 같이 운영사업부는 제품을 판매하던가 잘 생산계획을 개발할 수 없는 거처럼 운영하였다. 생산 및 원가목표는 국가대행기관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비록 이익은 목표 중의 하나였으나 모든 가격은 국가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난 후의 명칭 뿐이다. 1950년대에는 많은 계층의 원가중심점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노동자의 팀이나 집단은 그들의 계획생산, 원가 및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이 있었다.

기업자체는 원가중심점은 아니나, 이를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재무적 고려가 아니라 생산량(production quota)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한 “내부이익제도 (Internal profit system)”는 공장설비(plants) 및 일반공장(factories)에 대한 책임자들, 대규모 기업의 중간관리자들에게 원가 및 이익을 주지시키는데 시행되었다. 이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결함은 회계 또는 다른 많은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동제도의 성패는 계획경제의 기본적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서방 관리회계문헌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가중심점에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관리회계방법은 이들 기업에 의하여 수정되어 이용되었다. 이를 기법은 아직 많은 중국기업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표준원가계산, 재고자산계획 및 통제, 원가중심점에 대한 책임체계는 1950년대 초기 이래로 중국 제조기업에서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들 원칙은 당초에는 소련회계기법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중앙계획제도는 소련(U.S.S.R)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중국의 새로운 사회 및 경제적 환경에 접합한 것으로 회계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급속히 수행될 수 있었다. 소련은 가장 발전된 국가, 특히 미국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1920년대 및 1930년대에 경제계획 및 회계제도를 개발하였으며, 현행 중국의 원가중심점회계 및 통제기법은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중앙계획경제에 있어서 회계실무는 통일적 보고, 원가분석, 실적측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실제적 재무실적자료에 기준한 것은 아니라는 많은 보고가 있었다. 미숙련의 회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공헌하였으며, 회계의 질적측면에서 광범한 변화가 있었다.

## (2) 이익중심점회계

많은 국영기업은 기관에게 시장력(market forces)에 대응하여 적어도 일정 비율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익의 일정 비율(약 20%)을 사내유보시킴으로써 노동자에게 효익을 주도록 하고, 회계기법이 이러한 이익지향이 “증진된 자율권(increased autonomy)”을 갖는 관리체계에 필요한 것으로 촉진시켰다. 중국인들은 소련제도에 관한 회계기법에서 모형을 얻어 올 수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익중심점은 서방의 관리회계방법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1978년 외부거래 개방정책의 선언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서방이 관리회계방법을 주로 미국교과서와 회계학회지에서 중국의 전국회계협회(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 다수의 회계협회, 여러 부서, 국(bureau)과 관리기업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새로운 개념들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었으며, 적어도 기업경영자와 회계사들의 교육과 기술적인 한계 내에서 허용되었다.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시작되었으며 경영자와 회계관련 학교의 교과

과정이 수정되었다. 원가행태를 취급하는 관리회계개념이 가장 용이하게 중국의 기업에 적용되었다. 변동비 및 고정비, 공현이익, 원가-조업도-이익분석, 유통예산, 변동예산과 같은 제 개념과 고정비 및 변동비의 상이한 비율에 의한 보조부문 원가배분방법은 중국회계사와 경영자에게는 외국의 개념이었다. 이들 방법 중에는 공현이익개념과 원가-조업도-이익분석이 가장 광범하게 적용되었다. 다른 제개념은 회계인과 기업의 전문가의 의존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 \* 이익유보제도의 대체안인 세금

1985년 초에 새로운 이익유보제도가 여러 성에서 “이익유보 대체안으로서의 세금”으로 수행되었으며 실제로 그것은 단순히 소득세제이다. 1985년 이전에는 소득세는 단지 외국회사 또는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자에 대해서만 과세했었다. 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국영기업이라도 그 이익 중 50%를 소득세의 형태로 징수해야 하며, 그 나머지는 기업에서 사내유보한다. 이전에는 이익은 국가의 소유로 보았다. 새로운 개념으로는 이익은 기업에 속하며, 그것은 국가에 대하여 소득세만 내도록 한 것이다.

이 소득세제의 이행은 용어상의 변동이사의 일이었다. 새로운 조세제도 하에서는 전년도의 이익은 조세부담금액이 아니거나 기업에 의하여 사내유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기업과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기업과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상이한 수익계층에는 많은 문제가 있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조정세(adjustment tax)”를 부과하게 되며, 상이한 수익성을 갖는 동일한 규모의 기업에 의하여 이익유보 금액이 균일한 기업에 과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정세율은 전년도 이익금액의 부분에 기준한다. 상품가격이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한, 조정센스 새로운 조세제도에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정세율의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 (3) 투자중심점 회계

투자중심점 개념과 투자수익의 적정성은 아직 중국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중국인들은 주로 쿼타와 생산실적의 측정에 관심을 두었다. 이익은 대부분 예정생산원가로부터의 어떤 절약(savings)이라고 보고 있다. 개별적 기업에 있어서의 자본적 투자는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포함하여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통제된다. 투자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자의 노력으로 귀속된다. 고정적 생산쿼타로서 경영자는 재고자산과 자산투자에 상관없이 그 쿼타에 “이익” 목표가 합치되도록 추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경영자에게는 ROI, 잔여이익, 화폐의 시간적 가치성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 ① 자본세 실험

투자자본의 경영을 더욱 잘 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수개의 실험기업(pilot enterprise)에

1979년 초 “증대된 책임(increased responsibility)”이 주어졌으며, 그것은 이들 기업이 생산 및 판매 뿐 아니라 원가, 이익, 고정자산에서의 투자, 운전자본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전체적인 경제적 실적을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손실이나 비효율성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업은 소득, 정부에 의해 공급된 생산설비, 운전자본을 사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액을 부과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익을 더욱 올리게 되었다. 기업자체의 개발자금이나 외부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조세가 감면되었으며, 그것은 가장 높은 생산수익을 창출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실험기업을 독려하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上海디젤엔진공장은 고정자산에 대한 20%의 최저수익률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 투자수익률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지 않은 어떤 예정고정자산은 국가나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와 똑같이 추가적인 운전자본의 필수수익률은 11%이다.

## ② 特別經濟地域

1979년에 4개의 특별경제지역을 중국에 있어서의 “책임증대”的 경험이 이루어졌다. 이들 낮은 세액의 자유지역 기업은 외국투자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1984년 초에 14개의 연안도시는 수출지향 산업센터로서 선정되었으며, 외국투자와 높은 수준의 기술의 중심지로서 선정되었다. 1985년 말에는 6~8개월간의 특별경제지역과 도시의 평가를 보면, 높은 수준 이후로 그 진전은 실망적이므로, 같은 기간에 여러 지역에 대한 현실적 계획으로 검토한 것을 철회해야만 한다고 정부는 공표하였다. 이에 14개 중 4개 도시는 하부구조, 재료, 인적재원은 야심적인 경제발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 실험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증대된 책임(투자중심점)의 기업은 상해, 천진, 대련, 광주에 존속하여 왔다. 이 4개의 도시에 있는 증대된 책임을 가지고 있어 수출 지향적이 되었다.

## 2) 새로운 경영제도의 경제적 효익

이들 새로운 경영제도의 이행의 직후의 실증연구는 경제적 실적이 그들 국영기업이 운영에서 “증대된 자율권”과 증대된 책임이 함께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다.

Lin sum에 의한 논문 「국영기업의 이익유보접근법」(1979)의 통계에서 지적하기를 단지 1년 후에 “증대된 자율권(이익중심점)” 내에서의 생산은, 전통적인 국가관리(원가중심점)의 기업은 14% 초과하고 있으며 이익의 차이는 45%이었다. 이와 똑같이 인민일보(1980)의 연구는 “증대된 책임(투자의 중심점)” 기업이 18%의 더욱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은 23%를 높게 올리고, “증대된 자율권”(이익중심점) 기업보다는 17%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이들 생산성 이득은, 과거 수년간에 걸쳐 실질적 경제성장의 평균 8%로 중국에 공헌하고 있다. 등소평이 최고책임자가 되고 난 후 8년만에 중국은 이익중심으로, 그리고 시장집중의

소비자사회로 꾸준히 이행되어 왔다. 내국시장의 “경기 활성화”와 “서방거래개방”的 국가정책은 중국 회계인으로 하여금 많은 서방국가의 관리회계방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들 방법은 중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 생산성의 변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것의 계속적 적용은 경제개혁에 있어서의 종합적 역할을 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적 개혁은 아직도 많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더욱 자율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조정세를 납부하고 난 후에도 이익의 적은 부분만이 기업의 상위의 관리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거의 모든 기업을 높은 고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파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화폐적 인센티브가 노동자를 동기부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하나, 초과적 생산성은 완전고용에 위협이 되고, 임금간의 격차는 사회정의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양자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중국이 이와 같이 경제개혁안을 계속 추구할 것인지,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 2. 中國의 會計法

중국의 회계법은 1985년 1월 21일에 제6회 인민회의의 9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것은 1949년 중공이 생긴 이후로 최초의 회계법이었다. 이 회계법이 생성된 요인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영기업의 관리에 대한 문화혁명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부패, 횡령, 투기가 국가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많은 실무자들이 합당한 자격을 보유하지 못하여 적절한 회계감독과 경영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에 회계담당자는 불법적이거나 범죄적 활동에 대항하여 싸우려 해도 보호받을 수 없거나 거의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계층의 권한을 가진 자들은 회계실무자로의 맥락에서는 회계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형태로 기본적 회계원리를 공식화하는 것이 재차 필요한 것임을 증명하게 되었다. 의심할 바 없이 회계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자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관리를 개선시키고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회계인이 현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발전과 진전을 간략히 밝히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1) 회계법 제정의 배경

회계법의 배경은 구사회로부터 전해온 여러 가지 회계제도와 실무를 통일하려고 하였으며, 적어도 회계제도의 합법성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국가는 전쟁의 영향에서 회복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중국경제를 재건하려고 의도하게 되었다. 그러

나 재무성이 바라고 있는 만큼 신속히 회계제도를 내놓을 수는 없었다. 제1단계로 재무성은 어떤 새로운 회계규칙을 설명하고자 결정하였다. 1년 후에 2개의 중요한 회계규칙이 제정되었다. 즉, 하나는 중앙정부의 관리부서의 예산회계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회계실무를 통일하려고 설계된 것이다. 1951년 11월에 재무성은 이 두 개의 회계제도를 통합하고 통일적인 계정과 회계자료의 양식과 형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953년에 제 1차 5개년 계획 초에 재무성은 별도의 전국적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일적인 회계제도와 회계규칙을 설정하는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하였는데, 회의가 종료되고 난 후에 다수의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었다. 예를 들면 국영기업에 있어서의 원가계산에 대한 통일적 접근법, 제계산도표, 재무제표양식 등이다. 이러한 제 양식은 국영기업이나 지방기업이 사용하였으며, 단순화된 회계체계는 특히 지방기업에서 사용하였다. 1961년으로부터 1965년까지 3개의 매우 중요한 회계규정이 재무성에 의하여 입안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즉, ① 국영기업의 회계절차, ② 공업 및 운수국영기업에 대한 회계지도자에 관계되는 몇 개의 규정과, ③ 회계인의 권한 및 의무규정 등이다. 특히 정치적 여건은 이러한 규정정립을 독려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10년간의 문화혁명은 이러한 작업진행을 중단하게 하였으며, 국영기업에 관한 회계업무절차를 제외하고서는 그 기간에는 더 이상의 규정이 제정되지지는 않았었다.

## 2) 회계법의 내용

중국의 회계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회계지도자와 기업단위 스텝의 책임의 범주와 기능을 확장시켰다. 회계법 제2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회계지도자와 회계스텝의 주요 기능은 ① 회계법 II 편에 따른 회계계산, ② 회계법 II 편에 따른 회계감독, ③ 각 단위에 관련된 회계문제를 취급하는 특별절차의 규정작성, ④ 경제계획의 작성, 예산과 재무계획의 집행결과의 검토 및 분석에의 참여, ⑤ 다른 회계문제에 관한 지휘 등이다.

(2) 회계지도자의 법적 의무도 역시 명확히 규정되고 있다. 회계관리와 회계감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계법은 통일적인 회계제도와 다른 관련규정이 조치의 한 부분으로서 회계담당자와 스텝의 책임과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회계법 제25, 26 및 27조에서는 규정하기를, 만일 회계담당자 및 회계스텝이 그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경우가 매우 심각한 때에는 관리적 제제를 받게 되며 범죄에 대한 소추를 받게 된다.

(3) 계층적인 관리중역의 법적 책임과 의무의 명세화로서, 이것은 동법의 중요한 관심사로서 단위의 관리중역은 회계담당과 스텝이 동법에 부합하여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야 할 의무도 갖는다. 만일 관리중역이 동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들도 역시 동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4) 회계담당자와 스텝의 법적권리는 동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동법은 회계스텝을 비난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임명과 해임의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즉, 회계스텝은 간부진을 벗어난 지배권 여역의 약정에 따라 임명도고 해임된다. 기업이나 비영리단위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와 회계스텝은 상위의 관리단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회계스텝이 그 권리에 입각하여 추종하지 않으면, 상위의 관리단위는 이의 교정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만일 회계스텝이 회계업무에 소홀하거나 원리에 벗어나게 되면, 상위관리단위는 그 단위에게 그를 해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회계법의 범위로서 회계법의 제22조는 모든 국영기업, 국영 비영리 단위, 정부대행기관, 사회기관, 군기관은 회계문제를 취급할 때 동법을 참조해야 한다.

### 3. 중국의 회계이론

이제까지 중국은 실무치침이나 새로운 실무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일차되고 일관된 회계이론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그것은 소규모 지방경제의 전통적 사상의 영향 때문이며, 어떤 경우에는 현대적 경영과학과 기술에 대한 총체적 지식의 결여가 많은 경영자로 하여금 국영기업의 경제적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때문이거나, 그들의 회계실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때문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회계가 비교적 사수한 실무로 보아졌기 때문이다.

(2) 중국에서의 경제적 및 정치적 제도의 영향 때문이다.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이므로 최초의 경제개혁 이전에는 전체적인 전국경제는 단일경제실체로서 취급된다. 국가가 기업에 대한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제품을 배급하고 인력을 임명조치하여 비품과 실비를 할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익을 취하게 되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게 한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중역은 국가의 대표로서 행동하게 된다. 그들의 주요책임은 더욱 효율적인 재원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피라밋형의 직제관리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과된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유인이 없다.

(3) 소련회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950년대의 중국과 소련의 상호 우호관계로 인하여 소련모형의 영향은 중국정치제도의 형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직책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연방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차례로 회계정보 과정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은 경제적 여건의 복잡성에 대응하여 일어날 수 있는 회계정보에 있어서의 고유한 민감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회계협회와 재무성은 현재 사회주의 회계이론을 설정할 목표로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중국 특성의 계정을 정하고 효율성을 강조하

며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익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회계사상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국회계협회는 학자와 실무자가 만든 회계이론과 방법론이 중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다음 방식으로 종합되고 있다. 즉, 회계적 개념 및 원칙의 생성은, ① 전통적인 회계적 경험과 실무적인 현실성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제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② 중국경제의 발전과 전통적인 회계이론 및 방법론의 개혁을 결합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아래서 경제적 관리를 향상시키는 필요성에 대응한다. ③ 변증법적 유물론관 역사적 유물론에 의하여 지도되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동시에 중국여건에 적합하고 타당한 서방국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를 흡수하는 것이다.

#### 4. 중국 회계철학의 변화

행동과학적 의미로 본다면 회계는 일반적으로 여건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장기적 역사를 본다면 회계는 그것이 역할을 하는 환경에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참으로 환경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사회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록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변화하고 동시에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로 회계는 환경적 여건이 변화할 때에 변화해야만 한다.

중국은 1949년도 해방 아래로 중국 경제는 연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는 회계실무에 있어서도 현저한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중국 회계철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회계 사로 하여금 대응하고 관련되는 회계의 정수와 실체를 탐색하는 데도 자극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동의 결과로 중국회계사는 중국회계를 외부적으로 특성화하기를 원하였으며, 상세히 그 특성과 목표를 심도있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구조의 발전과 비교할 경우에, 그 사고의 변화는 세 단계로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① 수단으로서의 회계의 관점에서, ② 정보체계로서의 회계의 관점에서, ③ 회계적 관리로서의 회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 1) 수단으로서의 회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적 건설에 대한 소련경제모형의 영향은, 1949년도의 해방독립기간 후에 매우 현저하였다. 소련 경제적 모형에 따른 회계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조화되었어야만 할 뿐 아니라, 거시경제계획과 미시경제계획으로 표현되는 경제정책과는 부합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적이고 번영발전하는 기준으로서 국민의 부(well-being)의 성장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러한 안내 지침에 따라 회계의 주요목적은 국가 경제계획 편성과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 실적의 평가에 도움이 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어떤 회계학자와 실무자들은 주장하기

를 회계는 국가와 “사회주의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회계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경제적 관리를 취급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것은 또한 화폐라는 형태로 기록·검토되는 제단위로서, 예를 들면 기업, 비영리기업단위, 공식조직기관과 같이 경제적 활동,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의 과정에 있어서의 재무상태를 감독 및 평가하는 접근법이다.”

## 2) 정보회계로서의 회계

1970년대 후반에 문화혁명 직후에 중국은 경제적 개혁과 개방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경제적 건설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 서방국가의 많은 회계문헌과 「저널」이 중국에 소개되었으며, 그와 병행하여 약간의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으로서, 예를 들면 기회원가, 한계분석, 화폐의 시간적 가치, 원가-효익분석 등이 소개되었다. 이들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론이 중국의 국영기업이 그들의 관리향상을 위하고 미래생산을 위한 훌륭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유용한 방법을 마련도록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회계사들은 서방동료들의 연구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로 서방국가로부터의 영향은 소련연방의 영향을 능가하게 되었다. 비록 중국회계의 기본적 특성과 목표는 불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중국 회계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회계실무에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특성화된 회계사상의 모호성의 경계를 타파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회계는 하나의 정보체계이다. 그것은 기업전체로서의 경제적 활동을 기록, 측정,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3) 회계관리로서의 회계

경제구조의 개혁이 더욱 발전해감에 따라 중국당국은 회계가 관리를 향상시키는데 현저한 역할을 하고 국영기업의 효율성과 효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회계간부들도 정보 작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기업관리의 집행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회계관리”(accounting management)라는 새로운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장하기를, 회계는 국영기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단순히 정보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 하나의 중요한 관리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불시의 조망(perspective)에 따라서 회계는 사회주의 현대화에 공헌도를 증대시키고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위하여 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측·예산편성·평가·분석하는데 있어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유인이 중국회계의 특성과 목표의 더욱 상세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였다. Lou 교수의 해석이 이러한 사고방식의 대표로 꼽을 수 있겠다. 즉, “회계는 경영적인 활동이다. 그것은 실체

(entity)의 경제적 활동의 수량적 현상을 측정·분석·검토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간략히 재무성 및 원가정보를 창출함으로써, 그것에 의존하여 경영자는 생산과정을 통제하고 최대의 효율성과 효익을 획득하도록 회계기능과 책임을 이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 III. 中國의 會計制度의 發展

#### 1. 經濟的 會計制度의 發展

과거 수년간 中國에 있어서 “經濟的 會計(Economic Accounting)”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經濟的 會計의 經營管理에 있어서의 役割과 國營企業의 制度라는 측면에서 일간지 뿐만 아니라 이론지, 과학 학회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經濟的 會計(Economic Accounting)”와 “經濟的 會計制度(economic accounting system)”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經濟的 會計制度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國營企業의 經營에 대한 制度와 節次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경제적 회계제도의 시행은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中國文獻에서의 논의는 經濟的 會計의 意味와 내역으로부터 비롯해서 國營企業 내에서의 經濟的 會計에 대한 외부적 조건 뿐만 아니라, 經濟的 會計와 다른 經濟的 概念간의 關聯性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다. 蘇聯과 같은 상대자와 같이 中國의 經濟的 源泉은 마르크스의 nomenclature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마르크스의 政治 原理의 맥락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주로 중국의 경제학자와 마르크스의 독트린으로 행동하는 관리자가 선점하였으므로 이론적인 논의의 상당부분은 기업운영의 실제적 계획과 통제에는 별로 특성이 없었다.

##### 1) 經濟的 會計의 概念의 發展

經濟的 會計의 中國개념은 蘇聯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사실상 경제적 회계제도를 설정하려고 중국에서 채택한 測定值는 소련대상국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경제적 회계는 경제적인 자금자족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업경영을 발전·향상시키는 계획안의 하나의 측정치로서 제안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경제적 회계제도의 설정을 위하여 5개의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 ① 각 기업의 자금부족에서 벗어나 가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본액의 보증.
- ② 수입과 지출계산을 위한 일정한 절차의 설정.
- ③ 만일 가능하면, 원가회계제도나 원가회계절차의 설정.

- ④ 기업회계에 있어서 원자재인수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될 검사제도의 설정.
- ⑤ 공구와 설비의 적절한 유지와 원자재의 경제적 사용을 보증하기 위한 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업가동의 수익성을 확인시키는 수단으로서 경제적 회계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적 회계제도의 다른 2개의 조치는 중요 계획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첫째는, 모든 공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중앙계획의 고려방식이다. 정부의 재무 및 경제담당실은 공공 공업 기업의 가동에 대한 통일계획의 발전을 감독하고 있다.

둘째는, 공기업의 조직과 관리는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특별조치는 공장 내에서의 관료적 경향을 배제하는 데 있었다. 공공기업은 기업가동의 기준으로서 철저히 사무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 의한 평가 대신에 기업은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도록 요청되었다. 이에 덧부쳐서 보상제도와 누진적 생산단위당 자금별(Progressive piece-rate for wages)이 제의되어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그에 따라 생산을 증대하게 되었다.

소련의 이론과 경험에 기초하여 중국에 있어서의 회계제도는 공업성의 통제하에 제조기업에 도입되었다. 1949년 후반기 초에 다수의 간부들이 공업성에 의하여 경제적 회계제도를 설정하였다. 이들은 자산의 실제조사, 통계적 보고제도의 설정,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 예산관리, 생산 및 원가표준의 설정 및 조직구조 내에서의 개인에 대한 적절한 업무 부과 등을 하는 것이었다.

## 2) 國營企業에서의 經濟的 會計의 시행

경제적 회계의 주요, 목차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방향의 제약을 감안하여 노동력과 자본의 최소화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성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학자와 관리 사이에는 경제적 회계개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해설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 (1) 經濟的 會計制度설정의 준비단계

기업 내에 경제적 회계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데는 몇 가지 사전적 단계가 필요하다. 모든 자산의 실사와 기록, 이들 자산의 적절한 평가, 기업가동에 필요한 자본액의 결정이 사전에 필요한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을 포함한 자산의 재평가를 하는 규정이 1951년에 공표되어 1951년 6월 말에는 중국원화로 대체원가기준으로 재평가되었다.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대체원가는 송장가격에 세금 수수료, 운송비를 포함한 것이며, 유동자산은 시장가격에 의한 것이다. 그 당시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재평가에 있어서의 대체원가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는 않았었다. 총자본액 또는 총재원은 기업의 가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생산과업과 생산기술에 의하여 대체로 결정된다. 운송자본에 대해서는 소요금액의 계산은 생산주기의 길이와 산출량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 (2) 細部的 方法과 生產

특정한 제품의 제조에 대한 생산과정의 선택과 적용되는 세부적 방법은 기술적 생산이라고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효과적 과정의 기술명세서는 클레임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며, 과거에는 생산작업은 오랜 숙련기술과의 경험의 기준에 주로 의존하여 시행된 것이다. 생산에 대한 조직은 과학적으로 되지 못하고 그 결과 공장에서는 낭비와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이 생산기술 과정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이용하고 있는 기술적 방법의 선택
- ② 실행하는 연속적인 가동의 규모
- ③ 반제품과 완제품에 대한 질적 표준과 원자재에 대한 질적 표준의 사용결정
- ④ 기계 및 설비의 이용, 유지 및 안전보전
- ⑤ 제품설계 및 엔지니어링
- ⑥ 공장안전 조치 등이다.

### (3) 標準에 의한 基準設定

기업의 생산활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설정과 이것을 고용과 통제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표준에 의한 관리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요 형태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특정한 기술적 조건 하에서 일정 기간에 노동자 또는 노동자 집단에 의하여 생산되어지는 산출량을 확정하는 산출량표준
- ② 원자재 소비표준
- ③ 하나의 과업을 완성하는데 요구되는 노동자 수를 규정하는 노동자 소요 표준
- ④ 작업폐물과 감원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산출량의 등급에 대한 요건을 정하는 질적 표준
- ⑤ 원가표준
- ⑥ 운전자본표준

이러한 표준은 과거에는 경제적 측정치나 통계적 평균치에 의해 설정되었다. 그것은 더욱 합리적인 접근법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에 의한 기록의 평균치와 하나의 표준으로서 가장 훌륭한 노동자에 의해 얻은 일반적 기준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의되고 있다.

### (4) 責任制度

책임제도는 중국의 문헌에서는 광의와 협의로 쓰여지고 있다. 광의로는 국민경제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적 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규격을 포함한다. 따라서 단위 기업내의 책임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단위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 (5) 기타 규정 및 영업절차

여러 가지 규정 및 영업절차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업의 계획과 영업에 대한 상위단체에의 보고와 승인
- ② 기업의 상여금을 포함한 보상과 제재
- ③ 인사정책
- ④ 자산관리
- ⑤ 자금제도
- ⑥ 생산과 계획달성을 관련된 검사제도
- ⑦ 저축관리
- ⑧ 통계적 보고제도

이는 기업 운영에 관한 적정한 제도와 절차를 설정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

### 3) 經濟的 會計의 주요 관련항목

사전준비단계가 완수되면 기업은 경제적 회계의 적용에 대한 준비가 된 것이다. 실제적 조치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회계를 기업회계의 주요 관계로 보는 것이다.

#### (1) 計劃設定

사적 기업경제내의 기업예산과 같이 국영기업은 기업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조직화하고 조정하게 된다.

#### (2) 財務會計 및 管理會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경제적 회계제도의 하나의 통합부문으로 고려된다. 중국에 있어서의 회계의 개념은 그 유사성의 정도에 대한 약간의 반박을 제외하고서는 서방제국에서 인정된 고려방식과 별로 차이가 없다. 회계절차에 있어서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한, 기업활동의 연속적, 조직적 및 종합적인 기록과 이를 자료의 종합 및 작성, 분석 및 해석으로써 특성화된다. 따라서 그 회계제도는 ① 기업관리의 도구로서, ② 국가에 의한 재무적 통제의 수단으로서, ③ 국가경제계획 설정의 통계자료의 주요 원천으로서 쓰여지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의 복식부기의 기장원칙은 1949년 아래로 제의되었으며, 특히 1954년부터는 적극 시행되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산출량의 가치는 생활노동력에 의해서 창출된 가치로 구성되며, 그것은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감가상각비와 같은 "materialized labor"로부터 전환된다. 이러한 생활노동력에 의해 창출된 가치는 차례로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노동자의 임금(세금 포함)과 일반관리비의 합계이며, materialized labor의 가치는 생산량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공장 산출량의 판매가치는 생산원가(세금 포함)와 이익의 합계와 같다.

생산원가의 실제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공장에 대한 총생산원가는 공장수준에서 발생한, 생산에 대한 공장경비, 판매비, 배분된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생산을 위한 공장경비는 생산을 위한 작업경비와 공장일반관리비의 합계액과 같다.

생산의 작업비용은 ① 직접재료비, ② 직접근무비, ③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연료 및 동력비, ④ 공원 및 작업폐물, ⑤ 작업중단으로부터의 손실, ⑥ 감독원의 급여 및 임금과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같은 기타 작업비로 구성된다.

산출량의 총계적 가치는 생산원가, 계획이익 및 세금의 합계와 같다. 판매비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생산의 추정원가는 분명히 이러한 가격의 결정에 이용되어져야 한다.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소련의 원가회계의 경우와 같이, 국가에 의해서 마련된 장기적 자본의 이자비용은 생산원가를 포함하지 않았었다. 기업의 생산원가로 반영된 유일한 이자비용은 운전자본대출을 위하여 국영은행이 부과한 경우 뿐이다. 1959년 이래로 국영기업이 소요하는 모든 운전자본은 인민은행에서 공급되었으며, 이자는 총운전자본액에 부과하였다.

기업원가 실적을 평가하는데는 3개의 주요 기준이나 지표가 사용되었다. 즉 원가-이익률, 생산원가 계획의 달성정도, 상이한 기업 중에서 동종제품을 위한 생산원가의 비교이다.

원가-이익률은 이익에 대한 총생산원가의 비율이다. 그 비율은 개별 제품이나 기업전체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다. 그 비율은 역사적 추세, 실제적 및 계획적 원가-이익률간의 비교, 한 기업과 다른 기업간 또는 산업평균 사이의 비교는 기업의 원가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 평가는 주로 제품원가계획의 달성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원가계획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의 감소 뿐만 아니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제품에 대한 단위생산원가에 있어서의 감소율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또한 원가실적의 주요 지표는 앞으로의 경영활동을 위한 지침으로서 사용되어진다.

### 3) 資金管理

자금관리는 기업에 있어서의 운전자본 회전율의 증가를 위해 이루어진다. 운전자본 사용의 비효율성과 낭비는 어떤 국영기업의 빈약한 실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운전자본의 이용효과의 측정은 유동성 자금의 회전을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유동자금의 중요한 세부영역 뿐 아니라 총유동자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모든 유동자금에 대해서는 년간 회전율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계산된다.

- ① 제품 매출로부터의 수입금  
유동자금의 평균잔액
- ② 총생산량 가치  
유동자금 평균잔액

유동자금은 평균잔액의 기초 및 기말의 유동자금의 단순 산술평균으로 계산된다. 또한 회

전율은 각 회전에 대한 평균일수에 의하여 측정된다.

$$\text{③ } \frac{\text{유동자금의 평균잔액}}{\text{상품 매출로부터의 수입금}} \times 360\text{일}$$

통제목적을 위해서는 월간 및 분기별 회전율이 역시 사용된다.

## 2. 中國의 管理會計의 發展

과거 10년간 經濟的改革과 더불어 새로운 管理制度가 이해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국영기업이 어떻게 서방의 관리회계제도를 최근에 채택하여 새로운 관리제도와 경제적, 사회 및 정치적 국가개혁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논증 가능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1979년에 중국은 가장 최근의 일련의 경제적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생산과 경영방법의 실험과 평가를 포함하였다. 이 “시행착오”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비롯된 아이디어이며 선정된 지역에서 시도할 수 있었다. 만일, 그 아이디어가 실패되면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실험이 시행되었다. 성공적인 실험은 새로운 국가정책과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기준이 되었다. 비록 모든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국가정책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선정된 것은 전국을 통하여 모든 기업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중국의 인민회의에 의하여 발의된 첫 실험은 실험적 국영기업이 이익을 유보하고 더욱 자율권을 가지며 생산성에 이니시아티브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율계획의 확대는 “부정과 불균형”的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제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1년 이내에 수천 개의 주요기업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중국의 기업환경에 획기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 기업간의 이제 경쟁은 장려되고 있으며, 공업제품 및 원료는 이제 산업전시장에서 구입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은 국가가 세운 생산계획에 일치하는 한 생산계획을 개발하고 제품을 판매하며 구매자와 가격을 협의하였으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본투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아직은 결여되어 있으며, 어떤 영업손실이 있으면 국가에 의하여 보전되고 있다.

### 1) 原價中心點會計의 導入

중국의 독립은 더욱 많은 대규모 기업의 발전을 유발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는 국가경제를 마치 단일의 거대한 제조기업의 운영사업부로 제품을 판매하던가, 잘 생산계획을 개발할 수 없는 것처럼 운영하였다. 생산 및 원가목표는 국가대행기관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비록 이익은 목표 중의 하나였으나 모든 가격은 국가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있다.

1950년대에는 많은 기업은 “작업팀” 개념을 강조하였다. 작업팀은 가장 하위계층의 원가 중심점이었다. 이들 노동자의 팀이나 집단은 그들의 계획생산, 원가 및 소위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이 있었다. 기업 자체는 원가중심점이 아니다.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재무적 고려가 아니라 생산쿼터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한 “내부이익제도”는 공장설비 및 일반공장에 대한 책임자들, 대규모 기업의 중간관리자들에게 원가 및 이익을 주지시키는 것을 증진하는데 수행된 것이다. 이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결함은 회계학 또는 경제학회지에는 발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통제도의 성패는 계획경제의 기본적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서방의 관리회계, 교과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원가중심점에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관리회계방법은 이들 기업에 의하여 수정되어 이용되었다. 이들 기법은 아직 많은 중국기업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표준원가계산, 재고자산계획 및 통제, 원가중심점에 대한 책임회계는 1950년대 초기 이내로 중국제조기업에서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들 원칙은 당초에는 소련회계기법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중앙계획경제제도는 소련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중국의 새로운 사회 및 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서 회계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급속히 수행될 수 있었다.

소련은 특히 미국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1920년대 및 1930년대에 계획 및 회계제도를 개발하였으며, 현행 중국의 원가중심점회계 및 통제기법은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에서 사용하는 그것과 동일하다.

중앙계획경제에 있어서는 회계실무는 통일적 보고, 실적측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국영기업은 관련회계와 보고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규정에 합치되어 작성된 재무제표는 실제적 재무실적자료에 기준한 것은 아니라는 많은 보고가 있었다. 미수련의 회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공헌하였으며, 회계의 질적 측면에서 광범한 변화가 있었다.

## 2) 利益中心点 會計

많은 국영기업은 기관에서 시장력에 대응하여 적어도 일정 비율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익의 일정 비율(약 20%)을 사내 유보시킴으로써 노동자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고, 회계기법이 이러한 이익지향의 “증진된 자율권”을 갖는 관리체계에 필요한 것으로 촉진화시켰다.

중국인들은 소련제도에 관한 회계기법에서 모형을 얻어 옮 수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익 중심점은 서방의 관리회계방법을 주로 미국교과서와 회계학회지에서 번역, 연구 및 발행하도

록 하였다. 많은 이러한 새로운 회계방법이 중국의 전국부서(全國部署), 국(局), 관리기업으로부터 보충을 받았다. 새로운 개념들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었으며, 적어도 기업경영자와 회계사들의 교육과 기술적인 한계 내에서 허용되었다.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시작되었으며, 경영학 및 회계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이 수정되었다.

원가행태를 취급하는 관리회계 개념이 가장 용이하게 중국의 기업에 적용되었다. 변동비 및 고정비, 공현이익, 원가-조업도-이익분석, 융동예산, 변동예산과 같은 제개념과 고정비 및 변동비의 상이한 비율에 의한 보조부문 원가배분방법은 중국 회계사와 경영자에게는 외국의 개념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를 방법 중에는 공현이익개념과 원가-조업도-이익분석이 가장 광범하게 적용되었다. 다른 제개념은 회계인과 기업의 전문가의 의존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어떤 이익중심점 회계의 사용에 대해서도 그 기초는 이익의 경제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는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획득한 이익과 발생된 비용의 결과이다. 이익은 자본창출에 필요하며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게 되므로, 이익은 경영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실제로 중국에 있어서 그 상황은 매우 차이가 있다.

어떤 기업에서는 오늘날 정부의 판매가격과 생산원가와의 비합리적인 높은 마진은 매우 높은 이익을 확인시켜 주며, 다른 기업에서는 이익마진은 비합리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결과로 기업체간의 그리고 동종업종의 상이한 기업간이라도 공정한 세금, 종업원상여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980년경에 중국의 커다란 산업도시인 상해에서는,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노동자의 상여금과 다른 효익을 위해 약간의 이익을 사내 유보하는 것을 허용하여 새로운 이익유보제도의 동기 유발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내유보이익은 신년도에 올린 이익과 당해연도 증가된 이익을 합한 것에 좌우된다. 각 산업에 적용되는 비율과 동종산업이라고 각 기업은 정부에 의하여 매년 결정된다. 왜냐하면 연속되는 년도에도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당해 년도에 적용되는 비율은 어느 때는 전년도 이익의 2배가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P_0 = \text{전년도 이익 } 100,000\text{元(yuan)}$$

$$P_1 = \text{당해연도 이익 } 115,000\text{元(yuan)}$$

$$R_0 = \text{전년도 이익의 사내유보 비율(20\%)}$$

$$R_1 = \text{전년도 이익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증가의 사내유보 비율(50\%)}$$

따라서 당해연도에 대한 이익유보 금액은 다음과 같다. 즉,

$$P_0 \times R_0 + (P_1 - P_0) \times R_1 = Y100,000 \times 20\% + (Y115,000 - Y100,000) \times 50\%$$

$$= Y27,500$$

이 이익유보제도는 기업에 이익을 배분하는 효과적 방법으로서 전체 중국에 전파하여 사용되었다. 4년 또는 5년간이나 중국의 거의 모든 성에서는 이 제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제도가 시도한 것과 같이 문제점도 분명히 점차로 나타났다. 1년간 수익성을 올린 기업이 다음 연도에도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술과 경영이 발전된 기업은 덜 발전된 기업보다는 다음 연도에 기업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잠재력이 적어지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 3) 投資中心點 會計

투자중심점 개념과 투자수익의 적정성은 아직 대부분 중국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러 해동안 중국인들은 주로 쿼터와 생산실적을 측정해 왔다. 이익은 대부분 예정생산원가로부터의 어떤 절약이라고 보고 있다. 개별적 기업에 있어서의 자본적 투자는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포함하여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통제된다. 투자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자의 노력으로 귀속된다. 고정적 생산쿼터로서, 경영자는 재고자산과 자산투자에 상관없이 그 쿼터와 “이익” 목표가 합체되도록 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경영자에게는 ROI, 잔여이익, 화폐의 시간적 가치성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본의 경영을 더욱 잘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수개의 실험기업이 1979년도에 “증대된 책임”이 주어졌으며, 그것은 이들 기업이 생산 및 판매 뿐아니라 원가·이익·공정자산에서의 투자·운전자본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 3. 중국 회계감사의 발전

### 1) 中國의 會計와 監查의 歷史

中國에 있어서의 회계와 監查는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生産을 수반하여 축척된 財產을 管理하기 위하여 會計는 차례로 발달해 왔다. 中國에서는 두 가지 要因이 會計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즉, 첫째 生産이 증가하고 物質的 財產이 급속히 팽창된 결과 財產의 증가, 감소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둘째, 中國에는 필기 方法으로 漢字가 이미 存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 中國의 原始共同體時代에는 生產力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있게 되므로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소비하게 되었다. 財產의 축척도 기록방법도 없었다. 要는 會計를 출현 시킬수 있는 條件이 存在하였기 때문이다.

약 BC 2000~1500년의 夏王朝의 경우에 中國은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사회에로 移行하였다. 노예노동은 농업과 축산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司馬遷(약 BC 145~?)의 史記에 의하면, 당시 황제는 江南의 諸侯, 王族과 마주하여 貢物을 받아드리게 되었다. 사마천(司馬遷)은 僧繼라고 하였는데 이는 會計을 이미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록을 남겨주는 것은 부기(簿記)와 전연 상이하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담과 실패담과 함께 富의 기록을 해 놓았다.

당王朝(BC 1500~1,000년) 시대, 즉 노예제도가 비교적 발달된 시기에는 生產力이 일층 증가되었다. 그 後期(약 BC 13세기)에는 매우 高級의 漢字가 생겨나서 貢物이나 動物의 수도 기록되었으나, 十進法을 사용하고 크게는 30,000의 숫자가 사용되는 中國의 會計가 나타났다.

西周王朝(BC 11세기~771년)에는 노예제도의 시기였으며, 同時代의 청동기 上의 표기는 土地의 넓이, 노예의 숫자, 기타 황제의 관리에 주어지는 物品을 기재하는 것으로부터 황제의 힘을 표현하고, 그 공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황족은 부를 얻어 계산에 관한 지식은 늘어나서 지속하여 왔다. 西周에서 사용한 最大의 수는 商의 100倍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큰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계산방법, 기록방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 2) 春秋時代(BC 770~475년) 및 戰國時代(BC 475 ~221년)의 會計과 監查의 形成

### (1) 「會計」의 출현과 의미

秦朝(BC 221~206년) 이전에 나타난 역사문서 중에서 會計라는 사항이 기록된 것은 孟子의 책 중에 나타나고 있다. 孟子가 창고의 관리인이 되었을 경우에 孟子가 행한 것은 “을바른 회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孟子는 會計에 상당하는 中國語가 이미 春秋戰國時代에 있었음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孔子의 말을 引用한다.

당시 孔子는 창고관리인의 작은 역할 밖에 하지 않았다. 孔子는 古代中國의 최대 교육자이며 철학자이였다. 『史記』에 의하면 六禮를 모두 구비한孔子의 제자는 72名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音樂, 武藝, 馬車制御, 古書解讀 및 算術이 포함된다. 會計를 제도적으로 발달시킨 것은 『周』였다. 會計에 관한 기록이 된 것은 「官吏가 되어 會計를 관리, 監視하는 것이다」. “業績의 검토와 會計의 檢查가 될 수 있도록 文書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의 진실성, 신뢰성을 인정을 포함하게 된다.

會計에 나타나는 말로서, 專(YAO)과 승(HUI)은 古代에 대나무 조작에 조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서, 月末에 대나무 細片에 마감하는 것은 「YAO」라고 하고 1년말에 마감하는 것을 「HUI」라고 한다.

### (2) 行政機關의 會計의 發達

춘추전국시대에는 中國史에서도 중요한 시기였다. 노예제도로부터 봉건제에의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노예가 작은 土地를 소유하는 農奴로서 그 生產意慾은 증대되었다. 또한 金屬의 농경기구, 경작하는데 소용되는 소(牛)의 사용, 水利計劃으로부터 농업생산이 한층 향상되고 同時에 手工業, 商業도 번성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富의 축적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정부기관은 각각의 수준에서 차례로 會計를 발달시키고 불규칙적이고 일방적인 원시적 패턴에 의한 기록제도로부터 財產物資의 증감을 정확히 반영시키는 규칙적 會計에로 이행하고,支配者의 富를 지키게 되었다. 정복회계제도도 財政管理上 중요하게 되었다.

「周의 儀禮」에 의하면 수종류의 직책의 관리가 재산, 物資의 관리에 臨하고 있었다. 大府는 歲入과 貢物을 관리하고, 王府는 王의 金, 비취, 기타의 財寶를 관리하여 왔다. 內府는 군비품과 貢物내에서 가치가 높은 것을 관리하고, 外府는 화폐의 入出金을 취급담당하였다. 司승은 歲入과 支出費를 관리하고 司書는 토지, 인구, 지출의 기록을 하였다. 職內는 歲入을 관리하고, 職歲는 지출의 관리, 幣는 省, 部의 임여금을 관리하였다. 9종류의 관리 중에서 司승은 會計擔當者이다. 지출비는 모든 관리가 이를 보고하며 그것을 司승이 점검하고 會計分野의 책임자가 되므로 국가의 주요계획을 총괄하게 되며, 다른 8名은 財產, 物資, 收入 및 支出을 직접 관리하였다.

### 3) 政府會計의 출현

中國의 民間會計는 手工藝와 商業으로부터 생겨났다. 춘추시대에 獨立의 상인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鄭國의 王은 商人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는 통상적으로 商人の 상업활동은 간섭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상인의 측에서도 국가에 불리한 사업을 행하지 않았다. 孔子의 제자인 子貢이 무역으로 富를 얻은 경우에 各地에 자유로이 通行을 하고 어디에서나 王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齊桓公(齊王)을 도와주는 管仲은 王族의 지도자格이면서도 商業의 길에 入門하였다. 戰國시대(BC 475~221년)까지에 상인들은 活動범위가 크게 擴大되었다. 國家에 비견하는 富를 축척하는 商人이며, 그러한 경우 정치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었다. 中國의 初期의 政府會計는 이와같은 저명한 상인의 상품매매의 기록을 시작으로 하여 고급관리나 大地主에 의하여 會計가 이루어졌다.

商人의 번영은 戰國時代末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지경에 이르르니 商人은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그것이 封建時代를 통하여 지속되었다. 먼저 商人에 대한 反對의 소리는 民衆으로부터 올라왔다. 예를 들면 「상군서」에서는 商人에게 重稅를 부과하는 提案이 있었다. 韓非子의 문헌에는 商人은 악마로도 묘사되고 있다. 다음 공격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政府는 소금과 철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정부에 의한 工藝品의 통제를 行하고 중요한 產品, 商品의 규제가 행하여졌다. 西晉組의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상업활동의

금지]를 하고, 西晉組의 범률은 商人은 흰색의 스카프를 얼굴(額)에 감고, 한쪽은 白色, 다른 한쪽은 검은 신발을 신게 되었다. 많은 歷史文獻이 商人이나 商人活動, 또는 會計에 관하여 기록하여 왔다.

## IV. 中國會計와 西歐會計의 比較

### 1. 中·美 會計의 比較

비교회계는 각기 다른 국가의 회계 또는 상이한 국가의 어떤 발전단계의 회계에 있어서, 그 이론, 방법 및 실무를 비교하고, 공통점, 유사점 및 상이점을 명확히 하고 그 원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그 방법으로서는 공간적으로 국가간이나 지역간의 비교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회계와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서구제국의 회계와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소련·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헝가리 등 동구제국의 회계와의 비교이며, 나아가서 중국의 회계와 인도·이집트 등의 제3세계제국의 회계와 비교 가능하다.

시대적으로 말하면 각국의 회계에는 각기 역사적 발전의 단계가 있으므로, 그것의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회계의 특성과 그 원인을 비교하는데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결부시켜 종횡으로 교차시켜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비교연구가 행해지는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계학의 영역 내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 내포된 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국경이나 시대에 제약되지 않는 확고한 회계이론과 방법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2) 타국이나 지역의 회계 및 그 역사적 발전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자국의 회계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3) 지식을 넓히고 외국의 회계이론과 실천 및 발전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외경제개방정책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한다. 예를 들면 외자의 이용에 의한 선진기술과 설비의 도입에, 또한 보상무역의 전개나 합병기업의 설립 등에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필요가 요구된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재무평가이며, 여기에는 쌍방의 회계관행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에 의한 연구방법은 근래에 와서 미국의 국제회계학회에서는 1982년의 대회에서 「비교회계제도」의 의견이 제의되고 있다. 비교회계는 회계학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분야이며 육성되어야 할 부분이다.

## 2. 中國會計의 役割과의 比較

회계의 역할은 일정 불변한 것은 아니며 그것은 회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미국의 재무회계준칙위원회는 그 「재무회계의 개념총론」 제1집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은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재무제표 그 자체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경제·법률·정치 및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회계를 재무회계(외부보고회계)와 관리회계(내부보고회계)로 나누어, 2개의 회계의 역할에는 각기의 특성이 있다.

재무회계의 목적은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고 다음의 재무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 (1) 투자자의 투자방침의 결정
- (2) 여신자의 대출의 결정
- (3) 정부에 의한 세액의 결정
- (4) 정부의 증권관리의 실행
- (5) 기업의 경영관리 당사자의 경영관리, 특히 재무관리의 강화 등이다.

한편, 관리회계의 목적은 경영의 장래를 예측하고, 경영환경을 판단하며, 유리한 투자 및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낭비를 배제하며, 원가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기업내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적평가를 하여 최대한의 이윤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회계의 역할은 다음의 네 가지로 개괄해 볼 수 있다.

- (1) 계획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계획의 임무달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 (2)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경리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다.
- (3) 재무 및 원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관리를 완전히 함으로써 경제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 (4) 재산물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미국회계의 구체적 역할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문제점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1) 권리와 이익을 갖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권익을 갖는 것은 중국에서는 전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 내지 집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영조직이며, 미국에서는 기업에의 투자자 및 여신자를 지칭한다.

(2) 기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다. 중국의 현체제로는 이 역할

은 미국회계의 그 자체보다도 더욱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세목적 이외는 기업에 직접 관계 있는 관할기관, 예를 들면 증권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기업의 경영관리당사자에게 경영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다. 양국 회계의 작용을 미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회계는 기업경영관리의 하나의 조성부분이다. 또한 이를 거시적으로 본다면 양국 회계의 객관적 작용에는 다음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1) 관련되는 경제관계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국가, 기업, 조업원의 3자의 경제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회계방침은 관계자의 거래를 분명히 정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가 제공하는 수치가 투자자·여신자·기업관리자·노동조합·세무당국 및 기타의 지업관할기관의 이해에 각각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사회경제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회계의 계량결과는 중국에 있어서는 국민 경제 각 부문간의 사회경제자원의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주가의 등락에 영향을 주고 사회자본의 유동을 크게 좌우된다.

이상과 같이 거시적으로 보면 중·미 회계의 작용은 동일하지만, 그 영향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회계의 모든 것은 전국민 경제의 발전에 관계되지만, 미국에서는 회계의 성과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회계는 자본주의 생산보다도 사회주의 생산에 있어서 오히려 더욱 필요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3. 中國會計假說과의 比較

회계가 가설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회계의 과학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계정보의 유용성도 변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진하여 가설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회계정보의 이용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중·미 양국의 회계가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업체와 「중국：회계개체」의 가설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개의 경제실체가 회계의 대상이 되며 이것을 기업체 또는 주체라고 한다. 회계는 기업체를 계산단위로 하며 물론 기업체의 경제업무와 재무수지는 다른 기업체의 경제업무와 관련을 갖지만, 이것을 분리하여 생각하게 된다. 회계가 계량하는 것은 기업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이며 양국은 함께 이 가설을 갖는다. 다만 양국은 생산수단의 소유제가 상이한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기업형태까지도 상이하다.

중국의 기업체의 주요한 것은 전인민소유제의 것과 집단소유제의 것이 있다. 이외에도 소수의 소규모 개인경영기업 및 외국자본과의 합병기업이 있다.

미국의 기업체에는 개인경영·공동경영 및 각종회사조직에 의한 것이 있다. 또한 기업간에는 지주관계가 있으며, 한쪽이 지주회사이면 다른 한쪽은 종속회사가 있게 된다. 이 지주회사와 종속회사는 각각의 기업체이지만 상호 결합관계가 있으며, 지주회사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

## 2) 회계연도와 「중국 : 회계분기」의 가설

기업의 경제활동은 쉬지 않고 영위되는 것이며, 회계가 적시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어떠한 계산기간을 구분하여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서의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양국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중·미 양국의 기업회계는 발생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2) 기간을 넘어 발생하는 원가·비용에 관해서는 결산에 있어서 가능하면 실제치에 근사한 것을 견적하여 그 기간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3) 화폐가치계산과 「중국 : 화폐계산」의 가설

회계가 무엇을 이용하여 경제현상·경제사실 및 경제과정을 측정하는가는 회계제도를 어떤 기초 위에 놓는가, 또한 회계에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가에 따라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에는 양국이 모두 화폐를 측정수단으로 가설하고 있다. 화폐는 일반등가물이며 통일계량단위로서 편리하다. 화폐를 계량수단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자체로서 화폐자체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설령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폭으로 변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물가는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며, 회계가 이 가설에 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지속적 통화팽창으로 경제의 고질이 되고 있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정가치회계, 대체원가회계, 현가회계 등이 생성하게 되었다.

## 4) 취득원가주의와 「중국 : 실제배분」의 가설

중·미 양국 모두 취득원가주의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산 및 권리의 평가는 모든 거래가 행해진 실제 수입·지출의 화폐액에 의존한다. 양국이 모두 회계대상의 평가는 거래가 성립한 구매가격으로 행해지지만, 경제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원가는 현재 실재하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지, 검증한 것으로서 주관이나 예측에 의한 평가를 방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평가기준에 앞서는 것이다.

### 5) 수익의 실현과 「중국：영업수입적 확정」의 가설

기업의 영업수입은 계속적인 생산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중·미 양국의 회계는 이 생산영업활동 중에서 언제 영업수입이 확정되는가의 계상 기준을 선정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계상기준에 조명해보면 이 영업수입이 어느 회계연도에 실현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대금수입방식(탁수충부결산)으로서는 대금의 입금시를 가지고 영업수입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기준은 미국에서는 할부판매, 위탁판매, 조건부판매 등에 있어 채택하고 있다.

### 6) 비용수익의 대응과 「중국：배비」의 가설

비용수익 대응의 가설이란 영업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영업비용을 반드시 대비시켜 비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어떤 회계기간에 소비되는 대화나 노동력, 즉 원가나 비용은 동기간에 가득한 영업수입과 관련이 있다. 그것을 서로 대응시키는 것이 비교하는데 유익한 일이다.

(2) 원가 또는 비용과 영업수입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것을 대응시키는 것은 회생과 효과와의 대비이고 투입과 산출과의 비교이다.

이 비용수익 대응의 가설은 양국에 공통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것을 독립된 개념으로서는 취급하지 않고 경제계산제도 중에 준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6항목은 가설로서 중·미 양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의 회계가설에 있어서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기업의 계속성」 가설이 있다.

### 7) 기업의 계속성과 「중국：지속경영」의 가설

기업 계속성의 가설의 주된 작용은 자산의 평가가 있다. 이 가설은 기업의 장기에 걸쳐서 그 형태·목적을 유지하고 경영을 계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산을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하며 재무를 승낙된 조건과 같이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기업계속의 가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경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경제법률에 따라 발전한다. 경제조직의 재편성은 기업의 폐쇄·휴지·병합·전업을 포함하여 사회주의경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생산력 조정을 위한 정상적 현상이다.

공유체 하에서의 자원과 노동력의 재배분이며 조직의 재편성으로서, 생산력의 파괴나 생산수단의 경매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자본주의 경쟁이 치열하여 기업의 휴업·도산·청산 등 의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특수상태의 기업을 정상적인 상태의 기업과 구별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기업의 계속성」가설을 설정하여 자산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회계실무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 4. 中國會計原則과의 比較

회계원칙은 회계준칙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회계실무의 지도이념을 지칭한다. 회계원칙은 회계실무의 규범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작성되는 회계정보의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회계실무는 회계원칙에 따르는 것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중국의 회계원칙

중국의 중요한 회계원칙은 문헌으로 정리된 것은 없다. 회계실무를 관할하는 기관이 발표하는 각종 지령문건에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계과목과 회계보고서의 통일회계제도」, 「각종전문업무」 및 관계회계조례 등이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계원칙을 발췌해 보면, 1949년 중국 해방독립 이래로 30여년에 걸친 실무경험의 결정이며, 중국회계의 특성을 잘 구현한 것이다.

##### (1) 계획성의 원칙

중국은 계획경제를 실행하고 있어 전국민 경제 중의 생산·교환·분배·소비의 과정은 모두 회계경제로 주로 하며 시장조작이 이것을 보완한다. 전국민 경제를 이루는 기업은 매기에 필히 생산·기술·재무의 계획을 편성하여야 한다. 기업의 이러한 계획은 전국민 경제계획의 유기적 조성부분이다. 재무활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은 필히 계획에 따르고 엄정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회계는 계획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기업의 계획실행의 상황을 반영하고 감독하며 계획관철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것이다.

##### (2) 정책성의 원칙

중국의 계획경제의 국민경제의 건설과 발전이 각 단계에 있어서 국가가 정한 정책·방침에 의한 지도를 받는다. 경제건설과 발전의 정책에 기초하여 그에 상용하는 재무기율과 재경법령이 제정되고 있으며, 기업은 이것을 엄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회계는 재무기율을 관찰하고 재경법령을 집행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 (3) 전국성의 원칙

중국의 기업은 전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골격이다. 기업의 이익은 국부적인 것이며, 기업의 이익은 국부적인 이익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 또는 구체적 업무에 있어서 때로는

모순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생산을 하는 경우에도 제품을 공출하는가, 또는 판매하는가에 있어서 만일 모순이 있게 되면 먼저 전체적인 이익을 중시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시산하고, 비교한 후에 방책을 결정하고 취사선택해야 한다.

#### (4) 자금전용(전관전용)의 원칙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① 유동자금, ② 고정자금, ③ 전항자금의 3종류가 있다. 이 3종의 자금의 원천과 용도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상호간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유동자금과 전공자금 사이에 일시적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히 정산하여야만 한다.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금전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계획관리 강화에 필요하다.

#### (5) 대중성「군중성」의 원칙

중국에서는 노동대중이 일체의 물자 및 재물의 창조자이며 기업의 주인공이다. 더구나 경제의 민주화가 행해지고 회계의 공개가 행해진다. 회계정보는 대중에 제공되지 않으면 아니되며, 회계에 관여하는 자는 대중과 함께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대중의 감독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회계원칙이 갖는 객관적 작용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중국과 미국은 상이하다. 중국에서의 회계원칙의 작용은 기업이 동일한 회계사실에 관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통일적인 척도로 측정하는 것과 같은 기반을 보충하고, 회계수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 V. 中國會計制度의 現況

### 1. 中國會計制度의 發達

중국회계제도를 예를 들 경우, 먼저 사회주의라는 축과 더불어, 상품경제의 형성, 발전과정의 특수성이라는 축을 가지고 분석하자 않으면 아니된다.

서양과 비교하여 수천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강력한 국가 중앙집권적인 봉건제도는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자유스러운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양 기업회계구조의 기초가 되는 손익계산(성과의 계산으로서의 flow 비교계산)보다도 사회의 부의 수탈·분배와 그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재고계산(그에 따른 성과의 계산으로서의 stock 비교계산)을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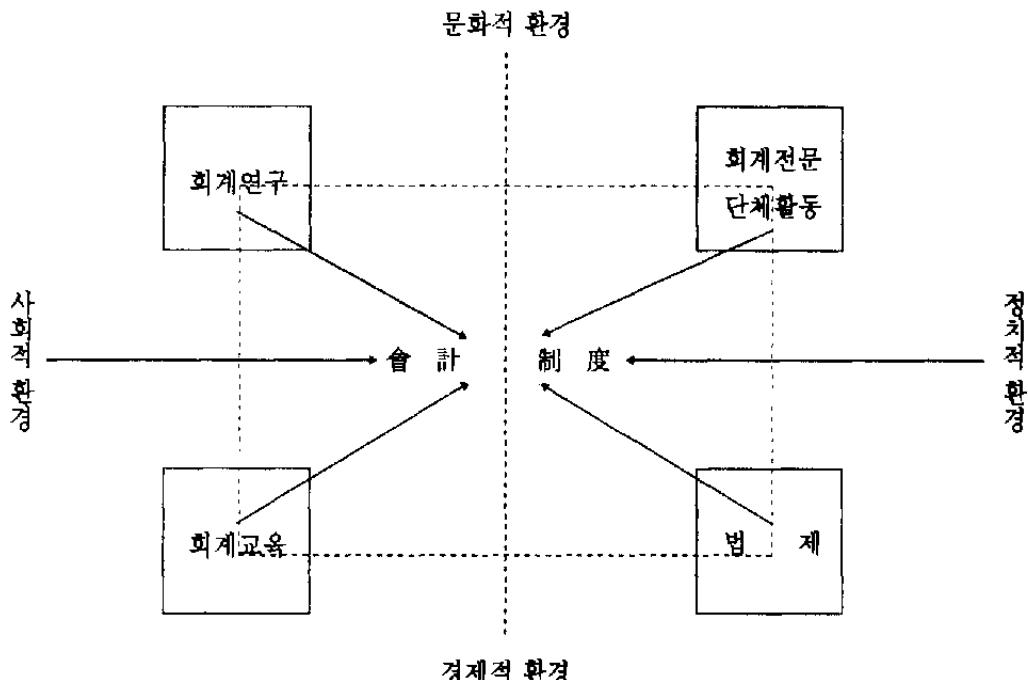
## 2. 中國會計制度의 現況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연구는 단행본과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으나, 중국의 회계에 대해선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중공의 경제관계법령」 제1집~제3집에서 「중국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조례」, 「국영기업고정자산감가상각시행조례」, 「증외합자 기업회계제도」가 번역되었고, 회계법인들에 의한 조세제도는 일부 소개되었다.

중국회계에 관한 연구발표는 본인의 1988년 8월의 「중국의 국영기업회계」와 1989년 9월 「중국회계의 개념구조」가 있을 뿐이다.

해외의 연구보고 및 연구문헌을 수집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 검토하는 이론적 비교 방법을 택하였다. 비교하기 위해선 비교대상의 체계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교대상을 환경조건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교를 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리된 회계제도모형을 본 논문에서는 이용하기로 한다.

회계제도 모형은 다음과 같다.



〈도표 5〉 회계제도의 구성요소

그러나 여기서는 앞에서 발표내용과 중복되는 ①회계환경과 회계제도의 관계, ②회계제도 및 법규의 반전과정, ③국영기업회계내용, ④회계의 가정 및 일반원칙을 포함한 개념구조등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회계법제, 회계연구, 회계전문단체, 회계교육등 4부분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중국에서 회계는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당의 방침정책을 철저하게 실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다음으로 회계는 중산절약을 장려하고, 경제계산을 강화하여 경제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다. … 최후로 회계는 결국사회주의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같이 사회주의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가 회계제도를 통일적으로 결정하였다. 중국에서 회계제도의 제정은 다음의 3가지의 기관에 의해서 행해진다.

① 국무원

② 재정부회계제도사(국)

③ 주관부처에 의한 특수부문의 회계제도의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국무원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는

⑦ 「회계직원직권시행조례」 1963년 공포, 1978년 개정 새공포.

㉡ 「국영기업원가관리조례」 1984 공포.

⑨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1985. 1. 21 공포.

⑩ 「국영기업고정자산감가상각시행조례」 1985. 4. 26공포〉

⑪ 「회계검사감정규정」 1985. 8. 29공포.

⑫ 「회계검사조례」 1986 제정, 공포.

⑬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 조례」 1986. 7. 3 공포.

등과 같이 회계와는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회계처리절차인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방침에 관한 것이다.

재정부의 회계제도국에 의하여 제정된 것은 주로 통일회계제도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공포되었다.

⑦ 「국영기업회계업무규칙」(시행초안), 1973.

㉡ 「국영기업비용지출처리방법」, 1973.

⑧ 「원가관리업무규정」, 1973.

⑨ 「공인회계, 공업원가계산규정」, 1981.

⑩ 「회계직원업무규칙」, 1984.

⑪ 「회계문서관리규칙」, 1984.

⑫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 1985 등을 들 수 있다.

재정보의 회계국에서 행하는 통일회계제도는 회계제도만의 통일이 아니라, 기장방법인 부기 회계지표의 체계에 대한 통일도 포함한다. 제도, 부기, 지표체계를 통일시킴으로써 기업의 상충부문과 재무부문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경제분석을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관리활동을 지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의 회계제도는 국무원과 재정부 회계제도국 등에 의하여 제정되며, 1978년부터의 기업재무의 개혁에 의하여 회계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요한 회계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1978년의 중요한 재무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8년부터 실시된 기업기금제도이다. 기업기금제도의 내용은 기업이 생산량 품질, 이익 및 출하 4가지의 계획지표를 달성한 경우는 임금 및 급료의 5%를, 계획지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이익계획지표를 달성한 것을 조건으로 가가 달성된 지표마다 임금 및 지표의 1.25%를, 전년도보다 이익이 증가한 경우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이익증가액의 5~15%까지 기업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 기업기금은 주로 직원, 공원의 생활 및 복리후생과 생산의 장려,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둘째, 1979년부터 시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이익유보제도이다.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8년 실적을 기준으로 직원·공원복리기금, 직원·공원장려기금, 기업기금, 과학연구비 및 신제품시작비 등의 5항목의 합계액이 이익총액에 점하는 비율을 기본 이익유보율로 한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년도보다 증가한 이익부분의 10%에서 30%를 유보할 수 있다. 이익 유보액은 생산향상기금, 직원·공원복리기금, 직원·공원장려기금이 된다. 그러나 이익유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복리후생비와 장려금은 원가포함이 인정되지 않고, 전술된 기업기금의 설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익유보제도는 기업기금제도보다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직원·공원의 물질적 이익과 직결시킨 것으로, 이익의 증가는 바로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기업·직원·공원에게 심어주며, 적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종래에는 기업이 국가의 자금을 사용하고,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확대하고, 자금의 사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1980년부터 시험적으로 기업에 의한 국가자금의 사용을 유상으로 하였다. 기업은 사용한 국가의 고정자금과 유동자금에 대하여,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자금사용비로써 매월 0.2~0.8%를 상납(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또 예비물자로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상납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자금용상사용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기본적 설비투자는 국가세출로 행하여져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투자효과에 대하여 기업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

하여 세출하는 방법에서 은행대부로 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1979년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의한 합자기업의 설립도 중국의 회계에 새로운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재무개혁이 1984년부터 1986년까지 회계제도의 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요한 회계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1985)」

회계법은 회계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회계를 강화하고 회계직원이 법률로 직권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업무는 ①국가재정제도, 재무제도의 유지 ②사회주의 공공재산의 보호, ③경영관리의 강화 및 경제효익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본 회계법을 기초로 정부의 소관부문에 의하여 통일규정이 설정되어지고 통일적 회계제도에 의하여 자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주관부처 등의 감사가 용이하게 된다. 또 이를 자료를 집계하여 통계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계법은 지금까지 공포된 회계관계 제법 규의 집약체로서 중국내의 회계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장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 「회계법」은 자본주의 국가의 회계기준에 해당되지만 이데올로기와 소유제 등의 사회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 (2) 국영기업회계

서방자본주의 국가의 체계가 도입된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를 제외한 「회계법」이 중심이 되니 중국의 회계제도를 국영기업회계제도라 한다.

이는 1961년 11월 공포되어진 「국영기업에 있어서 회계계산공작의 규정(초안)」에 의하여 통일되어, 그후 「국영기업회계 공작시행초안(1973)」, 「회계직원공작규칙(1984)」, 「회계문서관리 규칙(1984)」, 「국영기업원가관리조례(1984)」, 「국영기업고정자산감가상각시행조례(1985)」 등으로 수정 내지 개정절차를 거쳐 오늘의 보고 체계가 성립되었다.

국영기업의 회계보고는 ①자금상황에 관한 보고서, ②제품원가에 관한 보고서, ③이윤에 관한 보고서로 나누어진다. ①과 ③은 재무보고서라 하며, 국영기업에 있어서 회계보고서의 종류, 형식, 작성방법, 보고기일, 보고처에 대해서는 재정부의 회계제도국에서 발표된 규칙 및 조례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다.

중국의 회계보고 체계는 ①자금평형표(대차평행표)와 ②이윤표가 중심이 된다.

자금평행표는 〈표 5〉과 같이 자금의 원천과 운용을 대조표시한 것으로 중국의 회계보고시스템의 중심이 된다. 왜냐하면 국영기업회계의 대상은 자금흐름이기 때문이다. 회계는 국가 예산에 의하여 교부되어진 자금의 흐름을 반영하고 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 평형표

는 대차대조표에 해당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라 출자자 성격에 따라 자금원칙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의 차이에 따라 자금이 분류된다는 점과 기업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것 보다 기업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는 것이 주목적이란 점에서 다르다.

이윤표는 〈표 6〉과 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 후 순이익을 계산한 후에 보조금 수입등을 가산한 금액에서 고정자금과 전용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반제충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윤지표로써 계산한다.

이윤표는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국가에 상납하고, 기업의 결손을 국가가 전보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윤표의 근본적 기능은 이익을 계산하기보다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과 수익의 계산은 업적평가의 척도가 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표 2〉 자금평행표

자금운영	자금원천
고정자산 고정자산(원가-감가상각) 기본건설자산기계정 미처리고정자산순실 타기업으로의 고정자산투자	고정자금 고정기금 기본건설차입금 타기업으로부터 고정자산투자
유동자산 재고자산(미처리유동자산 손실포함) 당좌자산	유동자금 유동기금 차입금등 미납부감가상각기금 미납부이윤 미처분이익
전용자산 적용적립예금 국고증권등 타기업예로의 전용자산투자	전용기금 전용기금 전용교부금 전용차입금 타기업에서의 전용자금투자

&lt;표 6&gt;

이 윤 표

제품판매액	
	- 매출세
	매출원가
	영업비
영업이익	
+	기타매출수익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순이익	
+	보조금수입
	타기업으로부터의 대체이익
-	타기업으로의 배분이익
	기초건설차입금 변제 충당액
	전용차입금 변제 충당액
	기본건설차입금 이월 변제에 따라 유보액
과세이익 또는 상납이윤	
-	납세충당금 또는 이윤상납충당금
유보가능이윤 또는 거처분이익	
-	이익유보액(전액 전용기금으로 유보)

### (3)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

외국기업과 합자와 관련하여 중국의 많은 법령을 정비하여 공포한 것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이다. 이 법령을 기초로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법(1980)」,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시행세칙(1980)」,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의 약간 문제에 대한 재정부통지(1981)」,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83)」등이 제정되었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의 회계방법을 바탕으로 외국의 회계관행 특히 미국의 회계제도를 연구하여 앞의 법령을 기초로(제1조) 「중외합자경영기법회계제도(1985. 3. 4공포)」를 제정하였고, 그리고 1985년 4월 24일에는 재정부에서 「중외합자경영공업기업 회계과목 및 회계보표」를 공포하였다.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법을 채용하고 있으나 보수주의 원칙과 계속성의 원칙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외합자경영공업기업의 계정과목과 재무제표의 양식은 자본주의국가의 재무제표의 체계에 비교할 때 ① 재무상태변동표가 기본재무제표이고, ② 외화자금상황표가 부속명세서표로써 작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③ 이익금처분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익분배표가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의 위치를 겸하고 있다.

중국의 회계제도는 회계실무를 수행하는데 준수해야 할 규칙, 방법 및 절차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앞에서 법제도, 연구단체와 그 활동, 회계사와 공인회계사 제도, 교육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회계제도는 1966년부터 1976년간의 문화혁명기의 암흑기를 거쳐 1978년부터 시작하여, 1979년부터 재무개혁을 통하여 국무원과 재정부 회계제도국을 중심으로 회계관련법규를 정비하였다.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의 제정공포를 전후하여, 「회계직원업무규칙」, 「회계문서 관리규칙」, 「국영기업고정자산감가상각시행조례」 등이 제정·공포됨으로써 4대 현대화를 위한 국영기업회계제도를 정비하게 되었고, 1985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와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조례」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국영기업의 감사를 위한 종회계사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주책회계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원하게 됨으로써 1990년까지는 1만명, 2000년까지는 4만명으로 공인회계사를 증가시킬 예정으로 인적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적 제도확립을 위한 이론적인 지원활동을 위한 연구활동 역시 1980년 중국회계학회가 설립되어, 중국의 회계학 수준을 높이고, 4대 현대화의 급속한 실현을 위하여 고급관리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참여에 의한 연구활동이 활발하다. 매년 「회계학논문선」이 간행되고 격월로 「회계연구」가 간행되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문화혁명기 동안 대학의 폐쇄에 따른 현대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0개 종합대학에서의 회계학 교육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정부의 직할 4년제 재경특성화대학을 5개 대학 지역별로 설립하고, 기타지역에도 재경전문학원을 설립하여 회계 및 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10년간의 공백에 따른 성인들의 재교육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4대 현대화를 신속한 실현을 위해선 회계제도의 혁신과 회계를 담당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 VI. 結 言

이제까지 중국에 있어서의 고유한 전통적인 회계제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는 주로 관청회계와 민간회계의 양면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구회계제도의 도입과 정까지는 중국의 고유한 단식부기를 기초로 하였으며 중화민국 이후에 쌍식부기제도가 활용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당대(唐代)로부터 발전한 사주식(四柱式) 회계처리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1949년 이후의 중국의 새로운 정치체제 하에서 회계제도, 회계법, 회계규정 및 새로운 회계이론의 전개방향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는 소련의 회계제도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취한 것은 중국의 회계제도를 과거의 전통회계로부터 추적함으로써 비록 이데올로기의 특성은 있어도 모든 사회제도의 내재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의 중국 세제와 외환회계처리를 통하여 국제 거래를 하는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Chen Li, "An Introduction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Accounting System at the Chiehsin Kung-ssu in the Economic Accounting System", pp. 146~470, 150~520.
- 2) Ching-Wen Kwang The Economic Accounting System of State Enterprises in Mainland China, China Quartely, Vol. No. 2, Spring 1966, pp. 61~99.
- 3) Fei Wu-Wen, Kuei-Shih-Yung, Liu Fu-Jung, "On the Responsibility System of Socaialist state Industrial Enterprises", CCYC, July 1962, pp. 15~16, and the discussion on pp. 72~73.
- 4) Ho Chien-Chang, Kuei Shit-Yung, and Chaon Hui-Min, On the Contents of Economic Accounting in Socialist Enterprise CCYC, April, 1962, p. 4.
- 5) Mao Tse-tung, "On Developing Self-'Sufficiency' Industry", in On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Hong Kong, New Democracy Press, 1949, p. 9114.
- 6) Mun, K.C., Chiara's Management System and State Enterprise Behavior, Journal of Contemporary Business(Third Quarter 1981) p. 32.
- 7) Robert W. Cambell, Acoounting in Soviet Planning and Managem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p. 12~13. For a brief discussion of Soviet economic accounting.
- 8) Yuan-li Wu, An Economic Survey of Communist China, 1956, pp. 202~13, and The Economy of Communist China-An Introduction, New York, Praeger, 1965, pp. 63~650.
- 9) Zhang, Y.N., A Survey of the Market for Industrial Goods in Shanghai, Social Sciences, and ed., p. 85(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1980).

- 10) Chinas New Economic Development Trends, Economic Information and Agency  
1980, p. 281(Hong Kong)
- 11) 限井 要 編著, 中國의 會計, 起源, 1987, pp. 49~56.
- 12) 周偉希, 第5章, 稅의 構造, 政策 및 運用, 中國의 會計와 監查, (주)中央經濟社, 1988.  
12. 20. p. 103.
- 13) 海道進, 社會主義企業概論, 中卷, 千倉書房 1984, pp. 413~442.

## 중국에 재투자 한국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Location for  
Re-investment in China by Korean Firms

송재훈\*\*

### 目 次

I. 머리말	IV. 재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II. 재투자기업의 개념	1. 실증분석의 구조
III. 재투자기업의 실태분석	2. 실증분석의 결과
1. 투자업종	V. 초기투자와 재투자기업의 비교분석
2. 투자지분 및 금액	VI. 맷음말
3. 투자지역	참고문헌

### I. 머리말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중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한국경제의 고금리, 고임금 등의 고비용 구조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구축요인(push factors)과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와 점증하는 내수시장규모 등의 유인요인(pull factors)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했고, 1997년 12월 말 현재 **對中國** 직접투자는 허가기준으로 4,646건에 5,576백만달러에 달해 양국 국교수립 7년 만에 중국은 한국에게 단일국가로는 **최대투자對象國**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영학적 측면에서 보면 직접투자의 양적 팽창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전략상의 미숙함과 시행착오들도 나타나고 있다. 적지 않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정치·제도·사회·문화적 투자환경을 잘못 인지하여 투자진입 과정에서 **立地결정**상의 우를 범하거나, 투자이후 중국내 공장의 조정·통제, 파트너 선정, 인적 자원의 관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본 논문은 1999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중국통상전공)조교수, jhsong@core.woosuk.ac.kr.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입지결정이 어떠한 거시적인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져 왔는가를 분석한 선행 연구<sup>1)</sup>를 확대해 중국시장 내에서 재투자를 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문제에 중요한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對중국투자 한국기업 중 2회 이상에 걸쳐 재투자를 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초기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입지요인과 비교해 재투자시에는 어떠한 입지요인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살펴보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시 초기투자 입지결정의 경우에는 기업요인 및 투자대상국과 투자국의 입지특유요인의 환경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sup>2)</sup>. 그러나 Swamidass(1990)의 연구에 의하면 일단 특정 투자국내에서의 입지가 결정되어 어느 정도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후 동일국내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특정국내의 환경요인보다는 기업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sup>3)</sup>고 설명했고, 중국을 대상으로 재투자시의 입지선택에 관한 연구를 한 Chyan & Linda(1995)는 중국에 투자한 홍콩기업의 경우 초기투자의 경우 문화적 환경요인(지리적 균접성 등)이 유인요인(pulling factors)이었으나 재투자시는 이러한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대신 시장잠재력과 같은 시장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sup>4)</sup>되었고 Li & Guisinger(1991)는 초기투자시 정책요인(정책적 우대조치)으로부터 재투자시에는 시장요인으로 투자입지 선택에 대한 영향력이 바뀌어 간다<sup>5)</sup>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회 이상에 걸쳐 對중국 투자를 행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재투자時에는 입지선택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 가를 살펴보자 한다.

둘째, 이들 재투자 기업의 입지요인을 대상으로 초기투자시와 재투자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가를 두 집단간 각 요인들의 투자입지 선택에 대한 영향력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송재훈(1998),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북방학회논집, 서울 : 한국북방학회, 1998, pp. 61~89.
- 2) John H. Dunning(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 1988, pp. 1~31 ; John H. Dunning(1980) "Towards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XI, No. 1, Spring/Summer, 1980, pp. 9~31.
- 3) Paul M. Swamidass(1990), "A Comparison of The Plant Location Strategies of Foreign and Domestic Manufacturers in The U.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1, No. 2, Second Quarter, 1990, pp. 301~317.
- 4) Chyan Tuan & Linda Fung-Yee Ng(1995), "Hong Kong's Outward Investment and Regional Economic Intergration with Guangdong: Process and Implicatio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6, No. 3, Fall, 1995, pp. 385~405.
- 5) Li & Guisinger(1991), "Comparative Business Failure of Foreign Controlled Firm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2, No. 2, Second Quarter, 1991, pp. 209~224.

## II. 재투자기업의 개념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중 2회 이상에 걸쳐 중국에 투자를 행한 기업의 수는 1997년 12월 말 현재 297개 기업(전체 업종)에 이르고 있다. 이들 297개 기업은 319건의 1차 투자를 행하였는데<sup>6)</sup>, 이는 이들 기업 중 몇몇 기업의 경우 1차 투자시에만 다른 지역 혹은 타업종으로 두 번(혹은 그 이상)의 투자를 동시에 같은 시기에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297개 기업 중 21개 기업의 경우는 동일한 시기에 상이한 지역 또는 상이한 업종으로 진출하였으며, 2차 투자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투자를 한 기업은 이들 21개 기업을 제외한 276개 기업이 된다.

이들 276개 기업에 의한 對중국 투자 총 건수는 1차 투자에 포함된 21개 기업에 의한 투자 까지 포함하여 1997년 12월 말 현재 총 741건에 이른다. 이는 4,646건의 한국기업에 의한 對중국 투자 건수의 15.9%를 차지하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또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들 276개 기업 중 3차 이상에 걸쳐 투자를 행한 기업이 71개 기업이나 되며, 투자건수가 124건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297개 기업에 의한 1차 투자와 1차 투자에는 포함되나 2차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21개의 기업을 제외한 276개 기업에 의한 재투자시(2차 및 3차 이상 포함)의 평균 투자금액과 평균 지분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lt;표 1&gt;

1차 투자 및 재투자 현황

구 분	기업수	건 수	평균투자금액 (천달러)	평균투자지분 (%)
1차 투자	297	319	1,115	61.5
재 투 자	276	422	2,472	73.7
2차 투자	276	298	1,414	73.4
3차 이상	71	124	5,420	75.4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1998),『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및 한국은행 해외투자과,『해외투자통계연보』, 각 년판.

6) 전국은행연합회(1998),『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및 한국은행 해외투자과,『해외투자통계연보』, 각 년판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 투자금액의 경우 1차 투자時에는 111만5천달러에 불과했으나<sup>7)</sup>, 재투자時에는 247만2천달러 정도로 평균 투자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투자지분에 있어서도 1차투자의 경우 61.5% 수준이었으나, 재투자의 경우는 73.7% 정도로 증가해 한국기업의 투자지분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증가현상은 한국기업들이 한·중 수교에 따른 양국간 투자보장 협정의 체결 이후,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 초기의 중소규모형 실협투자 단계를 벗어나 점차 중국시장 개척을 고려한 시장지향 및 자본집약형의 본격적인 대규모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투자지분을 확대 역시 기술보호, 한국식 경영방식, 경영주도권의 장악에 유리한 투자지분의 확보 및 단독투자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재투자기업의 실태분석

#### 1. 투자업종

對中國시장 재투자 기업의 투자업종을 살펴보면 총 276개의 재투자기업 중 186개 기업이 초기 진출업종과는 달리 다른 업종에 투자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76개 재투자 기업 중 67.4%의 기업이 1차 투자업종과는 다른 업종에 재투자를 행한 것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재투자時 업종을 달리해서 중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투자업종 변화는 초기에는 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했으나 재투자時에는 비제조업 위주의 부동산개발, 무역업, 음식·숙박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분야의 3차 산업에 투자를 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3차 산업에 대한 중국내 수요증대 및 중국정부의 WTO가입과 관련된 이 분야의 시장개방,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 영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 내수시장의 이해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투자지분 및 투자금액

##### 1) 투자지분

7) 1997년 12월 말 기준으로 '98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에 의하면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평균투자금액(초기투자)이 217만달러임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51%에 불과한 중소형 위주의 투자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투자와 재투자시의 투자 지분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투자와는 달리 재투자시 상당수의 기업들이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0% 이상의 다수 투자지분에 있어서는 초기투자보다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고, 50% 미만의 소수지분의 비율은 늘어나는 투자지분의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대한 재투자의 경우 초기투자시의 합작투자<sup>8)</sup> 보다는 단독투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아직 자본주의 경제제도 및 商慣習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는 同數 지분 및 다수지분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합작파트너와의 의사결정시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을 낳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초기투자 및 재투자시의 투자지분상의 변화

(단위: 건, %)

투자구분	지 분 건 수	단 독 (100%)	다 수 (50% 이상)	공 동 (50%)	소 수 (50% 미만)
1차 투자	319 (100)	101 (31.7)	118 (37.0)	41 (12.8)	59 (18.5)
재 투 자	422 (100)	184 (43.6)	120 (28.5)	42 (9.9)	76 (18.0)
	298 (100)	139 (46.6)	67 (22.5)	33 (11.1)	59 (19.8)
3차 이상	124 (100)	48 (38.7)	52 (41.9)	10 (8.1)	14 (11.3)

자료 : 〈표 1〉과 동일

## 2) 투자금액

투자금액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체적 특징은 초기 투자時와 재투자時를 비교해 볼 때, 1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對中國 투자時 초기투자와는 달리 재투자時에는 투자금액을 늘려 투자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도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소위 재벌기업들에 의한 투자의 영향을 받은 것과, 과거의 노동집약적 투자 형태로부터 탈피해 자본집약적 투자형태로 투자방향이 조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8) 合資 및 合作투자를 총칭함.

&lt;표 3&gt;

초기투자 및 재투자시의 투자금액상의 변화

(단위: 건, %)

투자구분	금액 건 수	1백만불 미만	1백만불~ 5백만불	5백만불~ 1천만불	1천만불~ 이상
1차 투자	319 (100)	101 (31.7)	118 (37.0)	59 (18.5)	41 (12.8)
재 투 자	422 (100)	120 (28.5)	184 (43.6)	42 (9.9)	76 (18.0)
2차 투자	298 (100)	67 (22.5)	139 (46.6)	33 (11.1)	59 (19.8)
3차 이상	124 (100)	10 (8.1)	52 (41.9)	14 (113.)	48 (38.7)

자료: &lt;표 1&gt;과 동일

### 3. 투자지역

총 276개의 재투자 기업 중 초기 투자진출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은 166개 기업으로 전체 재투자 기업 중 60.6%의 기업이 초기 투자 진출과는 다른 지역에 재투자를 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재투자 기업의 투자 지역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나와 있다.

<표 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투자 기업의 초기투자와 재투자시의 권역별 분포는 투자금액이나 지분에 있어서의 변화처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는 재투자時 초기 투자지역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대다수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업종을 달리 해서 진출하더라도 같은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의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의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별 재투자 분포상의 특징을 찾는다면 초기투자와는 달리 경제 권역별로 볼 때 양자강 델타 및 황하 중류지역으로 재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초기에 산동 및 동북지역에 많은 투자를 행하던 경향에서 서서히 탈피하여 점차로 중부 아남으로 투자지역이 확대·이동하고 있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양자강 델타 지역의 경우 1차 투자時 건수기준으로 7.2%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재투자時에는 14.9% 증가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1차 투자시에는 12.4%의 투자 비중에서 재투자時에는 22.4%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남지역의 경우 건수기준으로 1차 투자시에는 5.3%의 투자 비중을 보였으나 재투자時에는 3.1%로 그리고 금액 기준에 있어서는 1차 투자시에 10.6%의 투자비중에서 재투자

시에는 3.4%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건수기준으로 볼 때 1차 투자시에 32.6%의 투자 비중에서 재투자시에는 25.6%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금액기준에 있어서도 1차 투자시에는 22.7%의 투자 비중에서 재투자시에는 10.7%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자지역의 확대·이동현상은 종래의 생산효율지향형으로부터 시장지향형으로의 투자지역의 다양화와 더불어 투자기업의 국제화 경험이 풍부한 기업일수록 후속 투자시 입지선정의 portfolio를 설명한 Davidson(1980)의 연구결과<sup>9)</sup>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초기투자 및 재투자(2차 및 3차 이상 포함)의 권역별 분포

(단위 : 건, 천달러, %)

투자 지역	1차 투자		재 투 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동 북	104 (32.6)	81,953 (22.7)	109 (25.6)	97,684 (10.7)
화 북	164 (51.0)	191,546 (53.0)	219 (51.9)	541,737 (59.2)
화 남	17 (5.3)	38,240 (10.6)	13 (3.1)	30,640 (3.4)
양자강 빌타	23 (7.2)	44,708 (12.4)	64 (14.9)	205,410 (22.4)
황하 종류	3 (0.9)	460 (0.1)	7 (1.6)	2,809 (0.3)
양자강 종류	5 (1.6)	1,432 (0.4)	7 (1.6)	31,368 (3.4)
양자강 상류	1 (0.3)	1,100 (0.3)	2 (0.4)	5,353 (0.6)
신 강	2 (0.6)	1,338 (0.4)	1 (0.2)	59 (0.01)
합 계	319 (100)	360,777 (100)	422 (100)	915,240 (100)

자료 : 〈표 1〉과 동일

9) William H. Davidson(1980),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ivity : Country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Effec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1, No. 2, Fall, 1980, pp. 17~19.

## IV. 재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1. 실증분석의 구조

본 연구는 한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투자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요인에 관해 살펴보았던 기존연구(1998)<sup>10)</sup>의 틀을 확장해 이들 기업들의 중국시장에서 재투자時の 입지결정에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 분석을 행하였다. 따라서 기존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다 유효한 실증분석을 위해 對중국 투자 한국기업들 중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부터 1997년 말 기준으로 2회 이상에 걸쳐 투자를 행한 297개의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총 319건의 1차 투자건수 중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정하였고, 이들 기업의 투자금액 기준은 실제 투자금액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차 투자기업의 對중국 투자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대상 기업으로는 중국내 총 30개의 성·시·자치구 중 한국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 26개 성·시·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여 227개의 기업이 선정<sup>11)</sup>되었다.

또한 2차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총 330건의 2차 이상 투자 건수 중 上記 조건에 맞는 건수인 294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시·자치구도 상기와 같이 26개 성·시·자치구를 택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어진 변수의 경우도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정성적 요인(정책요인)과 정량적 요인(시장요인, 원가요인, 사회하부구조요인, 문화적 환경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섯 가지 개별요인에 의해 파생되어진 변수의 경우도 정책요인의 경우 「정책적 우대조치」, 시장요인의 경우 「1인당 GDP」, 원가요인의 경우 「평균임금」, 사회하부구조요인의 경우 「화물물동량」, 문화적 환경요인의 경우 「조선족 비중」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기존연구의 틀과 마찬가지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건수에 대해서는 Poisson Regression Model을, 금액에 대해서는 Tobit Model을 통한 분석을 행하였다. 또한 이들 모델을 통한 분석을 위해 LIMDEP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2. 실증분석의 결과

#### 1) 건수 기준

10) 송재훈(1998), pp. 69~71을 참고바람.

11) 1997년 현재 한국기업의 未投資지역은 티벳, 청해, 영하, 강숙성의 4개 지역으로 조사됨.

〈표 5〉 및 〈표 6〉은 재투자 기업들의 투자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투자의 경우 문화적 환경요인의 변수인 「조선족 비중」의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인당 GDP」(시장요인), 「정책적 우대조치변수」(정책요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초기투자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일반적으로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에 많이 이루어 졌는 바, 이는 기존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3年の 경우 조선족의 비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투자時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 나와 있듯이, 초기 투자時와는 달리 「조선족 비중」(문화적 환경요인)이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당 GDP」(시장요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적 우대조치」(정책요인)와 「화물 물동량」(사회하부구조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임금」(원가요인)은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행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隱의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존연구에서의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행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1995년 이후 투자의 경우 「1인당 GDP」(시장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재투자 기업들의 경우 2차 투자 이상의 경우 이들 투자의 대부분이 95년 이후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재투자 기업들의 초기투자와 재투자時의 투자 입지선택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영향력이, 「조선족 비중」(문화적 환경요인)→「1인당 GDP」(시장요인)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책적 우대조치」(정책요인) 변수의 경우에는 초기투자와 재투자時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5〉 초기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건수기준)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ratio	Prob t  ≥ x	Mean	Std. Dev
우대조치	1.0985	.1969	5.578***	.00000	.42308	-50383
1인당 GDP	1.5875	.2580	6.153***	.00000	7.8216	-51827
평균임금	-1.4001	.2623	-5.338***	.00000	8.0817	.16394
화물 물동량	.42706	.1600	2.669***	.00761	.68213	.57142
조선족	.21438	.3259E-01	6.578***	.00000	-1.8995	2.4186
Log-likelihood = -133.0492						
Restricted Log-L = -263.6400			LR statistic = 261.2			
Chi-squared = 281.00			G-squared = 205.45			
*유의수준 : *p<0.10    **p<0.05    *** p<0.01						

〈표 6〉

재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건수기준)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ratio	Prob t  ≥ x	Mean	Std. Dev
우대조치	1.2666	.1889	6.707***	.00000	.42308	.50383
1인당 GDP	1.7512	.2384	7.346***	.00000	7.8216	.51827
평균임금	-1.5858	.2445	-6.487***	.00000	8.0817	.16394
화물 물동량	.67294	.1512	4.451***	.00001	.68213	.57142
조선족	.98321E-01	.3027E-01	3.248***	.00116	-1.8995	2.4186
Log-likelihood = -150.9008						
Restricted Log-L = -309.4372			LR statistic = 317.1			
Chi-squared = 322.12			G-squared = 225.33			

## 2) 금액기준

〈표 7〉과 〈표 8〉은 재투자 기업들의 초기투자 및 2차 이상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투자의 경우 「1인당 GDP」(시장요인)과 「평균임금」(원가요인), 그리고 「조선족 비중」(문화적 환경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투자에는 「정책적 우대조치」변수(정책요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인당 GDP」(시장요인)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비중」(문화적 환경요인)변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을 갖지 못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평균임금」(원가요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수에서와 같이 陰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초기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금액기준)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ratio	Prob t  ≥ x	Mean	Std. Dev
우대조치	8779.2	9121.	.963	.33579	.42308	.50383
1인당 GDP	27462.	.1267E+05	2.167**	.03021	7.8216	.51827
평균임금	-26392.	.1261E+05	-2.094**	.03629	8.0817	.16394
화물 물동량	2538.7	7403.	.343	.73164	.68213	.57142
조선족	2632.1	1728.	1.523	.12766	-1.8995	2.4186
$\sigma$	16185.	2789.	5.804***	.00000		
Log-Likelihood = -192.43						
Number of Observations = 26						
* 유의수준 : *p<0.10   **p<0.05*** <0.01						

&lt;표 8&gt;

재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금액기준)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ratio	Prob t  ≥ x	Mean	Std.Dev
우대조치	48696.	.2496E+05	1.951*	.05104	.42308	.50383
1인당 GDP	45530.	.3458E+05	1.317	.18791	7.8216	.51827
평균임금	-46686.	.3444E+05	-1.355	.17529	8.0817	.16394
화물 물동량	15185.	.2037E+05	.745	.45599	.68213	.57142
조선족	603.64	4943.	.122	.90280	-1.8995	2.4186
σ	47253.	7665.	6.164***	.00000		
Log-Likelihood = -234.72						
Number of Observations = 26						
* 유의수준 : *p<0.10 **p<0.05 ***p<0.01						

## V. 초기투자와 재투자기업의 비교분석

### 1. 투자금액

다음의 <표 9>는 재투자 기업들의 초기투자時와 재투자時의 투자금액에 있어서의 변화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표 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투자시의 평균값이 1448.9인데 비해, 재투자시에는 2773.4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나타내는 Levene's 검증, 즉 F-값이 12.111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확률치는 0.001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T-값의 경우 -2.78, 자유도 548.71에서 양측검정(2-Tail Sig)의 유의 수준이 0.006으로 기준치인 0.05보다 작으므로 5% 유의 수준에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액에 있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부정되며, 따라서 초기투자 집단과 재투자 집단간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투자지분

다음의 <표 10>은 재투자 기업들의 초기투자시와 재투자시의 투자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표 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투자시의 평균값이 68.44인데 비해, 재투자時에는 72.78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으나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9〉

투자금액 기준 T-검정 결과

Variable	Number of Cases	Mean	SD	SE of Mean
초기 투자	319	1448.9036	4236.420	268.472
재투자	422	2773.4545	7151.989	393.704
Mean Difference = -1324.5509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 F=12.111 P=.001				
Variances	t-value	df	2-Tail sig	SE of Diff
Equal	-2.60	577	.10	509.772
Unequal	-2.78	548.71	.006	476.529

분석 결과, 두 집단의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나타내는 Levene's 검증, 즉 F-값이 2.84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확률치는 0.092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T-값의 경우, -1.91, 자유도 548.09에서 양측검정(2-Tail sig)의 유의 수준이 0.056으로 10% 유의 수준에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 투자 지분에 있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부정되며, 초기 투자 집단과 재투자 집단간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집단, 즉 재투자기업의 초기투자時와 재투자時의 투자금액과 투자 지분에 있어 T-검정을 행한 결과, 실제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5% 유의 수준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 지분에 있어서는 10% 유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투자 금액의 경우 두드러지게 투자 규모를 늘려서 진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지분의 경우 금액에 비해서는 두 표본 집단간의 특성에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재투자를 행하면서 다소간의 지분조정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투자지분 기준 T-검정 결과

Variable	Number of Cases	Mean	SD	SE of Mean
초기 투자	319	68,4407	26.377	1.672
재투자	422	72.7813	27.829	1.532
Mean Difference = -4.3406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 F=2.846 P=.092				
Variances	t-value	df	2-Tail Sig	SE of Diff
Equal	-1.90	577	.058	2.284
Unequal	-1.91	548.09	.056	2.267

## VI. 맷 음 말

1992년 한·중국교 수립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한국경제의 고비용 구조에 따른 구축요인(push factors)과 중국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저생산비 등의 유인요인(pull factors)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의 양적 팽창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투자전략상의 문제점을 간과 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입지 선정의 문제는 중국시장에서 기업활동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이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sup>12)</sup>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입지의 선정은 중국시장의 문화적 환경요인, 정책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시장에서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재투자를 행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초기투자와 비교해 과연 어떠한 요인의 작용에 의해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재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초기투자와는 달리 그 기업이 지니고 있는 내부적인 기업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행한 회귀분석의 결과, 초기투자시의 「지리적 접근성」, 「조선족 비중」 등과 같은 문화적 환경요인과 「중국 정부의 투자우대조치」와 같은 정책요인보다는 「시장확대의 필요성」, 「기업 규모의 확대」 등과 같은 기업요인이 재투자 입지 선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을 변수로 한 연구의 결과는 초기투자의 「조선족 비중」의 문화적 환경요인보다는 「정책적 우대조치」와 같은 정책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투자를 통해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WTO가입에 대비한 중국 정부의 시장개방 및 투자우대조치 등과 같은 정책에 편승해(escalation effect) 투자규모를 늘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중국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의 강화에 기인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실태분석에 의하면, 투자업종의 경우 단순가공형 제조업 위주의 초기투자와는 달리 비제조업 위주의 3차산업의 서비스업종에의 진출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투자지분의 경우에는 초기투자시의 합작투자보다는 소수지분 및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지역의 경우는 초기투자와 재투자

12) Chien-Hsun Chen(1996), "Region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ainland China", *Journal of Economics*, Vol. 23, No. 2, MCB University Press, 1996, pp. 18~30.

시의 권역별 분포가 투자금액이나 지분에 있어서의 변화처럼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는 않았다. 즉, 재투자시에도 초기투자과 인접한 지역에 투자해 「투자의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기업의 對중국 재투자는 이제 초기투자의 시험단계에서 벗어나 본격  
적인 시장추구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장추구형의 투  
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패턴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중국시장을 좀더 세  
분화해 한국기업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역이나 업종에의 전략적 투자와 더불어 적극  
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한 한국기업의 인지도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Chien-Hsun Chen(1996), "Region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ainland China", *Journal of Economics*, Vol. 23, No. 2 MCB University Press, 1996.
2. Chyan Tuan & Linda Fung-Yee Ng(1995), "Hong Kong's Outward Investment and Regional Economic Intergration with Guangdong: Process and Implicatio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6, No. 3, Fall, 1995
3. John H. Dunning(1988), "The Eclectic Paradime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 1988.
4. Li & Guisinger(1991), "Comparative Business Failure of Foreign Controlled Firm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2, No. 2, Second Quarter, 1991.
5. Paul M. Swamidass(1990), "A Comparison of The Plant Location Strategies of Foreign and Domestic Manufacturers in The U.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1, No. 2, Second Quarter, 1990.
6. William H. Davidson(1980),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ivity: Country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Effec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1, No. 2, Fall, 1980.
7. 송재훈(1998),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북방  
학회논집, 서울 : 한국북방학회, 1998.

8. 전국은행연합회(1998),『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9. 한국은행 해외투자과,『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판.
- 10.『中國經濟年鑑』(1998), 中國經濟出版社, 1998.
- 11.『中國統計年鑑』(1998), 中國統計出版社, 1998.
12. 對外經濟貿易編輯委員會,『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중국, 1998.

##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Location for Re-investment in China by Korean Firms

Jae-Hoon, Song\*

### Abstract

In 1992, Korean businesses began to express an interest in investing in the Chinese market due to 'push factors', which involve the high cost of land and labor, zoning, business sites, etc., in Korea, and the 'pull factors' which involve the attractiveness of the potential of the Chinese market and the low cost of operation there. Therefore, there is some question about what governs Korean firms decisions in initial investments and re-investments for the choice of loca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location which influence Korean businesses re-investing in the Chinese marke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of the five factors which influence location decision making, (policy, cost, social overhead conditions, cultural environment and market factors), Korean firms are more concerned with the cultural environmental factors when deciding upon an initial investment. Re-investment is more influenced by the market factors and policy factors.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monstrate that Korean companies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to successfully re-investment in China. First, the market must become more segmented. Second, business must be more competitive when dealing with Chinese and other international firms. Third, Korean businesses must strive for recognition of their brand names, trademarks, and logos.

Key Words : re-investment, initial-investment, market-factors

\* Ph. D., Assistant professor of Woosuk University.

# 韩国企业在华投资分析

A Study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by Korean Firm

许桂娟\*

## 目 次

- |                   |                      |
|-------------------|----------------------|
| 一、韩国企业对华投资的简要回顾   | 四、韩国企业对华投资的发展前景及战略选择 |
| 二、韩国企业在华投资的特征     | 五、韩国企业在华投资的主要困难和问题   |
| 三、韩国企业对华投资的利弊因素分析 | 六、几点建议               |

## 序 言

对外投资是韩国外向型经济发展战略的重要组成部分。始于60年代末的韩国对外投资，经过了30多年的努力取得了很大的发展。可以说韩国的海外投资是一个成功的范例，这一点可以从韩国对华投资的发展得到验证。

韩国企业的对华投资始于1985年，至今已走过了近15年的历程。虽然对华投资起步晚，但发展速度快，并且呈现许多特点。但是在韩国企业对华投资发展较快的同时也出现了一些问题，其中有投资者本身的原因，也有中国方面的主客观原因。但是应当全面地、客观地分析韩国企业的在华投资及经营，用战略的眼光审视会发现其发展前景是很可观的。本文将对韩国企业的在华投资发展情况作一简要回顾，分析这一过程的有利和不利因素，展望其发展前景，使韩国企业家在对华投资中更好地了解中国国情，利用有利因素，规避不利因素，采取有利措施，发展对华投资，为将中韩两国经济合作推向一个新阶段，提供有利的理论依据和建议。

### 一、韩国企业对华投资的简要回顾

\*中國長春稅務學院經濟系副教授

### 1. 韩国企业对华投资的发展阶段及其成因

1985年9月韩国的“韩斯物产”以合作的方式，在广州投资6.48万美元开办了玩具制造厂，创办了第一个中韩合资企业，从此拉开了韩资对华投资的帷幕。此后经过不断的发展，到1996年4月末韩资企业在华投资的项目数已达3500个，投资许可金额达36亿美元。到99年上半年(据韩国官方公布的数字)韩国企业在华投资已近70亿美元。投资领域、地域都在扩展，项目数也在大幅增加。纵观韩国企业在华投资的历程，从其投资的规模、领域、技术及经营的状况来看，它的发展大致经历了四个阶段。

第一阶段，韩国企业对华投资的初期阶段。时间是从1985年9月到1988年12月。这一时期正是中国的改革开放的初期，各项政策、措施及有关制度还很不健全，还不能向世人展示出中国改革开放的前景，人们对中国的改革开放持观望态度，各种经济往来特别是对华投资都很谨慎。这时的中国改革是“摸着石头过河”，而韩国企业的对华投资也是“投石问路”。这三年的投资总额仅为760万美元，项目数约10余项。总的看，此间发展是缓慢的。

由于历史的原因，中韩两国长期处于隔绝状态，相互之间缺乏了解，同时又由于两国的社会制度不同，长期以来形成了不同的价值观，不同程度的存在一些误解和偏见，短时间内难以消除。又由于较复杂的原因，中国对韩国企业投资作过某些限制。还由于这时双方未建立外交关系，也没有形成双方进行经济贸易往来的窗口，没有鉴定任何合作协议，因此，使得韩国企业的对华投资缺乏官方的协议保护，有一定的危险性。虽然对中国投资表现出极大的热情，但实际并未形成大量的投资，也是正常的。

第二阶段，对华投资进入正轨阶段。时间是1989年初到1992年末。这期间情况发生了很大变化，投资的热情不断提高，信心不断增强，投资的方式也由过去的间接投资转为直接投资。89年到92年四年间的投资项目数和投资金额分别是89年18项，金额1426.5万美元，90年41项，金额4647万美元，91年112项，金额8500万美元，92年286项，金额2.39亿美元。

此间投资增长比较快，原因主要有：①经过几年的探索，取得了初步的经验，投资成功率不断提高。根据韩国有关部门公布的资料，韩国对外投资的成功率平均为74%，对东南亚的投资成功率为88.5%，对北美投资的成功率为50%，仅仅几年的对华投资成功率则高达85%，高出平均率11%。实践证明韩国对华投资是可行的，因而投资信心也在增加；②91年1~4月中韩两国在北京和

汉城分别设立了民间贸易办事处，增进了两国的了解和信任，使两国的经济贸易合作发展到新的阶段；③92年8月两国正式建交，对两国的经济交流产生了深远影响，取得突破性进展。此后，韩国的大财团及主要综合商社也纷纷来华在很多大城市设立办事处或分支机构，这一切不仅对韩在华投资具有促进作用，对其他方面的经济合作也有巨大的促进作用。

第三阶段，是较成熟阶段，时间是93年初到96年末。由于两国正式建交，拉近了在各领域的距离，韩国的大企业纷纷到中国来考察投资项目，93年上半年投资项目数274个，投资额3.27亿美元。半年的投资额相当于前7年的投资总额。93年下半年投资件数741个，金额7.19亿美元，仅吉林省来看，中韩建交后一年内，批准韩国投资企业224个，协议资金额1.59亿美元，投资总额超过300万美元的项目达37个，是建交前的12倍。到96年上半年对华投资总件数已达3500多个，投资许可额达36亿美元。如此快的速度在过去是罕见的。原因①由于许多大企业的投资影响力大，具有很大的示范和牵动效应；②两国建交后很快签定了“贸易保护协定”“避免双重关税税收”及“技术合作协定”等协定，为双方的经贸往来与发展提供了保证，消除了韩国企业对华投资的忧虑，同时也解除了双方向对方投资、商品进出口的许多限制条件。如韩国取消了韩国企业对中国投资超过100万美元，向其他非社会主义国家投资超过500万美元必须经商工部批准的规定，与此同时，中国也取消了对韩国商品进口加收10~38%关税税率的规定；③由于中国的改革开放不断地向纵深发展，投资环境不断改善，如调整对外资的政策，加强基础设施的建设，开放地域不断拓宽，开放的形式及领域也不断放宽，特别是投资领域的不断放宽，投资优惠政策的不断完善，吸引了大量外资。

第四阶段，是稳定发展时期。时间是97年到现在。在经过了上述三阶段后，韩国的对华投资进入了稳步发展阶段。到目前为止，投资项目近4000个，投金额已达70亿美元。近3年的投资总额比过去(85年~96年)11年的总和还多。到99年3月，吉林省实有韩国投资企业877个，协议外资金额5.92亿美元，资金到位率45%以上。原因①十几年的对华投资证明在中国投资的安全性和较高的收益率，同时积累了许多成功经验；②我国对外开放政策的不断调整、完善，特别是中国十五大的召开，进一步推进了改革开放的步伐，给外资在华投资吃了个“定心丸”；③中国20年的改革开放，经济建设取得可喜成绩，国内的硬环境和软环境都有了很大的改善，使外商看好中国的投资市场。

总的看韩国对华投资起步晚，但发展快。韩国对华投资增加的国内和国际

背景有以下几点(1)产业结构的升级和转移；(2)国内劳动费用的提高；(3)改革开放以来，中国投资环境的改善，以及各种优惠政策的吸引；(4)中国作为一个新兴的投资市场和消费市场正在形成；(5)东南亚企业的崛起，使得韩国企业特别是劳动密集型企业在国际市场上的竞争优势逐渐变弱，在华投资可降低生产费用，保持其竞争力。同时，韩国的中小企业在国内竞争十分激烈，为了生存必须向外发展。

## 二、韩国企业在华投资的特征

1. 投资规模特征。韩国企业在华投资项目数居外资在华项目数第五位，但实际投资额却很低，不仅低于美国、日本、香港、台湾、也低于新加坡。就单个项目的平均投资规模看，与日本相比差距很大。日本的在华投资项目(平均)协议投资额都超过了120万美元，到1996年每个项目接近300万美元。96年以前的6年平均每个项目的投资额169万美元，而韩国的同期项目平均投资额只有111万美元，同时韩国企业在华投资的资金到位率也较低，如96年日本企业资金到位率53.7%，美国企业为40.6%，韩国企业只有26.3%。韩国企业投资规模小是其在华投资的最大特点之一。这在各省市都很明显。如在辽宁省，韩国企业每个项目的投资额为80万美元，77.6%的韩资企业投资规模不到100万美元，超过1000万美元的仅占2.7%。在北京、吉林等省市的投资情况也大致如此。如在北京投资的韩资企业，单项平均规模在100万美元以下的占70%，1000万美元以上的投资项目只占2.3%。在吉林省韩资企业单项投资额为52.2万美元，大于300万美元的项目仅占4.6%。

2. 投资结构特征。韩资企业在华投资是以加工制造业为主要投资领域，主要集中于第二产业，第三产业投资较少。截止97年初投资于第二产业占的91.1%，投资于第三产业的只占5.4%。这些投资主要集中于轻纺织工业和食品工业，不同于日本侧重在华投于化学工业，机械和电子工业领域。所以韩国的投资主要集中于劳动密集型的行业，特别是服装加工、皮革、毛皮加工，食品加工等行业。同时在四个发展阶段，投资结构在不断升级。在第一阶段，以缝纫、食品加工为主要投资领域，第二阶段，由于大企业的投资增加，由劳动密集型向资本密集型发展。如三星电子、浦项钢铁、L G 金星的对华投资，使其投资规模和领域都在不断扩大，特别是三星、L G 等电子产业的介入，使韩国在华投资有了一定数量的技术密集型产业。这种投资结构特征，主要由于在华

投资的不断发展，投资企业自身的经济规模和经营战略，本国的产业结构特征所致，以及对中国的投资环境和市场评价等因素有关。同时也由于轻纺、食品等劳动密集型行业投资成本低，见效快。

3. 投资区位特征。从总体来看，韩国企业在华投主要集中于沿海各省市。据韩国通商产业部调查，到96年底，韩国企业在中国沿海省市的投资占其在华投资项目和投资额的80.1%和87.6%，在中西部各省区的投资项目和金额分别占19.9%和12.4%。这和所有国家和地区在华的投资倾向相同。原因是多方面的，其中最重要的因素是①沿海地区投资环境优于中西部地区，从综合投资成本来看，沿海地区要低于中西部地区；②中国对外开放的政策和对外吸引外资政策的区位差异。外资对中国各级政府的政策变化极为敏感。中国在实行改革开放以来，对沿海地区的政策倾斜是韩国企业投资集中于沿海省市的主要因素。③空间位置的接近性。中国沿海地区对韩国是最便利和最直接的投资区位，这对其减少运输成本，降低生产费用，提高产品的国际竞争力具有重要作用。特别是许多在华韩国企业生产的原料和产品的销售市场都在韩国，出于对投入产出比的考虑，他们的投资多集中在渤海湾地区，这使他们大大的降低了运输费用。另外该地区如山东省和天津市的各级政府都把韩资企业作为引进外资的重点，在各方面给予优惠条件，使韩资企业更是集中于该地区。

4. 经营方式特征。韩国在华投资代理少，参与管理多。由于环渤海湾一带与韩国气候相近，文化、习俗差异较少，语言障碍相对少，很多韩国投资都很快适应这里的生活和生产经营环境，因此他们很少进行代理管理，而是直接经营管理。特别是在吉林省，其他外资常年参与管理的占60%，而韩国企业90%的投资者常年对企业直接管理。

5. 合作方式以独资为多，合资、合作相对少。这一特征在吉林省表现尤为明显。在来吉林省投资的49个国家和地区中，只有韩国独资企业所占比重高于所有其他国家。这与韩商能很快适应中国的投资环境，直接参与企业管理有关。

### 三、韩国企业对华投资的利弊因素分析

韩国企业的对华投资发展是很快的，前景也是广阔的。目前，中国已成为韩国对外投资的主要国家。在韩国企业对华投资的过程中存在许多有利条件和不利条件，分析这些利弊条件，可以在以后的在华投资中利用有利条件，规避

不利条件，搞好投资经营。

### 1. 韩国企业对华投资的有利条件

韩国的海外投资多，中国又是韩国海外投资的主要对象国，相比较而言，韩国对华投资具有如下有利因素。

首先是地域关系上的优越性。就中韩两国的地理位置而言仅一海之隔，有很便利的水、空运条件，特别是山东半岛、东北三省、天津、北京等地都有着发达的铁路、公路、水路及港口，对产品及原材料的进出口有极方便的条件。其次是经济关系上的互利性。韩国作为亚洲仅次于日本的新兴工业化国家，经济实力较强，产业技术较先进，资金相对充裕，而资源和劳动力不足，市场狭小。而中国技术、资金不足，资源，特别是劳动力充足且价廉，市场广阔。所以两国经济有较强的互利性，使两国的经济合作可取长补短。

再次是人文历史关系上的相近性。中韩两国有着2000多年的友好往来史，在历史、文化、思想教育等方面历史渊源一脉相承，这一点在韩国的文字使用上可以得到说明。特别是在思想文化方面韩国受中国儒家思想影响较深。东北三省又是中国朝鲜族集中的地方，中国通过朝鲜族能较好地了解韩国的文化、生活习惯，韩国通过中国朝鲜族也能更好地了解中国，两国的合作便于沟通。

第四，两国经济体制上的趋同性。韩国在独立后实行了在政府干预下的市场经济，在较短的时间内实现了经济的快速发展。中国从50年代到80年代实行高度集中的计划经济体制，又由于社会制度的差异，虽隔海相望，但一直无任何往来。92年两国建交后，又由于中国开始由计划经济向市场经济转变。两国由于经济体的趋同，更加有利于韩国的对华投资。

### 2. 韩国企业对华投资的不利因素

首先是韩国企业对中国政策调整的误解。众所周知，中国改革开放伊始，为吸引外资就制定了许多优惠政策，如对外资企业所得实行免二减三，自用设备进口免税，获利再投资免税以及出口权、管理人员、职员的任免、解雇权、投资决策权、经济自主权等许多国有企业所享受不到的“超国民待遇”。这些优惠政策使外商获利不少，但在实行这些优惠政策的同时也制定了一些限制政策，如①对投资领域的限制；②规定外商产品外销的比例；③合资企业外商股本所占比例等，这方面又反映出外资不能与国有企业享受同等待遇的“非国民待遇”。上述的“超国民待遇”和“非国民待遇”都不同程度地体现出外资、内资竞争条件不平等。随着改革开放的深入进行，中国在不断地调整包括外资政策在内的各种政策。优惠政策减少的同时，也放宽了许多政策，如投资领域

放宽等政策，为了和世界经济接轨，中国对外资正在逐步采取同内资企业相同的“国民待遇”政策。这一过程，外商往往会误认为是中国的政策不稳定，产生某些担心，这是一种误解，中国的政策只能越来越完善。将来也会象发达国家那样，对外资无更多特殊政策，让他们更多地享受“国民待遇”。因为外商看重的主要是中国的市场、劳动力和资源优势。

其次，现在中国的投资环境还不是很理想，使韩国企业的在华投资还有许多不便之处。如基础设施不够完善，服务体系不健全，服务不周到，办事效率低；法律、法规不健全，不完善，另外，在管理体制上仍保留着某种计划体制的弊端，许多管理制度不合理，在价格管理、税收管理、工商管理、土地使用管理等方面仍存在许多问题。

上述问题的存在给外资在华投资设置了无形障碍。但应该实事求是地看到，中国的政策在不断地完善，投资环境在不断地改善，韩国企业的在华投资应充分利用有利条件，了解并理解中国的国情及情况的变化，使自己的投资不断适应正在好转的中国投资环境。

#### 四、韩国企业对华投资的发展前景及战略选择

以上的分析说明，韩国对华投资有利条件很多，发展前景是广阔的。

虽然韩国对华投资起步晚，但发展快。到目前为止对华总投资额为70亿美元左右，在吉林省的投资将近7亿。大部分分布在山东、天津、辽宁一带。目前的情况是：韩资企业在山东、天津的投资额由1993年分别占其在华投资总额的41%和15.2%，到96%分别下降到15.3%和9.7%，上海市、江苏省则由1.8%和5.6%上升到17.9%和11.6%，由此可见，韩国企业的在华投资在不断地扩散，并且表现出由大中城市向小城市和城郊区发展的态势。上海、大连、青岛和广州市周边地区的中心城市和郊区，由于接近中心城市投资环境治理较完善，作为新兴的投资区具有很大的吸引力。目前，韩资企业在青岛和天津市周边的投资已成为韩资企业在华投资区位发展变化的一大特征，江苏和上海一带有增加的势头。特别是中国改革开放的步伐加快，环境在不断改善，越来越有利于外商投资。另外韩国自97年爆发金融危机以来，国内的经济形势虽有所好转，但经济仍处于低谷，国内的投资市场狭小，内需不足，企业要寻求生存和发展，势必要扩大对外投资，中国作为韩国最大的对外投资对象国，随着中国经济的发展，韩国企业增加对外投资，无疑将会把中国作为首选目标。从以往

外商的投资情况看，韩国企业在华投资的项目数居于第五位，但协议投资额低于新加坡和英国企业，实际在华投资额低于新加坡企业，高于英国企业。到97年底韩国企业在华投资的项目数、协议投资额和实际投资额分别是9650个，132.4亿美元，57.85亿美元，而日本分别是韩国的1.7倍，2.25倍和3.2倍。因此从总体上看韩国企业的在华投资还远远低于日本等国的在华投资。这也意味着韩国在华投资还有很大的发展潜力。随着中国各项政策、制度的完善，韩国企业对华投资的前景是看好的。那么投资的战略选择应该是怎样的呢？中国又该怎样不断完善引进外资政策，更好的利用外资，同时也促进外商在华投资有发展。因此，应从以下几点加以考虑，即投资的区位，投资的产业及投资经营。

首先，从投资的区位方向上看，应向中西部地区进军。理由是：中国20年的改革开放，给了东南沿海较多的优惠政策。东南沿海一带发展迅速，加重了区域经济发展的不平衡，为了改变这种状况，实现中国本世纪末发展目标，三年前已提出加速发展中西部的战略目标和相应的政策，外资应顺应中国的发展战略和政策不失时机地把投资定位。从我国的情况看，对外资不能进入的部分和产业，一道行政命令就可以解决，而对那些需要外资大量进入的部门和地区，不是一道行政命令能够解决的。外资的投资区位、部门等都是以获利为目的。目前我国中西部除了国家安排外国政府贷款的项目外，外资直接投资的进展不甚理想，其原除中西部地区的客观条件较差以外，主要原因就是外商投资不能得到正常利润。因此各级政府必须制定相应的优惠政策。确保外商投资所得，同时，基础设施也应进一步完善。这方面中国正在努力，并已有了很大转变。这是从中国的发展战略，投资政策来看应向中西部加大投资。

另外，从中西部地区的资源来看其投资的前景也是可观的。中西部不仅劳动力资源丰富更主要是自然资源丰富。其中土地面积占国土面积的一半以上，有45种较重要的矿产资源、其储量按潜在价值计算占全国的50%。从人力资源看，成都、西安、兰州等地的技术人的占有率在中国大城市的平均水平以上。因此，向中西部投资，从长远看必将会取得较好的回报。其次，从投资的产业或部门看，要充分考虑中国的产业发展趋势和产业政策。中国近年来一直把发展农业和基础设施的建设作为发展重点。从引进外资的政策调整看，在行业准入方面，取消了许多行业准入限制，如金融业、大型商业等较重要的第三产业都允许外资进入。韩国企业对华投资应充分利用这些有利政策，抓住有利时机，积极扩大投资。当然，我们也看到韩国企业对华投资规模小，无力在大型基础设施及金融业等领域投资。但是在中国产业结构逐步升级的今天，韩国企

业的对华投资也应由劳动密集型向资本密集型和技术集型转移。在这方面看，中西部的农业，基础设施等方面急需大量资金投入，这也是外资投资的好机会。

### 五、韩国企业在华投资的主要困难和问题

从韩国的角度看，韩国企业在华投资额已占其在亚洲投资总额的一半以上，但从中国方面看，韩国并不是对华投资最多的国家，其绝对额仅占中国吸引外的3%稍多。这一投资额不仅低于日本的对华投资，也低于香港。分析这一情况的产生原因，可以看出韩国企业在华投资的局限性，只有克服这些局限性，其对华投资才会有更大的进展。

首先，韩国企业的对华投资只是把中国当作一个廉价的生产要素供应基地和商品销售市场，没有站到中韩双方是平等的经济合作伙伴的高度去对待对华投资等经济活动。如韩国的中小企业由于国内市场竞争激烈，所以大量的向中国投资，以寻求发展，同时由于东南亚企业的崛起，使得韩国企业特别是劳动密集型企业在国际市场上的优势逐渐下降，对华投资可降低其生产费用，保持其竞争能力，以提高其竞争力。由于这一自身发展需要，在韩国企业对华投资快速成长的同时，虽经过了十五年的历程，但其投资领域仍集中在服装、鞋类、食品、毛皮加工等劳动密集型产业及较少量的化工、机械行业，在高附加值的高新技术产业和机电产业所占份额太少。这种投资结构的局限性，影响其发展速度和规模。出现这种情况的原因，一是由于韩国对华投资起步晚，加上没有很好地掌握中国人的消费心理倾向，使其没有寻找到更多的投资领域；二是，投资者没能注意和跟上中国产业政策的调整和产业结构的升级，使其投资结构落后。

其次，由于韩方对中国投资环境要求较高，对中国转轨中的市场经济发展规律及改革开放的政策调整理解不够，特别是对中国的可持续发展战略和中西部发展的政策方面，缺乏较深的理解，使得其对华投资集中在天津、山东、辽宁等靠近韩国的东南沿海一带，而对资源丰富但基础设施(主要是交通运输)较落后的中西部内陆地区的投资非常少，与其他外资没法比，这不符合中国可持续发展战略及区域产业政策导向。

再次，由于没能完全克服文化和价值观差异所造成的障碍，在经营管理上存在一些问题也影响其发展。任何一国向海外投资时都会遇到软环境方面的两

大问题，一是东道国的对外政策，投资方不具备对东道国的政策或有关制度进行改变的能力，只能理解、适应这种政策。二是东道国的文化和价值观。任何一种文化和价值观都是根深蒂固的，不管任何情况，东道国都会认为其文化和价值所创造的社会准则是最优的，遵循这种准则，他们的经济活动才会获得更大成功。而韩国在华企业对中国的文化、习俗、价值观等把握的不够，在异国他乡经营，难免存在一些问题。如个别企业采用家长式的粗暴方法惩罚中国工人，或不注意方法，导致劳资双方关系紧张，造成较坏影响，不利于自身的发展。

第四、由于韩国在华企业投资规模普遍小，抗风险能力比较差。在华投资特别是在吉林省投资的企业以小项目为主，而且又是以简单加工为多，高新技术和高附加值项目比较少。随着国内市场经济的发展和产业结构的升级，其中一些小企业缺乏竞争力，受到日益激烈的市场竞争的威胁。特别是有一部分企业是从韩国国内竞争中退下来后迁移过来的，技术设施较落后，这就更加减弱了这些企业的抗风险能力，导致企业效益不佳。自1990年以来，仅吉林省就约有10%的韩国企业因效益不佳等原因停产或倒闭，其中大多数为小型企业。

第五、有些企业来华投资前，调查不足，情况了解不全面，出现盲目投资。在投资初期韩资有相当一部分是通过亲属或朋友介绍而来。这无疑对促进两国经济合作起到了积极的作用。但由于部分韩国投资者对投资地不很了解，过分依赖亲属和朋友个人，缺乏与当地政府的适当联系，不了解当地经济发展战略，对当地经济发展状况及国内市场的调查了解不足，出现一些盲目投资，有的拥而上，造成投资企业间互相竞争，企业出现生产和经营上的困难，以至于使他们丧失投资和扩大发展的信心，影响他们的投资积极性。对此，韩国投资者要总结经验教训，认清形势积极发展。中方则应作好各方面的宣传，扩大与韩国的联系，增进相互了解，这是推动韩国在华投资发展不容忽视的工作。

第六、资金不充足是韩国企业在华投资顺利发展的制约因素。这包括两方面的含义。一方面中国特别是吉林省这样的省份资金缺乏，不能提供外商投资更有利环境，制约着韩国企业在华发展，另方面，韩国投资企业也面临资金不足的问题。这表现在对华投资配套资金不足，影响其资金的有效利用；同时流动现金不足也使企业陷入经营困境。

这些说明韩国在华投资虽然发展较快，取得了可喜进展。但由于上述困难和问题使其不能更好发展。韩国企业要作某些调整，采取积极措施，不断完善

自己的投资经济营及投资战略。中国也要进一步完善外商投资硬环境，调整完善软环境，为韩国投资提供更好的条件。

中韩两国政府间，企业间和民间往来频繁密切，相互合作具有优越条件，韩国投资者应充分利用中国改革开放带来的大好时机，加大对华投资规模，促进双方经济共同发展。

## 六、几点建议

经过上述几方面的分析可以看出，韩国在华投资有许多有利条件，也有一些不利条件，经过近15年的发展取得了许多成绩，也出现一些失误，目前仍存在一些问题。但有一点是肯定的，即韩国在华投资的发展前景是广阔的，只要中韩双方继续采取积极措施，韩国企业在华投资一定会健康，迅速发展。为此提出以下几点建议。

1. 韩国政府和对华投资企业要从战略高度去认识中国在韩国海外投资中的重要地位，认真总结经验教训，制定韩国在华投资的发展战略。韩国应认清中国经济改革的有利形势和经济发展的需要，鼓励大企业到中国投资，并且不断地调整投资的行业结构，不断提高投资的层次和力度，扩大投资规模，发展技术密集型产业，不断提高经济效益，增强竞争力，扩大韩资企业在华投资的份额和市场占有份额。同时应抓住机遇积极参与中国的国有企业改革和技术改造，扩大韩国企业在华投资的影响；鼓励和引导韩国企业向中国的中西部发展；在企业经营方面，不断提高现有企业的管理水平。

2. 中国各级政府要采取积极措施，不断健全和完善外资企业投资法规；不断改善投资环境，确保韩国企业的利益。应从以下几方面下功夫，首先借中国大抓基础建设的有利时机，进一步搞好引进外资的相关配套设施的建设；其次，规范政府行为，减少政府干预，加大执法力度，确保韩资企业的权利不受侵犯；再次为其发展提供更多的市场信息，政策信息，帮助和扶持韩国企业健康发展；第四，帮助韩国企业解决经营中遇到的困难和问题。

总之中韩双方应共同努力，积极创造条件，发展中韩经济合作，扩大韩国对华投资，推动两国经济共同发展。

# 东西方国家市场经济模式比较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ket Economic Model  
in East & West Country

孙立晖·周尚志

## 目 次

- |                       |                   |
|-----------------------|-------------------|
| 一、经济体制与经济模式的概念与分类     | (三) 文化传统上的差异      |
| 二、东西方市场经济模式的特点比较      | 三、东西方市场经济模式的相互借鉴  |
| (一) 市场经济产生的起点和发展过程的差异 | 四、中国在向西方借鉴中应注意的问题 |
| (二) 市场经济发展进程的差异       |                   |

## 一、经济体制与经济模式的概念与分类

经济模式，一般是指某种经济体制的基本框架及资源配置的基本方式。在比较经济学中，通常将经济体制解释为经济组织的结构，它处在经济过程之中。经济组织结构是由一定规则和秩序决定的经济组织间相互联系的总体；经济过程是人们的经济行为方式及其产生的结果。这样，在比较经济学中，经济体制可定义为：在经济领域中，由一系列规则形成的各经济组织（包括个人）按一定方式从事经济活动，最终形成一定的经济结果（产品和服务）的系统。匈牙利经济学家科尔内在《匈牙利的改革过程》一文中，将经济体制的概念内容概括为包括政治、法律、社会、道德等八个方面的内容①。

从经济体制的概念含义中，我们可以把基本体现某种类型经济体制的经济模式作出各种划分。从理论上说，可分为完全集中控制的计划经济系统和完全分散控制的经济系统两种极端经济运行的经济系统。前者，有关消费、投资和生产的决策都由一个中央结构在宏观水平作出；个人和组织，组织和机构之间的联系都服从于这个中央结构的指令。后者的特点是决策结构分散在微观层次

• 中國長春稅務大學 教授。

上作出；信息结构主要靠价格信号协调；动力结构建立在各经济组织的利益基础上；政治机构的作用限于通过立法保障私有产权及交换规则，保障法律的实施和执行，允许各经济组织和经济当事人在不违背法律的情况下按各种行为准则，作出自由的选择。

从实际情况看，这两种极端情况并不存在，多半是其不同的变种。完全集中控制的计划经济系统可分解出如下三种：（1）按生活资料和生产资料区分，生活资料按市场原则分散控制；生产资料按行政命令原则集中控制。（2）在行政命令中附加货币和价格信息流的控制，既在下达实物产品指标的同时，增加价格、利润、成本、工资、信贷等指标。（3）按行政等级进行分权，如划分中央、省、市、县、区、乡的隶属范围，既把某些组织划归中央管辖，把某些经济组织划归各级地方管辖。这些即所谓的“东亚模式”的特征，本文中暂以“东方”为代表。完全分散的市场经济系统也可分解出三种：（1）用经济手段加强集中控制；（2）用行政手段加强集中控制；（3）用法律手段加强集中控制。这些既所谓“欧美模式”的特征，本文暂以“西方”为代表。

下面就根据如上对经济体制与经济模式的概念界定及分类，对东西方国家市场经济模式予以粗略比较分析，以期在相互学习借鉴中获得互补效益。

## 二、东西方市场经济模式的特点比较

存在于现今世界上的东西方市场经济体制，虽然基本上都是以市场配置资源为主，但从产生的历史前提、产权结构、组织形式、运行机制及调控方式等诸方面，都存在着明显差异。

### （一）市场经济产生的起点和发展过程的差异

从产生的起点和发展过程看，东方国家市场经济多是产生于封建社会历史较长，封建制度统治较强的社会历史背景下，在历经艰苦曲折的道路，遭到封建势力严酷摧残中缓慢萌芽，逐渐发展的。由于封建政权势力统治全国城乡，在一贯性重农抑商的政策下，一方面民间安于“二亩地，一头牛，老婆孩子热炕头”、“男耕女织”、“自给自足”的生产生活方式；另一方面，封建统治者的

政治军事势力盘踞于大城市，推行“土贡政策”、“禁榷制度”，靠贡、赋、税过寄生生活，维护着地主阶级的剥削。这种农民、小生产者安于自给不想交换，上层统治者又靠权力进行贡、赋、税的超经济横征暴敛不用交换的状况，是东方国家商品货币关系、市场经济发展缓慢的主要原因。而且，东方国家的城市多半是为了政治、军事上的需要而兴建起来的。纯粹靠工商业的发展，商品集散需要发展起来的只有少数城市。如果说有一些工商业的话，也主要是为封建主服务的官工、官商，生产的是宫廷、衙门、军队的用品、器具和武器，经营的是古玩、珠宝、玉器等奢侈品等。

西方国家则不一样，那里封建社会经历的历史一般较短，实行的不是中央集权制而是领主制，从中世纪起，已经形成城乡分离的“二元经济”体系，封建主势力主要在农村庄园，每个庄园内部形成与外界隔绝的“小王国”；城市则主要是“自由民”居住生活的场所，他们在那摆脱封建主的统治，自由发展工商业。这样，商品货币关系、市场经济就有了产生和发展的充足条件。

正是由于这种起点上的差异，导致在市场经济发展过程中，东方国家是由政府主导型的高度集中逐渐向以市场分散配置资源方向发展；而西方国家则由自由放任、完全竞争的自由市场配置资源逐渐向政府干预经济生活的混合经济发展。人们都比较清楚：西方国家从欧共体到美国无论从实践到理论政策都是先从完全竞争、自由放任的市场经济开始的。1776年的美国“独立宣言”和英国古典经济学的著名代表亚当·斯密《国富论》的发表，真是默契得天衣无缝，以无可争辩的事实证明了上面的结论。从古典作家的经典《国富论》到新古典集大成者马歇尔的《政治经济学原理》，无不赞美自由竞争，颂扬自由放任。直到1929—1933年的大危机之后，凯恩斯《通论》问世，才逐渐转变传统认识，开始引入政府机制，从完全自由放任的市场经济体制向政府进行适度必要干预经济生活的“混合经济”发展。而东方国家无论是日本、东南亚各国还是中国，都走的是由政府集中统治转向市场经济的与西方国家逆向发展的道路。

## （二）市场经济发展进程的差异

由于起点的差异直接造成西方国家市场经济起步早、发展快、东方国家起步晚、发展慢的第二个重大差异。这一差异的社会原因主要在于先走上市场经

济发展道路的国家多为封建统治薄弱或后来移民比重很大的国家。从资产阶级革命的时间上看，西方的英国早在 1640 年——1660 年就发生资产阶级革命，发展市场经济，而东方的日本从 1868 年明治维新算起还比英国晚 200 多年。当东方刚刚起步向市场经济道路过渡的时候，英国的产业革命已完成半个世纪了。其他西方国家多半都较东方国家早走上市场经济道路，而且发展速度较快。正由于西方国家较早走上市场经济道路并且发展较快，所以一般说来东方在步西方后尘，西方创新，东方模仿。由于模仿要少走弯路，故在同一发展阶段内可能赶得较快。如日本在战后发展很快，仅 20 余年在 1968 年起就居世界第三位。80 年代起，“亚洲四小龙”发展得也很快，虽然有多方面原因，但学习模仿西方国家市场经济的经验不能不说这是主要的原因。就从“四小龙”之一的韩国来说，“二战”前同北朝鲜乃至中国东北一样，都成为日本的殖民地，工业落后，工厂、矿山多半由日本投资开办。“二战”后北朝鲜同中国都将这些企业收归国有，成为垄断企业，而韩国则向西方学习，走民营道路，建立起市场经济的微观基础。特别是近几十年，韩国实行对外开放，下大力量引进外资和技术，利用竞争机制加速发展民族工业，使之与西方的差距越来越小。

### (三) 文化传统上的差异

在文化传统方面，东方国家多半具有东正教和儒教文化伦理观进行统一的控制和协调，鼓励民众发扬团队精神，主动与政府合作配合。日本、前苏联、中国等都曾从集体主义中受益不小。当然，也由于片面强调集体主义，否认个人利益，取消个人自由，抑制个人的创造性和主动性，尤其是容易排斥追求个人利益的市场机制，则会出现经济上低效率、政治上专制以及社会停滞等现象。

西方国家则多半具有清教伦理文化传统。现代资本主义建立在经济理性主义的基础上，而理性主义又源于清教伦理。韦伯指出：寻求用理性控制世界的清教伦理构成资本主义的民族精神，而试图用理性的方式使自身适应世界的儒教，却是阻碍近代中国资本主义兴起的主要因素②。从韦伯的议论中我们不难发现：是用理性控制世界还是用理性适应世界，这可以说是东西方国家经济发展差距出现的文化根源。

### 三、东西方市场经济模式的相互借鉴

世界历史上曾经先后出现过习俗经济、指令经济和市场经济三种配置资源形式。前二者构成传统社会配置资源的主要形式，后者为现代社会中市场配置资源的基本经济形式。按经济社会发展趋势看，传统经济中习俗和指令性的配置资源方式必然要向现代以市场机制配置资源的方式转化或过渡，这个过渡过程既是体制选择过程，也是现代化实现过程。只是由于各国社会历史条件的差异，存在着过渡时间早晚，进程快慢以及具体模式特点有所不同罢了。通过前面的分析，我们不能简单地说哪一种好，哪一种更有效率，而应具体分析其利弊，相互学习借鉴。

首先，东方国家作为后来者，应该虚心向西方发达市场经济国家的成功经验和失败教训中学习和借鉴。西方国家从自由放任到政府适当有效干预经济的发展道路既说明了市场机制可以充分激励个人或经济主体的积极性从而表现出配置资源的有效性，又暴露出市场失灵的种种缺陷并提出政府干预的补救办法。这一切当然值得东方国家发展市场经济中学习借鉴。事实上，东方一些后起之秀的国家、民族或地区，经济发展成功的主要原因也正是学习借鉴了这些经验教训的结果。例如，日本参照当时德国的模式并加以创新，成功地赶超了西方先行国家。台湾和韩国根据自己与日本条件相似的特点，选择日本模式发展经济，也取得了初步成功。有人以东西方文化特点不同为由否定学习借鉴的可能性，实为一种偏激看法。其实，民族文化是源也是流，文化是可以改造的。中国的“五·四”运动就是一场新文化运动。日本明治维新以来，在积极引进西方文明的同时，摒弃了传统文化的糟粕，发扬民族文化中的精华，使“和魂洋才”较好地结合起来，民族文化并未丧失。当然，学习借鉴西方经验，切记要从自己国家民族的政治、经济、文化等历史与现实状况出发，一不可生搬硬套采取教条主义，二要有所创新，不可简单地采取“拿来主义”。如果无视与西方发达国家的差距和 16 世纪以来世界历史发生巨大变化，脱离本国实际，只知一味模仿英美诸国，毫无创新，则或者处处碰壁，或者一辈子跟在后面爬行。在这方面有些国家的教训不可不认真总结。

其次，西方国家在发展市场经济过程中虽积累了很多成功经验，但也不乏失败教训，也应向东方后来者的成功经验学习。事实上，在市场失灵的情况下，他们选择了政府这只“看得见的手”进行适当干预的“混合经济”制度，已在事实上学习、模仿东方国家的做法。对任何事物的科学态度都反对绝对化。实际上，无论是西方提倡的“个性解放”、“自由放任”还是东方提倡的“集体主义”、“团队精神”，都各有利弊，必须适当配合使用才能产生最佳效果，片面强调哪一方面皆为不妥。

#### 四、中国在向西方借鉴中应注意的问题

中国经过十几年的探索，终于选择了由政府主导型高度集中计划经济向市场经济体制过渡的道路，这既标志着在理论认识上的飞跃，也使人们对今后的发展看到光明的前途。作为近代落伍了的东方大国，在觉醒之后向市场经济过渡的关键时刻，向西方先行市场经济国家的成功经验学习是完全必要的。然而，学习借鉴必须遵循上述提到的从自己国情出发，有所创新的原则。为此，笔者认为中国在借鉴西方市场经济成功经验中要注意以下几种结合：

第一、在微观经济基础上，将公有制为主体与充分调动劳动者的积极性结合起来。我们知道，西方国家是资本主义的“自由企业制度”市场经济，它以私有制为其经济基础；而中国是社会主义公有制为主体的社会主义市场经济。由于这种政治制度上的差异，中国不可能在发展市场经济中，通过把作为市场经济微观基础主体成分的公有企业进行私有化的办法，去达到调动劳动者积极性以提高效率的目的。有人以公有制经济没有私有制经济效率高为由，主张私有化。这且不说私有化违背了经济体制改革的初衷和党的基本路线，仅从影响效率的原因上分析也是站不住脚的。笔者认为，效率高低关键在于产权组织形式和激励、约束机制，而非所有制本身。如果说由于财产公有，劳动者就不象关心自己个人财产那样尽心尽力、尽职尽责的话，那么在西方私有制市场经济中就业的劳动者多半使用和管理的既非自己个人所有，亦非公有，而是用属于资本家所有的资本进行生产经营，难道会比公有制中多少还有自己一份的情况下更能尽心尽力、尽职尽责吗？可见，西方发达国家市场经济所表现出的

效率，主要在于通过市场竞争机制，完善的委托代理制度、产权组织形式和科学的激励、约束机制可以将生产者、经营管理者乃至科学技术人员的积极性充分调动出来，绝非是其私有制的优越。所以，中国学习借鉴西方市场经济经验时，必须从国情出发，学那些应该学的东西，将公有制为主体的优势与充分调动劳动者的积极性结合起来，决不可舍本求末。

第二、在宏观调控上，要将政府有效调控与完善市场机制、建立市场规则结合起来。搞社会主义市场经济，是要改变高度计划经济体制的传统作法，充分发扬市场在配置资源中的积极作用。但绝不是不要集中计划，不要政府干预，而是要在政府宏观调控下，充分发挥市场机制的作用。特别是作为以公有制为主体的社会主义市场经济的特定性质，国家宏观调控作用无论如何要比自由市场经济会更强一些，调控的面会更广一些。但是，西方国家干预经济的成功经验，特别是在政企关系、法制建设、市场规则与制度建设方面的成功经验都很值得学习、借鉴。在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建立过程中，中国政府应做大手术切除计划经济体制下长期积聚起来的官僚主义赘瘤；拿出大勇气及果断措施排除既得利益集团对改革的阻力；下大功夫建立健全一切现代化市场经济必备的法律法规，完善一切市场规则，教育、引导人们树立市场观念、增强纳税意识，摆脱、根除各种在旧体制下养成的有背市场经济要求的价值观念和伦理道德，使一切经济活动按市场规则有序运行。

第三、把学习西方经验与制度创新结合起来。在谈到这一点时，首先要特别指出，在理论界，一些人的思想深处根本不相信在公有制条件下能成功地发展市场经济。为此，对于市场化改革中所遇到的任何难题都不加分析地简单归罪于公有制问题。于是，在深化体制改革中就深深地埋伏下一股暗流：私下谈论中毫不掩饰地表态中国改革的前途迟早得走西方道路；公开发表言论时不是尽量卖掉国有企业就是使国有企业完全退出竞争性行业等等。这种暗流是一种极其危险的倾向，它的存在和蔓延严重地干扰中国正确的改革方向，动摇着人们坚定的改革信心。追其根源在于这些人的认识中以为只有别人实践过的才是正确的、可行的。所以学习西方只是模仿，不图创新。特别是其中有些人常以精通西方经济理论而傲视一切，然而却对西方著名创新经济理论家熊彼特关于制度创新似乎一点不懂。笔者以为，中国政治经济制度之所以走到这一步，

完全是处于特定的国际国内条件，有其历史的必然。尽管就目前生产力状况不宜搞象计划经济时期的“一大二公”，但经过全国人民几十年辛苦创业积累起来的全民财产，如果能以一个新的经济体制使其保值增值，充分发挥效率（关于公有制不会影响效率前已论述过），难道不比通过私有化变为少数人的私产会更好吗？诚然，这样一种新的经济体制是前无古人的，不如那种“拿来主义”容易得到。这也是创新不同于模仿之处。我们之所以特别强调在学习、借鉴西方国家市场经济成功经验时要与创新结合起来，就在于我们学习借鉴的目的是要赶超他们，而非跟在人家后面爬行。为了创新，就要在学习借鉴中采取“扬弃”的批判吸收态度，将别人的经验紧紧与自己国情联系起来作开创性研究。

注：① 参见《管理世界》 1998年2期

② 参见荣敬本、刘吉瑞《比较经济学》（第259页）

辽宁人民出版社 1990年版。

## 三井財閥における番頭經營について －池田成彬による三井防衛政策を中心に－

A Study on the Bantu Management of Mitsui Zaibatsu

柳町 功\*

### 目 次

I.はじめに	3. 財閥觀と銀行觀
II.三井財閥における主人と番頭	4. 三井防衛政策
III.大番頭池田成彬	IV.むすび
1.時代的背景と三井攻撃	資料：池田成彬年譜
2. 番頭常務理事就任	参考文献

### I. はじめに

21世紀を目前に控えた現在、昨今のアジア経済危機を契機にして「アジア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確立」といった形で、企業経営の望ましい姿を模索する動きが広く進展している。特に、企業の最高意思決定が誰によってどのように遂行されるかという問題は、アジアの企業経営問題における最重要課題の一つになっている。例えば、アジアに広範に存在する財閥形態の中で、オーナーの絶対的経営支配が今後どのように進展し、また専門経営者が経営権をどのように掌握していくのかといった問題には、実務者や研究者を問わず多くの人々が非常に高い関心を寄せていると言える。

時代環境に最も適合的な企業経営のあり方を模索していく作業において、過去の経験に基づいて独自の処方箋を提示していくことが、我々経営史研究を志す者にとっての一つの責務であると考えたい。その意味で本稿においては、1930年代の三井財閥<sup>1</sup>

\* 慶應義塾大学総合政策学部助教授。E-mail : iyanagi@sfc.keio.ac.jp

(神奈川県藤沢市遠藤 5322 Tel 0466-47-5111 / Fax 0466-47-5041)

<sup>1</sup> 議論に先立って、まず財閥の定義を明らかにしておきたい。財閥に関する定義にはさまざまなものがあるが、ここでは森川英正の定義である「富豪の家族・同族の封鎖的な所有・

における番頭（専門経営者）の経営行動を取り上げ、当時の専門経営者がオーナーからの全面的な経営委託に基づいて、ファシズムの台頭という厳しい環境変化にいかに対応しつつ三井防衛を図っていったのか、検討してみたい。なお、今回事例として取り上げるのは池田成彬（いけだ・せいひん：1867—1950）であり、彼の実践したいわゆる財閥の「転向」政策について、重点的に分析してみたい。

## II. 三井財閥における主人と番頭

かつての4大財閥の中で、三菱や安田が創業者自らが直接経営の第一線で活躍していたのに対し、三井や住友の場合は、いわゆる主人（オーナー）はまさに主人としての地位に止まり、実際上の経営は番頭（専門経営者）にほとんど全面的に任せってきた。役職上、形式的には主人である創業ファミリーの人間が社長などに就いていても、実際の経営の舵取りのみならず、財閥全体の最高意思決定に至るまで番頭たちが実際上の決定権者であった。こうした「番頭経営」は、江戸時代に遡る長い歴史を持つ三井や住友には、共通した特徴であった。

三井家の場合、11の家族・同族から構成されており、1945年の財閥解体時における11家の主人たちは以下の通りであった。

三井八郎右衛門高公（みつい・はちろうえもんたかきみ）＝総領家（第11代）

三井高長（みつい・たかひさ）＝五本家

三井高遂（みつい・たかななる）＝五本家

三井高陽（みつい・たかはる）＝五本家

三井高大（みつい・たかひろ）＝五本家

三井高修（みつい・たかなが）＝五本家

三井高周（みつい・たかかね）＝五連家（松阪家）

三井高篤（みつい・たかあつ）＝五連家（永坂家）

三井高昶（みつい・たかあきら）＝五連家（五丁目家）

三井高孟（みつい・たかおさ）＝五連家（本村長家）

三井高義（みつい・たかよし）＝五連家（一本松家）<sup>2</sup>

この11家の中心は総領家であり、三井家創業の初代三井八郎右衛門高利（たかとし）以降、代々「八郎右衛門」という名前を名乗った。明治の世に入ってからは第8

支配下に成り立つ多角的事業経営体」としておきたい（森川英正『日本財閥史』教育社歴史新書、1991年、16頁）。

<sup>2</sup> 持株会社整理委員会編『日本財閥とその解体』第1巻、1951年、298-300頁。

代・高福（たかとみ）、第9代・高朗（たかあき）、第10代・高棟（たかみね）、そして第11代・高公（たかきみ）と続いて1945年を迎えるのである。

さて特筆すべき三井の大番頭としては、幕末期の三野村利左衛門（みのむら・りざえもん：1821-1886）、明治中期の中上川彦次郎（なかみがわ・ひこじろう：1854-1901）、さらに益田孝（ますだ・たかし：1848-1938）、団琢磨（だん・たくま：1858-1932）、そして本稿で取り上げる池田成彬などが主だった人物であった。現在の言葉で言うならば、彼ら番頭は共通して専門経営者であった。しかし、主人である三井家同族からの経営委託があつて初めて成り立つのが番頭経営であつて、その意味で本質的に主人の利害（家産の維持・保全）と無関係には存在し得ないのである。一方戦後登場してきた専門経営者の場合、財閥解体過程の中で主人（財閥家族）の追放、さらには戦前型経営者の追放などによって、そうした制約条件が完全に破壊されてしまっていた。したがって、彼らの場合には特定の人物の利害に関わって経営行動をと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なかった。

本稿で述べる池田成彬の場合、基本的には一般行員から重役までの約37年間、銀行家として三井銀行の発展に尽力した。しかし三井合名に移った後の約3年間は、三井財閥の大番頭として内外の危機的状況の深まりの中でどのようにして三井全体を防衛していくかが、最大の問題であった。

### III. 池田成彬時代

#### 1. 時代的背景と三井攻撃

池田が三井合名の理事に就任する直前の昭和初期、日本経済は厳しい不況期にあり、国民生活は窮屈していた。都市・農村を問わない深刻な不況と政治的な腐敗の中にあって、国民たちの経済的・政治的不満はますます高まったが、それらは成長を続ける巨大財閥、中でも最大の三井財閥に向けて爆発していくこととなった。

まず際立っていたのが言論界からの攻撃で、昭和5（1930）年以降の新聞の多くが三井財閥の主力事業である三井銀行、三井物産、三井鉱山に向けて連日のように攻撃を加えていた。しかしこれらの三井攻撃は、いずれも倫理的ないし感情的判断からの発言であり、道徳的発想からの非難が主であった。三井物産が農村工業に進出したことや、三井銀行が金解禁下においてドル買いに出したことなどは、本来、経済的にはきわめて合理的かつ正当なビジネスであった。

しかし現実には、三井銀行や池田個人への非難は一層強まった。政府が自らの金解禁政策の失敗を隠すため言論を利用したこと、さらに何よりも池田の方針として、「ド

「ドル買い事件」に対し三井側が一切の対外的説明をせず沈黙を守り続けたことなどがマイナスに作用したのである<sup>3</sup>。

ところが三井攻撃はさらにエスカレートし、遂にテロ行為へと発展した。昭和 7 (1932) 年 3 月の血盟団事件によって三井合名理事長の团琢磨が凶弾に倒れたのである。「腐敗した既成政党を破壊するため、その背後にいる巨大財閥を攻撃する」という考え方の下、「一人一殺」主義により三井の大番頭團琢磨をはじめ池田成彬、岩崎小弥太、木村久寿弥太、郷誠之助らの財界人、西園寺公望、牧野伸顕、犬養毅、幣原喜重郎、井上準之助らの政治家が暗殺目標となっていた（このうち犬養毅と井上準之助が暗殺された）。さらに政党本部、日本銀行、警視庁なども襲われるといった状況であった。三井銀行筆頭常務の池田にとってもテロから身を守るために、細心の注意が図られたのである。

## 2. 筆頭常務理事就任

大正 3 (1914) 年、シーメンス事件によって大番頭の益田孝が辞任した後、彼の推薦を受け、鉱山の團琢磨が三井合名の理事長に就任した。三井合名における意思決定の最高機関は、形式上社員総会であったが、事業経営については、实际上理事会が全面的な委任を受けていた。三井合名社長（三井八郎右衛門高棟）は重要事項について報告を受ける程度であった。そしてこの高棟一団の名コンビが三井各家を完全に押さえ、また三井各社を完全に押さえていたのである<sup>4</sup>。

それゆえ団の亡き後、彼に代わるような人材が求められたが、簡単には決まらなかった。当初、団を補佐する常務理事としては有賀長文・福井菊三郎の二人がいたが、両者とも「時代の激動期にあって事業経営に対する決断力や実行力に欠け、加えて両者の実力は互角であるため、事を決するに適切でなかった」ため、結論的に「三井の大番頭になる人材ではなかった」と言われている<sup>5</sup>。

そこで有賀・福井の常務理事を補佐すべく銀行の池田成彬、物産の安川雄之助、鉱山の牧田環、信託の米山梅吉の 4 理事が登用され、6 名の合議制が実施されることになった。しかし三井財閥を取り巻く当時の厳しい政治的・経済的・社会的情勢の中で

<sup>3</sup> 後日、池田はこの時の「ドル買い事件」時の対応について、「弁解というものはいくらあとからやっても駄目なものですね」と述懐している（柳沢健編『池田成彬・財界回顧』図書出版社、1990 年、136 頁）。

<sup>4</sup> 杉山和雄「池田成彬 転換期における財閥の改革者」（森川英正・中村青志・前田和利・杉山和雄・石川健次郎『日本の企業家（3）昭和篇』有斐閣新書、1978 年、所収）147—148 頁。

<sup>5</sup> 同上論文、148—149 頁。

俊敏かつ効果的に対応していくためには、合議制よりも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を持つ大番頭こそが求められた。平時ではなく、まさに有事において通用する能力を持った人材が求められたのである、危機的状況の中で三井を根本的に改革する必要性を認識し、この重責に値する人間として池田が推されたのである。池田は昭和 8 (1933) 年 9 月三井合名の筆頭常務理事に就任するが、この時も益田孝の強い意向が働いていたと言われる<sup>6</sup>。この点について白崎秀雄は、団琢磨の死後池田新体制が確立するまでに一年半という時間が経過していることに注目し、新体制の誕生自体円滑には運ばなかつたこと、それはまた「益田孝でなければ到底なしえなかつたはたらき」によるものであったと指摘している<sup>7</sup>。

顧問格の益田が認識するところ、この新体制人事は三井財閥の生死を決定づけるほどの意味を持っており、それゆえ「三井家の主人たちに平身低頭して、ご機嫌をうかがふ」といった従来の番頭に全三井の統率者の器を持った人物を見いださなかった。むしろ「三井家の主人たちや三井部内のかなり多くの者が、あるときは危ぶみ、あるいはいささか不快とした池田の新しい考へ方やその頑固をこそ、この際不可欠」と見たのである<sup>8</sup>。こうして意を決した益田は、三井本館、三井八郎右衛門邸、池田成彬別邸を幾度となく往復し、三井家の主人たちと池田自身の説得工作に出たのである。この「池田首班工作」<sup>9</sup>の結果、ついに池田は銀行を離れて三井合名専任の常務理事に就任したのである。形式的には三井合名には有賀、福井に加えて池田の三人の常務理事体制が成立（理事長職は団の死後事実上廃止）したが、実質は今まで述べてきた通りで、池田こそが三井の最高意思決定権者となったわけである。当時の経緯について、池田自身、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団さんがおった時は団さんが理事長で、有賀、福井の両常務理事と三人で合議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たが、実際は団さんに二人が使われておったものらしい。ところが団さんが死んだとなると、二人は互角で何事も決まらない。動きが取れなくなってきたので、はじめは、重要なことは私にも仲間になって相談に乗ってくれという話でした。それから時々相談に乗ったことがある。そのうちに主人から、どうもただ相談に乗っただけではないかんから、お前もきて一緒にやってくれという話があった。けれども私は考えてね。二人の間へ入って妙なことになってもいかん、——こう思って断ったのですが、一年ばかり縁ってから主人の方で、どうしてもきてくれというのです。ちょうどそれが

<sup>6</sup> 同上論文、151 頁。

<sup>7</sup> 白崎秀雄『鈍翁・益田孝』下巻、新潮社、1981 年、144 頁。

<sup>8</sup> 同上書、146 頁。

<sup>9</sup> 同上書、146—150 頁。

満州事変などで世の中がやかましくなって、財閥に対する風当たりがひどくなってきた時で、それから一年延ばしたが、とうとう昭和八年の秋には、もうどうしてもきてくれなければ困るということで、止むを得ずいったのです<sup>10</sup>。

このように三井家の主人からも強い要請があり、池田は筆頭常務理事に就任したわけだが、これに先立ち、惣領家においても主人の交代が行われた。昭和 8 (1933) 年 3 月、第 10 代の三井家当主・三井八郎右衛門高棟が家督を嗣子高公に譲り、三井同族会議長と三井合名会社社長を辞したのである。これにより「高棟一団」に代わって、主人一大番頭の新しいコンビとして「高公—池田」体制が成立することとなった。なおこの「高公—池田」体制誕生の背景にはやはり顧問格の益田孝の影響力があったと言われている<sup>11</sup>。

### 3. 財閥觀と銀行觀

さて、こうした非常事態の中で三井合名の筆頭常務に就任した池田は、どのような価値観を持って三井防衛政策を実施していったのであろうか。後述するように、池田による財閥「転向」政策はかなりの広範な内容を含んでいるが、それは非常時におけるその場凌ぎの急挙えの政策であったとは考えられない。彼自身が財閥や銀行に関し以前から一定の価値観を持っており、それが上述の非常事態の中で具体化されたと見るべきであろう。そこでまず、池田の財閥觀と銀行觀について、その特徴を見てみたい。

銀行の最高責任者であった昭和 4 (1929) 年、池田は夫人を伴って 10 カ月あまり欧米旅行を行っている。今村武雄は『池田成彬伝』の中でこの点に關し次のように言及している。

ところで、この一見くつたくのなさそうな漫遊の間中、池田の脳裏を去らず、つねに解決を求めてやまぬ難問があった。それは、一財閥の機關としての三井銀行を将来もそのままの形で存続させるべきかということ、さらに根本にさかのぼれば、三井財閥というものをどういう性格のものとして存続させるべきかという問題であった。

後日、五・一五事件、二・二六事件に直面して、池田が全力を尽して取組まねばならなかつた大仕事の構想は、この時の漫遊中に、なん度もなん度も心のうちで練り返されていた。

<sup>10</sup> 柳沢健編、前掲書、154—155 頁。

<sup>11</sup> 杉山和雄、前掲論文、152 頁。

もちろん、銀行の仕事の必要上からでもあったが、ロンドンでは、ミッドランド銀行のマッケンナ、ニューヨークではラモント、ヤングらと会談して、腹藏のない意見を交換したことが、池田にとっては大きな収穫であった。「私はベルリン、ロンドン、パリ、ニューヨークと主たる所を渡り歩いたが、政治家には会わないというたてまえだから、だれにも会わない。しかし銀行家にはことごとく会っておる」と語った通りである。また、この欧米金融界巨頭との会談は、後日、銀行業務の上で、どのくらいいたすけになつたか知れないけれども、それにもまして、三井銀行の「転向」をみずから指揮する池田の決意を次第に固いものとさせた。・・・(中略)・・・ 外遊から帰った池田の口からは「三井銀行などは、だれかに經營させた方がいいでしょう。財閥というものは、自分の持っている金を上手に投資すればよいので、事業の經營などに深く立ち入るべきではないのです。欧米の財閥のやり方を見ても、必要以上の株式などは持っていない。その点、日本の財閥は十分考えねばいけません」という言葉を聞いたとき、三井家の人々は意外に思ったかもしれないが、池田の腹はほぼきまっていたとみなければならない<sup>12</sup>。

今村のこの指摘にも明らかのように、欧米先進諸国の実態から多くの刺激を受け、池田の脳裏には財閥の根本的あり方についての一つの価値観、すなわち従来の財閥に対する根本的な変革の必要性という課題が形成されてきたのである。

それに関し、池田は後に「財閥の事業、特に銀行業の将来」なる文章を著している。今村は「執筆の時期は昭和七年夏ごろと推定される」<sup>13</sup>と述べているが、この年が血盟団事件の年であり、三井にとっての非常事態の年であった。ここでその概略を示したい。まず冒頭において、次のように今までの日本経済の発展における財閥の貢献を指摘している。

日本の所謂財閥なるものの関係する事業の範囲は頗る広汎であり又複雑である。工業、商業、金融、保険其他多岐多様に涉て居る。又過去に於て財閥が日本の産業に寄与して居る功績も多大であると余は信する。未だ発展せざる産業界に在りて資本を供給し養成せる人材を供給して將に倒壊せんとしたる産業を支持して回復に導き或は大資本に非れば到底成立の望みなき事業を完成して遂に日本が世界の経済戦場に進出して優勝の地位を占むるに至りたる今日の基礎を築き上げたる財閥の功績は見のがすべからざる事実である<sup>14</sup>。

<sup>12</sup> 今村武雄『池田成彬伝』慶應通信、1962年、185—187頁。

<sup>13</sup> 同上書、213頁。

<sup>14</sup> 同上書、216頁。

しかし現状については注意すべき点もあるとし、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財閥も自己の財的優越の力に依り自己の信念を以て事業を經營して今日の大をなし其間一点の疚しき処なきは勿論なるが社会四團の状勢今日の如きを見ては徒らに晏如たるを得ざるのみあらず自己の立場に就いても再思三考するの必要があると思ふ。・・・

(中略)・・・又財閥が事業の經營に大發達を遂げたる結果として其經營方法が自から独占的となり独擅的となり知らず知らずの間に他の財的的に恵まれざる事業經營者を圧倒し又共存共榮であらねばならぬ社会民衆の利害休戚に关心を持たぬかの如き誤解を受けつつある現状に対して特に注意を必要とするのである<sup>15</sup>。

そして本論たるべき、財閥の方向性について、次の2点を指摘している。

財閥は先以て其恵まれたる財的優越の力を財的的に恵まれざる面々の行き難き方面に向け邁進すべきである。即ち小資本の容易に着手し經營し得る事業より可成手を引き大資本に非れば到底着手し經營を完成し得ざる国家的事業に主力を向けることである。・・・(中略)・・・

次に財閥の事業独占は不可である。又独擅的支配は無益であり又財閥に取りても必要なきものと余は信ずる。・・・(中略)・・・財閥は独占または独擅的支配下に在る既成の事業を漸次開放して社会民衆と共に其福利を共有するの覚悟を必要とし而して其余力を以て普通人の容易に着手し難き前述の国家的事業に邁進し體て其事業が成功して有利の域に達したる時亦之れを社会民衆との共有に移すのである。斯くして始めて財閥なる者は國家産業の上に於て有用欠くべからざる機関となるのであり財閥の利害と社会民衆との休戚と背反せざ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sup>16</sup>。

こうして、つとめて産業の独占状態を避けると同時に、大資本であるがゆえに進出できる分野に積極的に事業展開を図ることこそが、財閥に必要だと言及している。統いて銀行に関しても、その理想とするところを次のように示し、全体の文章を結んでいる。

・・・財閥の支配し居る銀行は最近數年間に在りて預金貸金其他の数字に於て異常の発達をなし隨て巨額の資力を其掌中に收むることとなり一挙手一投足産業に対する影響

<sup>15</sup> 同上書、217頁。

<sup>16</sup> 同上書、217-218頁。

甚大となり・・・(中略)・・・其資力が他人の預金が主であり自己資本が従である事実に鑑みる時は最早財閥少数人の独占又は独擅的支配に置くの不適当なるを思わざるを得ぬのである。宜しく英國五大銀行の如く孰れの財閥にも隸属せず孰れの少數株主の支配下にも属せず不羈独立にして権力情実の拘束を受けざる自然団体となり國家産業の発達のみに貢献すべきを以て使命とするを以て理想とすべきである<sup>17</sup>。

#### 4. 三井防衛政策

昭和 8 (1933) 年の三井合名筆頭常務理事就任後、池田成彬はいわゆる財閥「転向」政策に着手した。それは池田に与えられた任務が「時局対策といふか、財閥としてどういう対策をするのかといふこと」であつて、「どうすれば儲かるとか、どうしたら損をせぬかという商売の話はもうほとんど問題でなかった」からである。「財閥といふ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して当時の荒波から防ぐかといふこと」こそが彼の最大の課題であった。

三井合名に入った当初の様子を、池田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中に入つてみると、三井は十一家であるのですが、持株の数は違うけれども、その十一家にはやかましい人もおり、口を出す人があつて、そのまとめ役といふものは一通りではない。私はあとで「合名にいってから、私の時間なり、エナジーなりの七、八割まではその方に使い、あの二、三割だけが本当の合名の仕事に向けられた」と述懐しましたが、まったくその通りで、甲のいう方に決めようと思うと乙が何とかかんといふ、乙のいうことに決めようとすると丙が何とかかんといふ。朝から晩までそのまとめ役で手一杯です。団さんも晩年は気の毒なほど苦しんだものです。というのは決めるのに暇がかかって、また決めたことを実行する点において、十一家の主人が銘々勝手なことをいうので大変でした<sup>18</sup>。

さすがの池田にとっても、合名専任となることで三井同族内部の意見調整をするにあたってはかなりのエネルギーの消耗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では次に、池田による具体的な三井防衛政策を見てみる。

第 1 は、昭和 9 (1934) 年 1 月から 2 月にかけての同族の社長引退である。前年 4 月に三井同族社長の交代、すなわち第 10 代当主・三井八郎右衛門高棟が引退し第 11 代三井高公が就任したことは既に述べた。三井の直系会社の中でも三井銀行、三井物産、三井鉱山の社長にはそれぞれ三井源右衛門、三井守之助、三井元之助が就いてい

<sup>17</sup> 同上書、219 頁。

<sup>18</sup> 柳沢健編、前掲書、155 頁。

た。しかし彼らはあくまでも象徴としての存在に過ぎなく、実際上の経営は専門経営者である菊本直次郎（銀行）、南条金雄（物産）、中井四郎（鉱山）らに委ねられていた。池田はこうした状況に批判的で、結局以下のように苦労して主人たちの引退を実現している。

……「物産や鉱山の会長、社長に三井の主人がなっているのはいかん。主人が実際仕事をしておるならいいが、仕事はしないで名前だけじやいかん。実際仕事をしておる人を会長、社長にすべきだ。主人は引っ込みなさい」——こういいましたら、その時は三井に対する風当たりが強くなつておった時だから、ほかの主人連は怖がつて結構だと承諾したが、三井高修という人はちょっと変わっておる人で、何といつても聞かない。「こういう時にこそ三井の主人がかえつて第一線に出て働くのが国家のためになる」と、なるほど理屈としては「それは間違つておる」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ことをいい出したものです。この人を説得するのに三日かかりました。それで全部社長を辞めて貰い実際働いておる人をそれに代えました<sup>19</sup>。

三井防衛政策の第2は、昭和9（1934）年4月の財団法人三井報恩会の設置である。三井家は明治期から様々な形社会事業として寄付行為を行つてきた。しかし池田はより大規模にこれを進めるべく、三井合名が寄付する3000万円（三井合名の公称資本金の一割に相当）を基礎に三井報恩会を作つたのであった。この3000万円という資金準備は三井にとっても大事業であり、持ち株を処分して1000万円を作り、残り2000万円は三井銀行新株20万株（時価1700万円）、三井信託新株5万株（同300万円）を充てる有様であったという<sup>20</sup>。池田の述懐するところでは、次のようにここでも三井家の抵抗はあったようである。

内部でも議論はありましたよ。三井家が第一反対でした。普通利息でやるか？そんなことでは何もできない。元金を食つてもいい。元金が無くなつたら補充する、というふうに徹底的に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ったので、議論になりました。しかしどう私等のいった通りになりました<sup>21</sup>。

結局池田の主張が通り、三井報恩会は100万円でラジウム5gを購入して癌研究所へ寄付するなど、多方面の事業を実施した<sup>22</sup>。しかしこうした三井側に努力に対して、

<sup>19</sup> 同上書、156頁。

<sup>20</sup> 杉山和雄、前掲論文、160頁。

<sup>21</sup> 柳沢健編、前掲書、113頁、及び156頁。

三井に批判的なマスコミなどからは、それを評価するどころかその程度は当然といったコメントが出されていたのも事実である。

三井防衛政策の第3は、三井の持ち株の公開である。三井報恩会の設立のため、三井合名は3000万円という巨額の資金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が、その際行われたのが三井合名が所有する関係会社の株式売却であった。その内訳を簡単に見てみると次のようであつた<sup>23</sup>。

昭和8(1933)年

王子製紙株式 14万1000株 → 1182万9000円

北海道炭礦汽船株式 6000株 → 37万2300円

昭和9(1934)年

合計 19万8840株 → 879万6262円

(内訳) 三井銀行株式 5000株、東京電燈株式 3万1415株、

小野田セメント株式 5万4000株、台灣電力株式 7425株、

北樺太鉱業株式 1000株、北海道炭礦汽船株式 10万株

一連の株式売却は資金調達という現実的かつ具体的目的があつたが、より本質的な価値観として、池田の頭の中には、一つの財閥による産業の独占的支配を否定する考えがあつたこ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ろう。池田が三井銀行時代の大正8(1919)年、三井銀行は資本金を2000万円から一挙に1億円へと増資したが、その際増資分(80万株)の内37.5%相当の30万株を公開している。既にこの時に池田の理念が実行されていると見られるが、従来同族以外の出資を拒絶してきた三井にとってまさに「画期的な改革」の始まりになるものであつた<sup>24</sup>。こうした路線の延長線上に、三井合名の持ち株公開、さらには同年の直系会社の持ち株公開が位置づけられる。三井物産の

<sup>22</sup> 『東京朝日新聞』昭和9(1934)年6月25日(夕刊)では、三井報恩会の援助募集に対し各方面からの援助申し込みが殺到し、大変な盛況である様子が伝えられている。

<sup>23</sup> 杉山和雄、前掲論文、161—162頁。

<sup>24</sup> この時の増資に関し『三井銀行八十年史』には次のような記述が見られる。「……当行株式の一部を公開したことは、従来外部からの資本参加を認めずにきた三井にとって、画期的な改革を意味するものであり、『銀行というものが単なる三井家の所有物になつてゐるのがいかん、又三井家が銀行を所有し、全責任をもつことが、三井家の利益でもない』という池田常務の意見に出て、三井高保社長ならびに団琢磨三井合名理事長の支持と、三井八郎右衛門(高棟)三井合名社長の同意によって、実現をみるにいたつのである。……」(『三井銀行八十年史』三井銀行、1957年、209—210頁)

池田自身の言葉を借りれば、増資の理由の一つは「従来三井銀行は三井一家並に其縁故者の株式会社なりしが、社会の進運に伴ひ且つ歐州先進国の銀行組織変遷の例に倣ひ、今回其株式の一部を公募し、以て社会公衆と提携協力し、事業を堅実にし、其基礎を鞏固にし、益々斯業の発達を期せんとするに在り」ということであった(同上書、210頁)。

東洋レーヨン会社新株 33 万株売却、三井鉱山の東洋高圧工業約 20 万株売却・三池塩素工業約 10 万株売却などがそれであった。これらも、三井 11 家からの強い反対を押し切っての実現であったという<sup>25</sup>。

三井防衛政策の第 4 は、三井物産常務・安川雄之助の解任である。「剃刀安」と呼ばれた安川は、商売が趣味と言うほどの徹底的な経済合理主義者で、「物産の安川か、安川の物産か」と言われるほどの天才的商社マンであった。しかし彼の行動は経済的には全く合理的であっても社会からは強烈な道徳的非難を受けていた。商売のためならどんな方法も辞さないとか、三井物産という巨大資本が中小商業者の利益を侵害しているといった当時の反三井感情は、まさに安川のパフォーマンスに因るところが大であった。そこで池田が三井物産のイメージ転換のため、次のように、ついに安川解任へ出たのである。

安川を辞めさせなければならぬといい出したのは私なのです。……安川は、はじめはうんといつたのですが、どういうものか途中で気が変わって嫌だといい出した。そうすると第一に三井守之助さんが、どうも可愛そうだなどといい始め、益田さんも同じように反対の態度を探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これには困りました。……私は「三井がいくらほかのことを改革しても、安川が物産の仕事をああいうやり方をしていては、いつまで経っても三井は、世間からとやかくいわれます。だから早く安川を辞めさせなければ……」と、高公君にいったところ、高公君も「自分もそう思う」という返事。益田さんや守之助さんはぐらぐらしたが、高公君は最後まで変えなかった。私は今でも感心しているのです。とにかく主人が駄目だというのだから仕方がない。安川も辞めた<sup>26</sup>。

三井防衛政策の第 5 は、重役の停年制実施である。二・二六事件の 2 ヶ月後、昭和 11 (1936) 年 4 月 17 日、三井合名の臨時総会で次のような定年制実施が決議された。

- ・筆頭常務理事、参与理事の停年は満 65 歳。
- ・常務理事、理事の停年は満 60 歳。ただし業務上特に必要ある時は、期間を限り留任を認める。
- ・使用人（重役以外の社員、職員）の停年は満 55 歳。特例は（2）に同じ。
- ・停年制は三井合名のほか三井銀行、三井物産、三井鉱山、東神倉庫、三井信託、三井生命の 6 社に適用する。ただし部外よりの重役を除く。
- ・停年制は昭和 11 年 5 月 1 日より実施する。

そしてその 5 月 1 日、69 歳の池田が先頭を切って停年制を適用し、三井合名から

<sup>25</sup> 杉山和雄、前掲論文、163 頁。

<sup>26</sup> 柳沢健編、前掲書、115 頁。

退任するに至った。池田以外でも米山（参与理事）、牧田（同）、広島（理事）らが停年退職し、有賀（相談役）、福井（同）が自発的に退任した。さらに各直系会社でも首脳部の大幅交替が進んだ。池田は当時を次のように振り返っている。

二・二六事件のあとに私は、三井の風当たり——ことに私にとって、それが強いということがわかった。で、三井においてはいけないと思ったので、辞めたいと三井高公君に申し出た。すると高公さんは「それは仕方がないが、あとはどうするか」ときくのです。その時分は安川はいないけれども、米山がおり、牧田がおり、物産は南条。「どうしてもああいう元老がおっては、私は一人でやっていけませんよ」と高公さんはいうのです。「それをどう考えてくれるか？」というわけです。それで私は、「それなら、三井はこの二・二六を転機として政策の転換を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老人が辞めるということも一つの転換で、若い者を先に出す。それには停年制よりほかにない。停年をやろうじゃありませんか。そして私は退きましょう」とこういったのです。それで高公さんが承知して、私は停年制を実行することにしたのですが、なかには、びっくりして悪口をいうものもおったようです。自分が一人で辞めるのがいやだから、他の人まで引張って出たと言ってね<sup>27</sup>。

#### IV. むすび

本稿では、ファシズムや右翼の台頭という危機的状況の中で三井財閥の防衛政策を主導した大番頭・池田成彬について、彼の専門経営者としての多方面に及ぶ実績を分析してきた。むすびとして最後に、彼を支えた独特な価値観について言及しておきたい。

結論的に言うと、池田は専門経営者でありながら一財閥の経営者に止まらず、日本財界を代表する器をもった人物であったと言える。そしてそれを形成した価値観は基本的に次の2つの要因、すなわち彼に影響を与えた人物としての中上川彦次郎の存在と、留学・視察を含めて欧米の先進国に学んだことがあげられよう。そしてそれらは経済的合理性の追求という点において一致するのである。

本稿では触れなかったが、福沢諭吉門下生として慶應義塾に学んだ後、池田は米国ハーバード大学で経済学を学んでいる。帰朝後中上川に注目されて三井銀行に入行したが、そこでいわゆる「中上川改革」に自らも関わることで多くを学ぶと同時に、彼の長女を妻に迎えるに至る。三井銀行時代、彼は銀行本店の中枢部分で働く一方、31

<sup>27</sup> 今村武雄、前掲書、250—251頁。原文は『故人今人』

歳の時に 1 年 3 ヶ月の間先進国の銀行制度を学びに欧米に出張している。また 62 歳の時には、夫人同伴の 10 ヶ月間の欧米旅行を行っている。本稿でも触れたように、こうした欧米での貴重な経験はその後の池田の財閥観や銀行観を形成する糧となつていったのである。

日本財界の中心とも言うべき三井財閥の、さらにその中枢である三井銀行での経験の蓄積は、池田のもつ当時としては異端的にすら見える独特な財閥観・銀行観と相俟って、昭和初期以降の非常時における「切り札」として池田の登場を招來したのである。

池田がたびたび語っていたように、銀行専任から離れて三井合名専任となり、三井全体の舵取りをするようになってからは、三井家主人対策こそが最も骨の折れる仕事だった。それでも池田がこうした諸政策を実行できたのは、若き当主・第 11 代三井八郎右衛門高公という総領家の、池田への絶対的信頼があったからこそ可能であった。益田孝や団琢磨といった旧世代の番頭たちと違って、池田こそは三井防衛のために三井家主人たちと最も多くの摩擦を経験した人物であったと言えよう。

池田の価値観には、単に三井家の利益擁護には止まらない、困難な日本経済の中にあって財閥とはどうあるべきか、銀行はどうあるべきかという本質的問題が常に根底に横たわっていたのであり、そうした価値観を盛った器の大きさゆえ、池田は三井を引退した後も日銀総裁や大蔵大臣兼商工大臣といった重責に就いたのである。かつて土屋喬雄は、池田が没した昭和 25 (1950) 年 10 月の新聞に「渋沢栄一亡き後の財界の最高指導者は池田であった」といった論旨の記事が多数登場したと述べると同時に、「いずれにしても、中上川彦次郎以後において三井財閥の第一人者たるものとしては、池田成彬を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と指摘している<sup>28</sup>。

池田の約 40 年に及ぶの三井生活の中で、合名筆頭常務理事時代の約 3 年間とは、以上のような意味での極めて濃縮した時代であったと結論づけられる。

<sup>28</sup> 土屋喬雄『財閥を築いた人々』弘文堂、1955 年、50 頁。

## 参考文献

- ・『三井銀行八十年史』三井銀行、1957年。
- ・『三井銀行100年のあゆみ』三井銀行、1976年。
- ・持株会社整理委員会編『日本財閥とその解体』1951年。
- ・土屋喬雄『財閥を築いた人々』弘文堂、1955年。
- ・今村武雄『池田成彬伝』慶應通信、1962年。
- ・大河内一男・大宅杜一監修『近代日本を創った百人』毎日新聞社、1965年。
- ・星野靖之助『三井百年』鹿島研究所出版会、1968年。
- ・森川英正・中村青志・前田和利・杉山和雄・石川健次郎『日本の企業家（3）昭和篇』有斐閣新書、1978年。
- ・梅井義雄『日本資本主義の群像』教育社歴史新書、1980年。
- ・白崎秀雄『鈍翁・益田孝』新潮社、1981年。
- ・梅井義雄『三井財閥史 大正・昭和編』教育社歴史新書、1985年。
- ・江戸英雄『私の三井昭和史』東洋経済新報社、1986年。
- ・柳沢健編『池田成彬・財界回顧』図書出版社、1990年。
- ・武田晴人『財閥の時代』新曜社、1995年。

## 池田成彬年譜

1867 (慶應3)	米沢藩士池田成章の長男として生まれる。
1886 (明治19) 19歳	慶應義塾別科入学。
1890 (明治23) 23歳	慶應義塾大学経済学部入学。ハーバード大学留学。
1895 (明治28) 28歳	ハーバード大学卒業。時事新報入社→退社。三井銀行入行（四等手代、調査係）。
1896 (明治29) 29歳	大阪支店転勤。
1897 (明治30) 30歳	足利支店長。
1898 (明治31) 31歳	欧米出張（1年3ヶ月）。ニューヨーク・パリ・ロンドンの銀行制度を視察。
1900 (明治33) 33歳	本店営業部次長。
1901 (明治34) 34歳	中上川彦次郎（三井合名専務理事）長女・艶と結婚。中上川死去。
1904 (明治37) 37歳	営業部長。

- 1909 (明治 42) 42 歳 三井銀行の株式会社化 (資本金 2000 万円)。常務取締役。
- 1917 (大正 6) 50 歳 上海支店設置。
- 1919 (大正 8) 52 歳 筆頭常務。三井銀行 1 億円に増資。株式公開のため同族の説得に努力 (三井合名資本金 2 億円、三井物産資本金 1 億円)。
- 1922 (大正 11) 55 歳 ニューヨーク支店設置。
- 1923 (大正 12) 56 歳 ロンドン、ポンペイ支店設置。関東大震災により三井本館焼失。東京手形交換所理事長。
- 1925 (大正 14) 58 歳 高田商会貸付事件。貸付打ち切り宣言→倒産。
- 1926 (大正 15=昭和元) 59 歳 鈴木商店の不良貸付整理。
- 1927 (昭和 2) 60 歳 台湾銀行コール 3000 万円を一挙回収。昭和恐慌。
- 1928 (昭和 3) 61 歳 東京電燈債の英米起債成功。
- 1929 (昭和 4) 62 歳 夫人同伴の歐米旅行 (10 ヶ月間)。
- 1931 (昭和 6) 64 歳 金解禁実施 (前年 1 月) →三井銀行の「ドル買い」事件。身辺警護強化。
- 1932 (昭和 7) 65 歳 血盟団事件、男爵团琢磨 (三井合名理事長) ら暗殺→世相陥悪化。三井合名理事。
- 1933 (昭和 8) 66 歳 三井合名常務理事。三井報恩会設置。
- 1934 (昭和 9) 67 歳 安川雄之助、三井物産筆頭常務解任。
- 1935 (昭和 10) 68 歳 胆石病のため療養。
- 1936 (昭和 11) 69 歳 停年制実施。自らも辞任 (三井からの完全引退)。全公職辞任。
- 1937 (昭和 12) 70 歳 日本銀行総裁 (5 ヶ月間)。内閣参議。
- 1938 (昭和 13) 71 歳 大蔵大臣兼商工大臣 (6 ヶ月間、第 1 次近衛内閣)。
- 1941 (昭和 16) 74 歳 枢密顧問官。
- 1945 (昭和 20) 78 歳 敗戦。財閥解体案決定。A 級戦犯容疑者第 3 次指定 (6 ヶ月後指定解除)。
- 1950 (昭和 25) 83 歳 腸潰瘍により、死去。

(出所) 今村武雄『池田成彬伝』慶應通信、1962 年、405-416 頁より作成。

## 三井財閥에 있어서의 番頭徑營에 대하여 －池田成彬에 의한 三井防衛政策을 중심으로－

慶應義塾大學 柳町 功(야나기마치 이사오)

1930년대 군국주의시대에 있어서 일본 최대 재벌인 三井(미쓰이)는 소위 轉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군부나 우익세력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 당시 三井을 이끌어온 최고 책임자가 바로 池田成彬(이케다 세이힌 : 1867~1950)였으며 그는 미쓰이 주인들로부터 전면적인 경영위탁을 받은 전문경영자였다.

원래 미쓰이에서는 소유자인 주인은 승진에 불과하며 실제 경영은 番頭(반토)라고 불려져 온 전문경영자가 담당해 왔다. 대표적인 番頭로서는 三野村利左衛門(미노무라 리자에몬 : 1821~1886), 益田孝(마스다 다카시 : 1848~1938), 中上川彦次郎(나카미가와 히코지로 : 1854~1901), 団琢磨(단 다꾸마 : 1858~1932)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미쓰이 주인들의 이해(利害) 즉 미쓰이 전체 재산의 유지와 보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1930년대초 그 당시 일본 경제는 상당히 심한 불황 속에 있었고 커져가는 국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불만은 거대재벌 특히 최대재벌인 미쓰이에 향하여 폭발한 것이다. 1932년 三井合名会社 团琢磨理事長(총수)이 암살당하고 미쓰이는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이 때 고문역였던 益田孝는 미쓰이 주인들의 자문을 받아 三井銀行 상무였던 池田成彬를 미쓰이 합명회사 상무이사로 추천하는 한편, 미쓰이 11家の 本家에 있어서도 세대교체, 즉 三井高棟(미쓰이 타카미네)의 은퇴와 아들인 三井高公(미쓰이 타카끼미)의 취임을 기도한 것이다. 이 결과 새로운 主人－番頭관계인 高公－池田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미쓰이의 최고 책임자가 된 池田는 재벌이나 은행에 대하여 독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철학에 따라 미쓰이의 대수술을 강행한 것이다. 한 재벌의 산업독점과 은행지배를 부정한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선한 가치관이었다. 특히 池田의 경우 미국 하바드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시절에도 두 번이나 구미시찰에 갔다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선진국에서 배운 것은 池田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池田成彬에 의한 三井防衛政策은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주요 내용이었다.

(1) 銀行, 物產, 鉱山 등 주력기업부터의 미쓰이 주인들의 사장 은퇴

- (2) 기부나 사회사업을 하는 三井報恩會를 설치
- (3) 미쓰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공개
- (4) 미쓰이비난의 대사였던 三井物產 安川雄之助(야스카와 유노스케)의 해임
- (5) 중역들에 대한 停年制 실시와 池田의 은퇴

이들 정책들은 상당히 획기적이었으며 재벌의 기본특징을 부정할 정도의 힘과 충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주식공개는 외부자본의 조달이란 목적 이외에 미쓰이의 산업 및 은행지배를 부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정책들이 발표될 때까지는 미쓰이 주인들의 저항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池田은 자기 힘의 70~80%를 주인들의 설득과 내부조정에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池田이야말로 미쓰이 방위를 위하여 미쓰이 주인들과 가장 많이 마찰을 발생시킨 番頭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中國國有企業改革與發展的曆程與前景

### Reforming Process and 21st Century Perspective of Chinese National Enterprises

劉 建 民\*

#### 目 次

- |                       |                       |
|-----------------------|-----------------------|
| I. 中國國有企業改革的簡要過程      | V. 21世紀中國國有企業改革與發展的展望 |
| II. 總評中國國有企業改革總體思路的評價 | 1. 改善宏觀環境方面           |
| III. 國有企業的現狀與問題       | 2. 調整國有經濟戰略布局         |
| IV. 國有企業發展困難的主要原因     | 3. 強化國有企業的改組與改革       |
| VI. 結論                |                       |

本文共六個部分，一二部分分別對國有企業改革的過程和總體思路作了回顧和評價；三四部分分析了國有企業的現狀及其主要原因；第五部分對21世紀國企改革與發展作了展望，最後是結論部分。

#### I. 中國國有企業改革的簡要過程

1978年以前，中國實際上一直在執行“低效率，高就業；低工資，高補貼；低消費，高積累”的政策，在較短的時間內建立了比較完整的國民經濟體系，國有經濟在社會生活中占絕對的統治地位。

在傳統計劃經濟體制下，國有企業的商業性質得不到承認，只起着“生產車間”的作用。這種經營和管理方式導致國有企業效率低下，沒有發展的動力，結果國有經濟的狀況越來越糟，國民經濟得不到健康發展。

中共十一屆三中全會後，經濟建設重新成為國家生活的中心。經濟體制改革被提上了議事日程，國有企業改革也拉開了帷幕。

回顧國有企業改革的曆程，可以把它劃分為四個階段：

\* 中國北京大學 /工商管理學部教授

第一階段，從1978年底到1983年，改革的核心內容是“放權讓利”，目的是擴大國有企業經營自主權，調動國有企業積極性。

第二階段，從1983年到1987年，核心內容是“利改稅”，同時進行“撥改貸”，從而規範政府和國有企業的利益分配關係，並調整它們之間的投資、融資關係。

第三階段，從1987年到1992年，核心內容是推行“承包經營責任制”。1998年，80%以上的國有大中型工業企業都實行了“承包制”。全國共推行了兩輪承包，每一輪承包期為3年。由於問題很多，1992年不再提倡大規模推行承包制。

第四階段，從1992年起，以鄧小平“南巡講話”為動員，中共“十四大”為標志，國有企業改革進入了一個全新的階段。突出的特點是：按照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目標要求，建立適應市場經濟要求的“產權明晰，責權明確，政企分開，管理科學”的現代企業制度，把國有企業塑造成“自主經營，自負盈虧，自我約束，自我發展”的獨立的法人實體和競爭主體。

1992年，中國開始在國有企業中進行股份制，公司制的試點與推廣。

1994年，在國家經濟貿易委員會的主持下，開始在10000多戶國有大中型企業中進行清產核資；向1000多戶國有大中型骨干企業委派監事會監督國有資產；選擇100多戶大型骨干企業進行建設現代企業制度的試點；選擇18個城市進行企業“優化資本結構”試點，把國有企業改革從內部轉向與外部環境相結合的綜合配套改革。

1994年，國務院同意中國石油化學工業總公司等三個全國性行業總公司進行國家控股公司試點。上海等地的一些政府行業主管部門被改組為行業性國有資產管理經營公司。

1996年，又出台了一批新的改革措施：“優化資本結構”試點城市擴大到50個；加大國有企業兼并破產力度，同時安排國有商業銀行損失沖銷準備金200億人民幣；積極推進“撥改貸”資金本息轉為國家資本金的工作（即“貸改投”），並選擇幾個試點城市探索處理銀行不良貸款的方法：“抓大放小”，集中抓好1000戶國有重點企業，出台了抓好首批300戶的政策措施。等等。

目前的國有企業改革正處於這個階段。

## II. 關於國有企業改革總體思路的評價

前三個改革階段基本上屬於“放權讓利”的改革思路，具有很大的局限性。現代企業制度的改革試點活動也有不盡人意的地方。

以“讓利放權，搞活企業”為基本方向的初步企業改革雖然改變了國有企業的外部環境和內部行為方式，但也產生了一些問題。首先，對計劃和市場的雙重依賴，阻礙了

國有企業成為真正的市場主體的進程，其次，國有企業經營者控制權的強化和所有者缺位，導致激勵與約束不對稱，從而出現了“內部人控制”等問題，第三，企業利益目標向“內部人”傾斜。

中共中央十四屆三中全會提出，國有企業改革的目標是建立現代企業制度，基本特徵是“產權明晰，責權明確，政企分開，管理科學”，其中“產權明晰”是基本前提。

1994年頒布的《公司法》規定了股份有限公司，有限責任公司和國有獨資公司三種形式，為以公司制為核心的現代企業制度提供了法律框架。

現實中，國家選擇進行現代企業制度試點的100家國有大型企業的97%，都選取了國有獨資公司的形式，並享有政府授予的“代行出資者權利”，對本公司占有的國有資產享有收益權，重大決策權和經營者選擇權。在這種模式下，國有企業雖然組建了公司並依法享有法人財產權，建立了法人治理結構，但由於產權結構沒有受到觸動，企業仍然難以實現政企分開。

### III. 國有企業的現狀與問題

自改革開放以來，國有企業管理體制和經營機制發生了深刻的變化。在公有制為主體，多種所有制經濟共同發展的新格局下，國有經濟的總體實力進一步增強，在國民經濟中繼續發揮着主導作用，一直是財政收入的主要來源。

1997年，中共中央和國務院提出了國有企業改革的近期目標，即用三年左右的時間，使大多數國有大中型虧損企業擺脫困境，大多數國有大中型骨干企業建立起現代企業制度。

1998年是實現三年目標的第一年，遭遇了亞洲金融風暴和國內特大洪水災害。在此情況下，國有企業經濟效益雖有較大下降，但經受住了考驗。

1999年前三季度，國有企業經濟效益開始呈現良好勢頭。通過兼併，破產，合資，國有大中型工業企業到8月底只有48200家，此1998年底減少了7900家；99年1~9月，全國新增工業產值約US\$1740億，同比增長9.3%，其中國有工業企業新增產值同比增長了7.7%，實現利潤近\$48億，同比增長230%，而虧損同比下降了16.1%。

1999年1~7月，全國31個省，自治區，直轄市中，有24個的國有企業經濟效益好於去年。東北三省都實現了較大幅度的減虧增盈。遼寧省去年上半年虧損45億元，今年上半年虧損11億元，可望今年扭虧為盈。

因此，三年脫困的目標有望實現。這是在國內，外經濟環境普遍不景氣的情況下取得的成績，十分不容易，說明國有企業改革確實取得了很大成效。當然，降息，退稅，打擊走私等措施也給國有企業脫困創造了條件。

目前，國有企業仍為城鄉職工提供了60%的工作崗位，為政府提供了55%的財政收入。

國有企業改革是一場廣泛而深刻的變革。當前，國有企業的體制轉換和結構調整已經進入攻堅階段，一些深層次的矛盾和問題集中暴露出來。由於傳統體制的長期影響，曆史形成的諸多問題，多年以來的重複建設以及市場環境的急劇變化，相當一部分國有企業還不適應市場經濟的要求，經營機制不活，技術創新能力不強，債務和社會負擔過重，富余人員過多，生產經營艱難，經濟效益下降，一些職工生活困難。這些問題不僅關係到國有企業改革的成敗，也關係到整個經濟體制改革的成敗。

### 1. 部份企業生產陷入困境

由於產品銷路不好，庫存積壓增多，佔用了大量的流動資金，影響企業再生產的順利進行。根據第三次工業普查資料，在受調查的402種工業產品中，有83%的產品生產能力利用不足。一些企業技術落後，設備老化，導致許多國有企業消耗大，成本高，浪費嚴重。

### 2. 資產負債率高，不良債務較多

這是困擾國有企業的一大難題。1988年國有工業企業資產負債率為65·9%，比全部工業企業高2·2個百分點；其利息支出占產品銷售利潤的37·9%，達1097億元；還債壓力大，相互拖欠嚴重，有一部分債務已成為呆帳，壞帳。

### 3. 社會負擔重

國有企業承擔了大量社會職能，創辦了很多附屬醫院、學校、食堂等公共福利設施。這些非經營性資產大約占國有企業固定資產的15%。國有企業每年用于職工的社會保障、醫療衛生、住房、教育、文化、體育方面的費用支出，大約占全年管理費用的50%

### 4. 富余人員過多

據統計，國有企業富余職工至少有1000多萬人。按人均年支付一萬元計算，其總支出將達1000多億元，大大超過了這幾年國有工業企業的利潤總額。冗員過多對國有企業的生產成本和勞動生產率都有很大的負面影響。

### 5. 效益下降，虧損嚴重

進入90年代以來，國有企業的經濟效益總體上呈下滑趨勢。1990年，國有企業虧損面和虧損率分別為27·6%，47·3%，到1998年則分別上升到41·5%，68·8%。

1998年，國有工業企業銷售收入利潤率和資金利潤率只有0·43%和0·23%，分別比全部工業企業低1·84和1·4個百分點。

#### IV. 國有企業發展困難的主要原因

國有企業之所以出現發展困難的局面，是由于以下幾個方面的主要原因造成的：

1. 一些部門和企業沒有擺脫舊的計劃經濟體制的影響，管理體制，經營機制和思想觀念還不適應發展社會主義市場經濟的要求，企業經營機制不活，技術創新能力不強。

政企不分的問題遠未徹底解決，企業內部的權·資關係尚未清晰和規範，出資人往往缺位，經營者缺乏有力的激勵與約束，“內部人控制”現象普遍。

2. 國有經濟戰線過長，布局分散，整體素質不高，資源配置不合理

迄今為止，國有工業在總體上仍處于遍地開花狀態。1998年底，在608個工業小類行業中，國有企業涉足的有604個，占99·3%，其中國有大中型企業涉足的有533個，占87·7%。90年代以來，國有企業在主要的高新技術行業中的比重不斷下降，而在部分一般性行業仍維持較高比重。

國有資產使用分散，影響了國有經濟結構優化和總體質量提高。

3. 重復建設嚴重，致使相當一批國有企業陷入困境

長期以來，在部門，地區，企業利益的驅動下，搞“大而全”，“小而全”，盲目投資，重復建設嚴重。

4. 國有企業資本金嚴重不足

這同1983年開始的財政，銀行改革措施有關。

“撥改貸”把國有企業經營性基本建設投資由國家財政撥款改成貸款，從而形成本息總共約8000億元，已歸還一部分，但拖欠相當大。

“全額信貸”使得國有企業流動資金不再由財政撥款，而全部從銀行貸款。到1998年底，僅國家銀行發放的流動資金貸款余額已近50000億元，企業利息負擔重，財務費用在成本中站很大比重。

國家財政預算減少了安排的基本建設投資。“一五”至“五五”其間，國家財政用于基本建設和技術改造的支出占其總支出的40%以上，“六五”，“七五”，“八五”則分別降為30·85%，26·02%，19·98%。截至1998年底，國家銀行向企業發放的中長期貸款余額已達18000億元。

因此，國有企業基本處于負債經營狀態，缺乏乃至沒有資本金，利息負擔沉重。

5. 管理松弛

不少國有企業忽視了最基本的管理，結果產品質量差，生產成本高，資金占用多，企業效益下降，虧損增加。

## V. 21世紀中國國有企業改革與發展的展望

二十年來，中國經濟體制改革在衆多領域全面展開。在生產資料、工業消費品、農產品等商品市場和資本、技術、勞動力等要素市場的建設方面，在計劃、財稅、金融、外貿、外匯和投資等宏觀調控體系形成方面，以及在政府機構改革等方面，都已取得顯著成績。相比之下，國有企業改革仍顯滯後。從總體上看，國有企業尚未真正成為“自主經營，自負盈虧”的主體，社會主義市場經濟的微觀基礎還存在重大缺限，市場機制的作用受到相當大的局限，有時甚至發生扭曲。

要解決好市場經濟與公有制有效結合的歷史性課題，建立和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就必須集中精力攻克國有企業改革這個難點和中心環節。

1999年9月22日，中共中央十五屆四中全會專門通過了《中共中央關於國有企業改革和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以下簡稱《決定》)，對國有企業改革作了戰略性部署，并規定了10條指導方針。這必將把國有企業改革與發展推進到一個全新的境界。

《決定》中除了重申1997年推出的三年目標外，第一次提出了國有企業改革與發展的中長期目標，即到2010年，適應經濟體制與經濟增長方式兩個根本性轉變和擴大對外開放的要求，基本完成戰略性調整與改組，形成比較合理的國有經濟布局和結構，建立比較完善的現代企業制度，經濟效益明顯提高，科技開發能力，市場競爭能力和抗御風險能力明顯增強，使國有經濟在國民經濟中更好地發揮主導作用。

展望21世紀，中國將從改善宏觀環境，調整國有經濟戰略布局，強化國有企業改組與改革三個大的方面，大力推進與國有企業改革與發展相關的綜合配套改革。

### 1. 改善宏觀環境方面

1) 繼續採取1998年以來實行的積極財政政策和適當的貨幣政策，從而拉動國內需求，改善已持續23個月的通貨緊縮趨勢。

1998年增發了1000億元國債，用于加強基礎建設，1999年又增發了600億元國債，加強對國有企業技術改造的支持。一般而言，中國財政政策的周期為3·5年左右，因此，積極的財政政策會延續到下世紀初。

1999年1~9月，中國人民銀行對M2的供應擴大了15%，M1增加了14.8%，流通中M0增加了16.4%。10月20日，中國人民銀行貨幣政策委員會決定適度擴大貨幣供應量，增加對結構調整，科技創新，有效需求的支持。

2) 採取有效措施，改善國有企業資產負債結構，減輕國有企業負擔。

1996年以來，人民銀行連續7次降低利息水平，大大減輕了國有企業的利息負

擔，但進一步降息的空間較小，可能會調整存款準備金率。相比之下，財政政策具有較大操作可能性，譬如中國目前國債余額只占GDP的10.9%，遠低于60%的國際警戒線水平。今后，政府會在加大對國有企業資本金投入的同時，將改變財政控制方式，由過去偏重于基礎建設與總量控制，改為結構控制，支持國有企業改革與發展。

金融體制改革的步伐大大加快。1999年10月，國務院已批准先後成立了“信達”，“東方”，“長城”，“華融”四家資產管理公司，分別由財政部注資100億元(約US\$12.1億)，各自負責建設銀行，中國銀行，農業銀行，工商銀行四家國有商業銀行中與國有企業相關的不良債務問題的處理。比如通過“債轉股”計劃，金融資產管理公司將參與國有企業的經營，管理決策，在國有企業和國有銀行間創造“雙贏”局面。國家經濟貿易委員會已選擇首批100家國有企業交由金融資產管理公司進行評估並實施“債轉股”計劃，並將繼續認定其他申請者。與此同時，中國人民銀行將增加國有銀行核銷呆帳的準備金，主要用于國有大中型企業的兼併破產和礦山自然關閉等。

1999年9月2日，“信達”公司幫助北京水泥廠實施“債轉股”計劃，使其資產負債比由80%多降至32%，因而有望今年扭虧為盈2000萬元(約US \$24.2億)。11月2日，剛成立兩周的“長城”公司與中國華錄電子集團公司和江西南飛紡織機械公司簽定了總量為\$7200萬的“債轉股”計劃。今后，金融資產管理公司的運作規範和效果將是國企改革配套措施中的一個閃亮焦點。

進一步規範資本市場，加大直接融資比例，加強國家股，法人股的流動。中國現有992家上市企業，股票總市值約2.7萬億元，相當於GDP的35%，流通市值近10000億元。目前，中國直接融資比例為30%，其中股票融資低於10%。今后將擴大國有企業上市規模，加強國有企業產權流動。為貫徹1999年7月1日生效的《證券法》中有關把企業上市“配額審批制”改為“核准制”的規定，1999年10月，撤消了原有的全國人大證券委員會，成立了企業上市審核委員會，規範了企業上市程序。

國有企業非經營性資產將逐漸轉交給各地地方政府或社會組織經營管理，同時加強社會保障制度的建設。

## 2. 調整國有經濟戰略布局

《決定》認為“在社會主義市場經濟條件下，國有經濟在國民經濟中的主導作用主要體現在控制力上”，這是重要的理論突破。國有經濟需要控制的行業或領域主要有涉及國家安全地行業，自然壟斷行業，提供重要公共產品和服務的行業，技術產業與高新技術產業中的重要骨幹企業。其他行業和領域，應鼓勵非公有制經濟的發展。

同時，國有資產管理將按照“國家所有，分級管理，授權經營，分工監督”的原則，建立與健全產權的責任制度。

通過調整，國有經濟的產量會增加，整體素質會提高，但在整個國民經濟中的相對比重還會減少。

### 3. 強化國有企業的改組與改革

#### 1) 推進國有企業的戰略性改組

國有企業組織結構仍不合理，主要是重復建設嚴重，企業“大而全”，“小而全”，沒有形成專業化生產，社會化協作體系和規模經濟，缺乏市場競爭力。因此要區別不同情況，在盤活國有資產存量的基礎上，使國有企業有進有出，有所為有所不為，堅持“抓大放小”，着力培育實力雄厚，競爭力強的大型企業和企業集團，股份制的作用將大力發揮，放開搞活國有中小企業，積極扶持中小企業特別是科技型企業，幫助與鼓勵它們向‘專，精，特，新’的方向發展。

#### 2) 建立和完善現代企業制度

現代企業制度是國有企業的改革方向。公司制是目前實現現代企業制度的最好形式，其核心是法人治理結構。

對國有企業特別是國有大中型企業要實現規範的公司制改革，在明確產權的基礎上，關鍵在於完善公司法人治理結構。為此，將繼續推動政企分開，同時確保國有資產出資人到位。如何確定國有資產出資人代表及企業經營管理者的權利與責任，真正建立起《公司法》規定的法人治理結構並依此運作，在將來很長一段時間內會國企改革的一項重要探索活動。年薪制等激勵措施能否單獨解決國有獨資及國有控股公司中的“內部人控制”問題，答案還不明確，繼續向這些企業派出由政府高級官員組成的稽查員(Imperial Envoy)，能否保證國有資產的保值增值也是值得評價的。

在市場繼續完善，環境日益寬松的情況下，國有企業改革最重要的是使國有企業形成適應市場經濟要求的管理體制與經營機制。為此，要進一步發展產權理論，並推動“政企分開”，那時，“責權明確”才有實際意義，“管理科學”將是企業主動追求的境界。也只有到那時，才能有真正的現代企業制度，政府才有可能實施間接調節，彌補市場失靈。

在這個問題沒有突破之前，國有企業建立股份有限公司，有限責任公司，甚至股份合作制企業的改造活動仍會繼續。部分大中型國有企業可能會按“經營者主權模式”運營，部分會逐步向“股東主權模式”靠攏。

## VI. 結 論

中國國有企業的改革與發展已繼續二十年，取得了很大成效。在市場不斷完善，

市場機制不斷強化，市場競爭日益激烈的今天，國有企業的改革與發展也進入了攻堅階段。一方面，曆史形成的體制性深層次問題已集中暴露，促使政府採取更加大膽的改革措施，減輕國有企業的制度約束。另一方面，許多按“公司法”改革過的國有大中型企業仍沒有建立規範的現代企業制度，這又促進了進一步的探索。

看來，國有企業改革仍有很長的路要走，仍有很大風險，特別是政府承擔改革社會成本的壓力越來越大的時候。但不論怎樣，市場取向的經濟體制改革已是中國人民的共識，潮流不會逆轉。國有企業改革不是私有化，而是要加強國有經濟在國民經濟中的優勢地位，因此，國有企業改革也只會前進，不會後退。

儘管國有企業改革涉及複雜的系統，又沒有現成的模式可用，但可以相信的是，在新世紀，國有企業改革必將取得新的成功，國有經濟將會更加壯大。

## 中國國유기업개혁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劉建民博士

(中國北京大學/工商管理學部教授)

「저효율」, 「저소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이미 20여년의 시간을 거쳐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메카니즘도 계속 강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21세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기업개혁의 목적이라면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오고 있다.

첫번째 단계는 1978년부터 1983년까지로서 그 중심 내용은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위한 「放權讓利」의 과정이었고, 두번째 단계는 1987년까지 시행된 분배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利改稅」의 과정이었으며, 개혁의 세번째 단계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로서 책임경영에 그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그리고 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1992년 등소평의 「南巡講話」에 근거해 기업개혁의 폭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심화시킨 다양한 제도의 도입(예를 들면 주식제 등)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현대식 기업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무구조의 개선 작업도 병행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제 20여년의 역사를 지난 중국의 기업개혁은 이미 개혁의 완성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개혁의 방향이 모아지리라 보여진다. 첫째, 어느 일부분의 개혁이 아닌 종합적인 개혁이고, 두번째는 업종별,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에 맞는 기업개혁이며, 셋째로는 현대식 기업경영에 맞는 자산경영을 중시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기업에 잘 조화시킨 법적장치가 마련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중국의 외환제도 변천사에 관한 분석\*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방식의 개방과 경제체제의 변환을 기준으로—

### Historical Analysis of Chinese Foreign Exchange System

—Based on the Open-door Policy of Socialistic Regime and  
on the Transition of Economic System—

조규진\*\* · 최용민\*\*\*

#### 目 次

I. 서 론	3. 경제체제전환 후의 외환관리제도
II. 중국의 외환제도 변천과정	III. 변천과정별 비교분석
1. 대외개방전의 외환관리제도	V. 결론—이론적 및 학문적 유용성
2. 대외개방후의 외환관리제도	

## I. 서 론

중국은 거대한 규모의 부존자원과 무한한 잠재적 시장규모를 가진 데다가, 우리나라와 문화적 요소가 유사하고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매력이 있는 진출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진출대상국의 외환제도는 자금결제와 관련한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관리제도에 대한 정보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에 대한 교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에 대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변환과 외환관리체제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에 진출하는데 제일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인 외환제도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의 대외개방정책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환이라는 중국의 세계시장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등소평

\* 이 연구는 광운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영학 박사.

\*\*\* 한국무역협회 국제 연수부, 경영학 박사.

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중요성을 띠게 된 외환제도가 전국 초 모택동의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기조와 어떻게 다른가하는 것과, 그러한 외환제도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환을 함으로써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있다고 볼 수 있다.

폐쇄적이었던 모택동과는 달리, 둉소평은 198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방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계획경제체제로 인하여 개방을 하기에는 상당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업과 같은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고 경제전반에 대한 조정은 국가계획에 의한다는 것으로서, 국민전체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를 국가계획에 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체제란 말은 기업과 같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수단을 민간이 소유하는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며, 계획경제체제란 말은 전반적인 경제의 조정을 국가계획이 한다는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장에 의해 경제가 조정되는 시장경제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다 1990년대 초 둉소평은 사회주의체제는 유지하되 개방정책 및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주의의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경제체제 자체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이 논문은 2개의 사건 즉,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개방과 경제체제의 변환이라는 사건을 시대적 구분의 기준점으로 삼아, 외환제도의 변천과정을 3개의 시대로 나누어 그 기간마다의 외환제도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3개의 시대란 개방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시대, 개방 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시대 및 경제체제의 변환을 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시대를 말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개방 전과 개방 후 및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후로 시대를 3단계로 구분한 상태에서, 각 기간마다의 대외개방의 기조 및 외환관리체제에 대한 변천과정을 찾아보고, III장에서는 각 기간마다의 외환에 대한 여러 특징들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후 IV장에서는 이 논문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유용성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 II. 중국의 외환제도 변천과정

### 1. 대외개방전의 외환관리제도

모택동은 1949년 사회주의국가를 설립하면서 사회주의이론에 따른 자급자족의 원칙에 따

라 국가경제를 이끌어, 국내에서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제품이 많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와만 교류를 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초창기에는 외환에 대한 기본개념이 별로 잡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스탈린이 통치하는 구소련의 사회주의모델을 답습하는 식으로 국가경제의 틀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후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는 등으로 기존의 노선을 바꾸자, 국가경제의 틀을 어느 정도 확립하였다고 자신한 모택동은 후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에 대해 반발한다는 명목으로 소련과는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발전을 위한 첨단설비나 대규모 생산설비를 수입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을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여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선에서 소련 대신에 오히려 몇몇 자본주의 국가들과 최소한의 교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건국 초기에는 외환에 대한 기본개념도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회주의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국가의 우수한 생산설비를 수입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국가의 환율도 안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중국정부가 외환에 대해 직접 통제하는 방법으로 외환관리를 하였다. 사회주의국가 건설 직후에는 외환관리를 각 행정구 단위로 분산관리 되었던 것을, 국가가 전체의 경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자 전국적으로 통일된 외환제도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은 고정된 인민폐 환율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고정환율제도( $1\$ = 2.4618\text{元}$ )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환율이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안정됨에 따라 인민폐의 환율도 큰 변동 없이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외환제도는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이론에 의한 자급자족의 원칙에 의해, 가능한 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 움직여지는 국가와 교역을 하지 아니하는 데에 그 기조를 두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화폐자본의 사적인 축적이 빈부의 격차를 가져온다고 비판한 관계로, 민간인은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만 소유할 수 있었지 민간의 화폐축적은 금지되었으며, 대신 모든 축적화폐는 국가가금화되었다. 기업도 축적된 화폐를 가지지 못하고 모두 국가계획의 관련 속에서 국가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원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허용되고 있는 사적 자본축적이 부의 불평 등을 가져온다고 비판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국가의 대외교역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제국주의적 착취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내적으로는 국가기금에서 조차 화폐축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또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세계적 착취의 확장에 대한 방어책으로 이들 국가와는 교류를 가능한 한 하지 아니하는 무역정책의 기조를 세웠다. 즉, 가능하면 사회주의국가하고만 대외교역을 하되, 사회주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사회주의국가에는 없는 자본주의제품의 수입을 위해 자본주의국가와 교역을 하고, 이를 위해 경화를 준비하는 정도였다.

1970년을 지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브雷튼우즈체제 붕괴에 따라, 중국정부는 통화바스켓의 가중평균에 의한 환율결정방식을 채택하였다. 그전까지 공정환율을 실시하던 중국은 통화바스켓의 가치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복수통화군 연동환율제도(Basket Currency Pegging System)를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국제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화에 따라 인민폐의 환율은 조정되었고, 또한 전문적 외환기구인 국가 외환관리국이 설립되었다. 그 결과 자국화폐의 가치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1981년 1월에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58까지 낮아지기도 하였다<sup>1)</sup>.

## 2. 대외개방 후의 외환관리제도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1980년대에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의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등소평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와 관계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변하지 아니하고, 경제의 조정과 관련되는 계획경제체제의 일부만을 변화시켰다. 즉,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제품가격은 국가고시가격으로 하되 기업경영은 국가계획지표가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청부경영제도를 실시하여, 유연한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한 것이다. 국가계획지표에 의해 기업경영을 하고 국가계획에 따른 국가고시가격에 제품가격을 정한다는 과거의 폐쇄적이면서도 경직된 계획경제체제는 개혁하였으나, 기업 등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사회주의체제는 전혀 변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또한 기업이윤을 국가기금에 환수하지 아니하고 기업에 유보시킬 수 있게 하는 이윤유보제도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인정하는 이개세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내의 이윤제도나 조세제도를 개혁하였다. 기업도 생산량에 따른 국가계획지표에 의한 기업경영의 틀에서 벗어나 판매액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나 기업 내 이윤축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해 중국기업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도 자유로운 생산 및 판매활동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

사회주의발전을 위한 등소평의 기업개혁은 첨단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무역정책의 변화 및 외환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내수위주의 경제개혁은 소비수요의 한계와 자본부족으로 인해 부분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그쳐 한계를 가졌기 때문인데, 결국 이는 자연스럽게 대외개방론과 연결되었다.

1) 이상준(1985), *중공경제론*, 박영사, pp. 91~158; 바네트, A. 도크 (1983), *중공의 도전* (역: 신영준), 홍성사 pp. 33~109; Grummitt, K.P.(1986), *China Economic Handbook*, Euromonitor Publications, pp. 4~15; von Lingelsheim-Seibicke, W.(1985), *Das China-Geschäft Heute und Morgen*, Deutscher Wirtschaftsdienst, pp. 33~38.

대외개방의 근간은 무역제도의 개혁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자본의 유치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자금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외환관리제도를 개혁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기업개혁의 파고로 인한 대외개방의 일환으로 무역관리제도의 개혁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무역정책의 변화는 곧 외환관리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과감한 무역정책의 변화 및 외환제도의 변화는, 회소한 외환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외환부족으로 인한 근대화의 장애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에 따른 외환관리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자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중국이 외환관리제도에 대한 골격을 드러낸 것은 1979년 8월 국무원이 '대외무역의 발전과 외환수지 증가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규정'을 공포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외환이란 외국화폐, 외화유가증권, 외화지불증서 등을 말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때부터 무역 및 무역외 외환에 대한 외화보유제도를 실시하고 무역결제 시 환율개념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이어 외환부족분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외국투자기업을 외환규제 면에서 상당히 우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외환당국인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화구좌, 외화수지의 관리, 외화균형 등 갖가지 의무를 부여받고 있어 외환규제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외자기업의 외화소유를 허용했지만 외환관리국이 지정한 구좌에 맡겨야 하는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이 당시의 외환관리제도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한다는 원칙 하에서 추진되었으나, 제품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 생산설비와 기술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외환관리제도는 제품수입을 규제하거나 외국인투자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제품수입의 규제는 주로 외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에는 외환사용허가제도나 이중환율제도 및 계속적인 평가절하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개방초기에는 거래자격 요건과 거래가능외환 및 자금의 용도에 따라 거래의 제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개방정책의 진전에 따라 무역규모가 확대되자 외환에 대한 규모 및 수급의 불균형도 더욱 확대되었다. 외국인투자의 제한은 자회사건설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는 외자기업에게 적용되는 외환수지 균형의무와 수출의무비율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획득한 외화는 공정환

2) 양평섭(1993),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30; 국제무역연수원(1998), 주요 수출시장 마케팅 전략과정, 한국무역협회, p. 36; White, G.(1994),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pp. 74~80.

율로 중국은행에 매각하고 그 외화는 중앙정부의 외환준비고에 편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외화획득자에 대해 수출로 획득한 외화 중 일정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대외활동을 통해 획득한 외화의 일정비율을 외화획득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연해 일부 개방지역에 대해서만 외환유보제도를 적용시키다가 점진적으로 내륙지역에까지 확대하였다. 상품별로 볼 때,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석유, 석탄제품 등에 대해서는 유보비율을 3%로 하는 반면 기계나 전기제품은 35%를 기업에 유보할 수 있도록 차등화하여, 수출전략제품에 대한 장려를 국가가 유도하였다.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또한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올리고 기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유보비율에 있어서의 특정지역에 대한 우대정책을 폐지하여 전국적으로 지방과 무역기업의 유보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특히 이 당시에는 교역부분과 비교역부분에 대해 외환관리 형태를 다르게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교역부분에 있어서도 수출과 수입의 경우도 다르게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수입과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상태에서 수출을 촉진하여 개방을 통한 사회주의발전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교역부분의 외환관리 중 중국 내 기업이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게 하여 과다한 수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이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외환을 사용할 때에는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환사용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외환사용허가제도를 통해 수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수입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후 관련계약을 맺고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환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의 유출방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통제하였는데, 중국정부는 수출대금 회수에 관하여 심사 뿐 아니라 확인까지 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수출을 통한 외환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회수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중국기업은 수출 시에도 외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였다. 중국기업이 수출입 결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화는 인민폐와 교환이 가능한 통화여야 하며, 지정통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비교역부분에 있어서의 외환관리란 개인의 외환과 해외건설 청부, 노무수출, 리스업무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외환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중국정부는 원칙적으로 중국 내에서 외환의 유통을 금지하고 외화태환권(FEC : Foreign Exchange Certificate)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외화에 의한 결제와 유통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유한 외화는 모두 은행에 매각해야 한다. 즉, 국가가 그 보유를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개인은 외환을 가질 수 없고, 반드시 중국은행에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국가에서 경제체제가 다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 대해 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절장치가 필요하였는데, 중국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은 억제한다는 원칙아래 사회주의의 독특한 이중환율제도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즉, 중국은 환율을 공정환율과 조절환율로 나뉘어 이중환율제도를 실시하였는데, 공정환율은 국가외환관리국이 매일 발표하는 환율인데 비해, 조절환율은 중국의 특수한 외환거래시장이라 할 수 있는 외환조절센타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무역량과 외화량이 차츰 많아지자 이중환율제도에 변동환율의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어, 인민폐의 환율이 결정되는 데에는 중국의 국제수지상황, 수출단가, 주요 경쟁국의 환율변동 등이 많이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무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자본주의적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수출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수입관세를 인하하였으며 수입질약세를 폐지하는 등, 종래의 행정적 규제에 의한 수출확대와 수입 억제정책의 추진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결과 차츰 인민폐는 계속 평가절하되어 세계시장환율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상기한 이중환율제가 온전히 발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외환조절센터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외환과 인민폐를 교환하는 중국 특유의 외환조절센터를 개설하여, 외환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외환조절센터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국가로서 세계시장경제체제와 교역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에게, 계획적 외환배분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가지는 국가인 중국의 특수한 외환기구였다. 이러한 외환조절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일부지역에 한정되었던 외환조절센터의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시장의 유형도 다양화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거래참가대상 및 범위를 기업, 정부, 외자기업의 외환 뿐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는 외화현금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조절센터의 조절환율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의 외환조절센터에서 거래자가 협의 하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원칙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가치기준은 공급자측면의 노동시간이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가치기준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가치기준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에서 통용되는 화폐간의 환율을 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회주의발전을 위한 자본주의국가로의 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환조절센터라는 제도적 장치에 기반을 둔 이중환율제도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외환조절센타란 외자기업간 외환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주로

미 달러, 홍콩달러 및 일본 앤화가 취급되었다. 외자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외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족분은 조절센터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국내 수출기업은 제한적으로 외화 사용권을 가졌으며 외화할당제의 적용을 받았다. 외환조절센터는 지방의 프로젝트사업이나 생산설비건설 및 기술도입에 필요한 외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각 지방에 있는 외환관리국으로 하여금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절센터에서는 인민은행이 당일 고시한 중심환율의 고정가격으로 거래되며, 조절센터의 결제부를 통해서 기업간에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외환조절시장을 통해 수출기업은 보유외환을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얻을 뿐 아니라 수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으며,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외환조절시장을 통해 원자재, 부품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적기에 확보하여 수출을 촉진할 수 있었다. 또한 외환조절시장은 외자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수출을 중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얻어, 중국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기업의 개혁과 국제화를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가치기준이 다른 화폐간의 환율제도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수출입 구조는 왜곡되고 국제수지 구조도 열악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도 보게 되었다. 외자기업에 대해서 외환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외환조절참여를 허용하였지만, 공정환율과 조절환율의 편차는 점점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업개혁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자, 중국정부는 인민폐의 거래가격을 점차 자유화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sup>3)</sup>.

### 3. 경제체제전환 후의 외환관리제도

1990년대가 되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중국은 세계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었는데, 이를 위해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세계시장경제체제의 편입에 따른 무역관리방식 변화에 따라, 각각의 기업마다 외환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특히 환율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94년 4월에는 대폭적인 외환관리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전까지 유지되어온 공식환율과 시장조절환율이라는 이중환율제가 폐지되었으며 외화태환권도 사라졌다. 이

3) 지역정보센터(1994), 중국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568~570; 양평섭(1993),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56~118; Herrmann-Pillath, C.(1987), *Inflationsprozesse in der VR China seit 1979*, pp. 45~74; Klenner, W.(1988), "VR China", (in: *Die Wirtschaft Osteuropas und der VR China 1980~1990*), pp. 639~641

증환율제도에서 단일변동환율 제도로 변동함과 동시에, 과거의 외환조절센터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도록 한 상태에서 은행간 외환거래시장을 신설하였다. 외화는 은행간 외화거래시장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FEC의 신규발행과 유통은 금지하였다.

상해를 시작으로 하문과 대련 등 12개 지역에 온라인망으로 연결된 외환거래센터가 개설하면서, 시장수급에 의해 환율이 움직이는 외환거래시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외환거래센터는 은행과 고객간에 직접 외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개입을 통해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 계획경제의 한 축으로 움직이던 환율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외환조절센터는 외자기업간 외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데 비해, 외환거래센터는 은행간 외환 과부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간 외환거래나 은행과 중앙은행간 거래의 형태를 띠고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외환조절센터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당일 고시한 중심환율의 고정가격으로 거래되는데 비해, 외환거래센터에서는 중앙은행이 참여해 환율안정을 도모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일 종가의 0.25% 이내에서 은행간 자기매매나 공개경매 및 공개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거래외화는 미 달러, 홍콩 달러, 일본엔 등이 중심된다는 점은 양 거래센터가 동일하다.

외환거래시장체제에 의하면 국내기업은 가지고 있는 보유외화를 모두 은행에 매각하고 필요외화는 은행에서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외자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분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조절센터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외환관련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총괄하고 중앙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세부적인 운용에 대해 책임지게 하였는데, 경제체제전환 후 중국의 외환관리에 대한 법적인 면모는 외환관리 잠정조례에 대한 대체입법 차원에서 외환관리조례가 발효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sup>4)</sup>.

특히 1996년 12월부터는 IMF 8조국에 따른 경상거래 자유화에 동참함으로써, 외환제도에 대한 개혁을 더욱 가속화시켜 왔다. 특히 인민폐에 대해 태환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는 IMF 8조국으로서의 이행조건<sup>5)</sup>이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분야에 대한 국제지불과 이전에 대한 규제도 철폐되었다. 이로 인해 외환거래센터의 활성화와 동시에 환율도 실질적으로 외환거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환율은 기준환율로 볼 때 일일 0.25%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일반적인 매매율 차이는 0.5%선이 된다. 환율의 결정은 미국의 달러,

4) 한국무역협회(1988), 중국 비즈니스 실무가이드, pp. 131~133;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1996, p. 26; 대한상공회의소(1997),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변화, p. 254.

5) 8조 2항은 어떤 회원국도 IMF의 승인없이는 현행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과 이전에 대해 재약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의 달러, 일본 엔화의 경우 외환거래센터에서 직접 결정되며, 그 밖의 통화에 대해서는 재정환율을 통해 환율이 정해지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정환율은 통상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기타 통화와 미 달러화의 환율과 기준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은 이와 같이 이중환율제에서 단일관리변동환율제로 탈바꿈하고 은행간 외환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등 외환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인민폐에 대한 태환성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외국환에 의한 수출입 결제가 서류상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환결제, 매도 및 지불관리가 가능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다만 기업과 지방정부는 외화를 외국환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에 매각하는 대신, 외환의 일정사용권을 인정받는 할당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체제의 변환 후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고 외자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시도한다고 하여도, 외자기업에 대해 완전한 자율성을 준 것은 아니다. 외자기업에 대해 매년 외환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외환시장에 직접 외화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외환수지 균형의무를 부과하여, 수출을 통해 조달한 외화범위 내에서만 외화결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수지 균형의무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중국의 IMF 8조국 가입과 관련하여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외자기업은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는 있지만, 차입내용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내용 사본을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외환차입등기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또한 외화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자회사나 계열사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인민폐를 통해 외화를 조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대외무역경제 합작부와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기업의 과다한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납입자본금의 이전이나 투자회수금 및 외국에 대한 이운 등의 과실송금에 대해서도 외환관리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도록 하고 있고, 해외투자, 원조, 대출과 같은 자본거래에 의한 외화지출은 별도의 심사 및 인가대상의 범주에 넣었다. 특히 무역외 항목의 지출을 위한 외화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금융기관의 지불통지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중국정부는 일반 수출입 대금결제 및 투자이운 송금 등에 소요되는 외환에 대해서는, 외환 관리국의 사전심사와 승인을 폐지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직접 환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외국국적 종업원의 임금송금을 위해서는 송금액이 전체 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또한 송금 시 임금 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한 후 기업의 외화예금구좌를 통해 송금하도록 하여, 외화의 유출을 통제하였다. 외국인은 외화를 보유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데, 예금액은 당초 임금 한 통화나 인민폐로 인출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보세구역 외환관리규정'을 통하여 보세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여타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비해 외화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외화사용 시 매번 외환관리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타지역과 달리, 외국환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외화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환관리국에서 발행한 외환등록증은 보유하고 있도록 하여, 무제한의 외화사용은 가능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가운데에서의 개방정책과 1990년대 이후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체제변환과 관련하여 점진적인 외환정책을 실시한 결과, 중국원화의 환율은 점차적으로 평가절하가 진행되어 세계경제체제에 큰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국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었다. 그리하여 1980~1990년 사이에는 1달러에 1.5원에서 8.3원으로 5배로 절하되었으나, 단일변동환율제도를 받아들인 95년 이후 현재까지는 1달러에 1.83원을 오가는 추이를 보여 오히려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sup>6)</sup>.

### III. 변천과정별 비교분석

자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외환관리는 크게 3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요약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단계는 1949년에서 1978년까지 약 30년에 이르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의 폐쇄경제시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주로 모택동이 중국을 지배하였던 시기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는 상태에서 자본주의국가의 우수한 생산설비나 기술을 수입하기 위해서만 대외적인 개방을 한 시기가 된다. 중국의 외환관리는 사회주의국가 건설 직후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구 단위로 분산 관리되었다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질서가 확립되자 바로 국가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관리체제의 외환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의 환율제도는 세계적인 환율변동으로부터 최소한의 영향을 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의 화폐의 불안정이 계속되자, 1970년대 초에는 여러 화폐로 이루어진 복수통화군에 연결되어 환율이 움직이게 하는 복수통화군 연동환율제도를 채택하

6) 국제무역연수원(1998), 중국시장마케팅전략과정, 한국무역협회 p. 74; 국제무역연수원(1996),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한국무역협회, pp. 32~33; 지역정보센터(1994), 중국편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570~578; Shao/Herbig(1995), Marketing inside the Dragon—despite China's Bureaucracy, pp. 66~70; Parker/Pan(1996), Refor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pp. 110~123.

였는데, 이로 인해 자국화폐의 안정효과는 물론 가치상승효과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단계는 1978년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국내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개혁정책과 함께, 국외로는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개혁과 개방을 통한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주의 근대화를 이루자는 기치 하에,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수지관리 정책에 따라 외화유보제도와 내부결제환율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외환조절센터를 설립한 후 공식환율과 조절환율이라는 이중환율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유지와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 하였다. 또한 국가계획에 의한 외환관리에서 중국은행에 외환관리를 위탁할 뿐 아니라, 기존 중국은행에서 독점하였던 실무적 외환업무를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분산관리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셋째 단계는 1990년대 초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로의 체제

#### 〈각 시대별 변천과정에 대한 비교분석〉

경제 체제	(폐쇄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개방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기간	1949-1978(도택동)	1979-1990(등소평)	1990-현재(등소평/강택민)
대외 정책	자급자족의 원칙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과 개방	경제체제의 변환과 세계시장에 편입
수출입과 투자	필요한 것만 수입	수출을 위해 수입, 제한적인 외국인투자 허용	세계시장경제체제와 같은 외국인투자와 수출입허용
환율 제도	고정환율제, 복수통화군 연동환율제	이중환율제(공정환율과 조절센터환율)	단일변동환율제도
외화 관리	국내기업은 원칙적으로 외화를 소유하지 못함. 외자기업은 존재하지 아니함.	국내 수출기업은 외화 할당제의 적용을 받으면서 제한적으로 외화사용권을 가짐 - 외자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외화를 사용하고 부족분은 조절센터에서 구입	국내기업은 보유외화는 모두 은행에 매각하고 필요외화는 은행에서 매입- 외자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외화를 사용 가능
외화 시장	외화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계획에 의해 중앙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에서 관리	외환조절센터를 통한 소규모시장이 존재	은행간 외화거래시장이 존재- 외환조절센터 기능은 한시적 존속
외화결제 및 유통	외화나 FEC의 유통 및 결제 금지	외화유통은 불법- 외자계 기업간 외화표시 거래허용- FEC유통	국내 외화유통 및 결제금지- FEC의 신규발행과 유통금지

변환을 하는 것에 편승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중국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변환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중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세계시장경제로의 편입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외화거래시장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설립과 경상거래자동화에 동참하면서 결국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가 계속되자 선진국으로부터의 제도 개혁 요구가 높아져, 무역관리제도의 기조를 종래의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라는 원칙에서 균형적 수출입화대라는 원칙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천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 IV. 결론 – 이론적 및 학문적 유용성

지금까지 본문에서는 중국의 외환제도에 대한 사적 변천과정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의 개방 및 경제체제의 변환과 관련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중국의 외환제도 변천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즉,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의 개방 및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로의 체제변환을 시대적 기준점으로 하여 나누어진 3기간에 있어서, 각 기간에서의 외환제도의 특징을 시대적으로 찾아보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은 학문적 및 실무적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학문적으로는 중국 외환제도의 변천과정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개방과 경제체제의 전환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는 점이다. 즉 외환제도의 변천과정을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서, 폐쇄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자급자족의 원칙 및 외환제도의 성격, 개방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외환제도 성격 및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변환 후의 외환제도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중국 외환제도에 대한 문헌은 외환제도의 변천과정을 아무런 구분 없이 기술하는 것에 그쳤는데 비해, 이를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3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외환제도를 폐쇄정책과 개방정책을 평가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외환제도로 나누었다. 과거 모택동의 폐쇄적이었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는, 등소평의 집권 이후 내부적으로의 기업개혁정책과 외부적으로의 대외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외환제도에 대한 변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개방으로 영향을 받은 외환제도의 변천과정을 다루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

제체제로 경제체제의 변환이 이루어 졌을 때, 중국의 경제전반은 경제체제의 변환에 따라 세계시장경제체제에 완전히 편입됨에 따라 외환제도 또한 당연히 그 틀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다루었으며, 이러한 경제체제와 외환제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본 논문의 이론적 유용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외환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이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현재 개방경제에 의한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대 목표로 내세우면서 외자유치와 경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21세기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중국시장은 세계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즈음하여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현재의 외환제도에 대한 숙지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의 외환제도는 아무리 중국경제가 세계시장 경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이러한 현재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는 과거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 중에는 등소평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체제변환이라는 시대적 변천과정과 이러한 변천에 따른 외환관리체제의 관련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출대금회수나 투자에 대한 과실송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반발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국진출기업은 과거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 있어서의 외환제도를 비롯한 중국 외환제도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중국외환제도의 현 상황 뿐 아니라 큰 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임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 국가에 대한 수출입 및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논문은 중국의 대외개방의 전반적인 추세와 이 속에서의 외환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는 실무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국제무역연수원(1998),『주요수출시장 마케팅 전략과정』, (서울, 한국무역협회).
- 대한상공회의소(1997),『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변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바네트, A. 도크(1983),『중공의 도전(역:신영준)』, (서울, 흥성사).
- 양평섭(1993),『중국의 외환관리제도』,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상준(1985),『중공경제론』, (서울, 박영사).

지역정보센터(1994), 『중국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1988), 『중국 비즈니스 실무가이드』, (서울,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1996), 『대중국 비즈니스전략』, (서울, 한국무역협회).

〈외국문헌〉

- Grummitt, K.P.(1986), *China Economic Handbook*, Euromonitor Publications, London.
- Herrmann-Pillath, C.(1987), *Inflationsprozesse in der VR China seit 1979*,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Köln.
- Klenner, W.(1988), "VR China", (in : *Die Wirtschaft Osteuropas und der VR China 1980-1990*(eds. : Höhmann, H.-H./Seidenstecher, G.), Hamburg, Verlag Weltarchiv, pp. 595~643).
- Parker, D. and Pan, W.(1996), "Refor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09~127.
- Shao, A.T. and Herbig, P.(1995), "Marketing inside the Dragon—despite China's Bureaucracy",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 12, No. 1, pp. 65~76.
- Von Lingelsheim-Seibicke, W.(1985), *Das China-Geschäft Heute und Morgen*, Köln, Deutscher Wirtschaftsdienst.
- White, G.(1994),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1, Jan. pp. 73~91.

## Historical Analysis of Chinese Foreign Exchange System

Gyue-Jin, Joe · Yong-Min, Choi

### Abstract

Based on the open-door policy under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and on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China's foreign exchange system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

In the first period (1949~1978), China had fixed exchange system mainly and thereafter basket currency pegging system in order to maintain the closed socialistic planned economy. Through this closed policy, China wanted to keep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purely from the so-called capitalistic exploitation.

In the second period (1979~1990), China adapted the double exchange rate system in relation with foreign exchange certificate. In this open-door policy under socialistic planned economy, China wanted to solve the insufficient resources problem through the limited trade with capitalistic nations, while maintaining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In the third period(1991~ ), China has been involved into the world market system through transforming the economic system, that is, from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to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And China accepted th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economy actively.

Key Words : Economic System, Open-door Policy, Foreign Exchange Control,  
Foreign Exchange Certificate : FEC